

영화의 메카 충무로





영화의 메카 충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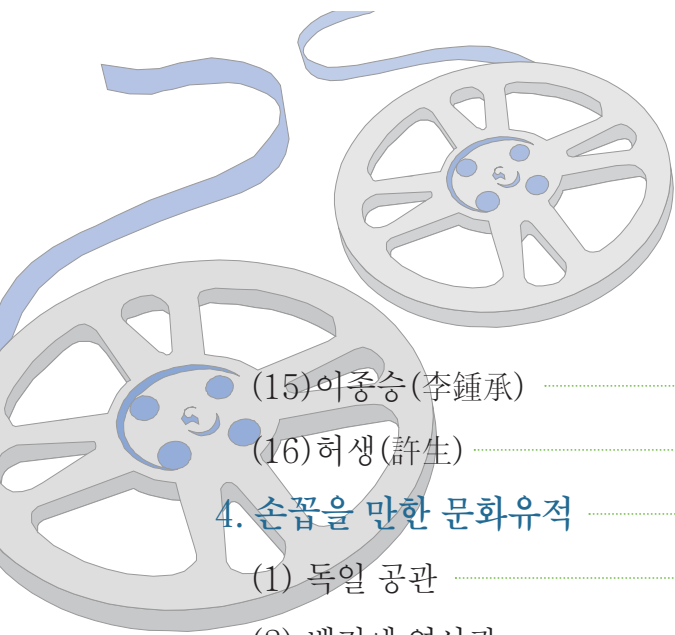


목 차

발간사	9
축간사	10

제1장 조선시대의 충무로

1. 마을이름과 유래	17
2. 충무로의 발자취	38
3. 충무로에 살았던 사람들	48
(1)조말생(趙末生)	48
(2)박팽년(朴彭年)	48
(3)박은(朴闇)	50
(4)정작(鄭碣)	52
(5)유성룡(柳成龍)	52
(6)심희수(沈喜壽)	54
(7)유영경(柳永慶)	55
(8)이민구(李敏求)	56
(9)윤선거(尹宣舉)	57
(10)김광국(金光國)	58
(11)홍양호(洪良浩)	58
(12)윤시동(尹蓍東)	60
(13)정수동(鄭壽銅)	61
(14)김상현(金尙鉉)	63



(15)이중승(李鍾承)	64
(16)허생(許生)	64
4. 손꼽을 만한 문화유적	67
(1) 독일 공관	67
(2) 벨기에 영사관	67
(3) 일본영사관과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68
(4) 장흥고(長興庫)	71
(5) 일본공사관	71
(6) 초정(椒井)	72
(7) 필동교(筆洞橋)	73
(8) 균역청(均役廳)	73
(9) 무침교(無沈橋)	75
(10) 진고개	75
(11) 풀무재[冶峴]	77

제2장 개화기의 총무로

1. 일제의 침략과 군사 주둔	81
2. 근대화 시설과 경관의 변모	84
3. 남촌(南村)의 형성과 일본인의 거주 과정	90
4. 한국 침략의 본거지-총무로	99
5. 일본인의 상권 장악 과정	101

제3장 일제강점기의 총무로

1. 일본인의 도시화 개발과정	107
2. 조선 경제권의 장악과 상가의 형성	109
3. 근대화 시설	116
(1) 혼마치(本町)빌딩	116
(2) 아사히(朝日)빌딩	116
(3) 미쓰코시(三越)백화점	117
(4) 미나카이(三井)백화점	118
(5) 히라다(平田)백화점	118
(6) 공동상업빌딩	118
(7) 모리나가 캔디스토아	119
(8) 메이지제과(明治製菓) 매점(賣店)	119
(9) 파성관(巴城館)	120
4. 영화전래의 발상지 ‘충무로’	121
5. 무성영화시대와 충무로	122
(1) 연쇄극과 극영화의 등장	122
(2) 극영화 「월하의 맹세」의 탄생	126
(3) 「춘향전」과 사극영화	128
(4) 충무로가 배출한 3인의 영화 선구자	130
(5) 춘사 나운규와 「아리랑」	134
(6) 변사 성동호의 「아리랑」 해설 원고	142
6. 발성영화와 충무로 시대	147
(1) 발성영화시대를 연 「춘향전」	148
(2) 외국영화의 상영과 극장가	152
(3) 한국영화의 제작과 사회상	154



(4) 태평양전쟁과 통제시대	160
-----------------------	-----

제4장 광복 후의 충무로

1. 다시 찾은 거리 ‘충무로’	167
2. 한국영화의 새로운 출발	170
3. 정부수립과 충무로 영화문화	174
4. 6·25 전쟁과 한국영화와 영화인	177
5. 최초의 키스 장면, 「운명의 손」	182

제5장 한국영화의 성장기와 충무로

1. 「춘향전」과 사극영화 붐	187
2. 「열애」의 실존인물과 홍성기 감독	192
3. 명동과 문인들의 낭만과 영화	197
4. 「피아골」의 검열 수난	199
5. 「자유부인」과 여성 통속극	201
6. 1959년도 서울의 극장 분포	204

제6장 영화의 대명사, 충무로

1. 영화의 거리, 충무로	209
2. 삭발로 연기한 김진규와 최무룡	210
3. 최초로 일본에 현지 촬영한 김기영 감독	214

4. 5·16과 충무로 영화시대	218
5. 「춘향전」과 「성춘향」의 경작(競作)	224
6. 문예영화의 대표작 「오발탄」	226
7. 군부 통치시대와 전쟁영화	227
8. 청춘영화와 「맨발의 청춘」	230
9. 충무로의 여관과 다방	231
10. 충무로의 극장	235
(1) 국도극장	235
(2) 스카라극장(수도극장)	236
(3) 명보극장	239
(4) 대한극장	242
(5) 중앙극장	245
(6) 극동극장(아테네극장)	247

제7장 영화의 전성기, 충무로

1. 충무로 영화사의 전성기	251
2. 「미워도 다시 한번」과 「결혼교실」	257
3. 서민의 우상, 김승호의 연기세계	261
4. 고도성장의 1970년대 충무로의 물결	264
5. 충무로의 증인 ‘제작부장’	275
6. 이만희 감독과 ‘충무로 영결식’	278
7. 문학과 영상의 밀회(密會)	281
8. 변화하는 한국영화의 면모	284

9. 컬러TV시대와 충무로의 쇄신	292
10. 충무로에 명멸한 영화잡지	295

제8장 영화의 고향, 충무로

1. 충무로는 영화인의 등지	303
2. 충무로 영화감독의 계보	308
3. 충무로 영화인의 혼맥(婚脈)	313
4. 의리와 신의의 배우, ‘충무로 3인방’	320
5. 충무로는 살아있다	323
6. 되살아나는 ‘충무로 영화의 거리’	329

< 부록 >	331
1) 역대 해외영화제 수상 작품	331
2) 대한민국 50년 한국영화 베스트 50	334
3) 연도별 관객동원 1위 작품	336
○ 참고문헌	338
○ 충무로 관련 연표	339

< 주(註) >	351
----------------	-----

중구 문화원 임원	356
-----------------	-----

발 간 사



우리 구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충무로를 2 년여에 걸쳐 자료수집 및 연구를 거쳐 중구 향토사 자료 제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거리 충무로는 인현동의 이순신장군의 출생지이면서 충무로3가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발상지, 한국영화의 메카, 한국의 허리우드, 한국영화의 산실 등으로 불리어 온 영화인의 낭만과 애환이 깃든 거리입니다.

충무로! 학창시절 기말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의 단체영화관람, 선남선녀들의 데이트코스의 명소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개봉관, 영화제작사, 영화배우, 감독 등 각종 영화단체가 밀집되어 70년대 말까지 한국영화 그 자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충무로를 소재로 한 서울야곡, 진고개 신사 뿐만 아니라 동백아가씨 등 가요의 제작 발표의 무대가 되었던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느덧 충무로는 영화의 메카에서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사진업, 인쇄업이 이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영화가 없는 충무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영화계와 뜻있는 지역단체에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거리 추진 및 축제 등 다시 한번 충무로의 전성시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영화애호가 뿐만 아니라 충무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익히고 귀중한 자료로 남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문화원은 우리구의 향토사료를 수집 발굴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성낙합구청장님과 김동학 구의회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영화연구가 정중화 대표, 서울역사문화포럼 박경룡 회장님과 향토사연구위원회 위원 등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남 상 만

축 간 사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의 중구 향토사 자료 제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사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바람으로 강대국의 문화에 약소국의 문화가 편입, 동화, 소멸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갈수록 문화의 획일성과 상업성이 눈에 띄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족문화를 가꾸고 계승발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족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민족정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고 민족공감대와 일체감을 갖기가 어려워 집니다.

민족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역 향토 문화입니다. 지역 향토 문화는 고유성과 개성을 가진 특유의 문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 발행하는 『중구 향토사 자료총서』는 귀중한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구 향토사 자료총서』는 중구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수반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중구를 좀더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귀중한 향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성 낙 합

축 간 사



우리 구 지방문화자산의 발굴, 전승의 산실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의 중구 향토사 자료 제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원 이래 중구문화원은 향토사로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문화원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문화원에서는 중구 지방문화재 지정, 명동변천사 정리 등 중구 주요 지역문화 발굴 및 전승의 기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또한, 국산영화의 개화기가 시작된 1955년 “춘향전”이 국도극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이후 한국영화의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한 충무로를 영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중구만의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충무로는 현재 영화관련 단체 9 개소와 10 개의 영화사, 11 개의 극장, 26 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최근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현대식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등 과거의 명성을 능가하는 세계속의 최고의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의 명성을 활용하여 영화 견본시, 영화축제 등을 통해 영화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패션산업과 영화산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무로를 영화예술인의 거리로 특화함으로써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남상만 중구문화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김 동 학

충무로 일대의 극장, 문화재 현황





● 극 장

1. 대한극장
2. 명보극장
3. 스카라
4. 국도극장 터
5. 중앙시네마
6. (구)국립극장
7. CGV 명동5
8. 매직시네마
9. 명동시네마
10. 극동극장
11. 삼일로 참고극장(연극)

● 문화재 및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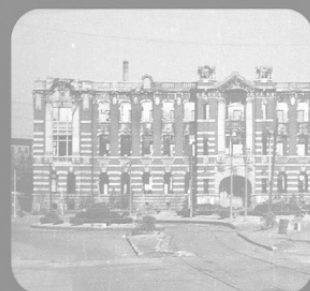
1. 주자소 터
2. 균역청 터
3. 진고개
4. 구리개
5. 풀무재
6. 영희전 터
7. 남학당 터
8. 명동성당
9. 해민서터

● 집 터

1.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 터
2. 박팽년 집터
3. 유성룡 집터
4. 양성지 살던 곳

제 1 장

조선시대의 충무로





조선시대의 충무로

1. 마을이름과 유래

유호가 작사하고 현동주가 작곡하였으며 가수 현인을 비롯해서 전영 · 문주란 · 주현미 등이 노래한 「서울 야곡」이 널리 유행된 적이 있다. 이 노래는 충무로를 주제로 하였다.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때 / 쇼윈도 그라스엔 눈물이 흘렀다. /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 샛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어린다.

보신각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엔 / 찢어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 마로니에 잎이 나부끼는 이 거리에 버린 담배는 /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

오늘날 충무로는 인쇄업, 사진, 광고 디자인, 요식업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충무로 하면 영화 팬들이나 국민들은 아직도 ‘영화의 메카’ · ‘한국의 헐리우드’ 라고 일컫고 있다. 그러므로 충무로는 영화인의 땅이며 영화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충무로는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새벽 4시 경부터 통행금지 시각인 12시까지 영화제작



충무공 이순신 생가 터 표석

을 위해 영화촬영 팀들이 전국으로 출발하고 집결하던 곳이었으며, 영화배우와 제작진들이 여관과 다방, 음식점에 자리 잡은 관계로 이 곳은 흥청거렸고,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충무로라는 동명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시호를 따온 데서 유래된다. 세종로나 을지로 등의 명칭과 같이 우리 민족이 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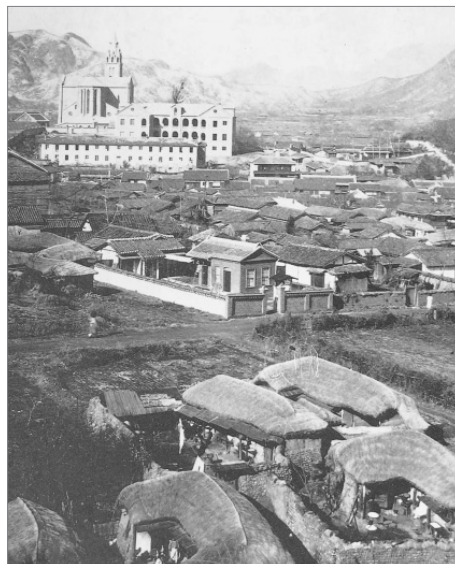
하는 역사적 인물의 시호(諡號)나 이름을 동명(洞名)으로 제정할 때 충무로의 동명도 제정되었다.

먼저 충무로1가 지역은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과 호현방(好賢坊) 일부지역에 속하였다. 1751년에 발간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의하면 한성부 남부(南部) 명례방 명례동계(明禮洞契), 호현방 호현동계(好賢洞契) · 장흥동계(長興洞契)였고, 1867년에 반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면 한성부 남부 명례방 명례동계, 회현방(會賢坊) 회현동계(會賢洞契) · 장흥동계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전국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한성부 5부는 5서(署)로 바뀌면서 남서(南署) 명례방 명동계(明洞契) 명동(明洞) · 대룡동계(大龍洞契) 대룡동(大龍洞), 회현방 회동계(會洞契) 회동(會洞) · 대룡동계 대룡동, 장동계(長洞契) 낙동(駱洞) · 장흥동계 장흥동으로 되었다.



서울지도 (korea. vol 2 부록지도 일부, 1902)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한성부가 경성부(京城府)로 바뀌어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면서 경성부 남부 명례방 명동계 명동·대룡동계 대룡동, 회현방 회동계 회동·장동계 낙동·대룡동계 대룡동·장흥동계 장흥동으로 되었다. 1911년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의 행정조직이 5부(部) 8면제(面制)로 바뀌어졌는데 도성 안의 남서 명례방 명동계 명동과 회현방 회동계 회동·대룡동계 대룡동, 장동계 낙동·장흥동계 장흥동 일부지역은 남부로 개편되었다.



남산에서 바라본 진고개(1904년)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성부의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경성부 관내의 동리 구역개편과 186개의 동(洞)·정목(丁目)·정(町)의 명칭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이전의 남부 명례방의 명동·대룡동의 각 일부와 회현방의 낙동·장동·회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본정1정목(本町1丁目)으로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區制度)가 실시되자 본정1정목은 중구(中區)에 속하였다.

1946년 10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의 일제식 동명 대신 한성부 때부터 내려오는 유서깊은 동명 또는 위인이나 선현들의 이름을 따온 동명을 새로 제정한다는 원칙 아래 정목은 가(街)로, 통(通)은 노(路)로, 동(洞)은 그대로 하였다. 이에 의하여 이순신 장군의 시호인 충무공을 따라 본정1정목을 충무로1가로 고쳤다.

충무로1가는 명동동사무소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는데 광복 직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정회(町會)제도가 동회(洞會)제도로 고쳐져 시행됨에 따라 충무로1가에는 충무로1·2가동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동회제도가 서울시 전역에 확대 실시되면서 충무로2가 7번지에 충무로1가·충무로2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충무로1·2가동회가 설치되었다. 1954년 3월에는 동회사무소를 충무로2가 9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條例) 제66호 「동설치조례(洞設置條例)」에 의한 동장관할구역의 행정동제의 실시로 충무



충무로 일대 지도 (1936년) - 「대경성정도」에서

로1가는 충무로2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충무로1·2가동회가 충무로1·2가동사무소로 개칭되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洞長定員) 및 명칭과 관할구역조례」에 의하여 충무로1가는 충무로2가·명동1가·명동2가와 함께 명동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때의 조치는 종전의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남산동사무소 관할의 일부인 남산동1가·남산동2가·남산동3가와 초동사무소 관할의 일부인 저동1가를 모두 명동동사무소관할지역으로 통합시켰다. 1985년 9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2015호와 제2016호에 의해 예장동 일부지역이 명동동사무소 관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충무로1가는 현재 저동1가·충무로2가·명동1가·명동2가·남산동1가·남산동2가·남산동3가·태평로1가·무교동·다동·을지로1, 2가·삼각동·남대문로1, 2가·수하동·장교동·수표동·예장동 일부 지역과 함께 명동동사무소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다.

충무로1가는 동쪽으로 충무로2가와 경계를 마주하며, 남쪽은 회현2·3가와 남산동과 퇴계로를 경계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서쪽은 회현동1가와 남대문로3가와 경계점을 이루며, 북쪽은 남대문로2가·명동2가로 에워싸인 곳으로 일찍부터 근대 상업지역으로 발전한 곳이다. 개항 이후 일본인의 진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그들의 상권 형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느 곳과 달리 비교적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는 특성도 지닌다.

일제 강점하의 충무로1가에는 일본인들이 특히 많이 살았으므로 1914년에 동명을 제정하면서 일본 혹은 본국을 뜻하는 의미에서 본정통(本町通)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복이 되어 일본인들이 물러간 다음 이 일대는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훈을 세워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

군의 시호인 충무공으로 동명을 제정하게 되었으니 이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무로1가는 역사상 많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까닭에 이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자연촌락명도 문헌에 많이 남아있다.

충무로1가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촌락¹⁾으로는 대룡동(大龍洞), 혹은 큰 용골이 있다. 남대문로2가·명동1가·명동2가·충무로1가에 걸쳐 있는 이 마을은 생김새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듯 하다 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용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튼 것처럼 몸을 붙여 있는데 그 중 큰 용에 해당하므로 큰 용골이라 하였다.

장동(長洞)은 장흥고(長興庫)가 있었으므로 장흥고동 혹은 장흥곶골이라 했는데 줄여서 장동으로 불렸다. 장동은 회현동1가·남대문로3가·충무로1가 접경지역에 있었다. 이곳에는 장흥고라는 관청이 있었으나 후에 현재의 종로구 내자동과 적선동의 경계지역인 서부(西部) 인달방(仁達坊)으로 이전하였다. 장흥고는 조선시대 호조(戶曹)의 산하에 있던 관청으로 궁중이나 각 관서에서 소요되는 창호지·유지(油紙)·기타 종이와 돛자리 등을 보관하여 대궐내의 여러 관청에 매달 공급을 담당하였는데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조선 건국 초에 설치되었다. 태종 3년(1403)에 흥신궁(興信宮)의 일부를 흡수하였고, 후에 다시 풍저창(豐儲倉)을 병합시켰는데 1884년에 폐지되었다.²⁾

충무로1가 지역은 일찍이 세계 해전사(海戰史)에도 기록된 한산도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깊은 사실들이 있었다. 충무로1가의 남쪽으로 해군 헌병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광복 직후

에는 이충무공의 얼을 받들어 해상의 웅비를 기억하던 해사보국단(海事報國團)과 해사협회(海事協會) 등이 자리 잡아 원대한 경륜(經綸)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충무로1가 52번지,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일본공사관 일대

자리는 일본영사관 건물이 있던 곳이다. 한편 일본거류민단의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한국으로 진출한 일본헌병 및 군인과 함께 일본 거류민의 행정 및 치안을 담당하는 일본 영사관이 용산에 설치되었는데 남산 일대의 공사관 자리와 가까운 곳에 둔다는 원칙 아래 현 충무로1가와 회현동1가 사이에 있는 한식가옥을 임시로 빌려 일본 영사관 청사로 사용하였다. 이어 1893년 이후 일본공사관이 남산 산록에 새로 신축되자 공사관과 경복궁 사이 일직선이 되는 지점인 현 충무로1가 52번지를 일본영사관 부지로 책정하고 1895년 말부터 건물 매입 교섭에 들어갔다. 1896년초 비교적 쉽게 부지매입이 끝난 후 바로 정지작업을 하고 벽돌과 목조 2층으로 된 청사를 신축하였다. 일본 내무성 기사 선기흠재(船起欽哉)가 감독한 일본영사관은 르네상스식 건물인데 1905년부터는 통감부로 사용되었고 1910년부터 지금의 시청이 준공된 1926년까지 경성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이 건물이 헐리고 빈터로 되자 장안 사람들은 낙천지(樂天地)라고 부르며, 각종 행사를 개최 장소로 사용하였다. 임시로 담을 두르고 함석지붕을 얹은 영화관이 상설관으로 있을 뿐 나머지 자리는 휘장을 쳐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낙천지는 보통 어른 20전, 어린이 10전의 입장료를 받고 관객 앞에서 쥐나 뱀을 산채로 씹어 먹는 몬도가네식의 신기한 재주를 부리거나 곡마단의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그때그때 내용을 바꿔서 공연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 마시기 대회, 씨름대회, 제기차기대회 등도 열렸던 야외 오락장소였는데 낙천지에 있던 영화관은 당시로서는 서울에 단 하나 뿐인 재개봉관이었다.³⁾

빈터로 남아있던 경성부청사 자리는 1929년 9월 충무로의 3층 목조건물을 지점으로 승격시킨 미쓰코시 오복점(三越五服店)을 불하받아 이듬해 10월 24일 서구식 백화점 형태를 갖춘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 건물을 준공하였다. 대지면적 730평 건평 435평 연건평 2,300평에 종업원 360여명이 근무하여 당시로서는 만주·조선을 통틀어 최고의 백화점으로 출발했는데⁴⁾ 1931년 4월호 『혜성(彗星)』이라는 잡지에 「조선사람 빈궁의 실지적(實地的) 7대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경제평론가 서춘(徐椿)은

상업을 하더라도 가령 미쓰코시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어서 상품을 여러가지로 또 많이 갖다놓고 팝니다. 그러니 상품 한 두가지나 조금씩 내놓고 파는 상점보다 손님이 많이 옵니다. 또 파는 물건뿐만 아니라 설비에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라고 하여 미쓰코시백화점의 모습이 대단한 문명이었음을 표현하였다. 지점장·차장이 있었고, 그 아래 인사부·서무부·경리부·선전부·식품부·오복부·잡화부·의류부·조선물산부의 9개 부서로 운영되었는데 지하 1층과



개업 당시의 미쓰코시(三越)백화점

지상 4층의 건물에서 층별로 특색있는 물품을 진열 판매하였다. 그러나 주 고객이 일본인이었던 까닭에 한국의 주단이나 포복은 일체 취급하지 않았으며, 4층의 커피숍을 겸한 대형식당은 오전에는 모닝커피 손님으로, 점심과 저녁시간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 설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가득 찼던 곳으로 장안의 또 하나 명물이 되었다. 미쓰코시백화점의 종업원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3:7이었는데 한국인은 대개 매장의 일용직 고용원이거나 청소부·배달부에 불과하였고, 사원인 경우에는 선린상업학교와 경기상업학교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주임급 이상의 요직은 일본인으로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출신이 독차지 하였다.⁵⁾

이어서 미쓰코시백화점은 1933년 9월 27일 기공하여 1935년 12월 2일에 건물을 완공하



미쓰코시 백화점의 4층 식당(1930년대)

였다. 총건평 2,014.9평으로 공사비는 100만원이 들었다. 건물의 설계는 1932년 현상공모의 당선작인 평림금오(平林金吾)의 작품인데 중후한 석조 붙임기둥을 4층까지 뻗히게 하여 웅장한 감은 주었으나 출입구가 작은 것이 흠이다.⁶⁾

광복과 함께 적산(敵産)으로



신세계백화점

분류된 미쓰코시백화점은 동화(東和)백화점으로 상호를 바꾸었으며 관리인은 미군정청에서 임명하였다. 1954년 11월 29일 관제청에서 미군으로부터 정식 명도 받은 후 동화백화점은 민간 경영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해오다가 1962년 9월에 동방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듬해 삼성그룹이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자연히 동화백화점도 흡

수되어 11월 12일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신세계백화점 4·5층은 민간텔레비전의 선구자인 동양TV방송사가 사용하였다. 2년 전부터 개국 준비를 하다가 1964년 5월에 신세계백화점으로 사옥을 옮겨 동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우리나라 최초의 TV 전파가 발사되었는데 1년 후 중앙빌딩으로 옮겼다.⁷⁾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인 충무로1가 51번지에는 히라다(平田)백화점이 있었으며, 17번지에는 중앙우체국이 있다. 중앙우체국은 석조로 고딕식과 르네상스식을 혼합하여 건축한 것으로 외관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6·25전쟁으로 파괴되었다. 3층의 건물로 복구했으나 1980년에 철거하고 청사를 건립했는데, 최근에 이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고 있다. 이 건물의 4층에 우정박물관이 있었다.

우정박물관은 1938년 덕수궁 옆 체신부 자리에 세운 체신박물관에서 비롯되는데 1945년에는 현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체신국청사 1층으로 이전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청사가 소실되면서 박물관도 불타 버렸다. 1972년 견지동에 남아있는 우정총국 건물에 체신기념관을 설치했으며, 1980년 서울 중앙우체국 건물을 신축하면서 1985년 5월 1일 동 건물 신관 4층으로 이전하고 우정박물관으로 개칭하였다.

우정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우표 1,690종 5,000여점을 비롯한 우표 15만점과 구한국시대의 통신자료·실체엽서·실체봉피 등의 우취 문헌과 우정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충무로1가 53번지에는 구 제일은행 본점이 있는데 1989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보완단장을 끝냈다. 원래 이곳은 저축은행(貯蓄銀行)이었으나 업무의 확장으로 본래의 자리에서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경성우편국(1915년)

한편 타락동(駝酪洞) 혹은 낙동(駱洞)으로 부르던 곳에는 천주교 박해를 했던 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와 조말생(趙末生)이 살았다. 혹심한 살육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경하를 낙동대감이라 하였는데 울던 아이도 ‘낙동대감’ 하면 울음을 그쳤다는 말이 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천주교인을 잡아다 고문했으므로 염라대감이라고도 불리었다.

조선초 세종 때의 문신인 조말생의 집터는 특히 남산의 정맥(正脈)이 뻗어 내려와 거북이가 엮드린 복구형(伏龜形)으로 되어있으며, 무학대사가 정하여 준 것이라고 하여 ‘낙양(洛陽)의 명원(名園)’이라고 전하여졌다.⁸⁾

이와 같이 마을의 서쪽으로는 고려말 조선초의 명사였던 조말생의 옛집이 있었던데 반해 마을 동쪽에는 조선 후기 영조 때의 정승을 지낸 윤시동(尹蓍東)의 집이 있었는데⁹⁾ 이 두 집이 거북이의 양쪽 눈에 해당한다고도 전해지고 있으며, 거북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공북헌(拱北軒)이라는 정자도 있어 유명하였다.¹⁰⁾

또 이곳에는 선조 때의 시인 정작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겨 전해지고 있다.

조선말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예로부터 남주북병(南酒北餅)이라는 속담이 있다. 남주(南酒)는 장흥동, 회현동에서 빚어내는 것을 제일로 쳤다. 그 맛과 색깔이 뛰어나서 한잔에 취하여도 쉬이 깰 뿐 아니라 갈증이 나지 않으니 가히 나라 안을 통 털어서 가장 이름난 명주(銘酒)라 할 만하고, 떡은 누각골에서 만든 것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⁹⁾



이유원(李裕元)의 간찰

라고 기술하였다.

즉, ‘떡 빚는 북촌, 술 거르는 남촌’이라고 하며, 이는 집에서 술을 빚어 팔기도 하고, 시장기를 달래던 남산골 샌님과 달리 곡식이 넉넉하여 떡 빚어 잔치를 차리고 아이들 군것질시키던 북촌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대조적으로 풍자한 것이다.¹²⁾

『한경지략』 권2 각동조에 보면 이곳 장동(長洞)에서 박은(朴聞)·심희수(沈喜壽)·김광국(金光國) 등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살았다고 하였다.

이유원의 『임하필기』 권32에 보면 이 장흥곶골의 옛 지역 부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 가운데 장흥고(長興庫) 공해 옆의 일송(一松) 심희수의 고택(古宅) 곁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그의 아호를 일송(一松)이라고 하였으며, 나중에는 양연산방(養研山房)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읍취헌 박은의 고택에도 역시 한 그루의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박은의 시에서

바람은 나뭇잎 따라 술술 지나가고
술은 아내 마음대로 찹끔찹끔 붓게 하네.

라는 것이 바로 이곳을 말한다.¹³⁾

박은의 집에 얹힌 이야기로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이 어렸을 때 박은의 집 동산에서 앵두를 뺐는데 박은이 그 벌로 시(詩)를 짓게 하니 임당 정유길이 그 자리에서 선 채로 읊기를 「박은네 앵두가 무르익어 붉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박은이 노하여 어린 것이 어찌 감히 어른의 이름을 부르느냐고 하였는데 임당 정유길이 “성명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선생 집 앵두인 줄을 알겠습니까” 하니 박은이 이를 듣고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는 것이다.¹⁴⁾ 그 후 이 집은 상서(尙書) 정대용(鄭大容)의 소유로 되었는데 하루는 일꾼들이 은(銀)독이 묻혀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파내어 가재(家財)에 보태어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에 정대용은 가세가 아무리 기울었기로서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물건을 조금도 탐내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묻게 하였다는 말이 전하여지는데 그 해에 그는 경상감사가 되었다.¹⁵⁾



중앙우체국 신축부지(2004년)

또한 장동에는 광해군의 사당과 인조반정 공신인 승평군(昇平君) 김류의 사당이 함께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할 길이 없다.

충무로1가에는 한국은행 앞 광장의 분수대를 바라보는 곳에 신세계백화점이, 충무로1가 21번지에는 전국의 모든 우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 중앙우체국이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 체신청 빌딩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뒤에는 중앙전화국이 있어서 서울의 통신사업 핵심지구이면서 상업중심지임을 알려준다. 이곳에는 한때 일본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집중되어 있던 때도 있었다. 또한 사보이호텔 · 빅토리아 호텔이 있고, 양품점이나 일용품상 · 귀금속상 · 음식점 · 가구상 등이 모여 있으며, 충무로지하상가가 위치한 외에 명동과 연결되어 있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상가와 환락가의 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리고 21-1번지에는 한국통신공사 연구개발단과 의료보험조합이 소재하며, 25-5번지에 사우디 항공사가 있다.

충무로1가지역은 퇴계로와 남산3호터널로 이어지는 반포로가 지나는데다가 남대문로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4호선 명동역이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다.

충무로2가는 조선 초에 한성부 남부 명례방과 훈도방(薰陶坊) 일원이었으며, 1751년에 만든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한성부 남부 명례방 명례동계, 훈도방 주자동계 · 저전동계(苧廛洞契)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에 남서 명례방 명동계 명동 · 중현계 중현동 · 저동계 저동과 훈도방 주동계 주동(鑄洞) 일원으로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7호로 한성부는 경성부로 바뀌었고, 경기도의 관할구역이 되면서 남부 명례방 명동계 명동·종현계 종현동·저동계 저동·훈도방 주동계 주동이 되었다. 이듬해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의 행정조직이 5부 8면제로 바뀌어지면서 도성 안에 있던 남부 명례방 명동계의 명동·종현계 종현·저동계의 저동 및 훈도방 주동계 주동은 경성부 남부가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성부 관내의 동리구역의 개편과 186개의 동·정목·정의 명칭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서 남부 명례방의 저동·명동·종현동의 각 일부와 훈도방 주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본정2정목이라고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여 본정2정목은 중구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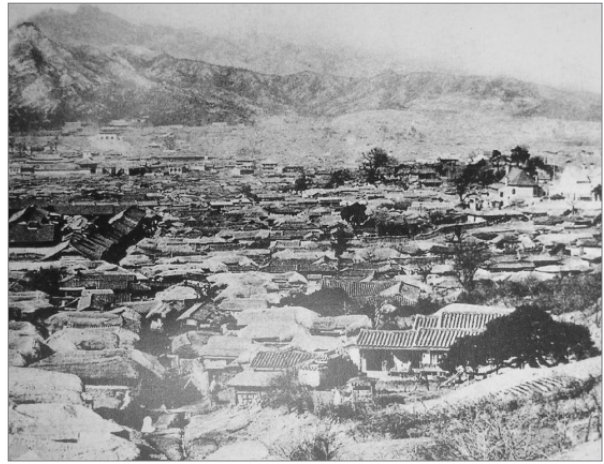
1946년 10월 1일 일제식으로 된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게 되었는데 이때 본정2정목은 충무로2가로 개칭하게 되었다.

충무로2가 지역은 현재 명동동사무소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1934년 이래 서울에서 시행되었던 정회(町會)제도가 광복과 함께 동회제도로 고쳐서 시행됨에 따라서 충무로1·2가동회의 관할이 되었다. 충무로2가 7번지에 충무로1·2가동회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953년 3월에는 충무로2가 9번지로 동회사무소가 이전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조례」에 의해서 충무로2가는 충무로1가와 함께 신설된 명동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충무로2가는 동쪽으로 충무로3가와 접하며 남쪽은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주자동·남산동1가·남산동2가·남산동3가와 마주보고 있다. 서쪽은 충무로1가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북쪽은 명동2가·저동1가·저동2가와 인접하고 있다. 일찍부터 일본상권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한 충무로2가는 퇴계로가 개설된 이후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부상되었으며, 명동과 접한 까닭에 수많은 인파가 언제나 북적거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교적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충무로2가지역은 동서남북으로 바둑판 형식의 가로가 형성된 근대적 도시형태를 이룬 특색을 갖추고 있다.

충무로2가를 이루는 조선시대의 자연촌락¹⁶⁾으로는 명례방의 명례방골 혹은 명동이라 부르던 곳이 있었는데 충무로1가·충무로2가·명동1가와 인접한 지역이다. 저동(苧洞)은 모

시전골이라고도 하는데 저동1가와 충무로2가에 걸쳐 형성된 마을이며 모시를 취급하는 모시전이 있었기 때문에 동명이 유래되었다. 이곳에서 취급하던 모시는 종로의 육의전에서 취급되는 것보다는 한 등급 아래로 밭이 굵은 것을 주로 판매하였다. 종현(鐘峴)은 종현동 혹은 북달재라고도 하는데 명동2가 1번지로



개화기의 충무로 지역

넘어가는 고개를 일컫는다. 이곳의 종은 1468년에 주조하여 관철동에 있던 원각사에 매달았는데 연산군이 절을 폐사(廢寺)하여 유원지로 만들면서 이곳 언덕에 종을 내다 방치했으므로 북달재라는 명칭이 붙었다. 조선 후기 정조대왕도 종을 둔 곳은 광화문과 종각 외에도 종현은 지금 종이 보존되지 않고 고개 이름만 전한다고 하였다.¹⁷⁾ 주동 혹은 주동(倣洞)·주작골이라고도 부르는 곳은 충무로2가와 주자동이 경계하고 있는 지점으로 지금의 퇴계로로 편입된 곳인데 주자소(鑄字所)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명칭이 유래 되었다.

충무로2가 52번지에는 일본공사관이 있었다. 갑신정변의 결과로 한·일간에 체결된 한성조약 제 4조에 의하여 일본은 충무로2가 52번지 남산한옥촌(전일 합동참모본부)이 위치한

일대의 땅을 공사관 대지로 얻어 1894년에 일본공사관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 이후에는 통감관저, 경술국치 이후에는 총독부관저로 사용하였다.

원래 일본공사관 자리는 조선조 순조 때 금위대장을



남산의 통감부 청사

지낸 이종승(李鍾承)집이었는데¹⁸⁾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에 왔던 일본공사의 숙소로 일시 사용되었다. 이를 연유로 하여 갑신정변 이후부터 일본공사관 부지로 선정되어 공사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1876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 이후 서대문 밖 청수장(淸水莊)을 일본공사관 청사로 사용했으나 임오군란 때 분노한 구식군인과 일반 군중에 의해 공사관 건물이 소실될 것을 염려한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기밀문서 누설이 두려워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비롯한 공사관 일행은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갔다. 일본측은 난이 진정된 후 조선정부에 대해 배상금과 공사관 자리를 요구한 끝에 조선정부에서 1884년 3월 중부 정선방(貞善坊: 경운동)에 있던 박영효(朴泳孝)의 집을 알선해 주자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 목조 신청사를 지어 공사관으로 정하였다. 동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되었으나 12월 7일 갑신정변 때 다시 소실된 이 공사관을 서울 최초의 2층 양옥이라고 일본인들이 자랑하였지만 완공 후 1 개월 만에 소실된 데다가 건축양식이 치졸하여 건축사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다시 조선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여 한성조약 제4조에 의해 남산한옥촌(전 합동참모본부) 일대의 땅을 공사관 대지로 얻는 대신 소실된 공사관의 변상조로 건축공사비까지 강요하였다. 그 결과 1893년(1894년이라는 설도 있음)에 새로 건립되었는데 일본 동경에서 온 도목수(都木手) 나까무라(中村辰吾)가 책임 시공하였다. 을사조약 이후에 통감관저로, 경술국치 이후에는 총독관저로 사용했으나 1939년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총독관저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헌병사령관 관저로 이용하였다. 이 공사관은 일본 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뻗쳐오기 전에 모든 대한정책(對韓政策)이 시달되어 나오던 곳이었다.

대한제국말 순종 2년(1908) 12월 22일 매국노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종현(鐘峴)에서 이재명(李在明) 칼에 찔려 심한 부상을 당하여 대한의원(大韓醫院)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 날 이완용은 종현에 있는 천주교당에 가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제2세의 추도회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자상(刺傷)을 입었다. 이재명은 평양 사람으로 1910년 5월 18일 경성 지방 재판소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하였다가 죽이지 못한’ 법조문과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교수형 판결을 받아 9월 13일에 집행되었다.¹⁹⁾

충무로2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옛날에는 진고개 또는 이현(泥峴)이라고 하였다.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만든 이 진고개는 충무로2가 세종호텔 뒷쪽에 있었는데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고개에 있는 흙이 몹시 질어서 비가 한 번 오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곤란했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옛 진고개 (1904년)

조선시대에는 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고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주로 하급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 거류민 지역을 형성하였고, 일본에서 가져 온 근대적인 상품을 진열하여 당시 개화가 늦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한편 진고개에는 굴우물이 있어 또한 유명하였다. 이 굴우물은 깊고 또 우물 안에 굴이 있었으므로 한자로 굴정(窟井)이라 하였다.

임창영이 쓴 『서재필박사 전기』에는 1896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박사가 충무로 2가에 위치한 파성관(巴城館)에 숙박하였다고 하였다.

1895년 12월 26일 부인과 함께 서재필은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개화당인들에 의해 운영되던 「한성순보」는 27일자에서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해 의학을 공부한 서재필씨가 어제 인천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면서 고국의 햇빛은 산하와 처참하달 수 밖에 없는 동포들의 사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가 생활했던 미국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그의 착잡함은 더욱 심했을지 모른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896년 1월 1일 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 부부는 서울에 들어온 직후 충무로 2가에 있던 파성관(巴城館)이라는 여관에 투숙했다. 파성관은 당시로서는 대관이나 외국인 손님들이 투숙하던 오늘날의 특급호텔 같은 것이었다.

1월초 유길준이 여관으로 서재필을 찾아왔다. 유길준은 “왜 이렇게 귀국이 늦었느냐”고 서재필을 닦했다. 서재필은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길가를 보니 고국의 사정이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

다”며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길준은 서재필이 갑신정변으로 1884년 고국을 떠난 이후 조선이 일본, 청나라 등에 의해 휘둘린 정확한 사정과 그에 따른 국내정치 세력들의 부침을 상세히 설명했다. 「동학당」사건이며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재필이 귀국한 당시의 조선이란 상호간의 타협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던 친일파와 친로파의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²⁰⁾

충무로2가 지역은 충무로1가 보다는 변화가로서의 환경은 뒤떨어지나 퇴계로와 삼일로가 지나고 있고, 지하철 4호선 4호선 명동역이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1975년에 시설되어 명동상권과 충무로 상권을 분할하던 3·1고가도로가 2003년 10월에 철거됨으로써 이곳의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충무로2가 61-3번지에는 세종호텔이 있다.

충무로3가는 조선 초에 한성부 남부 훈도방 일원이었다. 『도성삼군문분계총록』과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남부 훈도방 주자동계·박정계(朴井契)로 불리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남서 훈도방 박정계 초동·궁기동계(宮基洞契) 궁기동·주동계 주동·필동계(筆洞契) 필동·성명방(誠明坊) 필동계 필동·초동계(草洞契) 초동 일원으로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남부 훈도방 초동·주동·필동·궁기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본정3정목이라고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본정3정목은 중구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으로 된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서 본정3정목은 충무로3가로 개칭하게 되었다.

충무로3가는 현재 필동사무소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해있다. 1934년 이래 서울에서 시행되었던 정회(町會)제도가 광복과 함께 동회제도로 고쳐서 시행됨에 따라서 충무로3가동회의 관할이 되었다. 충무로3가 30번지에 충무로3가 동회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가 실시되자 충무로3가 지역은 남학동·주자동·필동1가·예장동과 함께 신설된 남곡동사무소(南谷洞事務所)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그 후 1970년 5월 18일 남학동·주자동·필동1가·예장동과 함께 충무로3가동사무소, 1975년 10월 1일 을지로3가동사무소, 1977년 9월 1일 필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충무로3가 지역에는 자연촌락명으로 궁텃골(宮基洞)과 초전(草廛)골이 있었다.²¹⁾ 먼저 궁텃골은 초동·충무로3가·저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그 명칭은 저동2가에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철종·순조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영희전(永禧殿: 현 중부경찰서 일대)이 위치하여 유래되었고, 초전골은 초동·충무로3가·을지로3가에 걸쳐있던 마을로 이곳의 우물이 맵고 톡 쏘는 것이 마치 후추 맛과 같다하여 후추우물(椒井)이라고 칭하였으므로 이 곳을 초정골이라 하다가 초전골로 되었다.

충무로3가 60번지에는 필동교(筆洞橋)가 있었고, 이 부근에 대표적인 건물로 극동빌딩이 세워져 있다. 이 자리는 조선시대 균역청(均役廳)이 있었고, 일제 때 일지출 소학교(日之出小學校),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가 위치하다가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되었다. 이 일대는 남학동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조정으로 충무로 3가에 편입되었다.

충무로3가지역과 초동지역에는 1957년경부터 명동에 위치하던 영화제작사 15~16개가 자리잡아 ‘한국의 헐리우드’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타’ ‘청맥’ 등 20여 개의 다방이



균역청 터(현 극동빌딩)

주위에 들어서고 이와 함께 호텔·여관·당구장·음식점·술집 등이 난립하였으며, 영화배우 지방자들이 영화감독이나 제작자들 눈에 띄기 위해서도 매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유명 배우들도 하루 한번 정도는 이곳에 들러 충무로에는 낮과 밤이 없었다고 한다. 만일 어떤 촬영현장에 무슨 배역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노점과 영화포스터(1959년, 한영수작)



스카라극장

소문이 돌면 어느새 그 감독이 잘 다니는 다방이나 사무실은 문이 부서질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1960년대~1980년대에는 이 지역은 대한극장·스카라극장 등 많은 극장이 있는데다가 영화관계 회사가 들어서 있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화관계자들이 드나들어 불야성을 이루었다. 이곳에 동신여관·서울

장·충무장·풍전여관·럭키장 등 100여개가 넘는 여관이 밀집하게 된 것은 통행금지가 밤 12시~새벽 4시 반까지 실시된 관계로 지방에서 온 영화관계자들이 일을 보다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1975년에 3·1고가도로가 설치되고, 극동빌딩·쌍용빌딩 등의 대형빌딩이 들어서면서 충무로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치솟자 영화제작사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 충무로를 떠나기 시작하였다.²²⁾

2002년 3월 12일자 「조선일보」에는 ‘영화계 탈(脫)충무로’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영화사의 70%가 압구정역 주변에 몰리고, 신(新)시네마 천국’ 강남에 제작지원-투자사도 몰린다고 하였다.

지하철3호선 압구정역 4거리, 복합상영관 ‘시네플러스’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한국 영화의 신(新)산실이 숨어있다. ‘친구’를 제작한 코리아픽처스, ‘엽기적인 그녀’의 신씨네, ‘여고괴담’의 다다필름이 걸어서 5분 거리에 다닥다닥 모여 있으며 길 건너 LJ필름 바로 옆은 스크린쿼터제 유지 투쟁을 주도한 영화인회의 사무실이 있다.

“국내 주요 영화사의 70%쯤이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반경 4~5km 안에 모여 있다”고 이승재 LJ필름 대표는 말했다. “대중의 기호에 민감한 영화사들에 최신 유행이 시작되는 강남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 압구정·신사동 일대가 한국 영화계의 ‘할리우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영화계의 대명사로 불려온 충무로는 영화제작사들이 잇달아 빠져나가면서 공동화(空洞化)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리아픽처스 김동주(金東柱) 대표는 “충무로 전성기이던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배우 지망생 등 영화 관계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방에 모여 북적거려 언제든 캐스팅이 됐다”며 “이젠 모든 게

강남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충무로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영화사들의 강남행(行)은 지난 97년 남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가 홍릉으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영화산업이 영세하던 시절 영화사들을 충무로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영진공의 현상·녹음 장비가 사라지면서 강남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원 41개 사 중 25개 사가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반면 충무로에는 시네마서비스, 씨네월드 등 5 곳만이 남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구 영화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 영화제작·수입·배급사 930여 곳 중 약 500 곳이 강남에 있으며, 충무로는 170여 곳으로 강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영화사를 따라 제작지원업체와 투자회사 등도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 튜브엔터테인먼트·KM컬처 등 대형 투자사들과 박곡지편집실·함성원편집실, 리드사운드·블루캡 등 녹음실, 허리우드 현상소 등이 강남에 웅기종기 자리잡았다.²³⁾

전일의 영화관계 사무실이 자리한 곳에는 상가와 빌딩이 들어섰고, 인쇄업·사진·광고 디자인·요식업소 등이 성업 중이다.

충무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블루칼라와 보헤미안의 동네이고, 인쇄소와 사진 현상소가 몰려 있는 영화 동네’라고 보도하였다. 영화사들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좀 썰렁해졌지만, 오랫동안 서울 중심부로 번영을 누린 충무로에는 영화쟁이, 사진쟁이들의 입맛이 까다로와 맛있는 식당이 많고, 가난한 예술가나 주머니 가벼운 이들이 오가던 동네여서 저렴한 식당도 많다고 하였다.²⁴⁾

충무로3가지역은 퇴계로와 돈화문로가 지나고 있는데다가 지하철 3·4 호선이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충무로4가는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낙선방(樂善坊)과 성명방(誠明坊) 일부지역에 속하였다. 1751년에 발간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이 곳은 한성부 남부 낙선방 와유두리게(瓦有豆里契), 성명방 연성위계(蓮城尉契)였고, 1894년 갑오개혁 때는 한성부 남서(南署) 낙선방 묵동계(墨洞契) 묵동(墨洞)·필동계(筆洞契) 필동·연성위계 회동(晦洞)·일관동계(日館洞契) 생민동(生民洞) 예동(藝洞)·와유두리게 오궁동(五宮洞)으로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경성부 남부 낙선방 묵동계 묵동·필동계 필동·연성위계 회동·일관동계 생민동 예동·와유두리게 오궁동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동·정목·정의 명칭을 새로이 제정함으로 이전의 경성부 남부 묵동·필동·회동·오궁동·예

동의 각 일부와 생민동을 합쳐 본정4정목이라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區制度)가 실시되자 본정4정목은 중구(中區)에 속하였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으로 된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서 본정4정목은 충무로4가로 개칭하게 되었다.

충무로4가는 현재 광희동사무소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는데 광복 직후 서울시 일부지역에서 1934년 이래 실시되었던 정회제도가 동회제도로 고쳐져 시행됨에 따라 충무로4가에는 충무로4가동회가 136번지에 설치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한 동장관할구역의 행정동제의 실시로 인현동 2가 일원과 함께 신설된 충인동(忠仁洞)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1970년 5월 18일 충무로4가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충무로5가지역과 함께 충무로4·5가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되었다가 광희동사무소 관할구역에 속해있다.

조선시대에 충무로4가 지역에는 자연촌락명²⁵⁾으로 남뫼골[南部洞]과 먹적골[墨寺洞]·생민골[生民洞]·예동(藝洞)·오궁골[五宮洞]·회동(晦洞)이 있었다. 남뫼골은 충무로1·2·3·4가와 인현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한성부 5부(部)의 하나인 남부(南部)관아가 있어서 붙여진 마을명으로, 줄여서 뫼골이라 하다가 한자명으로 필동(筆洞)이 되었다.

그리고 먹적골은 충무로4·5가와 필동2·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먹절[墨寺]이 위치하여 먹제골·묵사동·묵동으로 불려졌다.

현재 이 지역은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인쇄업체가 많은 관계로 종이를 취급하는 업소가 자리하고 있고, 충무로 4가 109·112번지 부근에는 진양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퇴계로와 돈화문로·배오개길이 지나고 있는데다가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다.

충무로5가는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낙선방(樂善坊)과 명철방(明哲坊) 일부 지역에 속하였다. 1751년에 발간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이 곳은 한성부 남부 낙선방 와유두리게(瓦有豆里契), 명철방 쌍림동계(雙林洞契)였고, 1894년 갑오개혁 때는 한성부 남서(南署) 낙선방 묵동계(墨洞契) 묵동(墨洞)·와유두리게 침교동(沈橋洞) 오장동(五壯洞)·일관동계(日館洞契) 침교동·야현동계(冶峴洞契) 야현동으로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경성부 남부 낙선방·명철방 일부 지역으로 변경되었고, 1914년 4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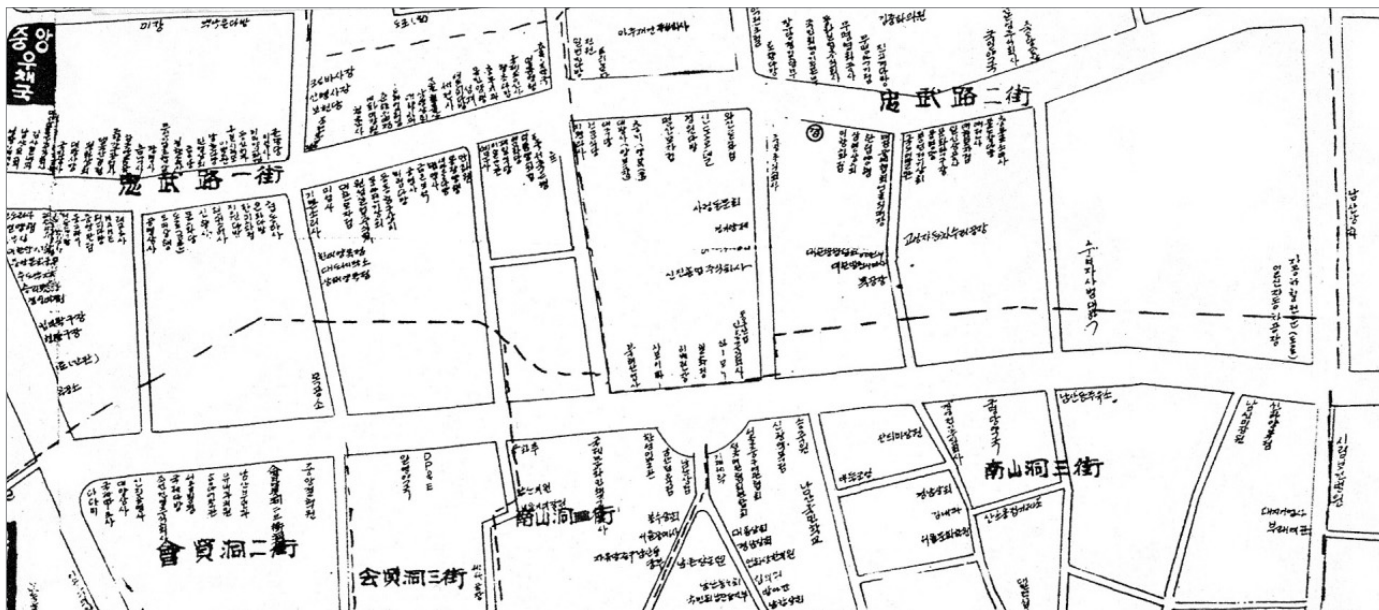
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동·정목·정의 명칭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이전의 경성부 남부 쌍림동·오장동·침교동·야현동·묵동 일부를 합쳐서 본정5정목이라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제도(區制度)가 실시되자 본정5정목은 중구(中區)에 속하였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으로 된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서 본정5정목은 충무로5가로 개칭하게 되었다.

충무로5가는 현재 광희동사무소의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광복 직후 서울시 일부지역에서 1934년 이래 실시되었던 정회(町會)제도가 동회(洞會)제도로 고쳐져 시행됨에 따라 충무로5가에는 충무로5가동회가 59번지에 설치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한 동장관할구역의 행정동제의 실시로 묵정동 일원과 함께 신설된 야현동(冶峴洞)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1970년 5월 18일에 묵정동과 함께 충무로5가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행정관할구역 변경 때 충무로5가동은 충무로4가동사무소와 통폐합되어 충무로4·5가동사무소관할구역이 되었다가 광희동사무소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조선시대에 충무로5가 지역에는 자연촌락명²⁶⁾으로 먹적골[墨寺洞]·무침다릿골[沈橋



「서울(商界)악도」(1955년 충무로 지역)

洞] · 쌍이문골 · 오장사골[五壯洞] 등이 있었다.

먹적골은 충무로4·5가와 필동2·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먹절[墨寺]이 위치하여 먹제골 · 목사동 · 목동으로 불려졌고, 무침다릿골은 충무로5가 · 오장동 · 예관동에 걸쳐있던 마을로 82번지 부근에 다리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무침다리 또는 무침교(無沈橋)라고 칭한 까닭에²⁷⁾ 마을이름이 붙여졌다.

쌍이문골은 충무로5가 · 쌍림동 · 목정동 · 오장동 · 광희동1가에 걸쳐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서울의 방범초소와 유사한 이문(里門) 한 쌍이 위치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오장사골은 충무로5가 · 오장동 · 을지로5가에 걸쳐있는 마을로 역대에 걸쳐 유명한 장사 5명이 이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오장동(五壯洞)이라고도 하였다.

충무로5가 21번지 일대에는 목정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공원에는 서울시가 1992년 11월에 502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 2층, 지하 5층의 주차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충무로5가 8·9·20번지 퇴계로변에는 오토바이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서울의 명물이고, 이 상가 뒤편에는 인쇄소가 들어서 있다.

충무로5가 지역은 퇴계로와 배오개길 · 훈련원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2. 충무로의 발자취



「도성대지도」의 충무로 일대(18세기)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를 보면 당시 도성내의 중로(中路)는 현재 을지로 입구에서 광희문까지의 길, 충무로 즉 신세계백화점 앞 로타리를 기점으로 광희문에 이르는 길 등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소로들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명동 1, 2가와 충무로 1,

2가를 구분하는 「충무로」
길은 조선시대부터 개통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일의 충무로 일대는
현재처럼 평지는 아니었다.
남산 줄기가 뻗어 내려온
탓으로 낮은 언덕이 있었
고, 10여 개의 개천이 남산
에서부터 흘러내려 청계천
으로 들어갔다.



일제강점기의 충무로지역

남산에서 내려온 산줄기의 하나는 예장동의 국토통일원이 위치했던 곳을 지나 충무로 2가
의 세종호텔과 명동천주교회당, 기독교 부녀회관(YWCA)을 지나 을지로 2가로 뻗었다. 「수선
전도(首善全圖)」나 서울의 옛지도를 보면 세종호텔 뒷쪽 충무로에 있던 고개를 진고개[泥峴]
라 하고, 성모병원과 로얄호텔 사이의 고개를 종현(鐘峴)으로 표시해 놓았다. 따라서 명동천
주교회당을 종현성당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종현이란 명칭은 임진왜란 때 종로의 보신각종이
불타버리자 남대문에 걸었던 종을 이 고개 위에 걸고 서울에 시각을 알렸다는 것이다.

충무로2가지역을 전에는 진고개라고 칭하였는데 이 명칭은 조선말까지 고개 길의 흠이 몹
시 깊어서 비만 오면 지나다니기에 곤란하여 붙여진 것이다. 이 곳은 큰 비가 오면 남산에서
흘러내린 골짜기 물이 범람하여 현재 충무로 2가 서쪽은 전혀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
였다고 한다.

『한경지략』에 보면 진고개에는 굴우물(窟井)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우물은 인조 때
이수광(李睟光)의 아들 이민구(李敏求)가 동네 아이들과 파 놓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진고개에는 영조·정조시대의 명신이며 학자로도 유명한 이계(耳溪) 홍양호(洪
良浩)가 살았다. 홍양호는 진고개 근처에 있던 그의 집 이름을 이와(泥窩, 진굴)라고 지었다.

남산 아래에 진고개가 있다. 땅이 낮고 험소하여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습하고 진흙

길이 되는 일이 많아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 곤란을 당하므로 이 마을을 진고개라 부른다. 내 집이 그 옆에 있어 진굴(泥窩)라고 이름 지었다.²⁸⁾



1920년 무렵의 충무로 입구

고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청계천 북쪽을 북촌(北村), 그 남쪽은 남촌(南村)으로 불려 왔다. 북촌은 권세 있는 양반들이 모여 사는 데에 비해 남촌은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다리며 관직에 오르지 못한 불우한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남촌 중에서 남산 계곡, 진고개에 사는 이들을 ‘남산골 샌님’, 또는

‘남산골 딸각발이’라고 칭하였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가난은 하지만 오기만 남은 선비를 부르는데 남산골 샌님이 ‘원(員) 하나 내지는 못해도 땔 권리는 있다’고 하였다.²⁹⁾

그런데 갑신정변 이후부터 일본공사관이 이 근처로 옮겨오면서 일본인들은 진고개 일대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이곳의 길이 불편하자 광무 10년(1907)에 8척이나 흙을 파내어 고개를 낮추는 동시에 하수도를 묻음으로써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임오군란 후 일본군이 진고개에 주둔하게 된 배경을 묘사한 역사소설 『광화문』을 소개하면,

역시 흥선대원군 분부에 따라 경기감사 홍우창은 하나부사(花房義質)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군대가 도성 안에 진입하면 군민을 자극하여 예기치 못할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공사께서는 최소한의 호위병만 인솔하고 입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간곡한 서신을 보냈다.

하나부사공사는

“그러한 권고에 따르면 도리어 조선의 군민들이 우리를 우습게보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미 귀정부에 통고한 대로 상당한 병력을 대동하고 입경할 것이다.” 강경한 회신을 보냈다.

군대의 진입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흥선대원군은 이동(진고개) 전 금위대장 이종승의 저택을 공

사의 행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근처의 장악원과 민가 십여 채를 징발해서 군 숙소에 충당했다. 이규철의 아들인 종승은 임오군란 중에 시골로 피난하여 집이 비어 있었다. 나중에 이 일대가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된다. 지금의 충무로이다.

7월 7일, 하나부사공사는 수행원과 약 1천의 병력을 인솔하고 남대문을 통해 성안에 들어 창덕궁을 향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군대의 행군을 구경했으나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부사공사는 돈화문 안에서 교자를 내렸고, 부대는 문밖의 넓은 마당에서 대기했다.

국왕은 중희당에서 「하나부사」공사를 접견했다. 격식대로 인사를 교환한 다음 「하나부사」공사가 말했다.

“지난 6월 9일의 변란은 일찍이 없던 일이오이다. 공사관을 불태우고 사신을 추방한 것은 외국에 대한 중대한 치욕이었나이다. 정부는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나, 화친을 크게 그르칠까 저어하여 우선은 정부의 의향을 받들고 다시 귀국을 방문, 조선조정과 협의하게 된 것이옵니다. 정부의 요구문서를 휴대하였으니, 관계되는 대신에게 전할 것이오이다.” 통역은 고영희였다.

“이번의 군란으로 의과원 중에 사상자가 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오. 정부의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접대하는 관원들과 잘 협의토록 하오.”

접견은 간단히 끝났다.³⁰⁾

개항 후 밀려오기 시작한 일본인은 차츰 남산 밑 충무로, 필동 등에 주택과 상가를 짓고 자리 잡아 나갔다. 한편, 갑신정변(1884) 이후에는 경운동의 공사관이 소실되자 남산한옥촌 자리에 일본 공사관을 세웠고, 그 후에는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이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예장동 전일 ‘왜장터’에 통감부를 세웠다. 통감부 건물은 곧이어 총독부 건물로 변신하였고, 일본공사관은 총독관저가 되고, 인근에 정무총감의 관저를 지어 한국을 지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고



남산의 조선총독부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주로 하급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근대적 상품을 진열하여 당시 개화가 늦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도성 안의 근대적인 도로 개수(改修)는 진고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진고개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입주한 일본인들은 토질이 좋지 않아 거주하기가 어려웠다. 그 때문에 청일전쟁 발발 이후로 증가 일로에 있던 일본인 이주자들은 이 진고개 좌우를 기피하고, 남대문 방면으로 그 정주지(定住地)를 확장해 가는 추세이므로 진고개의 일본인 거리가 쇠퇴해 가는 징조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일본인 거류민과 일본영사관이 협력하여 진고개~남대문간의 도로개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고종 32년(1895) 4월에 일본인들은 일본계 제일은행 서울지점에서 일화(日貨) 3만원을 기채(起債)하고, 소학교 졸업자에서 60세까지의 거류민 1인당 10전씩을 거두어 같은 해 8월 하순에 공사에 착수하여 그 해에 완공하였다. 가로 양편의 건물(주로 假家)을 철거하여 가로 폭을 확장하고, 배수로로 깊이 파으며 공중변소와 가로등까지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때 이현교변소(泥岬交番所 : 충무로2가 32번지, 전일 충무로파출소)까지 시공하였다.³¹⁾ 일본인들에 의한 충무로 개수는 1904년에도 실시되어 충무로2가 중간~충무로5가까지 도로를 확장·개수하였다. 1906년에는 진고개를 8척 가량을 파내어 고개를 낮추고 길을 닦아 현대식 도로를 만들면서 높이 5척의 방추형태(方錐形態)의 하수도를 묻어 그 지역의 하수를 통하게 하였다. 이것이 서울시내 하수구 도랑의 시초가 되었다.

조선시대 남부 명례방(明禮坊)과 호현방(好賢坊) 일부 지역에 속하였던 충무로1가에 태종 16년(1416) 5월에 큰 바람이 먼지를 드날리다가 날이 저물어 소나기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호현방의 내관(內官) 박흥복(朴興福)의 문 앞 버드나무와, 명례방의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선존의(宣存義)의 집 기둥이 벼락을 맞았다.³²⁾ 또한 선조 39년(1606) 7월 26일 신시(申時)에 훈도방(薰陶坊 : 충무로 2가) 앞에서 행 상호군(行上護軍) 신응주(申應澍)의 아내 김씨와 그의 딸, 진산 도정 이유령(珍山都正李有齡)의 아내 신씨(申氏) 및 여중은가히(銀可屎) 등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³³⁾

조선시대에 남부 성명방(誠明坊) 일부 지역이었던 충무로4가에 조선초 예종 때 허계지(許

繼智)가 호화 주택을 짓고 살았다. 그의 본명(本名)은 모지리(毛知里)인데, 허안석(許安石)의 비첩(碑妾)의 소생이라고 칭하고, 허안석의 산업(產業)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귀인(貴人)이나 요인(要人)과 사귀어 무릇 대납(代納)하는 가운데 유리한 것이 있으면 술선하여 하니, 수년 만에 크게 재물을 모았다. 허계지가 성명방에다 집을 지었는데, 서까래 기둥을 붉은 빛으로 채색하여 참람하고 사치함이 비할 수 없었고, 조정 신하로서 명망이 있는 자도 또한 그 집에 출입하였다. 이 당시 허안석(許安石)의 비첩(碑妾)의 소생이라고 장례원(掌隸院)에 소송하였는데,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판결사(判決事) 김순명(金順命)에게 뇌물을 주려고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였다가 대간(臺諫)의 관리에게 잡히는 바가 되었다. 사헌부에서 국문한 뒤 형조(刑曹)에 옮겨서 장을 때려 유배시키려고 하였는데, 허계지가 지키는 자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서 도망하였다. 이에 형조에서 아뢰기를,

“사민(徙民)하는데 도망한 자는 법으로 마땅히 참(斬)하여야 하고, 처자(妻子)는 영속(永屬)시키며, 가산(家產)은 적몰(籍沒)하여야 합니다. 이제 허계지가 도망 중에 있는데, 또 그 집과 잠자리·의복이 참람하게도 궁궐과 흡사하니, 청컨대 잡아서 참(斬)하고 그 처자도 법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사헌부에서 다시 부인과 아들딸을 죄주고 가산(家產)을 적몰(籍沒)하도록 아뢰자, 예종이 “허계지의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처자를 죄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허계지가 용서해 줄 것을 미리 헤아리고 옥(獄)에서 나왔고, 또 임금의 보모(保姆)에게 의지하여 죄를 면하고자 하였다. 이에 예종이 매우 노하여 반드시 주살(誅殺)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사형을 감하여 변방으로 이주시켰다.³⁴⁾

충무로2·3가는 조선시대에 남부 훈도방 지역으로 조선초 성종 2년(1471)에 분순 부위(奮順副尉) 김인봉(金仁奉)의 나이가 당시 102세였으므로 호조(戶曹)에서 성종에게 쌀을 지급하게 하도록 건의하자 윤허하였다.

충무로1가는 호현방 일부 지역으로 조선초 성종 2년(1471)에 이곳에 목사(牧使) 조지당(趙之唐)이 그 누이[姝]를 간음하였다는 소문이 나서 사헌부가 남부(南部)의 호현방 관령(好賢坊管領) 김미(金美)로 하여금 찾아내어서 고(告)하게 하였다. 이 때 관령 김미가 사헌부에 고하기를,

“충찬위(忠贊衛) 매준(梅俊)이 하루에 네 차례나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목사(牧使) 조지당의 사건을 잘 도모해 주기 바란다.’ 고 하였다.” 이에 사헌부에서 이를 성종에게 아뢰자 성종이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사헌부(司憲府)에서 상피(相避)할 처지에 있는 여자를 서로 간통한 자를 바야흐로 추문(推問)하고 있는데, 충찬위(忠贊衛) 매준(梅俊)이 남부의 호현방 관령(好賢坊管領) 김미의 집에 이르러 조 목사(趙牧使)의 사건을 잘 도모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다니, 반드시 그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추국(推鞠)하여서 아뢰어라.”³⁵⁾ 하였다.

또한 충무로 1가 지역 호현방에는 연산군 때 윤필상(尹弼商) 소실의 집이 있었다. 조선초 연산군 11년(1505)에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자결한 윤필상의 소실 집을 연산군이 휘순공주(徽順公主)에게 내리라는 명을 내렸다.³⁶⁾ 성종 22년(1491) 7월에는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 인종의 생모)가 호현방 사제(私第)에서 태어나 고모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에 의하여 양육되었다. 장경왕후는 15세가 되던 중종이 즉위한 해(1506년)에 궁중에 뽑혀 들어가 숙의가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중전이 되어 중종 10년(1515) 2월에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6일만에 경복궁 별전에서 세상을 떠났다.³⁷⁾

충무로2·3가의 남부 훈도방 지역에 사는 숙피장(熟皮匠) 지용(池龍)이 녹반(綠礬)을 진상하였다. 조선초 중종 17년(1522) 10월에 숙피장 지용이 김화(金化) 지경 안에서 구득한 녹반을 진상하자 중종이 구득하게 된 경로를 물어보니, “김화 지방을 지나다가 길 가에서 쉼적에 굳어진 회와 같은 흙덩이가 청흑(靑黑) 빛깔에 냄새가 녹반과 방불한 것이 있기에 시험 삼아 칼집에 발라보니 즉각 검은 빛이 되었었는데, 길 근방 일대의 산이 모두 녹반 돌이었습니 다. 처음 돌을 깨뜨릴 때는 약간 단단하여 도끼와 징으로도 부수기 어려웠는데, 빈 섬에다 담아 질척한 땅에 두고 한 달 남짓 지나니 곧 흙덩이처럼 되었으며, 모양과 빛깔이 전일에 구득한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 남짓을 가져다가 항아리 속에 두었었는데, 마침 비에 젖어 축축하자, 정기(精氣)가 위로 응결(凝結)되면서 정결한 벽옥(碧玉)과 같아, 중국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와서 진상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중종은 전교하기를,

“이것은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인데 전에도 진상하는 사람이 있었다. 상을 주도록 하고, 나는 곳에 대해서는 채취를 금단하도록 하라.”³⁸⁾

하였다.

조선초 중종 19년(1524) 10월에 호랑이가 묵사동(墨寺洞 : 현 충무로 4?5가)에 들어왔다. 이에 한성부가 범이 묵사동에 침입했음을 중종에게 아뢰자, 중종이 전교하기를, “병조(兵曹)를 시켜 군사를 내서 잡게 하라. 또 밤에 사람이 마음대로 다니다가 해를 입을 것이 염려되니 사람이 밤에 다니는 것을 금하라.”³⁹⁾고 하였다.

중종 26년(1531) 12월에 남부 성명방(현 충무로 3가) 우물 속에 목을 졸라 죽인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사헌부가 아뢰자 중종은 “도성 안에서 살인이 있었으니 과연 해괴하고 경악스런 일이다. 삼성 교좌로 추국하고 철저히 신문하라. 의심스러운 자는 그의 처 개이(介伊)의 간부(姦夫)이다. 개이와 살해된 자와 동서가 되는 김윤신(金允信) 등을 속히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좌의정 장순손을 위관(委官)에 임명하라.”고 전교하였다.⁴⁰⁾

묵사동에는 중종 때 공신 박원종(朴元宗)의 집이 있었는데 둘로 분할하여 동산(東山)에 있는 집은 박운(朴雲)이 차지하고, 아랫집은 박원종의 양손녀(養孫女)의 남편인 김기(金祺)가 차지하였다. 그런데 두 집에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송이 생겼다.⁴¹⁾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1593) 2월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왜군은 사청(射廳)에서 남산에 이르기까지 큰 진(陣)이 있었고, 묵사동(충무로 3·4가)·장흥고동(長興庫洞) 등지에 네 개의 진(陣)이 있었으며, 용산에도 역시 한 진이 있었다.⁴²⁾ 이로부터 2개월 후인 4월에 적중(賊中)에서 도망해온 사람이 말하기를, “성중에 있는 적진은 모두 여섯 곳인데 행주대첩에서 접전할 때 묵사동에 있던 적진은 왜장 이하 모두 죽었고, 그외 각진의 왜군들도 죽거나 부상당하여 남산의 3진과 소공주동(小公主洞)의 1진만 남아 있다.”⁴³⁾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서울을 철수하자 폐허의 서울에 처음 들어온 유성룡(柳成龍)은,

“서울에 남은 백성이라고는 백에 하나도 못되며 그나마 기근과 피로로 귀신 모습이다. 날씨는 더운데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쓰러져 악취로 코를 막고 지나야만 하였다. 공사(公私)의 집이 모두 타 버렸는데 남대문에서 동쪽 일대, 즉 남산 밑에 왜적이 진을 쳤던 곳만 남았다.”⁴⁴⁾

고 『징비록(懲毖錄)』에 쓴 것을 보아도 왜군이 남산 아래 충무로 일대에도 진을 쳤던 것은 틀

림없다.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도 굶주림은 계속되었던 것 같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기근이 극심하여 지금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러서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길에 쓰러진 시체에는 살이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산사람을 죽여 내장과 살을 함께 씹어 먹는다. … 도성 안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변이 있는데도 형조(刑曹)에서는 이런 일을 방치하여 체포하지도 않고, 체포된 자도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⁴⁵⁾

고 하였다.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는가는 어느 날 명나라 군사가 술이 잔뜩 취해가다가 길에서 구토를 하였는데, 이때 이를 본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머리를 땅에 박고 핏을 먹었으며 그나마 힘이 약해 밀려난 자는 이를 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한다.⁴⁶⁾

선조 34년(1598) 1월, 도망쳐 나온 중국군이 회현방(현 충무로 1가) 근처에 20여 명, 동대문 안팎에 50여 명이 숨어 있었는데 회현방에 숨어있는 중국군을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매를 맞고 정릉동(貞陵洞)까지 쫓아와서 차인(差人) 첨자명(詹子明)을 칼로 찔러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였다. 우승지 김시헌(金時獻)이 이들을 잡아들일 것을 건의하자, 선조가 “전일에 좌·우 포도청과 해당 관아로 하여금 도망병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어찌하여 잡아들이지 않는가 살펴서 아뢰라.”⁴⁷⁾고 하였다.

선조 때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남부 성명방(현 충무로 4가)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즉위 후 유영경이 역적죄로 죽었으므로 광해군 4년(1612) 7월에 한성부는 유영경의 집을 헐어버리고 연못을 파는 일에 대해 아뢰자 광해군이 윤허하였다.⁴⁸⁾

현종 2년(1661) 9월 3일 숙종비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가 회현방(현 충무로 1가)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미 태어났으나, 울음소리가 끊어져 희미하므로, 집안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염려하였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다친 곳은 없고 성질(性質)이 그러합니다.’ 하였다. 이미 말을 배워서 말을 가볍게 꺼내지 아니하나, 꺼내면 반드시 이치가 있었다. 그리고 보행은 더디고 느렸으며, 함부로 뜰 계단을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타고난 존귀함이 있었다. 동배(同輩)와 서로 만났을 때 곁에 있는 자들이 병아리를 희롱하거나 공기놀이

하거나 배·밤을 다투거나 엇과 떡을 갖거나 간에 평소 꿈작도 앓은 채 단정히 앉아 보지 않은 것같이 하였으며, 함께 먹을 때에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모두 모인 후에야 먹었다. 또 화려한 물건을 애호하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비록 때가 묻고 해졌다 하더라도 싫어하는 적이 없었으며,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있어도 부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려고 하면, ‘좋다.’ 하면서 절대로 아까와 하는 적이 없었다. 나이 7, 8세가 되자, 집안에 갇숙이 들어앉아 나가지 아니하고 예(禮)를 익혀 10세가 되니, 또 조달(早達)하였다. 1671년 10세에 간택을 받아, 세자빈이 되어 현종이 즉위하자 중전이 되었다.⁴⁹⁾

목사동(현 충무로 4·5가)에는 연산군에 이어 왕위에 오르기 전 중종이 거주하던 잠저(潛邸)가 있었다.

“영조가 수진궁(壽進宮)에 거둥하여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유건(柳健)의 아된 바로 인하여 목사동에 중묘(中廟)의 잠저 때 옛터가 있음을 알기는 하였으나, 분명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용흥(龍興)의 옛터가 모두 있는데도 중묘의 옛터만을 알 길이 없어서 마음속에 늘 불안하였는데, 수진궁 도서(圖書)의 연월을 상고해 보니, 바로 성조(聖祖)께서 중흥하신 때이고, 또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상고해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⁵⁰⁾ 고 하였으므로 영조가 중종의 잠저를 찾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圖全善首



수선전도

3. 충무로에 살았던 사람들

(1) 조말생(趙末生)

조말생(1370~1447)은 조선조 세종 때의 문신으로 서울 중구 회현동 2가에서 거주하였다. 자는 근초(謹初)이며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근초(謹初)·평중(平仲), 호는 사곡(社谷)·화산(華山)으로 서운관 정(書雲觀正) 조의(趙誼)의 아들이다. 태종 1년(1401)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요물고 부사(料物庫副使)를 비롯하여 감찰·정언(正言)·헌납(獻納)을 거쳐 이조정랑에 이르러 중시(重試)에 2등으로 합격하여 전농부정사(典農副正使)·예문관직학 등에 보직되었다. 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을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이르러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었다. 형조판서에서 병조판서에 전임되어 군정을 맡고 태종을 시종하여 날로 총애를 받았으며, 세종이 즉위하자 주문사(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세종 8년(1426)에 장죄(贓罪)로 연좌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 1432년에 동지 중추원사가 되고, 이듬해 함길도 도관찰사 겸 함흥 부윤으로 부임하여 울적합(兀狄哈)이 침입하자 이를 막아 싸우기도 하였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434년 지중추원사가 되고, 이어 1435년에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1437년 예문관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듬해 경상·전라·충청 등 3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로서 축성을 감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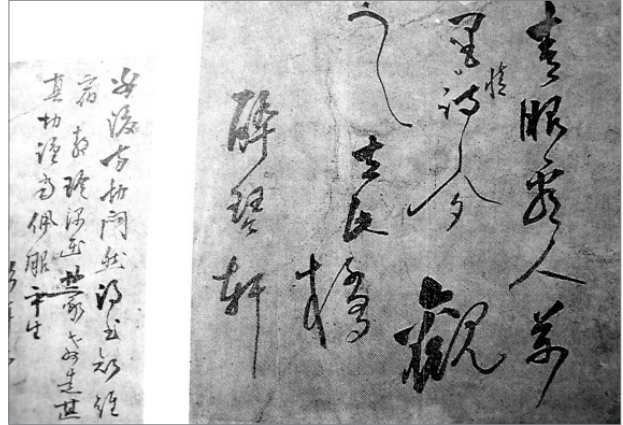
1439년 궤장(廓杖)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1442년 승록대부가 되었으며, 1446년 영 중추원사가 되었으나 이듬해에 죽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2) 박팽년(朴彭年)

박팽년(1417~1456)의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인수(仁馬), 호는 취금헌(醉琴軒)이다. 판서 박중림(朴仲林)의 아들로 회덕(懷德) 출신이며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단종 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 때 사육신(死六臣)의 한사람이다.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낙선방(樂善坊) 생민동(生民洞 : 지금의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부근)에서 거주하였으며, 세종 16년(1434)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세종 20년(1438)에 삼각산(三角山)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세종 29년(1447)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로 다시 급제하였다. 세종 때 성삼문(成三問)·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유성



박팽년의 필적

원(柳誠源)·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 등 당대의 유망한 젊은이들과 함께 집현전(集賢殿)의 학사(學士)로서 여러 편찬사업에 종사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이들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서도 그의 경술(經術)과 문장·필법이 뛰어나 집대성(集大成)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단종 1년(1453) 우승지를 거쳐 이듬해에는 형조 참판이 되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경회루(慶會樓)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하였으나 성삼문이 함께 후일을 도모하자고 만류하여 단념하고 이때부터 단종복위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세조 1년(1455)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이듬해에 다시 형조 참판이 되자 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兪應孚)·김질 등과 함께 은밀히 단종복위운동을 추진하였다. 그해 6월 1일 세조가 상왕인 단종을 모시고 창덕궁(昌德宮)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위한 만찬회를 열기로 하자 이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가 세조의 행사변경으로 여의치 않자 거사일을 뒷날로 다시 정하였다. 이에 함께 모의하였던 김질이 변심하여 세조에게 밀고, 발각되어 성삼문 등 다른 모의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국문을 받았다.

그는 모의사실이 드러났음을 알고 몇몇하게 시인하였으며 세조가 태종이 정몽주(鄭夢周)에게 부르던 노래로 그 마음을 떠보려하자 “금생려수(金生麗水)라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출곤강(玉出崑崗)이라 한들 피마다 옥이 나랴, 아무리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한들 남마다 좇을소냐”라는 단시(短詩)를 지어 답하여 그 뜻을 꺾지 않았다. 그러나 세조가 그의 재주를 사

랑하여 자신에게 귀부하여 모의사실을 숨기기만 하면 살려줄 것이라 은밀히 회유하였으나,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비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세조를 가리켜 상감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부르며, 세조가 노하여 “그대가 나에게 이미 신(臣)이라고 칭하였는데 지금 와서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자, 그는 “나는 상왕(단종)의 신하이니 나으리의 신하는 아니므로 충청 감사로 있을 때 한번도 신자(臣字)를 쓴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세조가 그가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올린 장계를 조사시켜 보니 실제로 ‘신(臣)’을 써야 할 대목에는 모두 ‘거(巨)’를 쓰고 있고, 세조 등극 이래 내린 녹(祿)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창고에 봉해 두고 있었다 한다. 그는 이후의 온갖 회유를 모두 거절하고 심한 고문을 받아 그달 7일에 옥중에서 죽었으며, 뒤에 그의 아버지 박중림과 동생 박대년(朴大年), 아들 박헌(朴憲)·박순(朴琿)·박분(朴奮)도 모두 처형되었다.

그뒤 그를 포함한 사육신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꼽혀 왔으며, 그들의 신원(伸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오다가 숙종 17년(1691)에 이르러 그들의 관직이 회복되게 되었으며, 영조 34년(1758)에 다시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를 받아 이조 판서에 증직(贈職)되었고, 정조 15년(1791)에 단종에 대한 충신들의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에 올랐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그의 성품은 침착하고 말이 적으며 소학(小學)으로 몸을 지켜서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의관(衣冠)을 벗지 아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이 나게 하였다 한다. 또한 문장과 필법에도 뛰어나 칭송을 들었는데, 특히 필법은 남북조시대의 중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에 버금간다 하였다. 그러나 삼대가 화를 입은 멸문(滅門)으로 그에 대한 자세한 행장이나 문집 등이 오늘날 전하지 않고, 남효온(南孝溫)이 사육신의 행적을 적은 『추강집(秋江集)』 사육신전(死六臣傳)이나 다른 책에 간헐적인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며 그의 글씨는 『취금헌천자문(醉琴軒千字文)』을 통해 그 기량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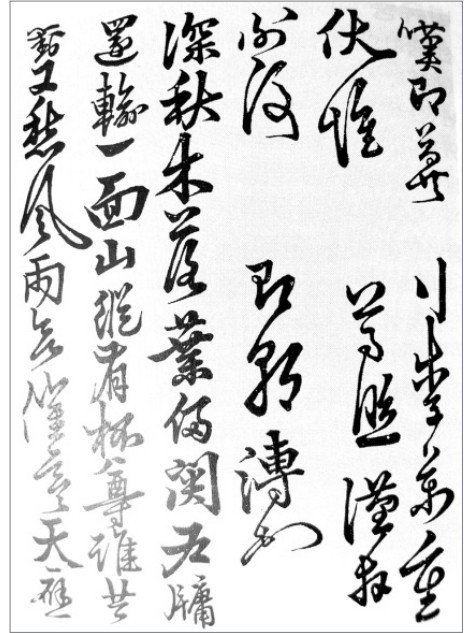
(3) 박은(朴聞)

박은(1479~1504)은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시인으로 현재 충무로 1가 장동에 살았다. 본

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설(仲說), 호는 읍취헌으로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박담손(朴聃孫)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범상하지 않아 이미 4세에 독서할 줄 알았고, 15세에 이르러서는 문장에 능통하여 당시 대제학이었던 신용개(申用漑)가 이를 기특하게 여겨 사위로 삼았다. 연산군 1년(1495) 17세로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같은 해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 선발에 뽑힌 뒤 곧 승문원 권지(承文院 權知)를 받고 홍문관에 선택되어 정자(正字)가 되었으며, 수찬에 있으면서 경연관을 지냈다.

1498년 20세의 약관으로 유자광(柳子光)의 간사함과 성준(成俊)이 유자광에게 아침함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그들의 모함을 받았다. 평소 직언을 꺼린 연산군은 사이부실(詐似不實)이라는 죄목으로 23세인 그를 파직 시켰다. 이때부터 그의 생활은 불우한 쪽으로 기울어져 갔고, 경제적·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되자 스스로 세속사람에게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자연에 묻혀 밤낮으로 술과 시로써 세월을 보냈다. 1503년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힘겹게 꾸려나간 아내 신(申)씨가 25세로 세상을 떠난 뒤 그 이듬해에 다시 지제교(知製敎)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갈 뜻이 없었다. 그는 갑자사화 때 동래로 유배되어 다시 의금부에 투옥되었다가 26세의 나이로 사형 당하였다. 그는 죽은 지 3년 후 신원되어 도승지로 추증되었는데 해동강서파(海東江西派)의 대표적 시인이며 박은의 절친한 친구인 이행(李荇)이 그의 시를 모아 『읍취헌유고』를 냈다. 그의 시는 주로 파직된 23세부터 아내가 죽기 전까지의 것이며, 현실세계에서 벗어난 온갖 고뇌로부터 정신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현실 초월의 노력과 주변인물의 죽음을 통한 인생무상을 노래하였다.



박은(朴園)의 글씨

(4) 정작(鄭碣)

정작(1533~1603)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충무로 1가에 거주하였다.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군경(君敬), 호는 고옥(古玉). 아버지는 좌의정 순봉(順朋)이다.

아버지가 이기·윤원형(尹元衡) 등에게 아부하여 세인으로부터 원흉의 한 사람으로 지목 받았는데,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윤임(尹任)·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을 죽인 뒤 유관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평소 학문에 정진하던 그는 선조 때 벼슬이 이조좌랑에 이르렀으나 아버지의 과거 전력이 세인의 지탄을 받게 되자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평소 시를 즐겨 주선(酒仙)의 칭을 얻기도 하였고, 특히 서예에 뛰어나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포천현감을 지낸 형 엄(嚴)과 함께 의술에 뛰어나서 선조 28(1596)에는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벼슬은 사평(司平)에 이르렀다.

(5) 유성룡(柳成龍)

유성룡(1542~1607)의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견(而見)이다. 호는 서애(西厓)로 강원도 관찰사 유증영(柳仲班)의 아들로 조선 중기의 문신·명 재상(名宰相)이다. 서울에서 벼슬하는 동안 남부(南部) 낙선방(樂善坊) 먹절골(묵사동, 墨寺洞)과 인현동 1가에서 살았다.

명종 19년(1564) 사마시를 거쳐 156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 권지 부정자에 이어 이듬해에 검열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였으며, 선조 2년(1569)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감찰·전직·공조 좌랑을 역임하고 수찬(修撰)으로 호당(湖堂)에 들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 후 정언·이조 좌랑·응교·검상(檢詳)을 거쳐 선조 12년(1579) 직제학·동부승지, 다음해에 부제학·상주 목사(尙州牧使)를 역임, 선조 15년(1582) 대사간에 승진, 도승지·대사헌에 이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1584년 예조 판서로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를 겸임, 선조 21년(1588) 양관 대제학·대사헌·병조 판서·지중추부사와 예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590년 우의정에 승진, 광국공신(光國

功臣) 3등으로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좌의정이 되어 이조판서를 겸임,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에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 등 명장(名將)을 추천 등용하게 하고 영의정이 되어 임금을 호종, 평양에 이르러 나라일을 그릇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으로 면직되었다가 의주(義州)에 이르러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에 이여송(李如松)과



유성룡집 터 표석

함께 평양을 수복, 그 후 충청·경상·전라 3도 도체찰사가 되어 파주(坡州)까지 진격하였다. 이 해에 다시 영의정에 올라 4도 도체찰사를 겸하여 군사(軍事)를 총지휘하는 한편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창설하였다. 선조 31년(1598) 명나라 경략(經略) 정응태(丁應泰)의 무고를 이 유 삼은 북인파(北人派)의 탄핵으로 관직이 삭탈되었다. 1600년 복관되었으나 고향인 하회(河回)에 은거한 채 다시 벼슬하지 않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선조 37년(1604) 광국호성공신(光國扈聖功臣) 2등이 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진봉되었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 6세에 『대학(大學)』을 배우고 9세에 『논어(論語)』를 읽고 16세에 향시(鄉試)에 합격, 이미 젊어서 총명 박학하여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한번 보고 ‘이 사람은 하늘이 내렸다’ 하였다. 항상 경세제민(經世濟民)에 유의, 그를 바탕으로 예악교화(禮樂教化) 뿐 아니라 재정(財政)에도 세밀하여 임금을 대할 때면 일심전력으로 성의를 쌓아 의리를 진술하기를 자세하고 간절하여 선조께서 ‘바라보면 자연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여러 번 탄복하였다. 당파간의 대립으로 매양 서로 엇갈려서 정책을 써볼 수 없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큰 임무를 맡아 마음을 태우고 힘을 다하여 말로 건의하는 것이나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나 부지런하고 간절하였다. 중흥(中興)을 기함에 이바지한 바 지대하여 전란 중에 공훈이 많은 신하 가운데에서 가장 공적이 드러났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근대 명상(名相) 가운데 유성룡 영의정이 가장 으뜸이다’ 하였다.

저서에 『서애집(西厓集)』·『징비록(懲毖錄)』·『난후잡기(亂後雜記)』·『무오당보(戊午

黨譜』 등이 있다. 안동의 호계서원(虎溪書院) ·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6) 심희수(沈喜壽)

심희수(1548~1622)의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 · 수뢰루인(水雷累人)으로 서울 장흥동(長興洞 : 현 중구 충무로 1가)에 거주하였다. 정자(正字) 심건(沈鍵)의 아들이며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종제(從弟)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노수신(盧守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선조 3년(1570)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이해 이황(李滉)이 죽자 성균관을 대표하여 장례에 참여하였다. 1572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임되고, 1583년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 옥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다 조정과 뜻이 맞지 않자 사임하였으나 이듬해 곧 부응교가 되었다. 1591년에는 응교로서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동래에서 일본사신을 맞았다. 이어 간관이 되었으나 여러 차례 직언을 하다가 선조의 비위에 거슬려 사성(司成)으로 전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여 도승지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지만, 중국사신이 오자 중국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다시 도승지에 임명되어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을 영접하였다. 이 해 겨울 형조 판서를 거쳐 호조 판서가 되어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의 접반사가 되어 서도(西道)에 오래 있으면서 송응창을 설득하여 관서의 기민구제에 애를 썼다.

1599년 예문관 제학 · 예조 판서를 거쳐 이조 판서가 되어 홍문관 ·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였고, 이후 좌찬성 · 우찬성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1606년 좌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선조(宣祖)의 생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추숭(追崇)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608년 광해군의 즉위로 다시 좌의정이 되었고, 권신 이이첨(李爾瞻) 등이 임해군(臨海君)을 극형에 처하자고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가 일어나 부

원군 김제남(金梯男)이 죽고 이이첨 등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옥사의 주모자로 몰아 해치려하자 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 등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듬해 영창대군의 처형을 비판하고 가해자 강화 부사 정항(鄭沆)을 참수하라고 주장하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받은 정온(鄭蘊)을 적극 변호하여 귀양에 그치게 하였다.

1615년 영돈녕부사로 있을 때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허균(許筠)이 중국야사에 와전된 종계(宗系)를 시정했다고 보고하여 조정에서 그 축하연의 개최 여부가 논의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축출 당하였다. 이듬해 폐모론이 다시 제기되자 둔지산(屯之山)에 은거하여 『주역(周易)』을 읽고 시를 읊으며 지조를 지켰다. 1620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국사를 비판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종로구 명륜동 3가(관동, 館洞)에 사당(祠堂)이 있었다.

문장에 뛰어났고 글씨를 잘 썼으며, 저서로는 『일송집(一松集)』이 있다. 상주의 봉암사(鳳巖祠)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7) 유영경(柳永慶)

유영경(1550~160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성명방(충무로4가)에 거주하였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선여(善餘), 호는 춘호(春湖). 헌(軒)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린(世麟)이고, 아버지는 참봉 의(儀)이며, 어머니는 노첨(盧僉)의 딸이다. 예조참판 영길(永吉)의 동생이다.

선조 5년(1572)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 등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간으로서 초유어사(招諭御史)가 되어 많은 의병을 모집하는 활약을 보였고, 1593년 황해도순찰사가 되어 해주에서 왜적을 맞아 60여급을 베는 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행재소(行在所)에서 호조참의에 올랐다.

선조 27년(1594) 황해도관찰사가 되었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가족을 먼저 피란시켰다는 혐의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병조참판에 서용되었다. 당론이 일어날 때에는 유성룡과 함께 동인에 속했으며, 동인이 다시 남인·북인으로 갈라지자 이발(李潑)과 함께 북인에 가담하였다.

선조 32년(1599)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남이공(南以恭)·김신국(金薰國) 등이 같은 복인인 홍여순(洪汝諄)을 탄핵하면서 대북·소북으로 갈리자, 유희분(柳希奮) 등과 함께 남이공의 당이 되어 영수가 되었다. 이 때 대북파에 밀려 파직되었다가 선조 35년(1602) 이조판서에 이어 우의정에 올랐다. 그런데 대북파의 기자헌(奇自獻)·정인홍(鄭仁弘) 등과 심한 마찰을 빚었고 뒤이어 세자 책봉문제로 더욱 분란을 일으켰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에 봉해진 뒤 선조에게 존호를 올리고 윤승훈(尹承勳)의 뒤를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선조 39년(1606) 선조 즉위 40주년 행사를 앞당겨 하례(賀禮)하고 증광시(增廣試)까지 실시해 즉위 때와 같이 경축하게 하는 등 왕의 총애를 굳히려 하였다. 오랫동안 집권해 권력이 증대되고 그에게 뇌물 공여도 횡행하였다. 그 뒤 같은 소북파인 남이공과 불화해 탁소북(濁小北)으로 분파했으며, 선조 말년에 왕의 뜻을 따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광해군에 대신해 옹립하려 하였다. 선조 41년(1608) 선조가 죽기 전에 영창대군을 부탁한 유교칠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이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 이이첨(李爾瞻)·정인홍의 탄핵을 받고 경흥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유생의 명단인 청금록(靑衿錄)에서 이름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관직이 복구되었다.

(8) 이민구(李敏求)

이민구(1589~1670)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한성부 남부 명례방의 진고개(현재 충무로 2가)에 살았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 또는 관해(觀海)로 이조판서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이다.

광해군 1년(1609)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12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수찬(修撰)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예조(禮曹)·병조 좌랑(兵曹佐郎)을 거쳐 광해군 14년(1622)에는 지평(持平)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선위사(宣慰使)로 일본사신을 접대하였다. 인조반정 후에는 교리·지평·응교를 거쳐 인조 1년(1623)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며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의 종사관

(從事官)이 되어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인조 4년(1626)에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병조 참의(兵曹參議)가 되어 세자(世子)를 호위하여 전주(全州)에서 난을 피하였다. 그해 승지(承旨)가 되었다가 외직(外職)인 임천 군수(臨川郡守)로 나갔으며 인조 14년(1636)에는 이조 참판·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였다.

이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화의를 주장하다가 윤집(尹集)의 논박을 받고 중지하였으며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江華)에 모시기 위해 선편(船便)을 준비했으나 적군(敵軍)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았으므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빈궁(嬪宮)을 호위하여 강화도에 들어가서 삼전도 굴욕 후 돌아와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책임을 물어 아산(牙山)으로 유배되었다가 인조 21년(1643)에 영변(寧邊)으로 이배(移配)되었으며 인조 27년(1649)에 방환(放還)되었다. 그뒤 부제학·대사성·도승지·예조 참판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장에 뛰어나고 특히 사부(詞賦)에 능하였으며, 글쓰기를 즐겨 그가 쓴 책이 4,000여 권이 되었다 하나 병화(兵禍)로 거의 소실되고 『동주집(東洲集)』·『독사수필(讀史隨筆)』·『간언귀감(諫言龜鑑)』·『당률광선(唐律廣選)』 등이 있다.

이민구가 내·외직을 역임하고 5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진고개를 지나다가 우연히 굴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불현듯 옛날 생각이 떠올라 우물 맛을 보니 옛날 그대로였으나 우물 모습은 고색창연하였다. 그는 흘러간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물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본 뒤 시를 지은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9) 윤선거(尹宣舉)

윤선거(1610~1669)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노서(魯西)·산천재(山泉齋)이다. 아버지는 대사간 황(煌)이며, 어머니는 창녕성씨(昌寧成氏)로 혼(渾)의 딸이다. 문거(文學)의 아우이며, 증(拯)의 아버지이다.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남북골, 현재 충무로4가 지역에 살았다.

인조 11(1633) 식년문과에 형 문거와 함께 급제하였다. 1636년 청나라의 사신이 입국하자 성균관의 유생들을 규합, 사신의 목을 베어 대의를 밝힐 것을 주청하였다. 그 해 12월 병자

호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되자 처 이씨가 자결하였으나 평민의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효종 2년(1651) 이래 사헌부지평·장령 등이 제수되었으나,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켜 죽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김집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성리학과 예학(禮學)에 잠심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경전 주해(經傳註解) 문제로 윤휴와 사이가 나빠지자, 평소 윤휴와 친교가 깊었고 그의 재질을 아끼는 마음에서 변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교분이 두터웠던 송시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뒤에 노소(老少) 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유계(兪垕)와 함께 저술한 『가례원류(家禮源流)』·『후천도설(後天圖說)』 및 이에 관하여 유계와 논변한 편지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영춘(永春)의 송파서원(松坡書院), 영광(靈光)의 용암사(龍巖祠), 노성(魯城)의 노강서원(魯岡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노서유고』 26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0) 김광국(金光國)

김광국(1685~?)은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으로 남부 회현방 장동(충무로1가·회현동 2가 지역)에 살았다. 본관은 안동, 자는 대관(大觀)이며 승지 준원(俊元)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담(湛)이다. 그는 영조 11년(1735)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장령(掌令) 등의 청요직을 거치고 1755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사간·승지·황주 목사 등을 차례로 역임한 후 1769년 도승지에 올랐으며, 이어 병조참판까지 지내고, 1779년 내의원 의관이 되었다. 편저로 『간독(簡牘)』이 있다.

(11) 홍양호(洪良浩)

홍양호(1724~1802)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충무로2가 진고개에 살았다. 본관은 풍산(豊山) 초명은 양한(良漢)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溪)이다. 만회(萬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중성(重聖)이고, 아버지는 진보(鎭輔)이며, 어머니는 심수현(沈壽賢)의 딸이다. 이조판서 경모(敬謨)의 할아버지이다.

영조 23년(1747) 진사시에 합격하고, 175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 50년(1774) 등준시(登俊試)에 뽑히기도 하였다. 정조 1년(1777) 홍국영(洪國榮)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경흥부사로 밀려났다가 홍국영이 실각되면서 1781년 한성부 우윤이 되었다.



홍양호(洪良浩)의 영정

이어 사간원대사간·사헌부대사헌·평안도관찰사·이조판서 등을 거쳐 1799년에는 홍문관·예문관 양관(兩館)의 대제학을 겸임하는 최고의 영예를 지냈다. 두 차례에 걸쳐 연경(燕京)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석학들과 교유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고증학(考證學)을 수용·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영조실록』·『국조보감』·『갱장록(羹牆錄)』·『동문휘고(同文彙考)』를 비롯한 각종 편찬사업을 주관하기도 했으며, 지방관의 지침서인 『목민대방(牧民大方)』을 저술하였다. 특히, 1764년에는 일본에 가는 통신사(通信使) 일행에게 부탁해 벗나무 묘목을 들여다가 서울 우이동에 심어 뒷날의 경승지를 이루게도 하였다. 1801년 판중추부사로 물러났다가 이듬해 79세의 나이로 죽었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이계집』 37권 외에 『육서경위(六書經緯)』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문장이 바르면서 숙련되고 법칙이 있어서 당시 조정의 신료 중에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글씨도 진체(晉體)와 당체(唐體)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다. 곡산의 신덕왕후 사제 구기비(神德王后私第舊基碑)와 수원성(水原城)의 북문루 상량문(北門樓上梁文)이 대표적이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정조 7년(1783) 7월 대사헌 홍양호(洪良浩)는 상소문에서 용차(用車)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방에서 우리나라만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도로의

암험(巖險)함과 소·말의 적음'을 들고 있는 것을 부정(否定)하였다. 중국의 예를 들어 '도로의 험준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소·말은 적극적으로 목축하면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에서 차(車)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영남의 안동·의성, 해서의 장연·신천, 관북의 함흥 이남 그리고 6진 제읍(六鎭諸邑)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용하던 우마는 조순(粗純)하여 멀리 운행할 수 없어 실용 가치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제차법(製車法)을 배워야 한다고 중용하였다. 먼저 제군문(諸軍門) 및 양서감영(兩西監營), 의주 등지에서 차공(車工)을 중국에 보내어 여러 가지 차량의 제도를 모사(模寫)해 와서 수량(數量)씩 제조하여 사용해 보고 편리한 것을 보급시키면 몇 해가 되지 않아 전국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으로 '상고전수(商賈轉輸) 백화유통(百貨流通)'이라 하여 상품유통의 원활을 말하고, '공헌부세(貢獻賦稅) 고임비성(雇賃費省)'이라 하여 공부비용(貢賦費用)의 절감을 말하고 '마력불곤(馬力不困) 기마가유(騎馬可裕)'라 하여 우역쇄신(郵驛刷新)과 군사력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12) 윤시동(尹蓍東)

윤시동(1729~1797)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충무로 1가에서 살았다. 충무로 1가 낙동마을 서쪽에 조말생의 옛집이 있었던데 반해 그 동쪽에는 문익공(文翼公) 윤시동의 집이 있어서 이 두 집이 거북이의 양쪽 눈에 해당한다고도 전해지고 있으며, 거북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공북헌(拱北軒)이라는 정자도 있어서 유명하였다.⁵²⁾ 윤시동의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백상(伯常), 호는 방한(方閒)이다. 황해도 관찰사 윤세수(尹世綏)의 증손이며 윤득민(尹得民)의 아들이다. 25세인 영조 30년(1754)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1755년에 설서·정언·지평 등을 역임하면서 당론을 일으켰다는 탄핵을 받아 영조 32년(1756)부터 7년간 전리(田里)에 유배되었다. 영조 41년(1765) 제주 목사(牧使)에 제수되었고, 그 이듬해 1766년 대사간이 되자 신광집(申光緝)의 무죄를 논하다가 다시 전리에 방축되었으며, 영조

48년(1772) 갑산에 유배되었다가 3년 후에 대사헌이 되었다. 영조 52년(1776) 경기도 관찰사 재직시 당론을 운위했다는 죄로 다시 남해(南海)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정조 10년(1786) 개성 유수로 발탁되었고, 정조 12년(1788) 형조 판서로 있을 때에 다시 당론을 운위하다가 삼화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에 풀려나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김종수(金鍾秀)·심환지(沈煥之) 등 시파와 함께 벽파 공격에 앞장섰고, 김한구(金漢耆)·홍인한(洪麟漢) 등 척신의 축재를 규탄하였다. 정조 19년(1795)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나라의 고사(故事)를 잘 알았고, 군국(軍國)의 기무에 정통하였으며 개성이 뚜렷하여 옳다고 생각하던 당론을 일삼았기 때문에 파란 많은 생애를 보냈다. 그의 편저로는 『향례합편(鄉禮合編)』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3) 정수동(鄭壽銅)

정수동(1808~1858)은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해학과 풍자에 능했고, 시문(詩文)에 뛰어났던 기인으로 진고개에서 50평생을 살았다. 본관은 동래(東萊). 본명은 지윤(芝潤). 자는 경안(景顔), 호는 하원(夏園)이다. 태어날 때 손바닥에 수(壽)자의 문신이 있었고, 이름 지윤의 ‘지(芝)’가 『한서 漢書』에 ‘지생동지(芝生銅池)’로 있다고 하여 동(銅)자를 따서 수동이라는 별호를 사용하였다.

정수동은 왜어역관(倭語譯官)의 가게에서 출생했으나 문인으로 생활하였다. 생업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기 좋아하여 극도의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에 불만을 느껴서 평생을 광인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그의 언동에는 날카로운 풍자가 깃들어 있었다. 본디 규율적인 생활을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평생을 포의시객(布衣詩客; 벼슬이 없는 시인)으로 만족하였다. 두뇌가 명석하여 아무리 뜻이 깊고 어려운 문장도 한 번 훑어보고는 그 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겸손하여 모르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

정수동은 위항시인(委巷詩人)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에 관련된 허다한 일화들이 유포되어 ‘기발한 익살꾼 정수동’으로 유명하였다. 시풍은 권력이나 금력에 대한 저항 속에 날

카로운 풍자와 야유로 일관하고 있다. 시를 짓는 것은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하였다.

“성령이 한번 붙으면 붓끝을 다할 따름이지, 시체나 신품을 좇거나 교묘하고 섬세한 것을 다투지 않는다.”는 성령론(性靈論)을 구현한 시인이다. 번거로운 문장이나 허황한 형식을 배격하고, 간결한 가운데에 높은 격조를 담은 시를 썼다.

그의 시는 기발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가를 이루고 있다. 그는 술을 좋아하였고, 김흥근(金興根)·김정희(金正喜)·조두순(趙斗淳) 등 명사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이들이 그의 재주를 아껴 도우려 하였으나 거절하고 자유롭게 살았다.⁵³⁾ 그는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하나를 소개해 본다.

어느 날 영의정 김흥근의 집을 들어서는데 계집종이 호들갑을 떨며

“아이고 제 애놈이 엽전을 삼켰으니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고 당황하자 정수동은

“남의 돈 7만냥을 먹고도 꼬덕했는데 제 돈 한 뼉 삼킨 것이 탈은 무슨 탈이겠느냐?”

하고 말했는데 사랑방에서 이 말을 들은 김대감은 뇌물로 받았던 7만냥을 대뜸 돌려 주었다고 한다.

하루는 북촌 어느 대갓집에서 밤 늦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 한 병을 얻어 들고 눈 내리는 한 밤중에 진고개 집으로 돌아가다가 막 광고다리를 건너려는데 맞은 편에서

“게 섰거라, 통금시간에 나 다니는게 누구냐?”

하며, 순라꾼이 달려오는 것이었다. 정수동이 잽싼 동작으로 다리 한 가운데 눈 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 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 서서

“이 금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아들놈이다.”

하고 버티니 순라꾼이 선뜻 내키지 않아

“냉큼 이리로 나오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정수동은

“자네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아들놈이 되게 그려.”

하고 능청을 떨었다. 이렇게 나오라느니 들어오라느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수동이

“여보게 자네나 나나 고달픈 인생이긴 마찬가지인데, 서로 실랑이하며 기운을 빼서 무엇하겠는가? 굳이 금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거든 금 밖으로 다가앉게나. 눈 내리는 이 밤에 술이나 한 잔 나눠 마시세 그려”

하고 병째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건네주니 순라꾼도 병을 받아 한 모금 들이키고는, 그 술이 감칠맛 나는 명주(名酒)인지라 그제야 마음을 터놓고 권커니 자커니 하는 사이에 어느덧 통금 해제를 알리는

파루(罷漏)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가도 되겠구먼 그려”

하고 정수동이 빙긋이 웃으며 발을 떼어놓자 순라군도 꾸벅꾸벅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배웅하였다 한다.⁵⁴⁾

정수동은 50세에 과음으로 인하여 죽었다. 저서로는 『하원시초(夏園詩鈔)』가 있다.

(14) 김상현(金尙鉉)

김상현(1811~1890)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충무로2가 52번지에 살았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위사(渭師), 호는 경대(經臺)·노현(魯軒). 장생(長生)의 9대손이며, 상악(相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기진(箕晉)이고, 아버지는 재곤(在崑)이며, 어머니는 유경주(兪擎柱)의 딸이다. 정약용(丁若鏞)·홍석주(洪奭周)·김매순(金邁淳)의 문인이다.

순조 27년(1827) 진사가 되고 철종 10년(1859) 군수로서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1860년 대사간을 지냈다. 고종 때에 들어서도 고종 1년(1864) 대사간을 거쳐 이조참의·승지·대사성·이조참판·예문제학·홍문제학·도총관·공조판서·예조판서·경기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대사헌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고종 19년(1882) 시강원 우부빈객(侍講院右副賓客)과 우참찬·좌참찬·판돈녕부사 등을 지냈으며, 1885년 고종에게 세 차례나 치사하기를 청하여 봉조하가 되었다. 그 뒤 제술관 등을 지내고, 고종 24년(1887)에는 소과의 시관(試官)을 맡아보았다. 문장에 능하여 왕실에 서 필요한 전문(箋文)·죽책문(竹冊文: 대나무 간책에 새기는 옥책문)·옥책문(玉冊文: 제왕·후비 등의 호를 올릴 때 쓰는 德을 읊은 글)·행장·악장문(樂章文) 등을 저술하였다.

갑신정변 때 영사관으로 삼았던 박영효 집이 소실되자 일본측은 조선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므로 정부는 충무로 2가 52번지의 김상현(金尙鉉)의 집을 임시 일본공사관으로 삼게 하고 김상현 소유의 녹천정(綠泉亭)을 일본공사관 대지로 제공하였다. 녹천정은 현재 남산한옥촌(필동2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문집으로 《경대집》이 있다.

(15) 이종승(李鍾承)

이종승(1828~?)은 조선후기 순조 때의 무신으로 남산 밑 이동(泥洞 : 지금의 충무로 2가)에 살았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총선(總仙)이다. 병조판서 이규철(李圭徹)의 아들로 철종 9년(1858) 황해도지방의 수군절도사를 지냈으며 종실(宗室)로 하여금 군사권을 장악하게 하던 대원군에 의하여 고종 2년(1865)부터 만 2년 동안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뒤 좌포도대장과 함경도 지방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874년 좌포도대장으로 수도 한성을 중심으로 양곡의 부정과 난민들의 발호를 막는데 힘썼으나 결국 세곡선 부정과 명화적(明火敵)의 발호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파면되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은 뒤 삼도 수군통제사로 임명되어 해안의 방비에 힘썼으며, 그 후 금위대장과 강화도유수·공조판서를 거쳐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좌포도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남산 아래 이동(泥洞)에 있던 그의 집을 습격하여 가재도구 등을 파괴하여 난동을 부리자 시골로 피신하였으며, 그의 집은 제물포조약을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로 온 일본의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가 금위대장 이종승의 집을 임시 공사관으로 하고, 그가 이끌고 온 1,200명의 군대는 남산일대에 주둔하였다.

임오군란 후 이종승이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자 1885년 정부에서는 유배를 명하였으며, 이어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면서 그에게 감사와 향례하는 특권이 부여되었고, 그 뒤 형조판서와 전환국 총판·판의금부사를 거쳐 1900년에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16) 허생(許生)

조선 후기에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한문 단편소설 『허생전』에 주인공이다. 허생은 남산 아래 목적골(충무로 4·5가, 목정동, 필동 2·3가)의 오막살이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박지원의 문집인 『연암집(燕巖集)』 별집(朴榮詰本, 1932)의 《열하일기(熱河日記)》중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수록되어 있다. 이가원(李家源) 소장의 일채본(一齋本) 필사본에

는 <진덕재야화(進德齋夜話)>에 들어 있다.

<옥갑야화>는 작자 박지원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옥갑에 들러 여러 비장(裨將)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다. 『허생전』은 변승업(卞承業)의 할아버지인 윤영(尹映)에게서 들은 변승업의 치부 유래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다. 본디 제목 없이 편의상 『허생』 또는 『허생전』이라 부른다. <옥갑야화> 전체를 한 편의 작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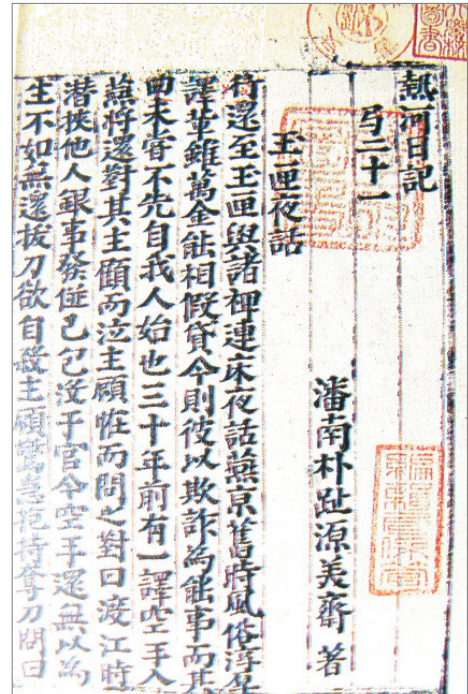
『허생전』을 지은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박지원이 중국에 다녀온 것이 정조 4년(1780)이고, 『열하일기』를 다시 기술한 것이 1793년이므로 그 사이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덕재야화>의 후지로 미루어 1780년 이전의 4, 5년 사이에 쓰여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였으나 몹시 가난하였다. 아내가 삶바느질을 하여 살림을 꾸려나갔다. 굶주리다 못한 아내가 푸념을 하며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무엇 때문에 읽으며, 장사 밑천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못하느냐고 대든다. 허생은 책을 덮고 탄식하며 문을 나선다.

허생은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꾸어 가지고 안성에 내려가 과일 장사를 하여 폭리를 얻는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다. 그 뒤에 어느 사공의 안내를 받아 무인도 하나를 얻었다.

허생은 변산에 있는 도둑들을 설득하여 각기 소 한 필, 여자 한 사람씩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무인도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 3년 동안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흉년이 든 나가사키(長崎)에 팔아 백만금을 얻게 된다.

그는 외부로 통행할 배를 불태우고 50만금은 바다에 던져버린 뒤에 글 아는 사람을 가려 함께 본토로 돌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 10만금을 변씨에게 갚는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의 허생전 부분

변씨로부터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李浣)대장이 변씨를 데리고 허생을 찾는다. 이완이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는 뜻을 이야기하자 허생은 “내가 와룡선생을 천거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 나라에 훈공이 있는 임금의 친척) 귀가의 세력을 빼앗겠느냐?”, “우수한 자제들을 가려 머리를 깎고 호복(胡服)을 입혀, 선비들은 유학(留學)하게 하고, 소인들은 강남에 장사하게 하여 그들의 허실을 정탐하고 그곳의 호걸들과 결탁하여 천하를 뒤엎고 국치를 설욕할 계책을 꾸미겠느냐?”고 묻는다.

이완은 이 세 가지 물음에 모두 어렵다고 하자, 허생은 “나라의 신신(信臣)이라는 게 고작이 풀이냐!”고 분을 참지 못하여 칼을 찾아 찌르려 하니 이완은 달아난다. 이튿날에 이완이 다시 그를 찾아갔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고 집은 비어 있었다.

『허생전』은 박지원의 실학적 경륜을 볼 수 있다. ‘남한설치(南漢雪恥)’라는 국민감정을 부채질하여 ‘북벌’이란 허울 좋은 구호를 내걸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에 집중시켜, 자체 안의 병리에 눈감아 버리게 한 당대 위정자의 무능과 허위를 꼬집어 풍자한 문제작이다.

허생이 이완에게 제시한 인재등용, 훈척들의 추방 및 명나라 후예와의 결탁, 유학(留學)과 무역 등의 시사삼난(時事三難)의 단편적인 내용을 묶어 작품의 절정을 삼고 있다. 그럼으로써 무능한 북벌론자를 몹시 꾸짖고, 북학론(北學論)을 주장한 수법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허생전』은 박지원 스스로가 윤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민담(民譚)을 소설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희준(李羲準)의 《계서야담 溪西野譚》에도 이 작품과 흡사한 내용의 허생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 실존하였던 인물 허호(許鎬)의 일이 허생과 비슷하다.

그러나 『허생전』의 두 편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윤영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애매하다. 심지어는 허생의 성인 허(許)조차 부인되고 있고, 박지원이 자신의 작품임을 숨겨서 당대의 사람들의 비난을 모면하려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허생전』은 지난날의 전기소설(傳奇小說)과는 달리 이 소설은 사회의 병리를 통찰하고 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열정을 가졌던 이상주의자 허생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소설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⁵⁾

4. 손꼽을 만한 문화유적

(1) 독일 공관

개화의 물결이 몰려오던 1884년에 독일 공관이 임시로 낙동(駱洞, 현 충무로 1가 중앙우체국 뒷편)의 한옥을 빌려 들어 있었다.

한독수호통상조약(韓獨修好通商條約)은 1883년 11월 26일 조인되었으나 조인 직후 두 나라 사이의 외교업무가 곧바로 시작된 것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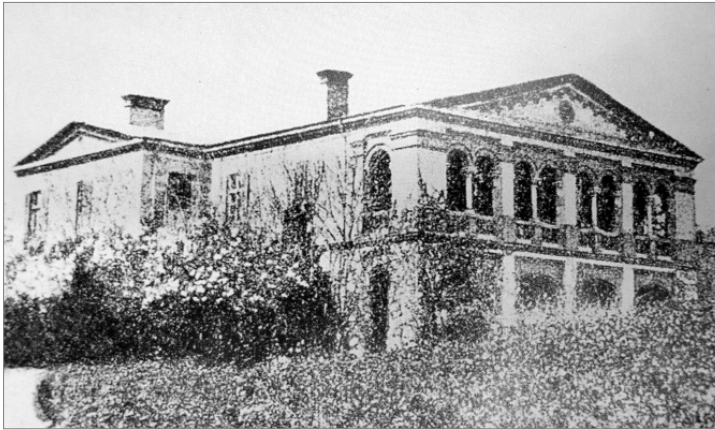
독일 영사관

니고 다음해 6월 24일에 부영사 버들러(H. Budler)가 입경하여 조약비준을 위한 업무가 추진된 후 그 해 10월 8일에 총영사 켐쉬(Zembsh)가 부임하여 조약을 비준하자 10월 14일에 가서야 비로소 공관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최초의 공관은 당시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파견된 뮐렌도로프(목린덕(穆麟德): Mellen dorff)에 의해 알선이 되어 낙동에 있던 한옥을 3개월에 한번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매달 15원(元)에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다.⁵⁶⁾ 그 후 건물이 좁고 낡았다는 이유로 인근 서쪽에 있던 빈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여러 차례 조선정부에 청원했으나 조선정부는 그 집은 프랑스공관(佛國公館)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워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끝내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1886년 11월 과거 뮐렌도로프가 살았던 박동(현 수송동 종로구청 자리)으로 옮기게 된다. 원래 이 집은 선혜청 당상 민겸호(閔謙鎬)의 저택이었다.⁵⁷⁾

(2) 벨기에 영사관

벨기에(白耳義) 영사관은 1919년 중구 회현동 2가 78번지에서 현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벨기에 영사관

부근(충무로 1가 18번지)으로 이전하였다.⁵⁸⁾

한백(韓白)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조선과 벨기에 간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된 것은 1901년 10월 17일 벨기에 전권위원 빈가르트(Leon Vincart)가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조

약을 비준하면서부터 이다. 빈가르트는 조약 비준 직후부터 총영사가 되어 외교업무를 시작하였고, 이듬해 6월 10일에 영사관 신축기지를 현재의 회현동 2가 78, 79번지에 선정하여 1903년 2년여에 걸쳐 공사를 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건평 454평의 영사관건물을 신축하였다. 벽돌과 석재(石材)를 혼용(混用)하여 지은 이 건물은 고전주의 양식(古典主義樣式)의 현관과 발코니의 아이오닉 오더(Ionic Order) 석주(石柱) 등 의장상(意匠上) 상당히 수려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 영사관도 타국과 마찬가지로 을사조약 이후에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사관을 유지했으며, 1919년에는 영사관건물을 일본의 횡빈생명보험회사(橫濱生命保險會社)에 팔고 그 위치를 충무로 1가 18번지로 옮겼다. 이 건물은 그후 일본 해군성(海軍省)에서 무관부(武官部) 관저로 쓰다가 광복 후에는 해군 헌병감실과 상업은행에서 사용하던 중, 사적 제254호로 지정되자 서울특별시에서 새로 이전 복원을 위해 1980년 8월 철거를 하여 1982년 8월에 관악구 남현동 541번지 1, 2, 6, 7호에 이전 복원하였다.

(3) 일본영사관과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충무로 1가 52번지)에는 1896년~1905년까지 일본영사관이 있었다. 일제는 임오군란 후 정선방(貞善坊: 현재 경운동)의 개화파 박영효 집을 영사관으로 삼았으나 1884년 갑신정변으로 소실되었다. 일본측은 조선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여 한성

조약에 의해 조선 정부는 남산 밑의 주동(注洞) 언덕에 위치한 현재 중구 필동2가(남산 한옥촌 일대)의 전 판서 김상현(金尙鉉) 소유의 녹천정(綠泉亭)을 일본공사관 대지로 제공하였다. 또한 일제는 소실된 영사관의 변상조로 건축비까지 강요함



충무로 입구(1903년)

에 따라 조선 정부는 이를 부담하였다. 1894년 동경에서 온 목수 나까무라(中村底吾)에 의하여 일본공사관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⁵⁹⁾ 이 건물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 이후에는 통감관저로, 1910년 국권 강탈 이후에는 총독관저로 일시 사용하였다.

한편 일제는 공사관과 경복궁과의 일직선이 되는 지점(현 충무로 1가 52번지)을 일본영사관 부지로 책정하고, 1895년 7월부터 건물 매입 교섭에 들어갔다.

원래 일제는 일본거류민단의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한국으로 진출한 일본헌병 및 군인과 함께 1885년 일본영사관을 용산에 설치하였는데 남산의 일본공사관과 가까운 곳에 둔다는 방침에 따라 현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터를 매수하여 벽돌과 목조 2층의 청사를 1896년 12월 30일에 준공하였다.⁶⁰⁾ 이는 일본 내무성 기사 선기흠재(船起欽哉)에 의하여 감독된 것으로 소규모의 르네상스식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이듬해 2월 1일에 일제가 일본영사관을 폐지함에 따라 이 청사는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이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⁶¹⁾ 1909년에 이르러 업무가 폭증하자 건물이 협소했으므로 11월에 본관 동쪽에 평옥(平屋) 건물 1개 동의 청사를 완공하여 12월 20일에 입주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는 이사청(理事廳)과 지청(支廳)을 각 지방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통치조직을 체계적으로 해체시켜 나갔는데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에는 지청의 책임자를 각 도의 관찰사 밑에 서기관으로 임명했으므로 이들이 지방행정의 간섭·감독 등을

하게 됨으로써 지청이 폐지되고 이사청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일제는 이사청을 각지에 설치하면서 개항장과 개시장(開市場)의 감리서(監理署)가 폐지되고 일본공사관·영사관도 폐쇄하였다. 이사청은 통감의 명을 받아 영사업무와 일본 거류민의 행정과 통제를 하는 외에 관할구역 내의 한국 지방행정을 감독하여 치안·사법 업무도 담당하였다.

경성이사청의 관할구역은 5도 58군에 걸쳐 매우 넓었으므로 1906년 11월 18일 수원지청, 1907년 6월 30일에 충주지청을 설치하여 수원·이천·원주 이남을 관할하게 하다가 1910년 10월 1일 경기도청, 충청북도청에 각각 이관되었다. 경성이사청은 대한제국 말에 콜레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한성위생회」규약에 따라 보건·위생 규칙과 요식업·교통·출판·거리질서 등에 관한 법규를 제정, 시행하였다. 또한 거류민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學校組合)을 관리하고, 일본거류민들의 행정자치단체인 경성거류민단, 용산거류민단 등 2개의 거류민단과 6개의 거류민단총대역장, 2개의 일본인회를 관할하였다.

경성이사청 업무가 개시되면서 이사청 경찰은 거류민의 치안과 한국인들의 위법사항도 다루었다. 이 당시 경성이사청 경찰기관으로는 경찰분서(警察分署)가 용산·개성·대전 등 3개소에 있었고, 순사주재소는 영등포 등 8개소에 두었는데 이 업무는 1910년 7월 13일 경무총감부로 이관되었다.

1910년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4년 8개월간 서울의 일본 거류민을 관할하던 경성이사청도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경성이사청 청사는 경성부가 사용하게 되었다.⁶²⁾ 경성부 청사는 지금의 서울시청 건물이 준공되던 1926년까지 사용하다가 옮겨간 빈터에는 1929년 9월 미쓰코시 오복점(三越五服店)이 불하받아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을 짓기 시작하여 대지면적 730평, 건평 435평, 연건평 2,300평으로 준공하였다. 이 백화점은 종업원 360여명이 근무함으로써 당시로서는 만주·조선을 통틀어 최고의 백화점으로 출발하였다.⁶³⁾

한편 1922년에는 오복점(吳服店)을 경영하던 중강승치랑(中江勝治郎)이라는 일본상인이 현재 지하철 명동역 남서쪽(충무로 1가 45번지)에 미나카이백화점(三井百貨店)을 설립하여, 1932년에는 현대식의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⁶⁴⁾

(4) 장흥고(長興庫)

조선시대에 궁중 내의 여러 공서(公署)에서 쓰이는 돛자리(席子), 장판(油氈), 종이(紙地) 등을 맡았고 또 궐내에서 쓰이는 물품을 달마다 공급하던 관아였다. 고려시대에는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대부상고(大府上庫)를 장흥고로 하였고, 소속관원으로 사(使, 종5품) 1인, 부사(副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을 두었다. 공민왕 때에는 사를 강등하여 종6품으로 하고, 부사·직장을 폐지하였으며 대신 주부(注簿, 종8품)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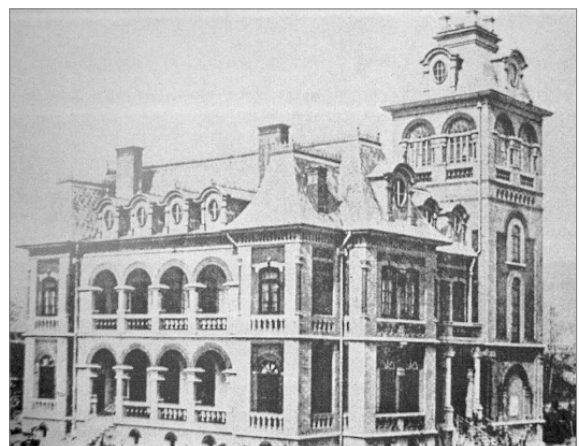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그대로 장흥고를 두고 호조 소속의 종5품 관서로 두었다가, 이후 주부(종6품)에 따라 종6품 관서로 되었다. 태종 3년(1403) 흥신궁(興信宮)을 본 고와 합하였고 또 풍저창(豐儲倉)을 병합시켰다.

관원으로는 사 1인, 부사 1인, 직장 2인, 주부 2인이 있었는데 1414년 주부를 부직장으로 칭하였으며, 뒤에 다시 영(令, 종5품) 1인, 주부(종6품) 1인, 직장(종7품)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을 두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그 뒤 다시 영을 없애고 제조(提調) 1인을 두었다. 이속(소속 서리)으로는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6인, 사령(使令) 5인, 군사(軍士) 1인이 있었다.

(5) 일본공사관

일본공사관은 한성개시(漢城開市) 이래 청수장(淸水莊, 현 천연동 소재)을 청사로 사용하다가 임오군란에 그 가옥이 소실됨에 1884년 3월 중부 정선방(貞善坊 : 현재 종로구 경운동)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永孝) 저택을 매수하여⁶⁵⁾ 목조 신청사를 4월에 착공, 동년 10월에 준공하였는데 1개월 후인 12



일본공사관(1926년 이전)

월 7일 갑신정변 때 다시 소실되고 말았다.

일본인들은 소실된 이 영사관을 서울 최초의 2층 양옥이라고 자랑하였지만 완공 후 1개월 만에 소실된 데다가 건축양식이 치졸하여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⁶⁶⁾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된 한성조약 제4조에 의하여 일본은 현 남산한옥촌(충무로2가 52)의 땅을 공사관 대지로 얻는 동시에 갑신정변 때 소실된 공사관의 변상조로 건물공비(建物工費)까지 강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공사관은 1893년(또는 1894년)에 새로 건립되었는데 그것은 동경에서 온 도목수(都木手) 나까무라(中村辰吾)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하며,⁶⁷⁾ 이 건물은 을사조약 이후에 통감관저로, 경술국치 후에는 총독관저로 1939년까지 사용되었다.

(6) 초정(椒井)

충무로 3가·초동·을지로 3가에 걸쳐서 있던 마을을 초정(椒井)골이라 하는데 이 곳에는 후추우물(椒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이 우물의 물맛이 맵고 톡 쏘는 것이 마치 후추를 탄 것 같다고 하여 후추우물이라고 불렀다.

이 우물은 조선시대에 위장병에 특효라고 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였으나 1906년 일본인들이 진고개를 8척이나 파내고, 높이 5척이나 되는 방추형 수명을 묻고 나서는 물빛이 흐려지고, 맛도 보통 물처럼 되어서 효능이 없어졌다고 한다.⁶⁸⁾

전일의 경희궁 위선당(爲善堂)은 태녕전 서쪽 영선문(寧善門) 안에 있는데 이 곳에는 ‘영렬천(靈冽泉)’으로 이름하는 우물이 있어서, 샘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며 사철 마르지 않고 극히 맑고 차니 사람들이 ‘초정(椒井)’으로 이름하였다.

초정은 냉천욕(冷泉浴)의 일종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초 세종은 자신의 안질(眼疾)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종 26년(1444)에 청주목의 초수(椒水)에 행궁(行宮)을 수선하고 왕비와 함께 행차하였으며 또는 충청도 목천현(木川縣), 전의현(全義縣)의 초수(椒水)가 효력이 있다 하여 내섬시인원(內膳寺人員)을 보내어 행궁을 건조하게 하였다.

냉천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초수(椒水), 약수(藥水), 함천(鹹泉), 산수(酸水), 담천(潭泉), 냉천(冷泉) 등의 이름으로 전해져 있는데 고을

에 따라서 그 물맛을 엄밀히 조사하여 물맛이 일치되는 곳에 초정(椒井), 함수(鹹水), 산수(酸水) 등의 이름을 붙여서 병자들의 이용에 편하도록 하였다.⁶⁹⁾

이것은 냉천욕이 그 당시 일반민중들의 질병 치료에 널리 이용되었던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7) 필동교(筆洞橋)

필동교는 충무로 3가 60번지 현 일신빌딩 부근에 있던 다리였으나 복개되어 사라졌다. 이 다리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줄기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였는데 이 개천 이름은 본래 필동이란 동명에 유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필동천수(筆洞川水)는 필동교를 거쳐 영풍교로, 목사동천수가 복류하면서 무침교(無沈橋), 청녕교(靑寧橋)를 거쳐 이교에, 쌍리동천수(雙里洞川水)가 복류하면서 어청교를 거쳐 마전교에 각각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천상(枝川上)의 교량은 대개가 목교(木橋)였던 것 같고, 그 대부분은 왕조 초기 즉 태종~세종년간에 가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⁷⁰⁾

(8) 균역청(均役廳)

균역청은 조선 후기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따른 병역세(兵役稅)를 관장했던 관아로 영조 26년(1750) 남부(南部) 주자동(鑄字洞 : 현재 중구 충무로 3가 60-1번지)에 위치하였다.⁷¹⁾ 영조는 이제까지 양민(良民)들이 부담하던 균역(軍役)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그 대책으로서 매년 베(布) 2필씩 내던 것을 1필로 줄였다. 그 대신 영조 부족한 재정을 각 관아에 보충해 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 · 은여결(隱餘結) · 군관포(軍官布) · 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징집 대상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인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외에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공미(貢米)에 덧붙여 받던 결작(結作)의 징수로 보충하게 하였다

균역법이 처음 논의되던 영조 26년(1750) 7월,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이라는 권설아문(權設衙門)으로 출발해 균역구관당상(均役句管堂上) 6 인만 두고 급대재정 마련을 위한 방



균역청 터 표석

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것이 완전히 타결되어 균역법의 실시를 보게 된 이듬 해 9월에야 전일의 수어청(守禦廳) 자리에 건물이 설치되고 정식 관청으로 발족되었다.

임원으로는 삼상(三相)이 으레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3인, 호조판서가 반드시 포함되는 제조(提調) 3인, 실직 무신(實職武臣)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비변사 낭청(郎廳)이 겸임하는 낭청 3인으로 구성하고 약간인의 서리(書吏)와 사역인을 두었다.

이로써 양민들의 부담이 반감(半減)되고 종래까지 왕권을 견제하던 신권(臣權)을 억누르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바로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비 절약책으로 2년 뒤인 영조 29년(1753) 선혜청(宣惠廳)에 합병, 선혜청 도제조·제조가 균역청 사무를 겸해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낭청 1인을 따로 두어 실무를 맡기되 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의 사무를 겸해 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서리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문서직(文書直) 1인, 군사 4인을 배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1756년 노비의 신공(身貢) 감축에 대한 급대(給代)를 균역청이 맡게 된 뒤, 각 관청의 사소한 비용까지 지원하게 되어 지출이 점차 증가, 순조 때 편찬된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는 60만 냥을 넘고 있다. 이 비용은 호조(戶曹)의 1년 예산을 오히려 웃도는 것으로, 당시 균역청의 재정 규모를 알 수 있다.

균역청 남창고(南倉庫)는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均役法)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처음에 북부 진장방(鎭長坊 : 종로구 삼청동 부근)의 구 수어청에 설치하였다가 현재 충무로 3가로 이전하였는데, 영조 35년(1759)에 다시 증축하였다. 남창고는 모두 35문(門)이 있었는데 호남에 8문, 영남에 8문, 균역청에 19문을 각각 두었다.

조선 말 임오군란(1882) 때는 급료를 받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선혜청 당상(堂上) 민겸호(閔謙鎬) 집을 습격하고 선혜청 창고로 사용되었던 전 균역청에 몰려들어 쌓여있던 곡식을 배분하기도 하였다.

균역청 자리는 일본인 교육을 위한 일출(日出)소학교가 세워졌다가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

로 변경되었는데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되어 극동빌딩이 들어서 있다.

(9) 무침교(無沈橋)

남산에서 내려 온 목사동천수가 북류(北流)하면서 무침교(無沈橋), 청녕교(靑寧橋)를 거쳐 이교에, 쌍리동천수(雙里洞川水)가 북류하면서 어청교를 거쳐 마전교에 각각 이어졌다.

무침교는 예관동 70번지와 충무로 5가 82번지 부근에 있던 다리로서 장마가 지면 다리가 물에 잠기므로 무침다리 즉 무침교라 하였다.⁷²⁾ 그 위치에 따라 상무침교(上無沈橋), 하무침교(下無沈橋)라고 불렀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무침교가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무침다릿골, 한자명으로 침교동(沈橋洞)이라고 불렀다.

(10) 진고개

충무로2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옛날에는 진고개 또는 이현(泥岬)이라고 하였다.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만든 이 고개는 충무로2가에 있는 세종호텔 뒤쪽에 있었는데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는데다가 고개에 있는 흙이 몹시 질어서 비가 한 번 오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곤란했던 곳으로 유명하였다.⁷³⁾ 이에 고종 32년(1895)과 광무10년(1906)에 진고개를 깊이 8척 가량을 파내어 높이를 낮추고 길을 닦으면서 현대식 도로를 만들면서 높이 5척의 방추형태 하수도를 묻어 그 지역의 하수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서울시 내 하수구 도랑의 시초가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고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주로 하급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



진고개(충무로 2가)

었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거류민 지역을 형성하였고, 자국에서 가져온 근대적 상품을 진열하여 당시 개화가 늦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망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한편 진고개에는 굴우물이 있어 또한 유명하였다. 이 굴우물은 깊고 또 우물 안에 굴이 있었으므로 한자로 굴정(窟井)이라 하였다.⁷⁴⁾ 『한경지략(漢京識略)』에도 「굴정은 남부 이현(泥峴)에 있는데 우물이 깊고 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라고 하였다. 굴정은 처음부터 우물로 사용했던 곳이 아니고, 자연스레 노출된 샘물 같은 곳이었다. 이를 처음 발견하여 만든 사람은 인조 때 문인이면서 이수광의 아들인 동주(東州) 이민구로 13세 때인 선조 30년(1601) 진고개 길가에서 놀다가 돌 밑에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동리 아이들을 모아 이 돌을 치우고 샘을 만들었다. 그 뒤부터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언제나 일정한 수위를 간직하던 이 우물의 물구멍은 점점 더 크게 파여져 굴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벼슬을 나가 내외관직을 지내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치른 후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53세가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보니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파놓았던 그 돌 밑의 우물이 이제는 고색창연한 옛날의 우물이 된 것을 보고 감개가 무량하여 길 가던 발걸음을 멈춘 뒤 다음과 같은 시 한수를 읊었다.

손으로 뚫을 때는 한줄기 샘물이었는데
어느덧 오십년의 세월이 지나갔네.
돌 속의 한줄기 샘물은 줄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서 늙고 죽은 사람 누구 누구던가⁷⁵⁾

이민구는 당대의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이 시에서도 굴정(窟井)을 그가 뚫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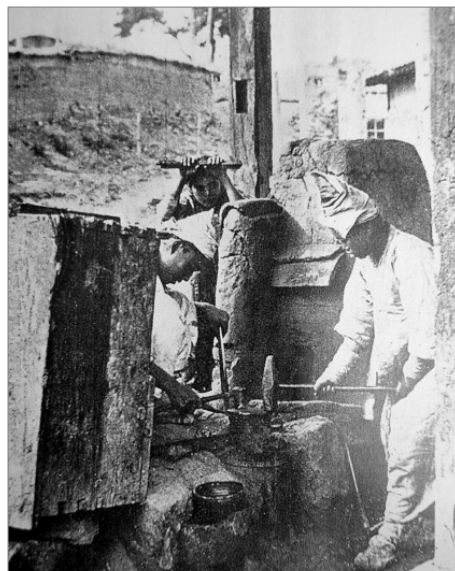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진고개에는 영조·정조시대의 명신이며 학자로도 유명한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살았다. 홍양호는 진고개 근처에 있던 그의 집 이름을 이와(泥窩, 진굴)이라고 지었다.

(11) 풀무재[冶峴]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천도할 당시 서울에는 고개가 많았다. 서울을 둘러싼 남산, 인왕산, 북악산의 산줄기가 청계천쪽으로 뻗어내려 마치 포복(匍匐)하는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 산줄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자 길을 내기 위해서 깎아 내어 낮춤으로써 언덕으로 보이거나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남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인해 생긴 고개가 풀무재, 야현(冶峴)이었다. 남산에서 뻗은 산줄기의 하나는 장충동 2가의 동국대학교 자리와 목정동의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을 지나 을지로5가에 닿았다. 따라서 충무로에서 광희문으로 오고 가려면 풀무재를 넘어 다녔다.

이 고개 부근에는 청일전쟁 때까지만 해도 풀무질을 해서 쇠를 달궜던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이 몰려 있어서 고개이름을 풀무재라고 부르고 대장고개로도 불렀다.



대장간

서울에는 인현동(仁峴洞), 송현동(松峴洞), 아현동(阿峴洞), 만리동(萬里洞), 돈암동(敦岩洞), 무악동(毋岳洞), 망우동(忘憂洞) 등이 모두 고개 이름이 동명(洞名)으로 된 것이다.

〈 박 경 룡 〉



풀무재 터 표석

제 2 장

개회기의 충무로





개화기의 충무로

1. 일제의 침략과 군사 주둔

영조 때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한성부를 사수하는 방위체계를 세웠으므로 이 당시 충무로 지역은 훈련도감의 3패(牌)가 순찰하는 구역이었다. 영조 27년(1751)에 『수성책자(守成冊子)』를 간행 반포하고 수성계획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보면 훈련도감이 분담했던 숙정문(肅靖門)에서 서대문까지 도성 구역에는 모두 109 계(契)가 배치되었고, 호수(戶數)는 14,587가구이었다.

3군문은 도성을 수축, 수비하여야 될 임무 이외에 도성의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였다. 순찰은 각 군문에서 8패(牌)로 나누어서 행했는데, 그 내용을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훈련도감을 보면 제 3패는 종각에서 현재 명동지역인 낙동(洛洞)·장흥동(長興洞) 서쪽까지와 종각~돈의문 남쪽까지 순찰을 담당하였다.

임오군란 후 1883년에 입경한 일본사신 하나부사(花房義質)는 남산 아래의 충무로 2가 52번지 금위대장 이종승(李鍾承)의 집을 임시 일본공사관으로 삼았다. 이로써 일본공사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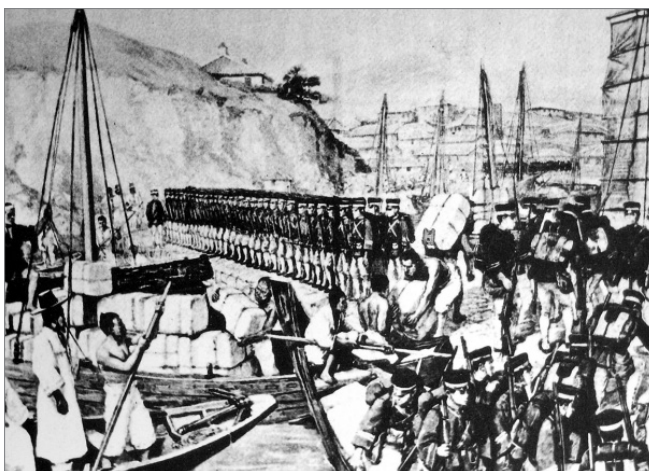
도성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로 일본인들은 차츰 이 일대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주동에서 나동(羅洞)·호위동(扈衛洞)·남산동·난동(蘭洞)과 장흥방(長興坊)의 서쪽인 중현·저동에 걸친 진고개 일대에서 거의 10리에 가까운 지대를 점거해 갔다.⁷⁶⁾

일본상인 10여명은 일본공사관 경비를 위해 주둔한 일본군 200명을 수행해서 입경한 것이 효시였다. 즉 일본상인들은 고종 20년(1883) 7월 25일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에 앞서서 입경하여 일본공사관이 위치한 부근인 진고개 일대에 자리잡았다. 이 당시 입경한 일본상인으로는 협동상회(協同商會 :대표 市川石動), 대창조(大倉組 :대표 岩楯林三), 경전조(慶田組 :대표 龜谷愛助) 등 10여명이었다.⁷⁷⁾

조선 정부는 고종 19년(1882) 7월 17일 임오군란의 결과로 제물포조약과 더불어 체결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속약(續約)에서 일본에게 1년 후 양화진을 개시장(開市場)으로 할 것을 규정했지만 일본인들은 그 곳보다 남산 기슭에 자리잡았다. 그런데 일본은 갑신정변 때와 같은 사건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고종 22년(1885) 3월에 곤도(近藤)대리공사가 조선의 김윤식(金允植) 외무독판과 협의하여 진고개 일대, 즉 현재 중구 예장동·주자동에서 충무로1가에 이르는 지역을 일본인 거류구역으로 정한 것이다.⁷⁸⁾ 이어서 일본정부는 이해 5월 4일 외무성 고시 제4호로 일본인의 서울로의 이주가 가능해졌음을 알렸다.⁷⁹⁾

청일전쟁(1894),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등을 거치면서 러·일간의 세력이 팽

팽히 맞서자 건양 원년(1896) 5월 14일, 러시아대표 웨베르(Waeber)와 일본대표 고무라(小村)가 한성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양국세력 균형책을 숙의하였다. 이 당시 작성된 합의점이 이른바 「조선 문제에 관한 웨베르·고무라 각서(小村覺書)」였다. 이 웨베르·고무라 각서에 따라 일본군대는 서울에



제물포에 상륙한 일본군(1894년)

2개 중대 400명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당초에는 그 본부를 저동 1가(일제 때 전매국 자리)에 있었던 조선인 큰 가옥에 두고, 나머지 병력은 충무로 1가 19번지(중앙우체국 자리)와 광화문의 구 조선보병대(舊朝鮮步兵隊) 영내에 분산 주둔하였다. 1904년



동양척식회사 전경(장악원 터)

1월에 필동 2가에 일본병영이 건설되자 모두 이곳으로 옮겼다.(이 병영건물은 일제 때에는 헌병사령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각서에 의해 주병권(駐兵權)만 확보하였을 뿐이고 서울에 군대주둔은 하지 않았다.⁸⁰⁾

광무 8년(1904), 러·일간의 형세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인천항에 열강의 군함이 다수 정박하는 등,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짙어지자 한국 군대만으로는 서울의 치안을 감내하기가 힘들고 자국의 교민(僑民)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각 공사관마다 군대를 입성케 하여 수용하였다. 이어 10일·12일에도 러시아군들이 들어왔고 15일에는 미군 25 명이, 그리고 16일에는 불란서 사병 30여 명, 19일에는 영국 사병 16 명도 들어와, 일본군이 아닌 이들 열강의 병력도 300여 명이나 되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게 되자 부녀자들은 거리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⁸¹⁾

러·일전쟁의 선발대로 일본군 1개 여단병력이 입성한 것은 그해 2월 9일부터로 그날 정오가 좀 지날 무렵, 인천에서 시작된 해전을 시발로 노일전쟁이 일어났다. 러·일전쟁을 위해 들어온 일본은 당초에는 진고개를 중심한 일본 가옥들에 분산 투숙하였지만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져 일본인 가옥에의 수용이 불가능해지자 2월 18일 이후부터는 시내 각처의 공사(公私)의 한국건물에도 분산 수용되었는데 그때 명동 장악원(掌樂院, 현 외환은행 본점자리)에도 일본군이 수용되고, 그 외에도 7개의 일본인 소학교 및 한국인 가옥 등에도 주둔하였다.

2. 근대화 시설과 경관의 변모



청일전쟁 그림(1884년, 성환전투)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말미암아 불통된 남로전선(南路電線)을 개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서로전선(西路電線)과 북로전선(北路電線)도 강제로 일본군이 작전용으로 접수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전신은 일본 군사전신만이 통하게 되었다. 이

에 조선 정부는 지방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역참제(驛站制)에 의존하거나 외아문(外衙門)에 전문(電文)을 보내면 외아문에서 일본공사관에 보내고, 일본공사관에서는 이것을 당시 진고개의 일본 군사전신소(軍事電信所)에 보내어 발신(發信)하였다.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 올 때에는 위의 경로를 반대로 밟아 수신(受信)하게 되었다.⁸²⁾

광무 7년(1903), 즉 미국인 콜브란(Collbran)과 보스트 위크(Bostwick)에 의한 상수도사업 특허신청이 한국정부에 제출되었던 것과 같은 해 2월에 일본인 하야시다(林田)·사카모토(坂本) 두 명이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수도를 급수할 목적으로 사설 수도(私設水道) 부설 허가원을 일본영사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상수도는 콜브란·보스트 위크보다 몇 년 앞서 일본인거류지역의 사설 상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고개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을지로 2·3가 퇴계로 2·3가, 남산동, 필동 일대의 지역에 집단거주 하던 일본인들도 당초에는 우물을 파서 음료수 등 생활용수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물물은 냄새가 나고 염분이 많아 음료수로는 부적합하였다.

이들은 남산의 계곡 다섯 군데를 막아 수원지로 하고 수원지→우물→여과지(濾過池)→저수지→급·배수의 계통을 취하였다. 이 사설 수도는 「한국정부의 자체사업 또는 그 특허에 의

하여 경성 전 지역 또는 그 일부지역에 상수도사업이 실시될 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10년 기한의 특허를 받았다.⁸³⁾

이들은 허가를 받은 3개월 후부터 기공하여 동년 7월말까지 제 1기 공사를 끝내고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고 한다. 이 공사 이후 급수량이나 급수 가구수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나 투입된 자금이 4,707여 원(圓) 밖에 아니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는 보잘 것이 없었고 급수량도 적었을 것 같다. 일본인들은 이 물을 받아 음료수로만 썼다고 한다.⁸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전으로 끝나가자 일본인 내한자(來韓者)가 급증하고 진고개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역의 범위도 늘어나자 사설 수도의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융희 원년(1907) 11월에 일본 거류민단은 코리안 워터 워크사(Korean Water Works Co.)에 청하여 일본 거류민단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일본인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만 가론씩의 무상 급수와 화재 등의 비상시에 임시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⁸⁵⁾

진고개 일대의 사설 수도는 코리안 워터 워크사의 경영권이 일본 시부사와 재벌(澁澤財閥)의 손을 거쳐 1911년 3월에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자마자 서울시내 수도체계의 일원화라는 명목 하에 사설 수도는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

1885년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 일본상민의 거주가 일단 허용되자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물포조약에 따라 일본 상인에게 개시(開市)를 허락한 곳은 양화진이었

고, 그 뒤에 개시장(開市場)을 용산으로 옮겼으나 일본 상인들은 이 개시장에는 별로 모여들지 않고, 주로 일본 공사관이 있던 진고개 일대 즉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주자동~충무로 1가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처음에는 한옥을 임차(賃借) 또는 매수하여 입주



러·일전쟁 그림(1904년, 평안도 정주 전투)



경성 상업회의소

했으나 점차 공지(空地)를 구입하여 일본식가옥을 지어가면서 집단적으로 일본 인취락을 형성해 갔다. 그런데 개항 이후 조선에 이주하여 정착한 일본인의 대다수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도성 안에 거주한 일본인들도 거의가 무지(無智)·무산자들이었으며, 영세한 자금으로 행상 노점 중개·매춘 등 치재(致財)의 수단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종사하였다. 따라서 이들 일본상민과 한성주민들 간에

는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⁸⁶⁾

그러나 이들 일본인들은 꾸준히 그들의 식민의욕을 펼쳐 나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집단인 일본인 거류민회나 일본인 상업의회(商業議會)를 결성하는 등 주자동·진고개·명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일본인들의 시가지로 조성해 나갔다.

1887년 당시 진고개 일대에서 상점을 열고 그곳의 일본 거류민 및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던 일본 상점은 50 호 정도였다. 이를 영업 종목별로 보면 서양 면직포상점(西洋綿織布商店) 10여 호, 잡화상 10여 호, 약종업(藥種業) 5 호, 과자점 10 호, 전당포 10여 호였고, 이 밖에 빈전상회(濱田商會)·굴구상회(掘口商會)·협동상회(協同商會) 등 무역상이 몇 명 있었다.

이들 일본상인들은 1887년 2월에 경상의회(經商議會)를 조직하고 서울 상계(商界)에서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당시 서울에서의 일상(日商)의 활약은 그다지 활발치는 못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이들 초기의 일상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었고, 상거래에서 속임수가 많아 신의를 잃었고, 또 일본 침략주의에 대한 한국 민중의 반발이 일본상인 배척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상인이 서울에서 확고한 상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많은 청상들은 폐점 귀국한 반

면에, 일상의 서울 진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에 진출한 일상들은 초기의 도래자들과는 달라서 서울에 정착하려는 자가 많았고, 그들은 진고개 일대에 일본식 점포를 신축하고 영구 체류의 자세를 갖추었다. 또 이 무렵에 조선에 온 일본 상사(商社) 중에는 거상(巨商)이 많았고, 이들은 남대문에서 진고개 입구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 잡고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비숍(영국인) 여사

1894년 3월에 입경한 비숍(I. B. Bishop) 여사는 당시의 일본인 거류지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산 기슭에는 일본공사관의 흰 목조 건물들이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아래로 5,000명에 육박하는 일본 조계(租界)는 찻집, 극장, 기타 일본식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살고 있다. 그 구역은 한국적인 모든 것과 대조적으로 청결과 우아함 그리고 검약이 돋보이는 집과 상점들로 거리를 메우고 있다. 쓰개치마를 쓰지 않은 여인들과 후드 달린 오버코트를 입은 신사들이 일본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한다. 그 거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일본 은행과 우편 연락소가 있다. 또 군기 엄정한 군인들과 무장한 경찰대들,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교대되는 칼을 찬 헌병들도 보인다. 한국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일본에 대한 증오감을 생각하면 이 같은 경계 조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리라. 벌써 두 번이나 일본 공사관의 요인들은 인천을 향해 한 줄기 혈로를 뚫고 야반도주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⁸⁷⁾

그 후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인의 대륙진출은 전에 없이 고조되었고, 그에 따라 전쟁경기(景氣)를 틈탄 도래자(渡來者)가 급증하면서 1896년 일본영사관이 현재의 충무로 입구(현재 신세계 백화점과 제일은행 제일지점 자리)에 자리하자, 이들은 그 활동 거주지역을 더욱 확대시켜 남대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일상(日商)과 대립해온 청상(淸商)들의 활동도 청국 세력의 영향에 따라 커졌다. 서울에 들어온 청상은 대체로 1882년 이후 수포교와 남대문 일대에 자리 잡았으며 갑신정변 후인 1885년경에는 이미 300여 호를 헤아릴 수 있었으며 일상을 압도하는 상태였다. 청상들은



제일은행 제일지점

상해 · 홍콩 · 천진(天津) 등지에서 수입된 서양 면직물 및 잡화와 중국산 견포(絹布)와 한약재 등을 수입하여 팔았으며 한국으로부터 인삼 · 곡물 · 우피(牛皮) · 해물 등을 수출하였다.

그들은 재한 청국관헌(在韓淸國官憲)의 보호를 받으면서 토지와 가옥을 매수하고 남대문 시장으로까지 확대를 시도해

나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상인과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되어 치열한 상권쟁탈이 청일양국의 세력의 영향과 함께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측이 유리해지면서 진고개와 남대문 일대의 일본상가와 소공동 일대의 청국인 상가가 생겼다.

1882년 인천에 설치되었던 일본계 제일은행 부산지점의 출장소는 서울과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영사관들의 금고(金庫) 노릇을 하게 되어 그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1888년 9월에는 제일은행 인천지점으로 승격하였다. 때마침 서울에 뿌리박고 있었던 일본상인들은 풍부한 상업자본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제일은행의 유치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일본인들의 요망에 따라 제일은행 인천지점은 한 달 후인 1888년 10월에 그 출장소를 서울에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에 설치되었던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출장소는 1903년 2월에 제일은행 경성지점으로 승격하였으며, 1906년 5월에는 제일은행 한국 총지점(韓國總支店)으로 다시 승격하였다.

1896년 12월에 남산에 있던 일본영사관은 충무로 입구인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제일은행 본점 자리로 이전하고, 이듬해에는 충무로 입구에 일본인 상업회의소와 거류민회사무소가 들어섰으며 1898년에는 회현동에 일본상품진열장을 설치하였다.⁸⁸⁾ 또한 이해에 일본거류민들은 재경성제국거류민규칙(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을 제정하여 자치 기능을 강화하였다.

진고개 일대에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었으므로 1903년에 제일은행 경성지점도 자연 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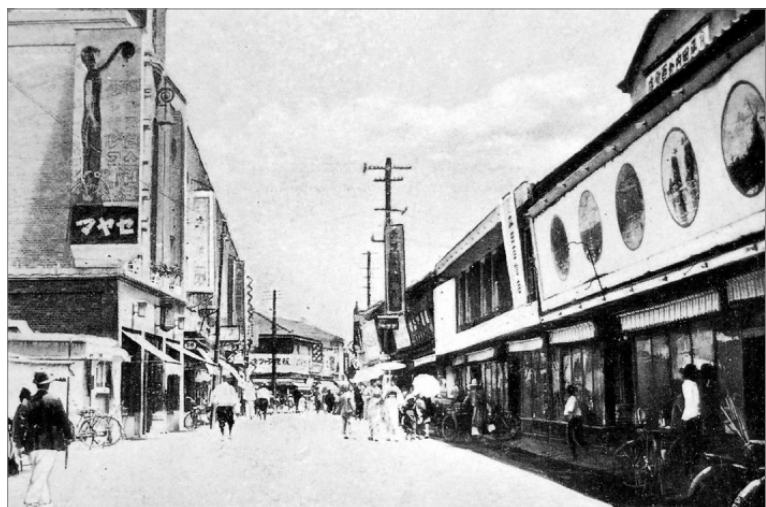
에 자리 잡았다. 그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은 해관세 수입을 담보로 한국정부에 멕시코 은화 24,000불(弗)을 대여함으로써 해관세(海關稅) 수납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손안에 넣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해관세 수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의 재정금융에 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제일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는 인천·부산·원산 등의 각 개항장에서 관세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은행 자체의 어음을 한국정부에 납입하게 되었으므로 일본 은화는 점차로 유통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1897년에는 일본 은화의 유통량이 350여만 원에 달하여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한화(韓貨)의 통화량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06년 3월에서 이르러 용산방면의 일본인 거주지역과 남대문로가 연결되는 지점(상공회의소 부근)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세시장을 설치하여 남대문로에 대한 일본상인의 진출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제일은행의 경성지점을 신축하는 예정지가 남대문로 3가로 책정되었다는 사실도 남대문로가 일본상인들의 상권이 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개화기를 맞아 서울과 원산 등지에는 일본의 상인이 상륙하여 상권을 쥐게 되면서 그 피해는 날로 더해 갔다. 고종 22년(1885) 수포교~남대문 사이의 상가는 청국 상점이 3백여 호가 늘어서고 진고개 일대는 일본상점이 판을 치니 한국의 상가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1889년 12월에 한국상인은 철시(撤市)를 하고 쫓겨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외국상인들과 각축을 벌이며 곤란에

빠졌다. 청국상인 3천 명, 일본상인 1,500 명이라 하였으니 외국상품이 얼마만큼 많이 퍼졌는지 짐작이 간다.

일본인이 진고개에 진을 치고 3천 명이 모여 살게 되면서, 처음 일본 요리집과 일본 과



일제때 변화한 충무로 1가 거리

자집이 생겨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倭)각시 구경한다고 눈깔사탕을 사러 가는 한국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게주인은 10년 안에 큰 부자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1887년에는 일본기생인 게이샤를 둔 일본 요리집 화월루(花月樓)가 생기고, 송병준(宋秉駿)이 청화정(淸華亭)이라는 일본 요리집을 차려 친일파의 아지트가 되니 한국의 상류계급을 자처하는 인물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여 차차 외국의 문물이 침범하고 그들의 음식도 전해졌다.⁸⁹⁾

3. 남촌(南村)의 형성과 일본인의 거주 과정

남산 기슭과 그 밑의 일대는 즉, 남촌이라 불리었고, 이는 모두 가난하거나 벼슬 못한 샌님들이 살던 지역이라 하였다. 이는 조선말 순국지사 매천 황현(黃玗)이 지은 『매천야록』에 보면 ‘서울 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종각 이북은 북촌(北村)이라 하여 노론(老論)이 살고, 큰 길 남쪽은 남촌이라 하여 소론(少論) 이하의 삼색(三色)이 섞여 살았다.’라고 설명하듯이 종로



황현(黃玗) 영정

큰길 북쪽의 북촌에는 정권을 쥐고 있던 노론과가 집중해서 살고, 그 남쪽 남산 밑 남촌에는 소론과와 남인과 북인과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다. 이것은 사색당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어서 남촌사람들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려면 북촌의 노론과 대관들에게 탄핵을 받곤 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남산골 샌님 제 벼슬은 못해도 남의 벼슬 땔 재주는 있다’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일찍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글공부

를 하며 지냈다. ‘남산골 딸각발이’라는 말은 남산골에 살았던 샌님들이 가난하여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또 ‘남산골 샌님’이라는 말도, 가난하지만 오기만 남은 선비를 비아냥댔 때 쓰였다고 한다.⁹⁰⁾

1910년대까지 형성된 이 북촌과 남촌의 한·일인별 거주실태와 상업지·거주지 등에 관하여 잡지『개벽(開闢)』에 실린 글을 보면 일제 때 서울 주민의 구성과 거주분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경성부는 186개의 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야마도마찌(大和町)]니 [메이지마찌(明治町)]니 [마찌]라고 불러야 제 맛이 생기는 101개소의 정과 갯골이니 뚝골이니 골이라고 불러야 제 맛이 생기는 85개소의 동이 있습니다. 정은 마찌라는 일본말로 불러야 맛이 생길 만큼 대체로 일인의 독천지(獨天地)외다. 동은 골이라고 불러야 옛날 맛이 생길 만큼 대체로 옛날의 주인인 조선인 최후의 퇴거지(退居地)외다. 그런데 일본인 독천지는 101개, 조선인 퇴거지는 85개, 이만하여도 상세한 설명은 필요치 아니하나 시구의 형성과 주민의 분포상태를 개괄적으로 간단히 소개하여 미흡을 보충하려 합니다. 동일한 목적, 서로 비슷한 규범, 균등한 세력 하에 있는 여러 개의 부락은 자연적으로 동일한 구역에 모이어 각각 특수한 일군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도회의 특색인 동시에 도회자체가 발달하는 경로 외다. …중략…그러면 경성의 그것은 경성의 상업지·공업지·주택지는 어느 방면이며, 장차 어느 방면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국의 도시계획상 비밀에 붙인 것이므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형성되어 가는 상태와 당국의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하고 아울러 자연의 고유한 지세를 살펴보면 대개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즉,

○ 상업지대는 황금정(을지로) 큰길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명치정(명동) 1·2가, 영락(저동) 1·2가, 누정정(인현동) 1·2가, 야초(초동)·화원(예관)·초음정(오장동) 등의 여러 정과 황금정(을지로) 1·2·3·4·5가, 본정(충무로) 1·2·3·4가, 남대문동 1·2·3·4·5가, 남·북창동정, 의주통1가, 어동(양동)·고시(동자)·화천(순화)·길야정(도동) 등의 여러 정 그리고 종로 1~5가 와 이에 딸린 약간의 여러 동…

○ 주택지는 지세가 높고 지미가 건조하고 산을 등졌다는 조건 뿐만 아니라 주택과 떠날 수 없는 각 학교 관공서 등의 위치 또는 몰락된 조선인의 거주지로 보아 북부 일대, 동서부 일대이다. 그러나 북부 중에도 극북, 동서부 중에도 극동·극서 부근은 실상 주택지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빈민지대라고 함이 적당할 지니, 이 모든 시구의 형성은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차 서로는 아현리·공덕

리, 남으로 노량진·영등포, 동으로 왕십리·청량리 일원을 포함한 대경성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룰 것 이외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주민이 세력 있고, 재력 있는 주민인지는 설명할 필요 없이 1923년말 현재 일본인은 본정(충무로) 1가에 174호, 본정 2가에 340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 때의 한글로 발표된 신문, 잡지들을 통해서 남촌이니 북촌이니 하는 말이 무수히 많다. 잡지 『개벽(開闢)』에는 “형제여, 남촌의 시설은 저러하거늘 북촌의 시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남촌의 일인(日人村), 남촌 시가의 극성(極盛), 몰락된 북촌의 참상(慘狀) 등의 글귀가 눈에 띄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글의 신문, 잡지에서는 남촌·북촌의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은 순전히 그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 통용된 단어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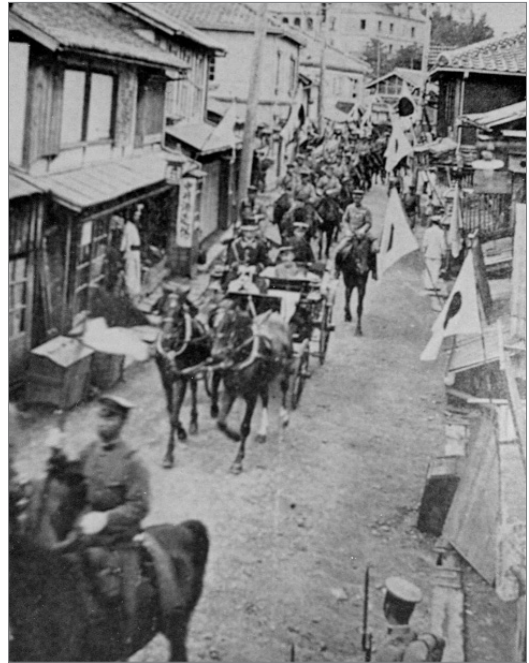
당시의 한인들이 「왜놈들 마을」이라고 한 것을 남촌이라고 표현하였고, 그에 대해 자기들의 거주지역을 북촌이라는 말로 작용하였다.

이 당시의 남촌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경계로 한 것일까? 남촌의 중심은 대체로 충무로 일대·명동~인현동까지·퇴계로 남쪽의 남산동, 회현동, 예장동, 필동, 목정동 일대로 일본인의 인구는 평균 90%였다.⁹¹⁾ 일제 때 서울의 상권(商圈)은 남촌의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충무로 1, 2, 3가를 정점(頂點)으로 명동2가·을지로2, 3가·남대문로2, 3가·회현동1가·소공동·남창동 일대가 피라미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상경한 시골사람이 “나는 서울사람이 무엇하느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길거리에서 복작복작 하느고 했더니, 진고개 일본사람에게 돈 털어버치러 가노라고 그러하더만” 하였다.⁹²⁾

이는 청일·러일 양대 전쟁을 계기로 일본인이 입경하여 정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일본 군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일본공사관의 발언권이 강해지며 원래는 대단치도 않던 일본인들이 위세를 부리자 작년에 김 모의 소유가옥이 금년에는 모 태랑, 모 위병의 소유가 되고, 작일에 이모의 소유 점포가 금일에는 이등 모, 재등 모의 소유로 되는 등, 동산·부동산 할 것 없이 매년 날마다 일본인의 소유로 귀속하였다. 이리하여 일인 거주지역 안에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오던 소수의 한국인들도 모두 쫓겨나 완전한 일본인의 독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거주지역 자체가 더욱더 확장되어 동으로는 진고개의 끝인(충무로 1~5가), 필동~쌍림동 일대, 서로는 남대문로 1~5가에서 남산동·회현동·북창동·소공동·도동·양동·동자동의 각 동으로 퍼져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포락상남촌 오지사십허리 진위왜촌(包絡上南村 五之四十許里 盡爲倭村)」상태에 이른 것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도성 10리 안에는 서양인·일본인을 막론하고 외국인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았다. 즉 1880년 4월에 개설된 최초의 일본공사관만 하더라도 서대문 밖 청



데라우찌 주차 한국군 사령관의 부임 행렬

수관에 두었다. 임오군란으로 일본공사관은 난군의 습격을 받아 불타버리고 하나부사는 일본으로 쫓겨 갔다. 그해 8월 12일 해군소장 니레(仁禮)와 육군소장 다카시마(高島)가 인솔하는 육·해군 1,200 명을 거느리고 인천으로 진군하여 8월 16일에 도성 안으로 들어와 지금의 충무로 2가에 있던 금위대장 이종승의 집을 임시 공사관으로 하고, 군대는 남산일대에 주둔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왜성대와 진고개에 진을 치며 그들의 세력을 넓혀갔다.

진고개 일대를 일본인 거류구역으로 정한 이유는 1884년에 건축했던 경운동 소재의 일본 공사관이 갑신정변 때 소실되자 그 트집으로⁹³⁾ 한성조약 제 4조에 의하여 남산 밑 녹천정(綠泉亭) 이웃 가옥을 영사관 부지로 받아 그곳에서 집무를 개시하고 있었으므로 녹천정 자리에 공사관 부지를 잡고,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고자 이 지역을 선정했던 것 같다. 이 당시 조선정부는 진고개가 남촌의 끝이면서 문자 그대로 진흙지대였으므로 거주환경을 낮게 평가하여 쉽게 응낙하였을 것이다.

당시 본정통에는 일본인 가옥이 하나도 없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가옥을 임대하여 상품을 가게 앞에 늘어놓고 조선인에게 판매하게 한 뒤 일본인은 안에서 이를 감독하

였다. 일본인들은 한옥을 임차(賃借) 또는 매수하여 입주했으며, 빈터를 구입한 자는 일본식 가옥을 지어 점차 일본인 취락을 형성해 갔다. 개항기에 이 땅에 건너와서 정착한 일본인의 대다수는 거의 무식하거나 무산자들이었으며 몇 푼 되지 않는 영세한 자금으로 행상·노점·중개·매춘 등 부(富)를 축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종사하였다.⁹⁴⁾

1894년 청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 사쿠라이(柵瀬軍之佐)는 당시의 한국인 모습과 생활풍속을 적어 그 이듬해에 『조선시사(朝鮮時事)』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인과 그 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진고개 일대에 대해서 쓴 것만을 소개해 본다.

부산과 인천의 거류지는 구역이 정해져 따로 마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리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그다지 보기 흉하지 않다. 그런데 오직 서울의 일본 거류지만은 남산 기슭을 점령하여 조선인 가옥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하며 냄새가 지독하여 부산과 인천 두 항구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 지역을 진고개(泥鰌)라고 부르는데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종로의 큰 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상업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조선인의 왕래도 드물다. 진고개에 거류하는 일본인은 140여 호에 700여 명이다. 대개는 잡화를 판매하여 살아가는데 근래 조선화폐의 가격이 하락하여 가게 앞이 한산하다. 그렇지만 이곳의 일본 남녀는 모두 사치할 대로 사치하여 일본 본토의 보통 상인들에 비하면 생활정도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러므로 거류자들 대부분이 불경기를 몹시 한탄하지만 이곳에 방금 도착한 나는 그 불경기의 정도를 간파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여섯 군데의 요리집에서는 밤새 노래와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아 불경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건물중 좀 볼만한 것을 굳이 찾는다면 일한무역회사 지점, 제일은행 출장소, 산카의원(贊化醫院) 정도이다. 나머지는 협소하고 더럽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보잘것 없는 것들이다. 서울구락부는 거류지 사무소와 나란히 화성(和城)의 기슭보다 한 단 높은 곳에 있다. 툇 트인 조망이 다소 아름답기는 해도 나무 그림자 하나 어른거리지 않아 7월의 무더위에는 이곳에 놀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화성은 임진왜란 때 등비주(藤肥州)의 성채를 세운 곳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적을 전해준다.

여관은 3~4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영희와 남산여관이 좋다. 하루밤 자는데 75전~1원 사이이다. 전문요리집에도 부탁하면 투숙할 수 있다. 서울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모든 일용품은 물론이고 무슨 물건이든지 일본 본토에 비해 3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고개에는 목욕탕이 두 군데에 있다. 두 곳 모두 일본인 남녀 욕실 이외에 조선인 욕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욕실 입구에 '중국인 입욕 사절'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아마 중국인은 가장 불결하고 또 조선인을 학대하여 중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목욕을 하면 싸움이 그치질 않아 조선인이 이곳에 발길을 끊기 때문인 것 같다. 심각한 것은 조

선 여성이다. 그들은 태어난 이래 목욕을 한 적이 없고 늘 집에서 지내며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피부를 보면 백옥을 방불케 한다. 얼굴과 팔, 다리가 눈처럼 희고 머리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꽃같은 옹모, 버들같은 자태에 뇌쇄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은 얼굴과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소변으로 닦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입술과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으로 입안을 세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조선의 풍습은 실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구역질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조선 여성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어서 진고개의 우리 거류지에 있는 목욕탕에는 목욕하러 오는 여성이 없다.⁹⁵⁾

일제가 진고갯길을 개수하기 시작한 것은 을미사변이 나던 해, 즉 1895년이였다. 그들은 진고개와 주자동·명례현 일대에 자리 잡은 일본상인들의 왕래를 위해 공공예산을 들여 진고갯길 옆의 가가(假家)를 철거하고 하수도를 설치하여 진고개의 모습을 변모시켰다.⁹⁶⁾

따라서 한말부터 서울에 이주하기 시작한 일본인 역시 서울 전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는 있었으나 도시 남부의 신흥 상업지역 및 거주지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날 청나라 영사관이 있었던 거리의 이름을 일본식 본정(本町)으로 고치고, 중국 가게가 즐비했던 골목을 명치정(明治町)이라고 바꿔 일본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였다. 명동이 지금은 가장 변화한 거리로 변했지만 일제 때는 본정통(충무로)에 눌러 지냈다.

조선말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이 땅의 상권을 거머쥐면서 충무로 일대를 그들의 본거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명동은 충무로의 번창과 더불어 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고,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형



일본화된 충무로 거리

성된 거리였다.

〈 일본인 집의 투석(投石) 도깨비 〉

갑오개혁이 있던 그 이듬해에, 이미 수백 년 전에 폐쇄되었던 서울의 남소문과 숙정문 옛터에서 ‘백면황발(白面黃髮)에 벽동혈순(碧瞳血脣)을 한 귀신 떼’들이 밤마다 아린아이 음성을 흉내 내며 운다는 소문이 장안에 나돌았다. 이 양(洋)귀신은, 서양인들이 어린이를 유괴해다가 죽여서 가루를 내어 사진약을 만든다는 반양이(反洋夷)의 풍문과 더불어 동시에 등장했던 것이다.

진고개의 일본인집에 켜진 전등불은 투석 도깨비가 깨고 다녔다. 제삿날 찾아오는 생령(生靈)들이 이 전등불을 보고 놀라 되돌아간다는 소문과 더불어 이 투석(投石) 도깨비가 생겨난 것이다.

개화기의 귀신은 항상 개화에 반동하는 보수 파워,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풍에 반동하는 보수 파워 형성에 대한 서곡(序曲)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학생·군인 또는 시민이 세력을 형성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므로, 사상전쟁은 이같이 국민의 공감이가장 크고 넓은 귀신의 힘을 이용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귀신 도전을 받자, 개화파도 귀신의 힘을 빌었다. 궁중의 상투를 자르고 도망치는 단발 도깨비 소동이 그것이고, 또 보수파 명사들의 나이 어린 아들을 유괴하여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도깨비가 잡아간다는 장학(獎學) 시위운동의 개화 도깨비 횡행 등이 그 한 실례였다.

개화기에 있어 개화파·보수파 간의 전초전이요, 또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모두 귀신들이 대행했던 것이다.⁹⁷⁾

〈 진고개의 분전(分錢) 저항 〉

일본인들이 상권을 넓히기 시작하자 종로의 6의전 상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고개에서 분전(分錢)제도를 실시하였다. 분전이란 6의전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단·무명·견어물 등의 상품을 구입하는 상인으로부터 징세(徵稅)하는 것이었다.

6의전은 일본상인들이 많은 충무로 2가 진고개의 유경춘(柳景春)의 집을 출장소로 정하여

한국인 상인이 일본상인에게서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금전(金市) 1필에 45문(文), 백려 1필에 100문, 감무명[紺木綿] 1필에 5문의 분전을 징세하였다.

한국인 상인이 진고개에 나타나면 분전 징세인이 미행하여 점포에 서서 흥정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즉석에서 과세하였다.

이 제도는 1895년에야 한성부윤의 포고(布告)로 폐지되었지만 이 분전을 피하여 한국 상인들은 일본상인과는 거래를 삼갔다. 이 진고개의 분전은 일종의 일본의 상권 침투에 대한 한국 상인들의 저항 무기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침내 독이 오른 일본상인들은 한국인 수요자에게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1891년, 일본 영사가 자기네 국민들이 곤혹을 당하는 데 대하여 분격을 참지 못하고 자기네 거류민들에게 발포한 유고(諭告)의 일부를 보면,

「당국의 상인들이 금전을 대부받고 약속을 이행치 못했을 때는 당장에 채무자를 구금하고 강제로 가옥을 양도케 하는 자가 있다 함은 일반조리로 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발악적으로 상권을 독차지하려고 덤벼드는 청나라상인과 일본상인의 횡포 때문에 한국 상인들의 경기는 차츰 불황 일로에 허덕이며 쇠퇴해 갔다.⁹⁸⁾

〈 조선돈 훔은 진고개의 만화경(萬華鏡) 〉

1890년대에 들어, 일본인들이 살던 진고개에는 한국인을 유혹하는 두 가지 희한한 물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눈깔사탕이요, 다른 하나는 만화경(萬華鏡)이었다. 사목경 또는 요지경(瑤池鏡)이라고도 호칭되었던 이 구경거리는 멀리 양주(楊州), 수원에서까지도 구경하러 올라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구경거리만 있으면 한국인들은 휴일이다」고, 선교사 길모어가 말했듯이, 구경 좋아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포착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 것은 흥행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바이, 족예(足藝), 요술, 곡예, 취시(吹矢), 투륜(投輪) 등 천한 흥행업자가 속

속 밀어닥쳤다.

이들은 진고개 뿐만 아니라 청계천에까지 진출하여 채단 포장을 치고 나팔을 불어 대며 구경꾼을 끌었다. 그러나 경향(京鄕)에 단발령 소동에, 황제의 아관파천이다 하여 배일(排日)풍조가 거세어지면서부터 일본인 흥행에 대해서도 적의(敵意)가 작용하였다.

포도청에서는 포졸들을 풀어 이를 구경하는 한국인들을 잡아들이게 했던 것이다. 동시에 흥행업자들의 단속에도 손을 뻗었다.⁹⁹⁾

〈 항일(抗日)을 ‘시바이’ 방해로 〉

1901년 10월 4일, 미야다(宮田)란 일본 요술쟁이가, 청계천변에서 곳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군인 몇 명이 그 흥행장에 뛰어들어 “요술로 조선돈 훔쳐가는 날강도들아!” 하고 외치며 난장판을 벌였다. 흥행은 물론 중지되고 난장판을 부린 자들은 일본 경찰관에 의해 잡혀가서 유치를 당했다.

이것이 바로 그 해에 있었던 일본영사관 습격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일본영사는 일본 흥행업자의 내한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따라서 서울에서는 서북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날탕패(짚지패)의 북놀이 곳, 동양중들의 앵금이 곳, 그리고 구세군들의 자선고악(慈善鼓樂)과 일본, 러시아 등 외국군대의 군악대 행진으로 겨우 구경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흥행 황제의 맛을 본 일본인들은 통감정치와 더불어, 서커스란 희한한 곡예를 앞세우고 물밀 듯 들어왔다. 뜻있는 이들은 이 일본인들의 흥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소극적이거나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저항하였던 것이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9월, 일본 서커스단이 함흥에서 공연할 때 그곳 청년들은 매찰구를 막고, “이놈아, 너도 조선놈이지”, “지금이 한가로이 구경할 때냐?”면서 한국인의 입장을 방해하였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항일의 소요로 번졌고, 주모자 10여 명이 검거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활동사진이 처음 들어온 것은 미국인 콜브란이 동대문 옆에 한미전기회사를 세운 연후인 1900년 초엽이다.

콜브란 경영 당시의 활동사진 광고에는 상영 영화의 제목이 없고, 그저 「활동사진 안내」란

큰 활자 밑에 입장료만이 적혀 있었다. 입장료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현물로 받았다.

활동사진 완상금(玩賞金)은 매인당 한화 10 전으로 정하되, 그 돈 대신에는 좌개(左開)한 영미 연초회사에서 제조한 권련 담배 빈갑으로 영수함.

△ 올드 골드(Old Gold) 10갑

△ 골드 피쉬(Gold Fish) 20갑

△ 할로(Halo) 10갑

△ 호니(Honey) 10갑

△ 드럼 헤드(Drum Head) 20갑¹⁰⁰⁾

〈진고개의 복개공사〉

임종국(林鍾國)은 『한국사회풍속야사』(1980)에서

이 세 줄기 지류가 해마다 여름이면 범람하였다. 범람할뿐더러 깎아지른 골짜기로 떨어져 흐르는 급류는 토사(土砂)며 세간 집물가지를 쓸어내렸다. 이리하여 총무로입구, 또 지금 한국은행 앞 광장에 커다랗게 파여져 있던 토사며 홍수는 무서운 것이었다. 일인들의 거주가 활발해지자 그들은 진고개로부터 남대문으로 통하는 길을 개수하고 또 구거(溝渠)를 파면서 공동변소·가로등도 계획하였다.¹⁰¹⁾

고 하였다.

4. 한국 침략의 본거지 - 총무로

일본인들은 그들의 식민정책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탈바꿈을 한 후 행정 및 지방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공업 및 상업의 발달을 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식민정치와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대륙침략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충무로 입구(1930년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도시 내의 공간분포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상업권의 형성 및 주거지역의 공간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증가는 도시 내 거주지역의 분포 및 기존 상업지역의 공간 이동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종로 1·2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서울의 상업지역은 남대문통을 비롯한 그

일대와 충무로·명동·을지로 등지까지 확대하였으며, 남쪽 특히 일본인들의 상업지역이 분포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은행·백화점 등도 분포하였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신흥 상업지역 주변과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일부만이 거주하였다.¹⁰²⁾

일본인들에게 서울 거주가 허용된 것은 갑신정변 다음해인 고종 22년(1885) 2월부터의 일이며, 이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공사관과 영사관 주위에 집단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공사관·영사관에 이웃한 진고개 일대 즉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주자동에서 충무로 1·2·3가, 명동에 이르는 지역을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정하였다. 입정 초기에는 이들 지역에 있던 한옥을 임차(賃借) 또는 매수하여 간신히 하나 둘씩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경제력이 늘어나자 토지와 가옥의 매각 기피 등 원주민들에 의한 크고 작은 항거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1885년 2월에 결성한 거류민회(居留民會)와 1887년 2월에 발족한 일본인 상업회의를 중심으로 강건한 식민의욕을 전개해 나가면서 주자동·진고개·명동 일대의 일본인 시가지는 점차 그 모습을 달리해 갔으며, 진고개와 명동은 서울의 새로운 상거래지의 핵기능을 하게 되었다. 성내의 한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성밖으로 밀려나가거나 낙향해 버려 이 과정에서 한일인 주민들의 교체가 일어남으로써 도심부는 일본인의 독거지화(獨居地化)가 되었다. 이 결과로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마침내 일본인의 거주구역은 남촌과

한인 거주구역이 북촌으로 구분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도성내의 남촌·북촌과는 그 낡아스도 내용도 다른 새로운 남·북촌이 형성된 것이다.

5. 일본인의 상권 장악 과정

일본인들은 장안을 드나들며 진고개 일대를 마음에 두었다가 남산 중턱의 높고 널찍한 예장동에 일본공사관을 짓고 이어서 차례로 통감부, 총독부 청사로 쓰면서 가난한 남산골 선님들을 쫓아 집을 저당잡고 돈을 꾸어주고는 일부러 기일이 되면 다른 곳으로 피해 숨어 있다가 기한이 지났다면 마구 집을 몰수하는 등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고개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악원 자리에는 착취의 본거지인 동양척식회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종로 육의전 중심의 500년 북촌 상권을 탄압하면서 진고개, 즉 본정통을 일본인의 상권의 중심으로 키워 나갔다. 그들은 남촌을 근거지로 삼아 진고개를 혼마치(本町)라고 부르면서 서울 제일의 변화가임을 자랑하였다.

일제 때의 중구 충무로·명동·을지로 등지는 서울의 변화가, 즉 다운타운(down town) 그 자체였다. 대기업계의 본사가 집중해 있는 오늘날의 중구 관내보다 오히려 잡다한 상업기능은 일제 때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일제 때 서울 최대의 변화가 일반 상점가는 본정(충무로) 1·2가였다. 이곳에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전문적 점포들이 즐비했던 것이다. 일본상인들은 남촌을 비롯하여 주요 거점을 확보,



충무로의 골프장(1930년대)



영락정(현 저동) 거리

확대하면서 재래 한국 상인의 상업지역을 잠식(蠶食)하여 나갔다. 한국에 일본 상인의 증가는 본국의 인구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조사와 실업조사 등 각종 조사를 행한다든가 자유도항(自由渡航)

을 인정하는 등 일본인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은행·식산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최대의 토지소유자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경성부 명치정과 황금정통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일상들에게 자금대출 등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일상들은 이러한 식민권력 및 금융기관의 정치·경제적 지원과 한국상인의 몰락을 바탕으로 자본력을 증대시키면서 대외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경성부의 도매업과 소매업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¹⁰³⁾

일본인들은 1905년 통감부 설치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10년 약 9,000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남촌을 거점지의 중심지로 주로 진고개와 명동일대였다. 이 당시에 일본인 거주지역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소수의 한국인들이 모두 쫓겨나 일본인의 완전한 독거지가 되었고, 이 당시 일인 거주지역 자체가 더욱 확대되어 동쪽으로는 진고개 전체, 서쪽으로는 남대문로 1~5가에서 남산, 회현동, 남창동, 북창동, 소공동, 도동, 양동, 동자동 등으로 확대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상업권의 확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1910년대의 일본상인들이 공산품과 고급품을 주종으로 도매업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본력과 판매력을 강화하여 나갔다. 반면에 한국상인들은 객주의 쇠퇴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도매 기능을 상실하고 한인을 상대로 일용잡화와 저가품을 소매하는 가운데 열악한 자본력마저도 영락하여 재산상의 위기를 맞이해야 하였다.¹⁰⁴⁾

소춘 김기전은 다음과 같이 이 시기의 일본인이 상업지구의 확대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고개는 경성상업의 중심지이다. 구미 직수입이니 일본 특약이니 무엇이니 하는 물품도 대개 진고개 일본상으로부터 넘겨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종로통, 남대문통을 칠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일본상인의 직접 세력만은 진고개, 남대문통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근년에는 어느덧 황금정(黃金町)을 쏙 넘어서 근일에는 종로통에도 가끔 일본상인의 새 간판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일본상인들은 그들의 거점이었던 남촌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매입을 통하여 경성부 동부 및 서부까지 확대했고, 심지어는 한국상인들의 오랜 거점인 북부까지 침투해서 한국 상인들은 외곽으로 밀려 쫓겨 가기 시작하였다.

〈 박 경 룡 〉

제 3 장

일제강점기의 충무로





일제강점기의 충무로

1. 일본인의 도시화 개발과정

1935년의 경성부의 통계에 따르면, ‘~정(町)’이라는 지명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51%나 되었던 반면에 ‘~동(洞)’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의 일본인 거주자는 7%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 하에서는 거주자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과 한국인은 이용하는 활동사진관과 유곽(遊廓)조차도 서로 달랐다.

조선말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이 땅의 상권을 거머쥐면서 충무로 일대를 그들의 본거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1919년 일제 때 경성부에서 발간한 『경성부사(京城府史)』(제3권)에 보면

경성부내에 있어서 일본인의 거주지역은 남산 산록 북측 일대의 지역에서 점차 확대되어 경성부의 중앙을 관류하는 청계천을 넘어 점차 조선인가에 미치고 1919년 당시에 있어서는 부(府)내의 각 정동(町洞) 중 일본인을 보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다음에 조선인은 그 대부분이 청계천 이북 즉 종로를 중심으로 하여 북악산의 남록에 따라 거주하는 자가 많고, 점차 청량리·왕십리·마포 등의 교외로 향하여 발전해 가는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인은 생활난

영화의 메카 충무로

때문에 교외로 이주하는 자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 하였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충무로의 한·일인의 인구를 1925년 10월 1일과 1933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국세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1925년 10월 1일 현재

	한국인(명)	일본인(명)	일본인 비율(%)
충무로 1가	210	898	77.0
충무로 2가	413	1,763	77.0

1933년 12월말 현재

	한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충무로1가	1	282	97	671	3	19
충무로2가	5	479	324	1,691	2	25
충무로3가	24	300	290	1,300	7	35
충무로4가	35	244	487	1,979	6	29
충무로5가	19	186	298	1,264	—	1

* 자료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統計資料集』 일제강점기, 1993, 83쪽.

이상과 같이 남촌에 해당하는 충무로지역은 모두 일본인 득세지역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에는 북촌의 일본인 침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한일간의 거주지별 세력 대비는 그만큼 한국인층이 위축되어 갔다.

즉, 1926년 10월에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준공됨으로써 예장동에 있던 총독부가 이전되고, 같은 달에 경성부청 청사도 준공되어 경성부청이 이전되자 적선동·통의동·궁정동·청운동·효자동 등의 북촌 마을에 많은 총독부, 경성부 직원용 관사가 들어서면서 한·일 주민 거주지의 교체현상이 일어났다.

2. 조선 경제권의 장악과 상가의 형성

일본인들은 진고개 일대에 거주하면서 남산 중턱의 높고 널찍한 예장동에 일본공사관을 지었다. 이어서 차례로 통감부, 총독부 청사로 쓰면서 가난한 남산골 샌님들을 쫓아 집을 저당잡아 돈을 꾸어주고는 일부러 기일이 되면 다른 곳으로 피해 숨어 있다가 기한이 지났다면 마구 집을 몰수하는 등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고개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종로 육의전 중심의 500 년 북촌 상권을 탄압하면서 진고개 즉, 본정통을 일본인의 상권의 중심지로 키워 나갔다. 그들은 남촌을 근거지로 삼아 진고개를 혼마치(本町)라고 부르면서 서울 제일의 변화가임을 자랑하였다.

일제 때의 중구 충무로·명동·을지로 등지는 서울의 변화가 즉 다운타운(down town) 그 자체였다. 대기업계의 본사가 집중해 있는 오늘날의 중구 관내보다 오히려 잡다한 상업기능은 일제 때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충무로 거리(1930년대)



충무로를 누빈 경성제국대학 학생들 - 『명동야화』에서

일제 때 서울 최대의 변화가 일반 상점가는 본정(충무로) 1·2가였다. 이곳에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전문적 점포들이 즐비하였다. 그 중 저명한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의 메카 충무로

우정당문당(友井堂文堂) : 종이 · 문구류

포도본점(浦島本店) : 완구

웅평상점(熊平商店) : 금고 · 소방기구

복옥재봉점(福屋裁縫店) : 부인 · 소아복

저옥호(杵屋號) : 화장품

삼길상회(三吉商會) : 넥타이

삼정길상점(森政吉商店) : 범포(帆布) · 모시 · 베

귀옥(龜屋) : 식료품

고전환일상점(高田丸一商店) : 병 · 콜크

등전본점(藤田本店) : 식료품

국예족대(國譽足袋) : 일식 다비

명치옥 제과(明治屋製菓) : 양과자 · 우유

평호상점(平戶商店) : 라사(羅紗) · 직물

이상과 같이 일본상인들은 남촌을 비롯하여 주요 거점을 확보 확대하면서 재래 한국상인의 상업지역을 잠식(蠶食)해 나갔다. 한국에 일본상인의 증가는 본국의 인구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조사와 실업조사 등 각종 조사를 행한다든가 자유 도항(渡航)을 인정하는 등 일본인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은행 · 식산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최대의 토지소유자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경성부 명치정과 황금정통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일 상들에게 자금대출 등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일본상인들은 이러한 식민권력 및 금융기관의 정치 · 경제적 지원과 한국 상인의 몰락을 바탕으로 자본력을 증대시키면서 대외 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경성부의 도매업과 소매업까지 장악 할 수 있었다.¹⁰⁵⁾

백화점은 중구지역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화점 4개가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었다. 한말에 경제 진출의 주도권을 잡아왔던 미쯔이(三井)재벌은 그 직영백화점인 미쓰코시(三越)지점을



조지아(丁子屋)백화점

1906년 한성에 설립하였는데 장소는 충무로(본정) 1가 현재 사보이호텔 자리였다. 1927년에는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자리에 대형 현대식 백화점으로 발전하였다.¹⁰⁶⁾ 1921년에 고바야시(小林) 양복점을 경영하던 고바야시 문중(小林門中)은 조지아

(丁子屋)백화점을 설립하였고, 1929년에는 현재 미도파백화점의 자리에 현대식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 1922년에 중강등치랑(中江藤治郎)은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을 설립하고 1932년에 현대식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구지역에는 현재의 백화점 지대로 발전하는데 큰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명동에는 1926년 충무로 1가 51번지에 히라다(平田)백화점이 설립되었다. 그 자본금은 20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충무로 1가 지역이 백화점 거리의 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히라다백화점은 그 규모가 작았던 대신에 신부·주부 상대의 주방용품과 식료품·일용잡화 전문점으로 결혼을 전후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¹⁰⁷⁾

1920년대말에서 1930년대에 걸쳐 서울의 유흥업은 극장과 당구장 및 고급요정 등이었다. 그 중에서 극장은 모두 12 개가 있었는데 중구 관내에는 7 개, 명동지역에는 4 개가 있었다.

중앙관 (영락정 1가 48)

화랑관 (명치정 1가 65)

희락관 (본정 1가 38)

약천지 (본정 1가)

당구장은 서울 시내에 모두 18 개가 있었는데, 중구에는 서울시내의 2/3가 있었고, 명동 내에는 충무로 2가에 1 개, 명동에 3 개 등 모두 4 개가 있었다.

음식업에 대해서 『대경성안내』를 인용해 보면

밤의 경성에 화려한 환락을 뿌리는 붉은 등, 푸른 등의 거리, 그것은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환(丸)빌 음식점을 제외하고 카페, 바만으로서 약 1,000 명의 여인이 재즈음악 흐르는 밤의 경성을 맞이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일본인가에서 왕좌를 점하고 있는 것은 명동의 환(丸)빌회관이다.…… 여급의 총수는 50여 명, 이른바 미국식이며, 재즈 기분이 넘쳐 밤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환(丸)빌에서 조금 북쪽으로 간 모퉁이에 국수가 있다. 품위면에서는 경성의 제1이며…… 위의 2개와 어깨를 겨루는 것으로 소공동 경성공회당 지하의 화랑식당이 있다……회현동 1가에 모던한 유리로 장식한 3층 누각을 지은 삼양현도 경성 카페계의 일류에 속한다. 이상 4개에 다음가는 것이 은송정(을지로 입구), 부사(남대문동), 바론(저동), 킹그(충무로 5가), 본정바 등이 종류이다. 주류 전문의 바로는 소공동의 난, 화도, 명동의 리라, 마이홈, 회현동의 우리집 등이 있다. 동경에서 데리고 온 빼어난 여급

들도 있어 차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일제 때 경성의 모습을 그린 『모던썸이 경성(京城)을 거닐다』에는 남촌과 북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성시구 개정’(1910년, 1919년) 계획에 따라 식민지 지배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식민지 근대도시 서울을 만든 결과 진고개 중심의 남촌지역 상가에는 근대적 상품과 화려한 건물, 네온 사인으로 덮인 근대도시가 형성되었다. 백화점이 즐비한 남촌 진고개 부근은 근대 상품의 진열장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새로운 경성을 구경하러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르는 곳도 진고개였다.

‘모던걸’이 시골 지주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유혹하는 곳도 근대상품들이 넘쳐나는 진고개였고, 시골에서 올라온 ‘봇다리 마누라님’이, 서울행 나들이를 나서서 물건을 산더미처럼 사서 나오는 곳 역시 진고개였다.

경성 시내 여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에 가는 길에 으레 미쓰고시(三越)나 조지야(丁子屋) 백화점을 들러 경성역으로 향한다. 그들은 서울 ‘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던(modern)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모던의 최첨단을 달리는 본정통 백화점 상품들로 치장한다.

서울 나들이를 온 시골지주 ‘봇다리’는 모던걸에 꼬여 진고개로 향하고, 그 ‘봇다리’의 부인은 근대 상품에 혹해서, 여학교에 유학 온 ‘봇다리’의 딸들은 자신을 모던하게 치장하기 위해 진고개 백화점으로 향한다. 미쓰고시와 조지야 백화점이 모여 있던 진고개는 동경을 거쳐 서구 모던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대의 길목이었다.

진고개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를 전전하는 모던걸·모던보이들을 흔히 ‘혼부라당’이나 ‘차당(茶黨)’ 등으로 불렀다. 이들은 찻집이나 카페에서 유성기 소리에 맞춰 눈썹을 치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찻잔 왼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출 정도로 모던하다. 그런데 혼마치(본정통)에서 이들의 모던한 유흥은 경성의 남촌답게 일본어로 이루어졌다.108)

일제 때 충무로는 혼잡하여 경찰을 배치하거나 교통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20년 6월에 지바(千葉) 경기도 제3부장은 남대문 앞과 본정통의 교통 혼잡을 정리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본정통1정목~2정목까지의 도로는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이므로 12명의 교통을 정리할 순서를 배치하여 오후 4시~오후 10시까지 차량통행을 금하고, 오전 7시~

오후4시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차만 통행을 허가하되 우유 배달차·식료품차·인력거·우편물차·살수차와 소형차 등의 통행은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¹⁰⁹⁾ 이 같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운송업계는 오후 4시 이후의 화물차의 통행금



영락정(현 저동) 거리와 상가

지를 실시하면 화물 하역을 부득이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으므로 오후 7시 이후에 통행금지를 실시하도록 경기도청에 요청하였다.¹¹⁰⁾ 1925년 10월에는 남산 신궁(神宮)에 일본 신(神)을 모신다고 하여 10월 15일~18일까지 4일간 본정통의 교통을 제한하기도 하였다.¹¹¹⁾ 또한 1928년 3월에도 본정경찰서장은 각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 해 4월 1일부터 본정 1~3정목 구간에 대하여 새벽부터 오후 12시까지 자동차·자전거의 통행을 금하고, 짐수레·우차·마차는 오후 4시~10시까지 통행을 금한다고 발표하였다.¹¹²⁾

1921년 7월에 본정경찰서는 본정통의 거리가 협소한데다가 여름철에 각 상점마다 햇볕을 가리려고 차양(遮陽)을 하여 교통에 장애가 되므로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처럼 본정2정목 부근에는 공동으로 차일을 설치하려고 협의를 하였다.¹¹³⁾ 1923년 12월말 「동아일보」기사는 진고개 일대의 세모(歲暮)풍경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인이 사는 거리는 조용하지만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진고개 일대는 양력 세모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일대는 집집마다 처마 끝에 술가지와 전등을 장식하여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상품 진열대 안에는 갖가지 상품을 늘어놓아 구매 의욕을 일으키게 한다. 관동대지진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 아랑곳없이 주로 포목점·나막신가게·잡화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경품(景品)을 내건 점포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리 곳곳에 구세군의 신도들이 이재민들에게 보낼 구호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였다.

1932년 5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무용가 최승희(崔承喜)가 본정연예관(本町演藝館)에서 신작 발표회를 열었다.

1937년 9월에 충무로의 기생 단체인 본정권번(本町券番)은 기금 30만 원(圓)을 이용하여 미쓰코시(三越)백화점 뒤편의 횡빈(橫濱)화재보험과 덕력(德力)의 소유 토지 2,000여 평을 매입하여 대규모의 상설 영화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계당국에 설립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성흥행협회는 현재 경성시내의 상설 영화관도 포화상태이므로 신설 영화관의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조선포털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다.¹¹⁴⁾

1940년 7월에 경성부내 각 경찰서 고등계에서 불온서적을 검색, 압수하였는데 본정경찰서 관내에서도 70여 권의 공산당 서적을 검색, 압수하였다.

1930년에 경성에서 태어나 충무로에서 자란 일본 소설가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가 소년시절을 보낸 이 거리를 기억하여 쓴 것을 보면, 충무로입구 우측에는 시노자키 문구점, 야마기시(山岸)약국이 있고, 야마토젠(大和軒), 혼쵸야 등의 과자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야마토젠에는 ‘떡과 찰팥밥’이라는 간판과 등롱 모양의 장식물이 달려 있어 화과자(和菓子) 중심의 과자점이고, 혼쵸야는 ‘과자와 차’라는 표시가 붙은 다방을 겸한 양과자 전문점이다. 이 집들 사이에 와이셔츠, 넥타이 등 양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있고, 거리 맨끝은 지요다고(千代田號)라는 파친코집이었다.

거리 좌측에는 우체국 뒷문에 이어서 모리나가(森永)식당, 그리고 항상 항상 음반음악을 화려하게 울리고 있는 일본악기가 있었다. 그 옆집이 금성당(金城堂) 서점이며 그 옆이 ‘아마구리타로(甘栗太郎: 군밤 상표) 지점, 끝에는 구로카와(黒川)정육점이 있었다. 이들 가게 맞은 편에 있는 것이 히라타백화점인데, 주방용품 · 식료품 · 일용잡화를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신흥살림에 필요한 물건은 여기서 다 살 수 있다고 정평이 나 있으며, 식료품 매장에는 경성에 있는 백화점 점원 중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소문난 아가씨가, 늘 빙글빙글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 준다. 모퉁이에 있는 경성운동구상회는, 충무로2가의 가도야(かどや)스포츠용품점과 경쟁을 벌였다.

명치정 중국영사관 쪽으로 구부러진 길을 나아가 네거리를 지나면 전문점들이 늘어서 있다. 충무로 우측에는 모피를 취급하는 다루모토 상행(樽元商行), 오쓰카(大塚)구두점, 나쓰카와 제차(夏川製茶)가 있고, 그 옆에 미나카이(三井)백화점이 있으며, 그 옆에 야스다(安田)은행이 있다. 충무로 좌측에는 쓰카다니(つかたに)양품점이 있었고, 그 옆이 물엿집과

고가(古賀) 쟁반점이다. 그 옆에 나쓰카와 차점(中塚茶店)이 있고, 그 옆에 오사카야고(大阪屋號) 서점, 그리고 ‘궁내성(宮内省) 납품업자’란 간판을 건 명치옥(明治屋) 경성지점으로 이어진다.

미나카이백화점은 충무로거리를 향한 정면은 2층이지만 이본정 신도(裏本町 新道)에 면한 곳에 증축된 신관은 7층짜리였다.……

충무로 2가에 들어가면 조선 명산점, 조선관 등의 선물가게가 위치해 있다. 조선관은 화려한 색으로 칠한 한국풍 3층 짜리 건물로 이국 정서를 자극하여 여행자의 눈길을 끈다. 구리아고(久利屋號) · 이시카와(石川) 물산상회 · 박사당(博士堂) 안경점 · 미타마사(三田政) 유리점 · 화과자를 파는 다치바나야(橋屋) · 포리돌 레코드 지점 · 구기모토(釘本) 악기점 · 모형재료 · 완구를 파는 지구당(地球堂) 등이 있었다. 왼쪽 골목을 올라가면 프랑스교회, 즉 현재의 명동대성당으로 통하고, 그 옆길을 내려가면 영락정(永樂町), 전매국이나 활동사진관 중앙관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본정 거리의 화려함은 이 2정목에서 끝나고, 3정목, 4정목을 지나 5정목에 들어가면 환락가 · 향락가의 분위기가 풍긴다. 3정목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경성극장, 왼쪽으로 좀 가서 약초정(若草町 : 초동) 큰 길을 내려가면 약초(若草)영화극장이 있다. 이 이외에 황금정의 황금좌(黃金座), 명치정의 명치좌(明治座), 낭화좌(浪花座), 종로의 단성사 등이 경성의 주요 영화관이다.

화원정(花園町) 거리를 달려온 전차는 본정 5정목 입구가 종점이다. 여기서 조금 언덕길로 올라 사안교(思案橋)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고 병목정(竝木町)을 거쳐 장충단으로 빠지는 길을 오른쪽으로 돌면 신정(新町) 유곽 일대가 나오고, 왼쪽 작은 길로 돌면 소위 ‘병목정 갈보집’이라 불리는 조선인 상대의 매춘가가 펼쳐진다. 이 동네는 선술집이 늘어서 있고, 시끄러운 음악과 여급의 교성이 울려 퍼지는 -종로 뒤의 조선인 거리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경성의 ‘마굴’이라고 하였다.¹¹⁵⁾

소화 12년(1936)에 사범학교 학생이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경성 본정(本町) 복원」이란 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에 보면 충무로1가 끝에 희락관(喜樂館)이란 영화관이 있었고, 거기에는 “화면에 항상 비가 내리는 영화 두 편에 30전(錢) 정도”라고 써어있다.¹¹⁶⁾

3. 근대화 시설

(1) 혼마치(本町)빌딩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 중 빌딩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역시 그 이전까지의 건축은 대부분 양식주의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고, 게다가 관공서 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건물의 명칭에 건축주의 의지 또는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이 그다지 투영되지 못했으리라 여겨진다. 이 건축물은 빌딩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처음 사용된 건물로서 1924년 6월부터 1925년 6월까지 충무로 2가에 철근 콘크리트조와 목조·조적조가 혼합된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옥상에는 옥탑이 있어 아직 근대식 건축물 초보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시 양식주의·르네상스를 기초로 한 절충주의의 잔영(殘影)을 볼 수가 있다. 설계의 의도의 기록에는 최신식 디자인을 위하여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2) 아사히(朝日)빌딩

아사히빌딩은 1935년 충무로 1가 5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4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졌다. 국내 최초의 임대 업무용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현대식 건물이었다. 원통형 계단실의 벽면구성 방법이라든지, 각층의 창틀 샷시를 기둥보다 바깥쪽에 위치시켜 수평적으로 연결시킨 것 등 정면의 2~4층 부분의 벽면을 하나의 판으로 인식되게 동일재료로 평활하게 처리한 수법 등이 설계자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제는 철거되어 그 터는 제일은행 구 본점의 뒤뜰이 되었다.

(3) 미쓰코시(三越)백화점

일본의 상업자본이 조선으로 몰려들면서, 유통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조선에서 식민 경제 진출의 주도권을 잡았던 미쓰이(三井)물산은 소규모 백화점으로 직영백화점인 1906년 미쓰코시(三越)지점을 충무로1가 현재 사보이호텔 자리에 세웠다. 미쓰이 물산은 본격적으로 대형 현



미쓰코시 백화점과 조선저축은행(1930년대 중반)

대식 백화점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여 1926년까지 경성부청이 사용하다가 빈터로 남아 있던 충무로 1가 52번지(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를 부지로 택하였다. 이에 따라 1929년 3월부터 1930년 10월에 걸쳐 철근 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미쓰코시백화점으로 명명하였다.¹¹⁷⁾ 건물의 양식은 르네상스식을 주조로 하는 절충식이었다. 전체적 외부 마감은 흰색 타일이나 중앙과 좌우의 현관부에 있는 화강석 장식과 4층 굴곡부의 발코니, 옥상 파라펫의 수평대는 이 건물에 중후함을 안겨주고 있다. 옥상에는 정원을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백화점은 일제 때 조지아(丁子屋)백화점, 미나카이(三井)백화점, 히라다(平田)백화점, 종로의 화신백화점과 함께 서울의 5대 백화점 중의 하나로서 화신백화점 외에는 일본인들이 세운 백화점이었다. 미쓰코시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920년대의 양관(洋館)들은 대부분 총독부에서 주관하였기 때문에 식민정책의 합당한 위의적(威儀的)이었지만 대부분 졸속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건축물은 광복 이후 근대화에 밀려 철거되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와 같은 건물들은 철거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바탕 위에 특색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역사상에 남을 건축물을 축조해야 한다.

(4)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

미나카이백화점은 충무로1가 45번지에 1922년에 중강등치랑(中江藤治郎)이 의류전문 백화점을 설립하고 1932년에 현대식 대형점포를 신축하였다. 이 백화점은 부산·대구·평양·원산·목포·함흥·군산·대전·진주·충남·광주·청진 등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을 설립함으로써 백화점 경영을 전국적인 규모로 연쇄점을 운영하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백화점은 광복 후 국유재산으로 되어 해군본부가 사용하다가 퇴계로 확장공사로 일부가 헐리고, 원호차가 사용하다가 1970년에 철거되었다.

(5) 히라다(平田)백화점

1926년 충무로 1가 51번지에 설립되었다. 그 자본금은 20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충무로 1가 지대가 백화점화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백화점은 그 규모가 작았던 대신에 신부·주부상대의 주방용품과 식료품·일용잡화 전문점으로 결혼을 전후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¹¹⁸⁾ 이 백화점은 미나카이백화점과 함께 광복 후 문을 닫았다.

(6) 공동상업빌딩

이 건물은 1937년 충무로 2가 63-1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금의 세종호텔 서쪽 불력에 해당하는 이곳은 조선시대 왕가의 별궁이 있던 곳으로 1900년대 초에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남산 기슭에 몰려 있던 일본인들이 조금씩 북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상점가가 된 곳이다. 기타무라 모자상회·무사시야 구두점·타카키 포목점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상점 건물로, 메이지제과 매점과 가까이 있으면서 현대적인 설계로 충무로의 모습을 가꾼 대표적 건물이었다.

1층의 외부 마감은 인조석이고, 2·3층은 타일과 컬러스톤을 사용하였다. 장식은 모두 배제하였으며, 2층과 3층 사이에 3층의 슬래브가 돌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틸 프레임을 사용

하여 본격적인 커튼 월 수법을 채용하였다. 도로를 따라 전체적으로 긴 건물의 매스나누기와 또 그에 따른 개구부와 벽체의 비례가 바람직하게 책정되었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7) 모리나가 캔디스토아

중앙우체국 옆 충무로 길로 조금 들어간 곳에 중앙 우체국 담장에 이어서 모리나가 제품판매점이 1940년 벽돌조로 세워졌다. 메이지제과 매점이나 기타무라상회 등은 주 도로에 면한 건물의 외벽을 최대한 개방적으로 설계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1층의 점포와 진열장을 제외하고는 폐쇄적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건물의 외곽에 타일로 띠를 둘러놓았는데 벽면 재료가 견고하지 못하였기에 테두리를 타일로 굳게 잡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2층 사무실 부분에 나 있는 창 이외에는 폐쇄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1층 주 출입구 부분이 건물 외곽선 보다 안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과거 출입구에 캐노피와 경사로 등을 두어 입구를 강조하던 것과 비교하면 근대식 외관 표현수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로 들어서면서 외벽의 마감처리로 타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쟁을 위하여 대부분의 물자가 군수품으로 동원되고 물자가 부족하던 창 넓은 벽면을 마감 처리하는 데에 적절한 재료로 인식되어 갔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지 않다.

(8) 메이지제과(明治製菓) 매점(賣店)

메이지제과 매점은 과자상점답게 현대적인 멋쟁이 건물로 1930년 당시 상업가 밀집지역인 충무로 2가 63-1번지에 건축하였다.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이었다.

폭이 좁고 깊이 방향으로 길이가 긴 대지의 전면 부분을 모두 창으로 처리하였다. 2층과 3층 사이의 발코니 풍의 수평 띠는 이 건물을 상업건축답게 더욱 경쾌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면과 좌측 벽면에서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장식탑의 밑둥 부분은 데·슈타일의 분위기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세워진 건축물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가장 세련된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평면적으로는 도로 쪽 절반은 영업장·객장으로 사용하고, 뒤쪽은 제빵·제과의 작업장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작업실 부분의 중앙에는 작은 중정이 있어 채광과 환기에 유의한 점이 눈에 띈다. 설계는 일본 동경에 있던 모리야마(森格之助)사무소에서 하였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다.

(9) 파성관(巴城館)

충무로 2가에 있었던 여관으로 당시로서는 대관(貸館)이나 외국인 손님들이 투숙하던 오늘날의 특급호텔이었다.

1900년경 서울에는 파성관·포미(浦尾)여관·산구태조(山口太助) 등 5 개의 여관과 요리점 12 개가 있었다.¹¹⁹⁾ 그런데 당시의 요리점은 사교장 뿐만 아니라 숙박도 가능했던 것을 『조선시사(朝鮮時事)』에서 밝히고 있다.¹²⁰⁾ 이 여관들 가운데 특히 파성관은 1895년 일본낭인배들이 명성황후의 시해(弑害)를 모의한 장소로 충무로 일본인거류지에 있었다.¹²¹⁾ 1904년의 1차 한일협약과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초기에 많이 왕래하던 상인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진출과 함께 각 분야에 급격히 많은 외국인(특히日本人)이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여숙시설도 1905년 이후로는 규모나 수적인 면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때에 개업한 여관의 하나로는 1906년에 회현동에 세워진 불지화여관(不知火旅館)이 있는데 객실이 30 개가 넘었으며 서양풍을 가미한 근대식 철근콘크리트로 지었다. 시설로는 각 객실마다 양식세면소와 탁상전화 장치까지 되어있었다.¹²²⁾ 1907년 9월경에 서울에 있던 여관을 살펴보면 1등 여관은 9 개소로 파성관, 산본여관(山本旅館), 목야여관(牧野旅館), 천진루(天真樓), 포미여관(浦尾旅館), 옥려관(旭旅館), 불지화여관(不知火旅館), 삼일월여관(三日月旅館), 원금여관(原金旅館)이 있었으며, 2등 여관은 좌등여관(佐藤旅館) 등 13 개소, 3등 여관은 동운여관(東雲旅館) 등 10 개소로 당시 서울에는 총 32 개소의 여관이 있었다.¹²³⁾ 이러한 여관들의 등급은 말할 것도 없이 건축과 설비의 상태로써 결정하였다.

〈 박 경 룡 〉

4. 영화전래의 발상지 ‘충무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사진이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정설은 없다. 그러나 최초로 상영된 장소는 구리개로 그 당시 주소는 황금정 1정목(을지로 1가) 네거리 근처에 있던 전 한성은행 자리인 한미연초회사 창고였다. 50 척 · 1, 200 척의 필름으로 풍경과 화차(火車 · 당시 기차의 이름) 등을 보여주었으며 관람인에게는 빈 담배값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 개를 받다가 나중에 인기가 오르니 10 개까지 받았다. 당시 일반 관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너무도 신기하여 포막(布幕 : 스크린)을 들춰보기까지 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현재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활동사진 기록은 1903년 6월 23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실린 동대문에 있던 한성전기회사의 활동사진 상영 광고이다. 회사의 전차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활동사진을 상영한 것이다.

“동대문 내 전기회사 기계장에서 시술하는 활동사진은 일요 급(及) 음우(陰雨)를 제하는 외에는 매일 하오 8시부터 10시까지 설해(設解)되는데 대한 급(及) 구미각국의 생명도시 각종 극장의 절승한 광경이 구비(具備)하되다. 허입요금(許入料金) : 동화 10전” (「황성신문」 1903년 6월 23일 자)

한성전기회사에서 당시 설령당 한 그릇 값인 10전의 입장료를 받고 상영한 활동사진은 하루 백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대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1903년 7월부터는 판소리 등 전통연희의 무대공연장인 협률사(協律社 · 圓覺社의 전신)에서도 활동사진을 상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07년에는 최초의 전문 상영관인 단성사가 개관되었다. 충무로가 영화의 발상지로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06년 경성부 진고개 부근의 송도좌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을 효시로 1910년 경성부 황금정(현 외환은행 본점)의 ‘경성고등연예관’이 본격적인 영화관으로 흥행을 하였다.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경술국치 5년을 기념해서 경복궁 경회루를 중심으로 공진회(共進會)를 열었다. 일제는 일본상품의 시장개척을 위한 교두보(橋頭堡)로써 천승마술단을 초청



중앙관(1922년, 현 중앙시네마)

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진회가 끝나자, 그 건물을 헐고 을지로 4가 국도극장 자리에 다시 세웠는데 이것이 황금관이다. 또한 황금유원이란 오락장도 같이 차려 일본인들은 지배자를 과시하여 한국인의 적개심을 유화정책으로 다루려는 속셈이었다.

이후 1914년에 경성부 황금정에 「제2대 정관」, 1916년에 경성부 본정에 「경성극장」, 1917년에 경성부 명치좌에 「낭화관」, 지금의 충무로 5가에 「조일좌」, 후에 경성촬영소가 된 초동에 「수좌(壽座)」, 현재 중앙시네마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중앙관」이 1922년 설립되었으며, 광복 후 수도극장, 현재 스카라로 가장 오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약초극장(若草劇場)이 1935년 중구 초동 41번지에서 충무로의 변천을 도도히 지켜보고 있었다.

5. 무성영화시대와 충무로

(1) 연쇄극과 극영화의 등장

1919년 3·1운동은 한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정책 변경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일반 민중에게도 크게 자극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1920년대에 서울의 중심지인 충무로와 남대문 일대의 상권은 모두 일본인들이 지배하였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20여만 명으로 대중문화의 꽃으로 떠오른 활동사진은 남산을 거점으로 한 청계천 이남에 형성된 남촌의 충무로(수좌)와 남대문(남성좌), 그리고 을지로의 황금

관 등은 주로 일본인 관객을 대상으로 복춘인 종로의 단성사(수은동), 조선극장(인사동), 우미관(관철동)에는 한국 관객이 모여 들었다.

당시의 극계는 이른바 신파극단(新派劇團)의 독무대였다. 그러나 이 신파극단의 연극은 거의 일본 3류극단의 변안(變案)이었고, 또 무대장치도 모두가 일본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것이었다. 좀처럼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 이 신파 무대에 당시 관객은 점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3·1운동으로 인하여 구태의연한 신파무대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극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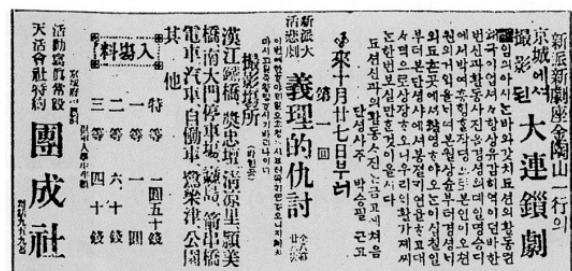
당시 신파 부문의 대표적인 극단이 임성구의 혁신단(革新團), 김도산의 신극좌(新劇座), 김소라의 취성좌, 이기세의 문예단(文藝團) 등이 있다. 이 4개 극단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으나 점차로 줄어드는 관객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었다.

김도산은 이 신파극의 구체책으로 일본에서 촬영기사를 초빙하여 연쇄극(連鎖劇)을 제작했다. 단성사의 관주였던 박승필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했다. 김도산이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게 된 커다란 이유는, 당시 신극좌의 단원이 이기세의 문예단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본의 촬영기사 뿐만 아니라 필름을 비롯한 영화기계도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다. 그리하여 김도산 일행은 「의리적 구투(義理的仇鬪)」란 신파극을 선택하여 약 1,000 피트 길이의 연쇄극을 위한 촬영을 개시했다. 연쇄극이란 극과 극을 연결하는 장면을 무대에서 실연할 수 없는 것을 필름에 수록하여 연극과 함께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리적 구투」는 장충단고개를 비롯하여 망우리고개에서 촬영되었는데, 이 작품을 감독한 사람은 단성사의 변사였던 김덕경이었다. 일본 촬영기사의 통번(通辯)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김도산은 그와 의논하여 촬영하였던 것이다.

이 촬영에 동원되었던 사람은 신극좌의 단원 이경환, 김영덕, 최일, 양성현, 윤화 등을 비롯하여 당시의 멋쟁이 운전수 이기연 등이었다. 이기연은 당시 경성에 몇 대 밖



「의리적 구투(義理的仇鬪)」 선전문안



「춘향전」

에 없던 포드차를 가지고 명 운전사로 이름이 났던 인물로 그 후 비행조종사가 되어 「괴인의 정체」란 영화에도 특별 출연하기도 하였다.

이 「의리적 구투」의 연쇄극이 완성되어 단성사에서 상연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소요된 제작비는 무려 천여 원(圓)이란 막대한 금액이었다.

당시 30 원이면 1개월간의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으니 가히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단성사에서 상연하게 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곧 막대한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었고, 매일 단원들에게는 일당 30 원이란 금액이 배당되었다. 이리하여 신극좌의 명성은 장안에 떨쳤고 연쇄극 붐(boom)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 작품 중의 촬영된 부분은 3형제가 계모 일당을 추적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약 1,000 피트 길이의 필름에 나타나는 한국인, 당시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게된 관객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외국영화만 대하던 당시의 관객은 한국 옷차림의 한국사람이 은막(銀幕)에 나타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3·1운동이 일어난 직후라 그 감격은 더했던 것이니 한국도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어떤 자부심조차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객의 심리적 비교가 곧 이 연쇄극의 성공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쇄극의 성공은 또한 극영화를 탄생케 한 커다란 요소가 되었다. 즉 짧은 연쇄극에도 많은 관객이 왔으니 만약 장편영화를 제작했을 때는 더욱 성황을 이룰 것이란 예측이 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극영화 「춘향전」이 나타났다. 이 「춘향전」은 오늘날까지 13 차례나 영화화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한국 최초의 극영화로 등장했던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론 상훈(商魂)이 앞선 기획이었지만 「춘향전」은 한국인이 오랫동안 애독하여 온 고대소설이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평민과 양반의 젊은 남녀의 사랑, 여기에 포악한 변학도의 등장, 춘향의 절개 — 이

모든 것은 일제의 억압에서 빠져 나오려던 관중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이 「춘향전」의 제작자며 각본 감독은 일본인 하야카와(早川孤舟)란 인물이었다. 한국고유의 이야기가 일본인 손에 의해 영화화한 사실은 시니컬(cynical)한 역사의 변전(變轉)이긴 하지만, 여기에 어떤 두 민족의 대립보다는 상흔이 앞선 것이니 만큼 제작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기획이라 할 것이다.

하야카와는 당시 황금연예관을 1918년에 증축하여 황금관으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경영주로 등장한 인물이었다. 하야카와 흥행사는 연쇄극이 계속적으로 성공하자 곧 동아문화협회란 제작회사를 설립하였다.

오늘날 국도극장의 전신인 황금관은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극장이었다. 그러나 경영주 하야카와는 당시의 한국 관객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고대소설 「춘향전」을 선택한 반면에 또한 무성영화시대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변사(辯士)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한 인기 절정의 기생(일명 藝妓)을 등용한 것은 하야카와의 상흔(商魂)이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몽룡의 역은 조선극장 주임 변사로 활약하던 김교성이었다. 김교성은 김춘광이란 이름으로 그 후 연극계에서도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춘향은 당시 경성 5권번(券番)의 예기(藝妓) 한룡(韓龍)이었고, 그 밖의 여성 출연자들도 모두가 기생들이었다. 물론 기생을 등용한 것은 여배우가 없었다는 것도 한 이유였지만, 이 예기란 기생들은 당시 극장의 무대를 빌려 그네들의 독자적인 흥행을 하여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들은 소위 기생학교인 권번(券番)에서 가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여성들이었다. 그리하여 각기 자기 특징을 살려 무대에 섰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기의 위치나 인기는 연극배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춘향전」의 내용은 구태여 소개할 필요도 없다. 이 작품이 흥행에 크게 성공함으로써 극영화의 성대한 출발을 하게 했다. 더구나 사극영화의 붐을 형성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춘향전」에 이어 「장화홍련전」, 「해의 비곡」, 「운영전」 등의 작품이 계속 발표되었다.

(2) 극영화 「월하의 맹세」의 탄생



「월하의 맹세」의 이월화

그 후 1922년까지 13 편의 연쇄극이 만들어지다가 1923년에 본격적인 영화가 제작되었다. 신극좌가 이끌던 김도산 감독의 「국경」으로 35밀리 영화 10 권이 무성(無聲)으로 만들어졌다. 김도산은 그동안 8 편의 연쇄극을 감독 각색 주연을 해 많은 경험을 쌓아오면서 본격적인 극영화에 대한 열정이 솟아올라 1922년 10월 초순 「국경」제작에 착수하였다.

1923년 1월 11일자에 게재된 「동아일보」광고를 보면 “한국 최초의 활극영화 「국경」 단성사 상영중” 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김도산은 「국경」을 제작하던 초겨울,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도중 부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투병하던 중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극영화에 대한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국경」을 완성하지 못하고 비명에 간 것이다.

김도산은 본명이 김진학으로 1891년 서울에서 태어나 혁신단 계열의 신극좌를 창설하여 초창기 연극계에 크게 공헌하였다. 상동에배당 내에 있던 상동학교를 나와 26세 때부터 연극계에 투신하여 단성사를 중심으로 공연하는 한편, 연극과 영화의 연결을 시도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쇄극의 창시자가 되었다. 김도산은 주로 활극의 악역을 많이 했으며, 젊은 혈기와 지칠 줄 모르는 꿈을 안고 연쇄활극영화를 연출했던 풍부한 경험을 살려 극영화 「국경」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31세로 요절하였다.

「국경」이 제작된 지 3개월 후인 4월 9일 조선총독부에서 저축 장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월하의 맹세」가 경성호텔에서 총독부 고관을 위시해 언론, 문화 각 분야의 저명인사 100여 명을 초대하여 시사회를 열어 공개하였다. 윤백남의 제1회 각본 감독인 이영화는 그가 운영했던 민중극단의 단원인 이월화와 권일청 그리고 문수일, 송해천, 안세민, 김응수 등이 출연하였다.

비록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였으나 동아일보의 시사평에는 ‘내용이 매우 잘 되어 크게 갈채를 받았으며, 그 필름은 경성을 비롯하여 각 지방으로 가지고 다니며 저금을 선전’ 한다고 보도하였다. 「월하의 맹세」는 비록 30분 짜리 소품이었으나 우리나라 여배우 제1호인 이월화가 정순역으로 나와 최초의 여배우로 부각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고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상영 되었다.

초창기의 한국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다. 흥행사 박승필과 감독 윤백남 그리고 촬영기사 이필우가 그들이다. 광무대를 세워 흥행업을 개척하기도 한 박승필은 일본인 소유주로부터 단성사를 전세로 빌어 영화관으로 운영했는가 하면 단성사에 영화촬영부를 두어 직접 제작에 손을 대기도 했다. 김도산을 시켜 연쇄극 「의리적 구투」를 만든 것은 이미 소개했고, 훗날 춘사 나운규에게 자금을 대어 주는 등 단순한 흥행사가 아닌 의욕적인 영화인이었으며 민족흥행 자본의 시조이기도 했다.

1923년에 「월하의 맹세」를 내놓은 윤백남 감독은 연쇄극이 아닌 본격적인 영화를 최초로 만든 감독이며, 「월하의 맹세」 또한 극본, 감독, 출연진 모두 한국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본격적 한국영화의 첫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출연진은 이월화 · 권일 · 문수일 · 송해천 등 윤백남 자신이 이끌던 민중극단들이었다. 서울서 공부까지 한 농촌의 한 지식 청년이 노름과 주색에 빠진 끝에 파산을 당할 찰나, 장인될 사람이 등골이 빠지게 푼푼이 모았던 돈을 선뜻 내놓아 빚을 갚아주는 바람에 그 청년이 크게 뉘우쳐 달빛 아래서 약혼녀의 팔목을 부여잡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한다는 줄거리의 극영화 「월하의 맹세」는 조선총독부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한 계몽 영화였다. 본격적인 한국영화의 첫작품이 조선총독부의 관제(官製) 영화였다는 사실은 일제 식민통치의 상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작가이자 언론인에다 영화인이기도 했던 윤백남은 「월하의 맹세」를 계기로 한국영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의 영화활동이 오히려 그의 문필생활이나 연극활동을 능가한다고까지 풀이하기도 한다. 윤백남은 이어 조선키네마에 초빙되어 안평대군의 비화를 소재로 한 「운영전」을 감독했다.

당시 인기를 누리던 이채전이나 이월화를 접어두고 신인 여우 김우연을 등용하였으나 흥

행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영화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훗날 한국영화를 끌어올린 춘사 나운규를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운규의 등장은 그때만 해도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던 가마꾼으로 잠시 얼굴을 내미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문제의 인물은 한국 최초의 촬영기사 이필우로 그의 부친은 지금의 을지로 1가 네거리에 「이필우 시계포」를 차려 주었다. 그는 여기에서 사진부를 결들이고 슬라이드와 영상기를 마련하여 필름을 닦치는대로 빌려다가 돌렸다. 영화에 미친 26세의 소년은 우미관 영사실의 조수로 자원했다.

그리고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제국 키네마게 고사카 촬영소에서 영사기사들로부터 촬영 현장기술을 습득하고 19세 때 돌아왔다. 그는 순종 인산(因山) 때 기록영화를 맡은 한국최초의 촬영기사이며, 1924년 동아일보 주최 제1회 「전선여자 정구대회」의 사진영화를 촬영하기도 했다.

「장화홍련전」의 촬영을 맡으면서부터 숙원이던 영화활동에 뛰어든 이필우는 스스로 반도 키네마를 창설, 한국 최초의 코미디영화 「멍텅구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영화는 노수현이 조선일보에 연재해서 주가를 올리던 만화 「멍텅구리」를 소재로 한 것이다. 시계포와 사진 현상 인화(DP)점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업종을 함께 취급하는 가게가 많은데 시계장사에서 촬영기사로 뛰어든 이필우의 경우를 돌아볼 때 미소를 짓게 하는 구석이 있다.

(3) 「춘향전」과 사극영화

1923년 5월 전국에 영화 상설관이 점차 늘어나고 영화 관람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희락관을 경영하고 있던 하야카와(早川増太郎)는 동아문화협회라는 영화사를 만들고, 창립기념 작품으로 우리의 고전소설인 「춘향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극장 경영자로서 관객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하야카와(早川孤舟)라는 예명(藝名)으로 「춘향전」을 제작, 각본, 감독하여 1923년 12월 황금관에서 개봉했다.

춘향의 고향인 남원까지 가서 현지 촬영을 한다는 입방아의 소란을 피웠으나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고전 명작을 제대로 영화답게 만들 리가 없었다.

감독의 대본(콘티)은 아예 있을 리가 없었고, 촬영기의 필름이 떨어질 때까지 찍은 「춘향전」은 작품으로서로는 보잘것 없었으나 흥행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다. 이리하여 한국영화 80년 사상 흥행의 성경처럼 되는 최초의 신호탄이 되어 모두 13편이 만들어지는 연면한 기폭제를 장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4년 「춘향전」에 자극이 되어 당시 유일한 한국인인 박승필이 경영하던 조선극장의 적수였던 단성사가 우리나라 고전인 「장화홍련전」을 만들게 되었다. 주연인 장화와 홍련을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자, 박승필은 그가 광무대를 경영할 무렵에 ‘소리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곧 낙착되었다.

이 영화에는 심연옥과 최병룡이 출연하게 되었고 변사였던 우정식이 원님으로 나왔다. ‘소설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각색된 영화대본은 당시 단성사의 검열담당 직원이었던 이구영이 읽고 감독인 김영환이 윤색(潤色)을 했다.

「장화홍련전」은 보조원과 출연자가 모두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최초의 작품으로 1924년 9월 5일 단성사에서 상영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아울러 부산에서 본격적인 극영화 제작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당시로서는 거액인, 공칭 자본금 20만 원을 투입하여 설립하였다.

1925년은 불세출의 영화인 나운규가 처음으로 윤백남 감독의 「운영전」에서 영화계에 등장하였다. 이경손의 도움으로 「운영전」의 가마꾼 역을 처음으로 맡은 나운규는 이경손보다 네 살 위였으나 그는 두터운 우정으로 잘 따랐다.

“어느날 저녁 숙소 마루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는데 도리우찌 모자를 쓰고 학생복 위에 망토를 걸친 사나이가 씩씩거리는 호흡으로 나를 찾아왔다”

는 이경손 감독의 첫인상의 나운규였다.

「운영전」은 세종대왕의 넷째아들인 안평대군의 총희(寵姬) ‘운영’을 둘러싸고 문장에 뛰어난 김진사가 연모함으로써 일어나는 시대물로 일명 ‘총희의 사랑’으로도 불렸다.

「심청전」에서는 이경손 감독과 나운규가 단적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며, 춘원 이광수의 소설을 최초로 영화화한 근대소설 「개척자」가 제작되었고, 1925년 을축년 한강의 대홍수를 담은 기록영화 「한강 대홍수」도 나왔다.

(4) 충무로가 배출한 3인의 영화 선구자

1) 김도산 (金陶山, 본명 鎭學 : 1891년 ~ 1922년)



영화감독 김도산

서울 중구 충무로의 초동에서 출생한 한국 최초의 영화 감독이자 영화 작가인 김도산은 1919년 그는 한국영화 부재의 불모지에서 「의리적 구투」를 들고 일어섰다. 이 영화는 연쇄활동 사진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이자 효시이다.

35밀리 흑백 한권 분량의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 있어 최초로 기록 되는 영화이다. 박승필과 더불어 연쇄활동 사진극을 개척한 그는 연극인으로서 그리고 영화인으로서 그는 그 생애에 빛나는 신문화 연극 영화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최초의 영화 기획가이며 연출자이며 각색자인 동시에 연기자이기도 했다.

그는 상동 예배당안에 있던 상동학교를 거쳐 신극 운동의 선구자인 이인직에게 사숙(私塾)한 후 원각사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독실한 연예인이었다. 1911년 임성구, 김소량, 박창한, 임인구등과 함께 혁신단을 조직한 그는 남대문 밖 여성좌를 비롯해서 단성사 등에서 무대공연을 하다가 1914년 김소량 등과 협력하여 개량단을 만들었다.

개량단은 유일단, 예성좌, 연미단 계통에서 활약했던 신진들이 대거 집결하였고, 특히 여배우 중에는 김소진이 들어 있어서 이채를 띠었다. 또한 협율사 출신으로 신극을 주창해 오던 서재원도 참가하였다. 김도산을 단장으로 공연장소는 단성사를 무대로 하다가 단성사가 영화상설관으로 개축되자 그들은 지방순회공연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

1917년 개량단에서 나온 김소량이 취성좌를 새로 구성하면서 배우조합을 만들자 김도산은 다시 신극좌를 설립하여 「호수」, 「혈투」, 「흑지주」등을 지방공연하였다. 연기자로는 이경

환, 변기중, 나효진, 서재원, 이원규, 김영덕, 한길형, 홍연현 등 사회의 저명한 진용으로 짜여 있었다.

이와같이 연극에 전념하고 있을 때 김도산은 우연히도 1918년 황금좌의 창립 2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초청되어 온 일본 극단의 연쇄활동사진인 「선장의 처」를 보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그는 즉시 단성사의 주인인 박승필과 합의한 끝에 1919년 10월 27일에 발표한 「의리적 구투」를 시발점으로 하여 「대우정」, 「형사고심」, 「의적」 등 네 편의 연쇄활동 사진극과 「경성 전시의 경」 등 2편의 기록물(다큐멘터리) 필름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922년 활동사진에 가까운 「국경」을 각색 및 제작하여 최초의 활극영화를 시도하였으나 촬영 도중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하여 늑골 2개를 잘라내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 그해 12월 향년 31세로 아깝게 요절하였다.

2) 이구영(李龜永 : 1901년 ~ 1974년)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출생한 그는 영화평론가로서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쳤으며, 첫 출연작 「쌍옥루」는 고려 키네마의 제 2회 작품으로서 한국영화의 새로운 문예물의 장을 연 작품으로 「개척자」, 「운영전」등과 더불어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었다.

배재학당을 다니던 청소년 시절 그는 활동사진에 심취하여 ‘짜플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찰리 채플린의 흉내를 내는 등 활동사진 구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16, 17세 때 그는 본격적

으로 영화공부를 하기로 결심, 일본에서 나오는 영화잡지를 모아 읽는 한편 아예 불박이로 영화관에 놀러 살다시피 했다. 청년기에 이른 이구영은 영화수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길을 모색, 대판매일신문에 기자로 입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구영의 뜻은 처음부터 영화감독이 되는 것에 있었으므로 틈만 나면 극장과 촬영소에 드나드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그의 일본 시절은 영화를 공부하는 시기였다.



영화감독 이구영

귀국한 후 이구영은 중외신문, 조선일보 등에 필명(筆名), 익명(匿名)으로 영화에 관계된 글을 기고하면서 우리 연극계의 선구자중 한 사람인 현철을 알게 되었다. 의기투합이 된 두 사람은 '조선의 영화계와 연극계에 일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조선배우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전문배우학교의 효시가 되었다.

학생들 중 제대로 등록금을 낸 사람이 없을 정도의 형편이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러는 가운데도 뒷날 좋은 연기자가 배출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금룡, 복혜숙, 왕평, 김아부 등이 이때 배출된 제1기생이었다. 이때 현철은 연극과목을 전담하고, 이구영이 영화를 전담했다고 하는데 24세의 젊은 열정을 바쳐 시나리오 작법, 연기론, 활동사진사 등 자신의 영화지식을 총동원하여 정열을 기울여 가르쳤다.

이 무렵 그에게 영화연출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일본인 하야카와가 제작하여 흥행에 크게 성공한 「춘향전」에 고무되어 영화제작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단성사의 사장이 배우학원과의 합작을 제안하여 몇가지 곡절을 겪은 후, 현철의 배우학원과의 인연을 끊은 이구영과 단성사의 이필우가 뜻을 모아 「쌍옥루」를 영화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구영은 이 작품의 연출을 맡아 감독과 영화대본 작가로 등장하여 오랜 꿈을 이루게 된다.

「쌍옥루」는 영화사상 전후편 15 권이란 가장 규모가 큰 이른바 거작이란 특색과 우여곡절 끝에 새로 탄생한 조선감독의 첫 작품이란 측면과 함께 해서 많은 기대를 걸게했던 작품이었다.

이구영은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총 7 편의 영화와 영화대본 16 편을 내놓았으며, 단성사에 입사하여 본격적인 극장 선전을 하며 우리나라 극장 흥보를 체계화한 선구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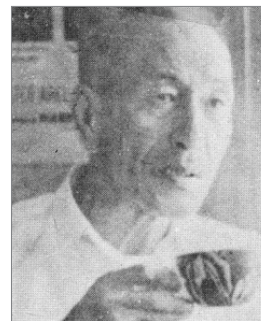
그가 감독한 작품은 「쌍옥루」(전후편, 1925년), 「낙화유수」(1927년), 「아리랑, 그 이후의 이야기」(1930년), 「승방비곡」(1930년), 「수일과 순애」(1931년), 「갈대꽃」(1931년), 「안중근 의사기」(1946년)가 있다.

3) 이필우(李弼雨 : 1897년 ~ 1978년)

이필우는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구리개가 본적지로 한국영화기술의 개척자, 최초의 영화

촬영기사로서 기술분야를 개척한 대표적 선구자의 일원이다. 「지기」, 「황혼」, 「장한몽」 등을 촬영했다.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이필우는 그의 동생 이명우와 같이 공성(共成)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영화에 대한 매력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이명우는 형인 이필우의 후원으로 한국영화 수난기인 일제침략기에 영화감독과 촬영기사로 활약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촬영기사 이필우

11세때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시계포와 사진관에서 일하다가 일제 때 학교생활을 마친 이필우는 한때 우미관의 영사기사로 일하면서 영화기재에 대한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한국영화기술을 개척하는데 있었다. 이필우는 보다 큰 대의를 안고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대판에 있던 제국키네마계인 소판촬영소에서 촬영과 현상 기술을 익혔다.

1920년대초에 귀국한 그는 마침 연쇄활동사진극을 제작 계획중이던 문예단 이기세와 만나게 되어 첫 작품인 「지기」를 촬영, 그 해 4월에 공개함으로써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활동사진 촬영기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이런 모험적 행동은 1919년 당시, 최초의 연쇄활동사진극 「의리적 구투」가 일본 촬영기사에 의해 촬영되었다는 우월감으로 일본인들이 자칫 한국영화인을 천시할 시점에 일본측 기술과 맞서 우리 기술을 과시한 첫 정면대결이기도 했다.

1924년 단성사 촬영부에 전속계약하여 최초의 체육기록영화인 「전조선 여자 올림픽대회」와 순수한 한국인 제작의 「장화홍련전」의 촬영을 담당하기도 했다. 1925년 이구영과 더불어 고려영화제작소를 설립, 「쌍옥루」전후편을 각색, 촬영했으며, 1926년 반도키네마를 창립, 「멍텅구리」를 각색, 감독, 촬영했다.

또한 1927년에는 극동키네마를 설립하여 「낙원을 찾는 무리」를 촬영했고, 「낙양의 길」에서는 각색, 감독, 촬영을 담당했다.

이필우는 각색, 감독 등 창작 분야에도 그의 실력을 발휘했지만 그는 역시 영화기술의 개척자였다. 미국에서 제작된 발성영화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자 여기에 크게 감명을 받아 발성영화의 장치에 몰두한 것이다. 그것은 당시 우리 영화계의 기술적 수준이나 기계적 설비로

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그때의 한국영화제작 기제란 낱아빠진 뉴스 영화 촬영용인 미국제 아이모 촬영기 몇 대와 프랑스제 발보 촬영기 두 대, 거기에 최신식이라고 선전은 되었지만 사실 미국 기제에 비하면 고물에 불과했던 유니버살 월라드 촬영기 한 대 뿐이었다. 이 신식 카메라인 월라드도 실은 1927년에 제작된 「낙화유수」 촬영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었다. 이필우는 후배양성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녹음기술연구 개발에 전력을 다했다. 그리하여 1935년 한국최초의 발성영화인 「춘향전」을 완성하여 새로운 발성시대의 서막을 장식하였다. 촬영기술의 개척자인 동시에 녹음장치의 개발자로 「명텅구리」(1926년), 「홍련비련」(1927년)을 감독한 한국영화사의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5) 춘사 나운규와 「아리랑」



영화 「아리랑」의 원작·감독·주연의 춘사 나운규

춘사 나운규는 1902년 10월 27일 함북 회령에서 나형권의 6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상도에서 이주하여 6 대째 살고 있던 회령은 옛 육진(六鎭)의 하나인 성곽도시이며, 두만강에 임한 국경 무역도시로 일찌기 개화된 곳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 나형권은 구한말의 군인으로 계급은 부교(副校)였다. 통칭 나부교였던 부친은 경술국치 이후로는 한방의(韓方醫)로 전향하여 중류생활의 가정을 꾸미고 있었다.

나운규 위로 민규, 시규 두 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사규, 오규, 필규가 있었다. 춘사는 15세 때 회령 보통학교를 거쳐 신흥고등소학교에 입학했다. 이 신흥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로 보흥여학교와 같이 경영되어 오던 우수한 학교로 춘사의 가장 안정된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가 졸업하기 전에 보흥여학교의 여학생 윤마리아와의 연애사건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1918년 간도의 명동중학교로 전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춘사는 이미 조혼(早婚)의 풍속대로 열다섯살에 장가를 들었으나 연상의 아내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 간도의 생활은 춘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체험을 가져다 주었다. 사실, 간도는 경술국치 이후 망명객의 거점이었으며, 실향민들의 집결지였다. 더구나 명동중학교는 사실상 독립

군의 양성소나 다름없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춘사도 여기에 가담, 이른바 일제의 제령(帝令) 위반으로 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듬해 명동중학교도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고, 간도에서도 몸을 담을 곳이 없게 되자 러시아로 건너갔다.

정처없는 방랑길에서 춘사는 호구지책으로 러시아 백군에 입대했으나 인종차별과 학대에 못이겨, 그 해 가을 두 사람의 한국 친구와 함께 탈영을 했다.

춘사는 그때 탈출과정을 「문예·영화」(1928년 3월호)에 〈나의 러시아 방랑기/자서전〉로 잡지에 연재한 바 있다. 그는 며칠을 굶으며 도보로 훈춘을 거쳐 북간도로 향하였으나 수중에는 무일푼이었다.

“……독자 중에는 어이하여 구걸을 못하느냐고 묻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백인의 모욕으로만 살아온 무리이다. 이 중에 어느 누가 황인종도 사람으로 여겨주는 집을 찾으랴. 걸인 행세로 가가호호를 돌아볼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30리만 더 가면 조선인 부락이 있다 하니 그 부락에 가기까지는 굶어도 좋다는 것이 우리의 결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갈증을 참을 수 없어 어느 농가에 들러 물을 얻어 마셨다. 러시아의 촌부(村婦)는 그들이 먹은 유리컵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을 보고 뼈저린 후회를 했다.

춘사는 이 때의 일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체험으로 간직했다. 훈춘에서 춘사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험난한 생활로 춘사는 이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1921년 춘사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서울로 와서 중동중학교에 적을 두고 은사의 도움으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영화에 미쳐 공부도 체쳐놓고 밤잠도 설치가며 대배우의 꿈을 키워 나갔다.

서대문구 죽림정(현 충정로)의 하숙방에서 윤봉춘과 함께 단성사와 우미관에서 「명금」을 감상하고, 「쾌걸 조로」에 박수를 치고, 「철로의 백장미」에 눈물 지으며 외국영화를 통해 향수(鄉愁)를 느꼈다.

그러나 3·1 운동 때 회령만세사건의 연루자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윤봉춘과 함께 회령으로 이송되어 춘사는 1년 6개월, 윤봉춘은 1년의 징역형을 받아 청진형무소에서 모진 학대



「아리랑」 영화의 한 장면

를 당하며 복역을 하였다.

이때 청진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 함께 수감된 이춘성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책임이었다. 그때 나운규는 그에게서 춘사(春史)라는 호를, 윤봉춘은 금원(琴園)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한다.

감옥살이에서 받은 학대와 중노동, 모진 고문은 북만주와 시베리아 별관을 유랑하던 쓰라린 체험과 함께 그의 항일 민족사상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였고, 투쟁적 저항의식을 더욱 부채질한 정신력의 도장(道場)이 되었으므로 훗날 작품세계에서도 여실히 반영되어 「아리랑」, 「풍운아」, 「사랑을 찾아서」 등이 모두가 그 소산이었다.

1) 춘사의 영화 첫 출연시절

“.....1 년 만에 붉은 벽돌집의 쇠창살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와보니 윤규의 아버지도 또 형님도 왜놈의 등쌀로 돌아가셨다” (윤봉춘의 회고담)

윤규와 나는 다시 서울로 와서 학교에 들어가려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 조선키네마가 설립되면서 신인 배우 응모광고가 났었다.

춘사는 “배우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일지도 몰라. 나는 학교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는 것보다도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가 되고 싶어”

참고서를 팔아 가지고 밤차로 부산에 내려간 춘사 나운규의 시험관은 윤백남과 안종화였다.

“.....길을 걷어가는 앞에 돈이 떨어졌다. 얼굴을 붉히다가 주위를 살핀다. 아무도 없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급하게 집어들고 다시 한번 앞뒤를 살피다가 앞으로 도망가듯 뛰어나가는 시늉을 해 보라”

는 주문이었다. 춘사는 열을 올리며 연기를 하였지만 불합격이었다.

윤백남은 “첫째 키가 작고, 둘째 목이 짧고, 다리가 안짱다리이기 때문에 배우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춘사는 윤백남의 손목을 잡으며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내려올 차비만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안 받아 주시면 저는 당장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배우가 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왔으니 꼭 배우를 시켜 주세요”

라는 애원에 감동된 윤백남은 임시 고용 연기자로 써 줄테니 우쭐거리지 말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그날부터 조선키네마의 임시 고용 연기자로 취직이 된 춘사는 회사 청소부가 할 청소는 물론 세탁과 함께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열성을 보였다.

드디어 1924년 「운영전」에서 가마를 메는 교군꾼 역으로 처음 영화배우가 되었다. 엑스트라라는 지루한 겨울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조선키네마의 일본인 오오이께(大池)가 여배우 이채전을 희롱하는 것을 본 춘사는 의자를 들어 머리를 내려치며 조선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 광경을 본 윤백남은 “참 장하다. 이런 열혈동지라면 끝까지 손을 잡고 같이 일해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춘사와 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윤 백남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민족정신을 반영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손을 굳게 잡았다. (『씨네 팬』 1961년 4월호)

1925년 춘사는 윤백남 프로덕션의 「심청전」에서 일약 주연급인 심봉사역을 맡았다. 이경손 감독의 이 작품은 흥행에 실패하여 춘사의 열의에 찬 연기도 빛을 내지 못하였다. 이어서 조일제가 설립한 계림영화협회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장한몽」을 제작했으나 이렇다 할 역할을 얻지 못하였으며, 1926년 이규설 감독의 「농중조」에서 시나리오의 각색을 한 실력으로 낙천가적인 공정삼 역을 맡아 주연급으로 발탁되었다고 『한국영화 측면 비사』(안중화 저)에서 밝히고 있다.

2) 불타는 「아리랑」의 영화혼



「아리랑」 영화의 출연진과 제작진들

회령에서 윤봉춘과 헤어진 춘사는 서울에 와서 조선키네마의 요도(淀虎藏)사와 쓰모리(津守秀一) 제작책임에게 좋은 작품이 있으니 영화제작을 하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하면서 조선의 민요극인데 절대로 손해는 안 볼테니 제작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춘사가 당시 윤백남 프로덕션이나 계림영화협회 등 우리 한국인들의 영화제작사가 있

는데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조선키네마에 제작을 의뢰했던 것은 그로서는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인 영화사에서 제작한다면 촬영된 필름이 햇볕도 쬌지 못하고 썩게 될 것이며, 둘째로는 각본을 검열관이 본다면 촬영불가는 물론 삭제해서 나오더라도 보조원과 출연자를 못살게 굴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아리랑」은 항일사상을 고취하면서 ‘개와 고양이’로 상징되는 김영진과 오기호를 대비시키며,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영진이가 오기호의 부하 13 명을 모조리 죽이는 장면은 조선의 13 도를 한꺼번에 먹으려는 일본인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는 춘사의 저항정신의 단면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작, 각색 감독, 주연까지를 혼자 맡아 다하였으나 상영 광고에는 쓰모리로 표기하여 「아리랑」의 상영은 처음부터 계산된 춘사의 작전이었다. 더구나 1926년 7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59호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을 공포하여 지방에서 검열하던 것을 경기도가 검열업무를 전담하여 일원화하면서 영화검열 허가가 전보다 엄격히 강화되었다.

사실 당시로서는 감독의 존재는, 오늘날의 영화감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중들에게는 그 존재가 미미한 역이어서 변사(辯士)보다도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판국인지라 춘사

는 「아리랑」의 완성과 상영을 위해 흔쾌히 김창선이란 한국 이름을 가진 쓰모리에게 대명을 해주었던 것이라고 윤봉춘은 밝히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문전의 옥답은 다 어데 두고/ 쪽박의 신세가 웬일이냐” 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리랑」 광고(1926년 10월 1일자)가 공안에 방해될 가사가 있으므로 경찰 당국에서는 9월 30일 선전지 1만 매를 압수하기도 했다.

「아리랑」이 한국영화사상 최대의 문제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아리랑」이야말로 조국의 비애와 불타오르는 민족정신을 형성한 민족영화였다는 점과, 둘째 「아리랑」으로 하여 그때까지 한국영화를 높은 예술적 수준에 올려 놓았다는 점이다.

셋째, 춘사는 「아리랑」에서 작가, 감독, 배우를 겸하여 선구자적인 작가정신은 이후의 활동과 더불어 한국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상실의 민중으로부터 절찬을 받았으며, 그 후 갑자기 「아리랑」이란 민요는 전국적으로 울려 퍼져 조국을 상실했던 시대의 ‘국가’ 였고, 민족의 가슴에서 가슴을 메아리치던 민중의 모태(母胎)였던 것이다.

춘사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예술가였다. 「국민의 탄생」을 만든 미국의 D·W 그리피스나 「전함 포템킨」을 만든 소련의 에이젠슈타인의 경우도 춘사 나운규 처럼 어려운 시대에 맞부딪쳐서 예술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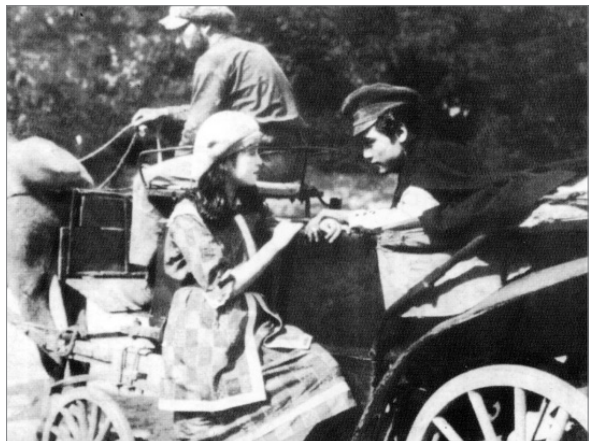
그러나 지구의 동쪽에서 춘사의 「아리랑」이라는 한국영화가 탄생했다는 사실만은 결코 우연일 수는 없다. 춘사는 영진의 정신 이상을 빌려서 일본인 관현을 치고, 천황이 하사했다는 관복을 찢고 칼을 짓밟는 등 천재적인 화면구성의 기법을 발휘했다.

1926년 10월 7일자 동아일보에서 김을한(영화동호회)의 영화평을 보면,

“……역할이 적재적소를 얻은 것이 성공의 큰 원인을 지었으니 감독자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나운규, 신흥련(신일선), 남궁윤, 이규설군 등은 다 각기 독특한 별다른 동작과 개성이 표현되었다. 장면은 거의 다 선명하였으며, 특히 사막의 장면은 전 조선영화를 통하여 가장 우수한 장면이라 하겠다. (중략)

나운규군의 표정은 동양사람으로는 거의 볼 수 없을 만치 선이 굵고 강경하여서 미국 배우 더글러스 페어망스와 같은 굳센 인상을 주는 것은 아직은 조선영화 배우 중의 제1인자라 하여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민족의 저항시 「아리랑」



「아리랑」 영화의 한 장면

춘사는 12 년간의 영화생활을 통하여 27 편을 내놓았는데, 그 중 26 편에 출연하였으며 18 편을 감독하였고, 19 편의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다. 영화의 감독으로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에 출연함으로써 춘사는 완전하게 영화적 자아를 실현하였다.

「아리랑」 속의 영진이나 「풍운아」의 니콜라이 박, 그리고 「사랑을 찾아서」의 동수와 「사나이」의 이태식, 「잘있거라」의 경호 등은 그의 분신이기도 하다.

특히 「저강을 건너서」는 원래가 「두만강을 건너서」였지만, 제목이 항일색채를 띠다하여 「저강을 건너서」로 개칭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사랑을 찾아서」로 고쳐, 11일 늦게 상영허가가 나와 1928년 4월 25일 상영한다는 『조선일보』 4월 24일 기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조국의 산하를 버리고 북간도로 밀려가는 한민족의 비극을 평범한 연애 속에 엮어서 일제에 항거하는 저항 정신을 묘사하여 내 민족 내 국토에 대한 무한한 애국심을 용솟음치게 하였다. 우수한 영화적인 기법으로 등불과 같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한민족의 슬픈 운명을 애정 속에 담아서 기필코 다시 살 수 있다는 기백을 보인 작품이다. 저 강이라 함은 민족의 설움을 안고 건너야 할 두만강이다. 우리들의 일가를 우리들의 혈족들이 일본인 세력에 밀려서 그 강을 건너야 했다.

나팔소리를 신호로 해서 사랑하는 고국의 사람들을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한다. 그리고 그 애국자의 상징인 나팔수는 적탄에 맞아 조국의 흠을 옮겨주고 쓰러진다. 1926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영화는 그 표현기능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탁월한 나운규의 저

항정신과 영상 표현적 구조밀도는 외국작품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춘사는 검열 수난의 여파로 다시 조선키네마의 후원을 얻지 못한 채 「사나이」를 착수하여 홍개명에게 연출을 맡기고 출연만 했다. 이 무렵부터 춘사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작품활동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만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흥행에 설사 성공했더라도 수입은 자본주에게 돌아가니 남는 것은 허탈감과 생활고 뿐이었다.

춘사는 나도향 원작의 「병어리 삼룡」 제작에 착수하였다. 1928년 12월에 촬영을 완료하여 1929년 1월 19일 조선극장에서 개봉하였다. 결국 나운규 프로덕션은 5회 작품을 내놓고 해산을 하게 된다. 더 이상 영화제작을 할 수 없는 탄압적인 사회환경이었다.

「아리랑」의 미치광이와 「병어리 삼룡이」에서 병어리로 말을 토하지 못하고 안타까이 발버둥치는 ‘삼룡’이를 통해 춘사는 전형된 이념을 투영하는 작가적인 위대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아리랑」에서 ‘개와 고양이’로 속박하는 자와 속박 당하는 자의 대립을 본 「상록수」의 작가 심훈은 ‘그날이 오면’을 구원의 시로 발표하여 해방을 목마르게 기다렸고, 음악가 현제명은 ‘희망의 나라’를 갈망하였으며,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구국의 시를 읊었다. 「아리랑」은 민요에서 민족의 영화로 변졌고, 다시금 민족의 영화에서 저항의 시로 승화한 것이다.

“.....조선영화계의 뚜렷한 존재로서 영화 「아리랑」 한편으로만도 조선의 방방곡곡 알려지지 않은 데가 없는 나운규씨가 전부터 병석에 눕게 되어 일반 영화팬들은 큰 기대를 가진 채 나운규씨의 건강회복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바, 불행히도 드디어 금 8월 9일 오전 1시에 경성부 관동정 70번지의 22호 자택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 1937년 8월 10일)

“떨어진 明星(명성)! 눈물의 영화 「아리랑」 주인공 나운규씨 금일 요절”이라는 기사 속에 조선에 영화사가 있을 수 있다면,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는 적어도 춘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차려야 할 것이며, 그의 공적을 크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99년 3월 10일 조선일보 「아듀 20세기」에서 걸작 한국영화 「아리랑」 개봉 (1926년 10월 1일)이라는 기사 속에 “「아리랑」은 넘어가는 고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고금을 통한 정서의 공통분모다. 그래서 사랑도 소망도 이별도 원한도 억눌림도 가난도 아리랑이요, 나라 잃은 설

영화의 메카 충무로

움도 아리랑으로 풀고 흠어진 마음도 아리랑으로 모은다.”

일제하 출구없는 암담한 농촌과 젊은이들의 상황을 영화에 도입한 것이 나운규 원작 감독 주연의 「아리랑」이다.

“……살진 전답과 / 아름다운 산천을 / 자랑하던 백성들이 / 길고 긴 세월에 쌓인 / 설움의 시를 / 읊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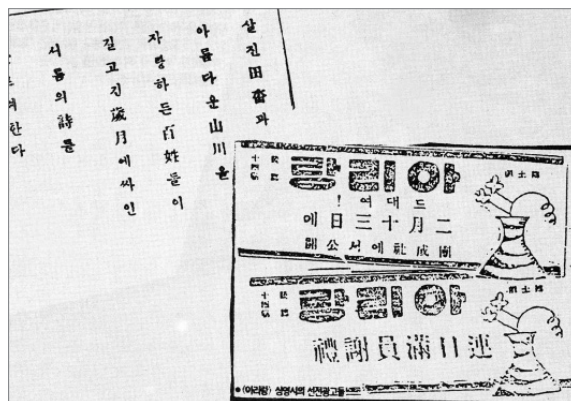
(6) 변사 성동호의 「아리랑」 해설 원고

#1

살진 전답과 아름다운 산천, 무궁화 삼천리에 풍년은 왓건만은, 한줄기 흠너오는 아리랑의 노래는 이 동리의 백성들만 풀어 늦는 설음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만코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만타

정신병에 걸린 영진이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며, 슬허하는 누이동생은 영희와 탄식하는 아버지의 터질듯한 그 가슴도 알지 못하고, 님 몰느는 환상의 세계에서 그는 홀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아리랑」 영화의 선전문

영희 “옴바, 정신 좀 차려주세요. 박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박선생 “영진이, 나를 좀 보게. 사년전에 자네와 갓치 류학을 할차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든 자네 친구 현구가 돌아오네”

사년만에 다시오는 현구는 감개무량한 얼굴로, 사면을 바라본다. 산천은 의구하나 사

람은 변했스니, 영진이가 나오지 안올줄이야? 현구는 뜻밖이었었다. 현구는 의심된 가삼을 안은 그대로, 박선생과 모든 친구들의 환영에 싸이어 영진의 집으로 들어 갔을 때

현구 “오! 영진이. 그동안에 잘 잇섯나?”

아! 누구보담도 반가히 마저 주어야할 영진이가, 지금에는 현구가 왔다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구 “영진아! 네가 이게 원일이냐? 영진아! 현구를 왜 좀 반겨주지 못하니? 꿈직이도 다정하던 네가 그러케도 명민한 두뇌를 가졌든 네가 었저다가 이 모양이 되었던 말이나? 영진 아! 이럴줄 아렷더면 차라리 오지나 말었스면 도왔슬걸 그리했나? 집도 업는 이곳에 내가 누구를 보려고 왔겟니?”

서산에 기우는 저녁 해빛은 이 처량한 사람들의 얼굴을 맥업시 바라볼 때, 읍바의 친구 다정한 청년, 안보면 그리웁고, 만나면 붓그러운 현구를 위하여서 영희는 정성껏 지은 저녁 밥상을 그이 앞에 갖다 노았다.

주부와 낙으네. 젊은이와 젊은이. 그들의 사이는 멀지 아니하여서 두 가삼에 숨어잇든 청춘의 붉은 꽃은 사랑의 이슬을 받아 바야흐로 피어난다. 그러나 그들의 동뒤에는 무서운 저주의 눈이 번뜩이고 잇섯스니, 그것은 동리의 부호로 약한자를 압박하는 천상민의 집 청직이 오기호이었다.

영진의 아버지가 천가에게 갑흘 빚잇는 그것을 그화로, 불갓흔 욕심을 채우고저 괴호의 마수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사이에 흘너 나린다.

#2

네 터전 이땅에도 풍년은 왓건만는, 배급흔 이 사정을 누구라 아려주리.

아리랑 노래에 장단을 맞추워 풍년마지 동리긋은 들가운데 열녀지니, 춤추는 그 얼굴엔 눈물의 흔적이오, 부르는 노래속엔 설음이 가득찼다.

현구도 나가고, 영진이도 나가고, 빈동리 빈집안에 홀로남은 영희는 현구의 사진을 가마니 내 여들고, 깃거울 그압날을 남모르게 그려볼 때, 별안간에 방문이 열니여 지며 영희압헤 드러서는 건장한 사나희.

영희 “에구머니! 당신이 원일이서요? 어서 나가주서요”

기호 “응! 오날은 동리도 비고, 집도 비고, 서울서 온 그 자식도 업스니, 참으로 조흔 기회다.
자! 내말을 들어라, 응?”

돈 만흔자의 세력을 밋고, 꽃갓흔 영희를 꺾그려는 기호는 혈안을 부릅뜨고, 영희를 틀어 안을
때, 처녀는 아모리 반항 하엿스나 무지한 그의 팔에 꺾기여진 가는 허리!

이때에 마침 노리터에 갓든 현구가 돌아 왔다.

현구 “오! 이 악마 갓흔 놈아! 영희를 괴기 노아라!”

현구와 기호 사이에는 맹렬한 육박이 시작 되엿을 때, 영진이가 도라와 이 모양을 보았다. 그
는 낫을 차저 가지고, 기호와 그의 부하들에게 달녀 들었다.

급한 소식을 듯고, 동리사람들이 쪼차 왓을 때, 영진이는 기호와 그의 부하들을 모다 죽이고
말앗든 것이다. 싸엿든 구름이 졸지에 거쳐 지듯이, 영진의 두뇌는 갑자기 맑어져다 그러나 깃버
하려는 이 순간에 벌서 싸늘한 법률의 손은 영진의 파리한 손목을 움켜 잡었다.

경관 “너는 살인자이니 가자!”

영진 “네. 제가 사람을 죽였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엿을 때,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영진 “동리의 여러분! 나는 한동안 죽엿든 몸으로 이제야 다시 사려 낫습니다. 여러분은 웃음
으로 나를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시는 걸 보면, 나는 참으로 건덕일 수 업습니다.
이 몸이 이 강산 삼천리에 태여 낫기 때문에 밋치엿스며 사람을 죽이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일상 불넛다는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보내 줍시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남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쓸쓸한 촌락에 날은 저물고, 가만한 저녁 바람 소리 업시 부러 올 때, 끌려가는 영진이의 가엾
은 그 자태는 처량한 노래와 함께, 멀고 먼 저 산길에 하염 업시 사라진다.

#3

세상을 요란케 하든 살인
사건도 이제는 곳이 나고,
예심에서 면소로 출옥이 된
영진이는 아버지와 누이동생
을 반가히 만나고자 고향으
로 돌아 왔으나, 잔인 무도한 천상민의 무리로 말미암아, 다시 그는 고향에서 부지 못하고 쫓겨나
게 되었다.



「아리랑」 영화 개봉을 알리는 신문 광고(1926. 10. 2) <매일신보>

원한과 원통이 골수에 사모 치는 영진이는, 악한 자를 압박하는 극악한 무리들을 한칼에 죽여
버리고자 생각도 하였으나, 박선생의 간절한 권유로 말미암아 할 수 업시 그는 참아 버렸다.

자기의 떠나감을 슬허하는 몇사람의 친구와 박선생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원한의 눈물을 머금
은 그대로, 그림고도 눈물겨운 아리랑의 노래에 싸이며, 사랑하는 누이동생과 아버지를 찾고저,
정 업는 이 고향을 다시 떠나가는 것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내 눈이 어두어 못 본다면
개천을 나물해 무엇하리

세월은 덧업시 흘러, 일년 강음이 어느듯 지내 갔다. 고향을 떠나 도회로 온 뒤에, 해신이라는
여자와 사랑하며 지내든 영진이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해신이가 까닭 모를 사건으로 인하여
경관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영진 “여보십시오. 대관절 이게 된 일입니까?”

해신 “영진씨.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영진 씨를 홀노 낫코 감니다”

영진 “무엇이라고요? 가시다니요?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나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사랑
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해신 “네. 고맙습니다. 저도 또한 영진 씨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진씨의 사랑을 영구히
받지 못할, 이 불행한 몸이 었지나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세요. 그리고 아모뜨록 제가 잡혀
가는 그 이유는 못지 마려 주십시오. 네. 영진 씨. 저는 가삼이 메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
신을 홀노 두고 가는 저를 넘우 생각은 마시고, 부대 안령히 계십시오. 언제나 또다시 맛

나 뵈옵게 될는지요?”

영진이의 상한 가슴에는 새로운 슬픔이 넘쳐 오른다. 경관에게 붓들녀 가는 해신이의 뒤 모양을 정신 업시 바라보며, 탄식하던 영진이는 비로소 그것이 모다 천상민의 양자라고 하는 재일이의 간계에서 생긴 일인 줄을 짐작하였다.

응! 그러타. 모도가 재일이 놈의 소위다. 원한과 원망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치 못하는 영진이. 그 즉시로 재일이를 차저 와 두 사람 사이에는 생명을 다투는 무서운 싸움이 시작 되었다.

#4

무서운 싸움 곁에 천재일을 죽이고, 경관에게 쫓겨 다라나든 영진이는 몸을 피하고자 었던 집으로 뛰어 드리 갔더니, 그는 천만 뜻밖게도 지금까지 차즈려고 가진 애를 다 쓰든 영희에 집이엿섯다.

영진 “오! 영희야! 윈 일이나? 현구 그 동안 잘 잇섯나? 그런데 영희야!

아버지께서는 어데 계시나?”

영희 “옵바! 이게 윈 일이세요?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해서 고만 도라 가섯답니다. 궂까지 옵바를 차즈시다가 지금 막 도라 가섯세요.”

영진 “무어,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께서 도라 가시다니... 그것이 정말이나?”

놀나움과 슬픔에 었쩔 줄을 모르는 영진이는 현구와 영희를 따라 아버님의 시태가 누워 잇는 방으로 드리갓다.

영진 “오! 아버지!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었지하야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러케도 밧비 가시엿슴닛가? 네, 아버지! 외로히 남겨잇는 저의 남매는 었지 하라고요?누구에게 의지하야 살나 하십닛가? 사랑하는 동모는 감옥으로, 소중한 아버님은 차디찬 무덤으로, 남겨 잇는 우리는 어딴로 가야할까요? 참으로 세상은 괴로워 못 살겿어요. 차라리 또 다시 밧치기나 하엿스면...”

이때에 쫓차 드리오는 경관은 어느듯 영진이의 손에 포승을 거러 버리엿다.

영희 “옵바! 이게 별안간 윈 일이세요? 네, 옵바?”

영진 “오냐, 영희야! 잘 잇거라. 나는 간다. 또다시 가는 나를 생각지 말고, 아모썬쪽 잘들 살어라!”

현구와 영희에게 눈물의 작별을 지은 다음, 경관에게 붓들여 나오든 영진이, 턴지가 아득하고 가슴 쫓차 터질 것 같아 경관을 뿌리치고, 다라 내려다가 그만 돌멩이에 머리를 부딪치고 또다시 그의 정신은 흐리어졌다.

이윽고 가장 유쾌한 듯이 춤을 추며 나오는 영진의 안전에는 또다시 남모르는 환상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포승에 얼키어서 끌려가는 그의 뒤로 붓터는 풍년 노래와도 갓치 수만흔 군중과 소년군이 행렬을 지어 따라오며, 가장 깃브고도 즐거운 낯으로 영진씨의 그 엇더한 승리를 축하하는 듯 무수한 깃발들을 날니여 주는 거와 갓치 보인다.

오! 남 마로는 환상의 세계. 현실이 만일 곳까지 이렷타 하면, 차라리 그는 그 환상의 세계에서 영원히 깨고 십지 아니 하엿든 것이다.

지금에 또다시 밋치여진 그의 영혼은, 설혹 ‘그의 육체가 불 가운데 재가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죽 몽상의 락원으로 영원히 끝니여 갈 뿐이엿사다.

6. 발성영화와 충무로 시대

영화의 발달과 함께 서울시내에는 영화선전지를 인쇄할 수 있는 곳이 불과 2, 3 개소에 불과하였다.

그중에도 충무로 초동에 있는 대곡인쇄소와 을지로4가의 대익당과 예지동의 수영사였다. 대익당은 주로 영화포스터를 인쇄하였으며, 대곡인쇄소는 옵셋인쇄기가 없는 활판소였다. 수영사는 불비한 점이 많았으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꽤기있는 인쇄소로 정평이 있었다.

이렇듯 충무로는 극장의 번창과 함께 영화사가 충무로에 산재하여 자연 식당과 다방이 즐비하였으며 양품점도 길거리를 장식하였다.

1935년에 들어와서 우리 영화계를 당황케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토키영화’인 발성영화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발성이란 활동사진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영화의 왕국 헐리우드와 일본에서는 1927년부터 모든 작품을 발성영화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름현상 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당시 우리의 실정으로는 감히 발성영화를 꿈꾸어 볼 도리가 없어 그대로 무성영화로 제작된 것이 9 편이었다.

(1) 발성영화시대를 연 「춘향전」



발성 영화 「춘향전」 장면(1935년)

한국영화 사상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이다. 세계 영화계에 발성영화가 나온 지 8년만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성영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토키영화 「춘향전」을 기획한 것은 이필우다. 그는 일본인 나카가미(中川)에게 녹음기재를 1,300원에 샀는데 500원은 선불이고 잔액은 후불이

었다. 동생 이명우를 감독으로 내세워 「춘향전」을 찍기로 한 이필우는 녹음, 현상, 촬영을 맡았는데 첫 발성영화를 만든다는 기쁨으로 침식을 잊었다. 편집을 마치고 소리와 그림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영상보다 음향을 앞세우는 일을 이명우가 터득하고 익혔을 때 보조원 일동은 만세를 불렀다.

탄소(카본) 불빛을 전구 불빛 체계로 바꾸어 100kw를 사용했다. 현상 역시 새 방법인 탱크로 사용하였다.

1935년 10월 4일에 상영된 「춘향전」은 대환영을 받았다. “우리 영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이필우의 집념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1935년 10월 4일 오후 상영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단성사 앞길은 인파로 붐볐다. ‘말하는 활동사진’, 그것도 「춘향전」이 개봉되는 것이었다.

그 무렵 미국 「위너」사 제작의 디스크(disk)식 발성영화 「러브 퍼레이드」를 비롯해서 몇몇 서양 발성영화가 선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 영화라서 음향효과를 제외하고는 대사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성영화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춘향전」만은 달랐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조선말로 사랑을 나누는가 하면 방자와 향단이가 역시 조선말로 수작을 건네는 등 신통하기 짝이 없었다. 이기세가 영화대본을

쓰고, 이명우가 감독했으며 촬영기사인 이필우가 동시녹음과 촬영 현상을 도맡았다.

감독 이명우는 한국최초의 촬영기사이자 녹음기사인 이필우의 친 동생으로,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영화인 형제이기도 하다. 1923년 일본인의 손으로 처음 영화화된 지 12년만에 우리 영화인의 손에 의해 발성영화로 만들어진 이 「춘향전」에서 문예봉이 〈춘향〉으로, 한일송이 〈변사또〉로, 노재신이 〈향단〉으로, 그리고 훗날 코미디언 이종철이 〈방자〉역을 맡아 출연했으나 정작 〈이도령〉역을 누가 맡았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여하간 2,400 원을 투자해서 만든 이 호화판 「춘향전」은 입장 요금만해도 보통 영화의 갑절인 1원을 받았지만 연일 초만원에 이르렀다.

말하는 활동사진에서 한국말이 뚝뚝 나오고 대문 여는 소리, 헛기침소리, 그리고 다듬이방망이 소리가 나오자 관객들이 여간 신기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춘향전」은 「아리랑」과 함께 초기 영화사상 장기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보다 앞서 1920년대 중반에 미국영화계를 주름잡고 있던 워너사는 ‘바이타폰’이라는 디스크식 녹음장치를 개발하여 당시의 명배우 존 배리모어를 주연으로 최초의 발성영화 「돈후안」을 제작, 1926년 8월 뉴욕에서 개봉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했고, 다시 「재즈 싱거」를 제작, 사세(社勢)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되자 파라마운트·메트로·폭스사·유니버설 등이 뒤따라 발성영화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영화는 큰 발전을 보았다.

그와 거의 같은 시기인 1931년 나운규는 이필우와 함께 평안남도 남포에 내려갈 기회가 있었다. 두 사람은 맨주먹으로 발성기재 개발에 착수했다. 디스크(disk)식 발성영화란 영화진행과 같은 속도의 녹음 디스크를 돌리는 방법이다. 입놀림과 말소리가 다소 어긋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발성 영화임은 분명했다.

당대 제1의 기사인 이필우가 실무를 전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바르보 촬영기를 구입했다. 이때 이필우는 훗날 일본 전신전화회사를 세운 하고로즈 박사를 만나 TV송신의 원리를 터득하고, 오사카 〈송죽좌〉의 악사인 스치바시를 소개받았다.

스치바시아말로 뒷날 스치바시사 녹음으로 일본 발성영화의 성공작이 된 「마담과 아내」를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초기 녹음 연구가가 뜻하지 않게 서로 만난 것이다. 스치바시는 또 한 사람의 녹음 연구가 나카가와를 이필우에게 소개하여 세 사람은 공동연구

에 들어갔다. 나카가와는 디스크식보다 더 발전된 사운드 필름식을 개발하던 중 기술적 장애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상해로 건너가 서양 토키장치를 염탐했죠. 특허품이라고 안 보여주는 것을 중국인 관계자에게 십원을 주고 구워삶아 훔쳐 보았지요”

말하자면 산업스파이 행위를 통해서 개발한 기계를 개량한 일본식으로 한국 최초의 발성 영화 「춘향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발성영화 제1호인 「춘향전」에서 우리말 대사가 나오자 일본인들은 긴장하였고, 기술은 조악하였으나 관객들은 새로운 기술에 매료되어 더욱 극장을 찾았다.

발성영화의 효시 「춘향전」이 이필우·이명우 형제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대사는 얼마되지 않았다. 음악 효과로 쓰여진 것도 양악(洋樂)이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춘향역은 정말 묘한 인연을 갖다 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23년 무성 영화 「춘향전」 한 편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용(韓龍)은 더 이상 영화에 출연치 않고, 극단 단장인 문수일을 위해 극장에서 일하였다. 남편인 문수일의 극단을 따라 그녀는 지방공연을 떠나 유랑극단에 몸을 담고 있었다. 문수일의 누이 문홍지는 미모의 여배우로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 주었는데, 마침 그녀의 딸이 「춘향전」의 첫 출연과 함께 예명을 엄마 성으로 따서 문예봉으로 등장하는 행운을 차지하였다.

한국 최초의 토키영화(발성영화) 「춘향전」이 나오던 1935년 무렵, 영화인들의 생활은 언제나처럼 말이 아니었다. 우미관 옆 팔죽집에서 죽 한 사발로 아침을 때우고 나면 점심은 건너뛰는 게 보통이고, 저녁이 되면 인사동 밥집에서 이십 전짜리 밥을 먹는 수도 있지만 그나마 여의치 못할 때는 5전짜리 중국집 호떡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먹고 굶는 것을 떠나 영화에 대한 정열은 대단했다. 1년 동안에 제작되는 영화가 몇편 안되는지라 대부분 하는 일 없이 다방에 몰려앉아 어떻게 해서든 영화를 만들 궁리만 했다.

그들은 주로 탑골공원 옆 멕시코다방과 복혜숙이 경영하는 비너스바를 드나들었다. 당시의 인기여우 복혜숙은 빈털터리 영화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찬사를 받고 있다.

그 즈음 영화제작에 돈을 대주는 이들은 주로 시골부자집 자제들이었다. 돈은 있는데, 여배우와 가까이 지내고는 싶어서 그들은 영화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마구 돈을 뿌렸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 제작비를 대고는 영화가 실패할 경우 파산까지 당하는 수도 있었다. 이규환이 대구에서 문예영화 「바다여 말하라」를 제작했던 때의 일이다. 제작비는 후배인 전모(全某)가 냈다. 시골에 있는 토지를 잡혀 300원을 마련한 것이다. 이규환은 해금강에 가서 현지촬영을 하는 등 열을 올렸다. 이 영화의 절정 부분이자 마지막 순서가 되는 ‘조난’ 장면을 한강에서 야간촬영으로 끝냈다. 12월 한겨울에 폭풍우를 재현하자니 연기자들은 온통 물벼락을 맞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까지 필름을 가져가서 현상을 해보니 문제의 장면은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어 잘라버린 채 개봉하자 흥행은 참패였다.

“기가 찰 노릇이었죠. 후배를 떼거지로야 만들 수 있나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규환이 감독 수업을 했던 신흥키네마를 찾아가 5원을 주고 음향필름 토막을 석유통으로 두 통 사왔다. 그리고는 「그후의 이도령」을 경북 현풍 시골구석에서 15일 동안에 급히 촬영했다.

이 영화는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억울한 백성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노인역의 분장에 수업이 필요했다. 수업을 구할 수 없어 흰개털을 잘라 대응했다. 장롱방에서 아교를 사다 개털을 턱에 붙였는데 수업이 뺏뺏이 굳어버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았다. 촬영이 끝나 수업을 떼려했으나 떨어지지 않아 밤새 알콜로 씻어내는 등 실랑이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애쓴 보람도 없이 막상 현상을 해보니 「그후의 이도령」은 영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것은 도대체 영화도 아니고 활동사진도 아니었어요.”

대명 시사실에서 이규환은 책상을 치며 통곡했다. 「바다여 말하라」에 제작비를 대었던 전모는 혹시 돈을 얼마큼이라도 건질까하고 기대했다가 크게 낙담, 같이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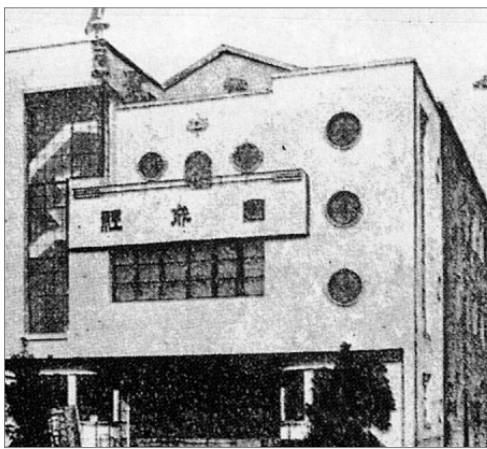
“아주 영화에서 손을 뗄 결심까지 했죠. 그러나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영화 같지도 않은 게 어떻게 된 셈인지 흥행에는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그 후의 이도령」은 대구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흥행에 크게 성공해서 「바다여 말하라」의 제작비를 건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루는 후배 전모가 「그 후의 이도령」 필름통을 들고 나를 찾아왔어요. 졸작을 만들어낸 사실에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내 눈앞에서 그 필름을 찢어버려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예술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친 사람 들처럼 문제의 필름을 받기받기 찢었다는 얘기가.

(2) 외국영화의 상영과 극장가



신축된 단성사 극장(1934년)

1920년 이후 영화극장은 연극공연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데에서 명명되었다. 그러나 영화전문관이라기에는 건축시설 자체가 연극장(演劇場)이라 불려야 옳았다. 그러던 차에 1934년 단성사가 신축된 것이다. 명실공히 ‘영화관’이 탄생되어 이때부터 영화흥행가에 새로운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곧 이어 충무로 3가에 약초극장(현 스카라)이 영화관으로 신축되고, 뒤이어 명치좌(국립극장)와 1년 후 황금관(국도극장)이 신축 개관하였다. 낭화관(명동극장)이 개축하여 영화전문 2번관으로 발족했다.

충무로를 위시한 흥행가는 일본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붙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일본영화만을 가지고 흥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측 영화관인 단성사와 조선극장 등 두 극장만이 외국영화전문관과 우미관이 2번관으로 있음으로써 일본인의 남촌인 을지로와 청계천 이북은 상호 완전 이방지대가 되어 있었다.

약초극장이 동보영화계통이고, 명치좌가 송죽영화계 황금관이 보창영화극장으로 개칭하여 일활영화계 중앙관(현 중앙극장)이 독야영화계 충무로 2가에 있는 희락관이 일활2번관, 인현동에 있었던 대정관이 송죽2번관으로 전략하였다.



단성사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 「블루 엔젤」(1936~1938년)

치열한 극장홍행 쟁탈전으로 충무로 일대는 일본인들의 홍행사와 극장배급자로 인하여 식당과 다방은 늘 사람들로 가득찼다. 단성사와 조선극장은 한국 측에 속한 극장이라지만 외화전문관으로 명실공히 서울 뿐아니라 조선 전역을 대표할 만한 비중을 차지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외화는 물밀 듯이 들어왔다. 그 후 만주사변이 터져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외화수입이 통제되어 매 프로 1/3은 일본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만 했다.

당시 상영된 영화로는 단성사가 「유령 서쪽으로 가다」, 「하얀치녀지」, 「대지의 꿈을 가다」, 「오페라 핫」, 「과학자의 길」, 「공작부인」, 「무도회의 수첩」, 「비」, 「상선테나시티」, 「남풍」, 「남성의 적」, 「어느날 밤에 생긴 일」, 「미완성 교향곡」, 「블루 엔젤」, 「잃어버린 지평선」, 「사막의 화원」이 었다.

조선극장은 「골고다의 언덕」, 「미모자관」, 「죄와 벌」, 「잔타크」, 「파리의 지붕 밑」, 「북호텔」, 「거리의 등불」, 「회회는 춤춘다」, 「망향」, 「창살없는 감옥」을 상영했다.

1940년 이후 외화는 미국작품으로 명치좌에서 「역마차」, 「시호크」, 「대평원」, 「평원아」, 「우리집의 낙원」, 「벤갈 창기병」과 중앙관이 「오케스트라의 소녀」와 황금좌가 「성산」(聖山) 등이 1941년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서울에서 개봉되었다.

(3) 한국영화의 제작과 사회상



1930년대 충무로 거리

최초의 발성영화가 제작된 1935년에는 10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규환 감독의 「바다여 말하라」를 비롯하여 윤백남 각본, 김소봉 감독의 「대도전」, 아직도 최고령 배우로 생존한 김일해의 첫 출연작 「살수차」,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음악가와 무용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무화과」,

안중화 감독의 4회작 「은하에 흐르는 정열」, 박기채 감독의 첫 작품인 「춘풍」이 있다.

특히 나운규는 전택이의 첫 출연작인 「강건너 마을」에서 윤봉춘과 현방란을 기용했는데 다시금 「그림자」에서도 출연진으로 등장시켰다. 워낙 「아리랑」의 열풍이 불어서인지 홍개봉 감독의 「아리랑고개」란 제목의 영화는 문예봉과 노재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졌다.

노비의 자식 문예봉은 양반집 규수 노재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노재신 집안에서는 반대였다. 노비의 자식은 양반들에게 모진 매를 맞고 기력을 잃는다. 양반의 하수인들은 그를 ‘아리랑고개’에 내다버린다. 양반집 규수는 어둠을 타고 죽어가는 노비의 자식을 부축하고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신분차별을 타파한 계몽적인 영화였다.

「춘향전」이 무성과 발성으로 재미를 보자 이규환 감독은 우리의 고전을 약간 풍자적으로 묘사하여 「그 후의 이도령」을 내놓았다. 포악한 변학도의 손에서 춘향을 구출하여 한양으로 올려보내고 난 이몽룡은 다시 민정을 살피려 암행을 떠난다. 산속의 외딴집에서 목계되었는데, 그 집 부부는 고개를 넘는 손님들의 물건을 약탈하여 목숨까지 빼앗는 산적들이었다. 이몽룡은 나쁜 부부를 관가에 응징시키고, 다시 암행의 길로 떠난다는 이야기로 꾸며진 내용이다.

홍개봉 감독의 「장화홍련전」은 1924년 김영환 감독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1956년 정창화 감독이 이경희와 부인인 서란희를 써서 연출했으며, 1962년 다시금 「대장화홍련전」으로 조미령과 엄앵란이 나왔다. 또한 계모의 학대로 죽은 남매가 원귀(冤鬼)가 되어 복수

한다는 괴기물로 만든 1972년편에는 이유섭 감독이 이영옥과 김지수를 공연시켰다.

「홍길동전」도 ‘후편’이란 부제를 달고, 이명우 감독이 후에 희극배우의 대부가 되었던 이종철을 출연시켰다. 1934년 김소봉 감독이 윤백남의 각본과 이필우의 촬영으로 「홍길동전」을 최초로 만들어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후 영화배우 출신인 김일해가 감독한 「인걸 홍길동」이 황해남과 최지희로 제작되었다.

이규환 감독의 「나그네」도 1937년 4월 24일 단성사에서 개봉하였다. 일본 신흥키네마사와 공동제작을 하여 일본어 발성판으로 동경 명치좌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는 1961년 이강천 감독이 다시 제작하여 명배우 김승호와 이예춘이 열연한 기념비적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현재 촬영기사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신옥현 기사의 부친인 신경균 감독의 첫작품인 「순정해협」이 우미관에서 개봉되었으며, 선원(마도로스)의 애환을 담은 안중화 감독의 「인생항로」도 발표되었다.

이 영화에는 까치 두 마리가 고목에 앉아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시장에 사람을 보내어 까치를 사다가 다음날 찍기로 했지만 까치가 죽는 바람에 안중화 감독은 초조해 있는 차에 촬영기사인 이신웅의 기발한 제안으로 무사히 찍은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며칠후 필름을 본 안감독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까치가 울지도 않으며 꼬리가 굉장히 길었다. 알아본즉 어느 서양화가가가 그린 그림을 교묘히 화면구성(몽타주)하여 촬영을 했다는 것이었다.

안석영 감독의 「심청전」도 1937년 11월 9일 단성사에서 상영하였다. 1995년 9월 3일 88세의 일기로 타계한 원로 여배우 석금성과 미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가 1998년 4월초 타계한 김신재의 첫 출연작이다. 석금성은 이 영화에서 뽕덕어멈으로 나와 명연기를 보인 후 「춘향전(55년)」에서는 ‘월매’로, 「장화홍련전(56년)」에서는 악독한 계모로 나온 개성있는 연기자였다.

「심청전」은 1925년 이경손 감독이 최초로 무성영화를 만들어 나운규를 출연시켰고, 1956년 권일청과 이경희를 출연시킨 이규환 감독의 「심청전」이 있다. 1962년 허장강이 심봉사, 도금봉이 심청이로 열연한, 이형표 감독의 「대심청전」이 충천연색으로 제작되었으며, 1972년 신상옥 감독이 윤정희를 주연으로 「효녀 청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1939년 일본 아사히 신문의 연예기자 스무라가 큐(Q)라는 첫 이름(이니셜)로 영화평을 써서 일본영화계를 주름잡던 무렵에 방한준 감독의 한국영화 「성황당」이 일본에서 개봉되었다. 「성황당」은 정비석 원작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최초의 본격적인 문예영화였다.

혹평으로 이름높은 큐(Q)기자가 어찌된 셈인지 「성황당」에 열을 올려 ‘조선에서 이같은 문예작품이 나오다니 경탄해 마지 않을 일이다. 조선반도에서 제작비의 1% 정도로 이 같은 수작(秀作)을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 일본영화계가 본받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김학성의 촬영솜씨는 놀랍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며칠 뒤 일본 최대의 영화사 <신꼬>에서 「성황당」의 합평회(合評會)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방한준 감독과 신꼬 촬영소의 한국인 기사 ‘가나이’가 동석해 있었다. 영화가 끝나자 촬영소 간부들이 방 감독을 붙들고 “김학성이가 누구냐. 한번 불러와 촬영을 맡기고 싶다”고 하자 방 감독이 실토를 하고 말았다.

“김학성은 바로 여기 있는 ‘가나이’이라고……”

이렇게 되자 큰 문제가 벌어졌다. 당시 촬영계의 규약에 따르면 정식 기사가 되기 전에는 촬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밤새 고민하다가 사표를 써가지고 다음날 소장을 찾아 갔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표라고 했더니, 누가 자네한테 사표를 내려더냐며 두툼한 봉투를 주는게 아니겠어요”

그 봉투는 소장이 그를 고무하는 특별보너스였다. 그날밤 김학성은 긴자(銀座)에 나가 크게 한 톱을 내고 상사들의 격려와 동료들의 선망을 샀다. 그 뒤 김학성은 신꼬에 입사한지 3년 만에 기록적으로 정기사가 됐다. 같은날 정기사가 된 이가 오늘날 일본영화계를 좌우하는 오카사키이다.

그러니까 「성황당」은 1938년 김학성이 기사보(技士補) 때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서울로 건너와 촬영을 끝냈던 것이다. 정비석 원작의 「성황당」이 방한준 감독에 의해 문예영화로만 들어졌다. 촬영에 김학성, 미술에 김정환, 조명에 유장산, 배우로는 최운봉, 한순영, 전택이가 출연했다.

어느 두메 산골 솟굽는 부부 현보와 순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순이는 흰고무신을 신고, 땀기메고 그네를 뛰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순이는 남편이 솟을 팔러갈 때마다 성황당에 무사하기를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산림간수(山林看守)가 나타나 그녀에게 치근거렸다. 산림간수는 전택이가 분(粉)하였다. 산림간수는 남편 현보가 김가의 소나무를 베었다는 이유로 주재소로 불들어 가고, 순이를 범하였다. 현보는 아내가 원하는 흰고무신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마침 불의의 장면을 본 현보는 산림간수를 죽이고 순사에게 잡혀간다. 흰고무신을 안고 순이는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이 영화는 1980년 동시 녹음으로 정진우 감독이 이대근, 정윤희, 최봉을 주인공으로 「빠꾸기도 밤에 우는가」라는 제목으로 재영화화하였다. 그 뒤 1941년 김학성은 정식으로 3개월간 휴가를 얻어 최인규 감독의 「집없는 천사」를 촬영, 다시 한번 성가(聲價)를 올렸다. 한성중학 때 전국학생권투 플라이급 선수권자인 김학성은 당시의 인기여우 김연실을 누나로 둔 탓으로 일찍이 나운규 등 영화인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았다.

“촬영이 끝나고 밤이 되어도 그분들은 헤어지지 않고 대포집으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솟불에 너비아니를 구워 대포를 마시고, 저는 누이 곁에서 땅콩이나 까먹곤 했죠. 춘사선생이 저한테 묻더군요.”

“너는 커서 뭐가 되겠느냐고요”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했더니 누나는 펄쩍 뛰고 춘사선생은 격려해 주더군요”

체육특기생으로 일본 전수대에 진학한 김학성은 아사히 신문의 논설위원이자 불문학교수 곤히데미의 소개로 신꼬 촬영소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노기사가 촬영을 하는데 너무 멋이 있어 중역에게 입사를 간청해 보았으나 자리가 없었으므로 서울로 돌아와 경성영화촬영소에서 정식 촬영수업을 받았다.

1936년에 신꼬에서 제작 중인 권투영화에 자문으로 거들다가 입사에 성공, 평생소원이던 촬영기사의 길을 밟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정식기사가 된 그는 최인규 감독으로부터 「집없는 천사」의 촬영을 부탁받았다. 그가 서울에 와보니 촬영기재가 형편없었다.

“그저 돌아가려했더니 최 감독이 크게 화를 내는거예요. 너는 조선사람이 아니냐고요. 깨달은 바도 있고해서 주저앉아 동시녹음장치를 조립했죠. 여기저기서 부속품을 구해다가 깎아 맞춘거죠”



춘원 이광수 원작 「무정(無情)」(1939년) 영화의 한 장면

1939년 춘원 이광수 원작인 「무정」이 박기채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한은진이 첫 출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안철영 감독의 「어화(漁火)」는 일본 쇼지구 영화사와의 합작으로 현 스카라극장의 전신인 ‘약초극장’에서 상영하였다. 가난한 어촌에 도회지 청년이 나타나서 어부의 동생을 유혹하여 마음을 들뜨게 하자

청년을 내쫓고 동생을 정착시키는 통속물(通俗物)인데 제목이 난해(難解)하여 흥행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39년은 미국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제작되어 12월 15일 애틀랜타에서 역사적으로 개봉되기도 했다. 이 당시 일본은 <전시생활 쇄신안>을 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했다.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네온사인 철폐, 학생의 장발 금지, 세모선물의 폐지와 함께 9월 1일부터는 매달 1일을 신사참배와 노동, 봉사 그리고 금주, 금연이었다.

김유영 감독의 「애련송」은 최금동이 1936년 동아일보에서 ‘시나리오 문학의 창달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내걸고, 작품 속에 ‘명승고적을 숨쉴이게 엮어 넣어라!’라는 단서가 붙은 사고(社告)를 보고 응모한 작품으로 현상모집의 제목은 「환무곡」이었다.

젊은 음악가를 주인공으로 했다던가 작품의 배경 속에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묘사한 것은 「미완성 교향곡」과 「그대 젊은 시절」을 본 영화에서 싹튼 민족의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애련송」은 일본유학생 중심의 단체였던 <극연좌(劇演座)>에서 제작했는데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이 영화대본을 각색하기도 했다. 제작자는 극작가인 서향석이며, 김신재, 이백영, 이웅, 윤방일 등 문인과 연극인들이 대거 출연하였다.

1939년 밀수단의 세계를 그린 「국경」으로 첫 등장한 최인규는 1940년에 문제작 「수업료」

를 발표,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집안이 가난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사실적이면서도 차분한 연출로 때문지 않은 동심의 세계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수업료」는 당시 광주 북정 공립소학교 4학년이던 우수영이 경일소학생 신문에 입선한 작문을 영화화한 것이다. 각색은 일본인 ‘야기’가 맡았고, 유치진이 대사를 손질했다. 복혜숙, 전택이, 김영옥, 문예봉, 김신재, 김일해가 출연했다. 최인규가 감독을 맡아 제작하던 중 병을 얻는 바람에 방한준이 1/3 정도를 감독했다.

최인규는 안일한 연출수법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로는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동심의 세계를 수놓는 「수업료」로 예술혼을 불태웠다.

……소학교 4학년 아동이 지은 작문에 묘사된 세상, 그 순진한 영혼이 천진스럽고 솔직히 서술하는 생활의 기록 앞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으리오!

영화를 알리는 계획표(프로그램)에 적혀있던 선전문안으로 「수업료」는 주인공 소년의 대사(臺詞)로 전개되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다가 먹을 것을 벌기 위해 부모는 멀리 떠나갔다.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뒤에 두고 정처없이 나간 후 소식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착한 소년은 부모를 기다리며 병석에 누운 할머니를 돌보면서 집을 지키며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밥을 동냥하며 효도하였다.

「수업료」는 1940년 8월 6일 명동의 <명치좌>에서 상영되었다. 원작자와 동갑인 정찬조가 주연을 맡았으며, 할머니역으로는 그때 나이 36세의 복혜숙이 맡았다. 아울러 어머니 역에는 최인규 감독의 부인인 김신재가 분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어려웠던 야외 동시녹음을 한 획기적인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 비록 일본어로 된 작품이지만 광범한 공감을 얻어낸 것은 사실주의의 강점 때문이었던 것 같다. 최인규와 방한준 감독은 광복한 군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실주의야말로 작가의 마지막 저항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해 김유영이 「수선화」를 남기고 32세로 요절했다. 1928년 스무살 때 「유랑」으로 등장한 그는 한동안 경향파 작품을 만들다가 전향, <구인회> 문인클럽에서 활동, 다시 영화쪽에 돌아와 「성황당」과 「수선화」를 남겨놓고 떠나갔다. 영양실조로 인한 신장염으로 숨을 거두면

서 몇 장면 남아있던 「수선화」 얘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 무렵 조선군 보도부에서 「기미또 보꾸」(너와 나)를 만들어 냈다. 일제가 이 땅에 강요한 관제(官製)영화의 표본인 것이다.

“그러니까 1940년부터 8.15까지 5년간은 한국영화의 공백기로 보는게 옳아요. 그게 어디 일본 영화지 우리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규환이 당시의 상황을 분개하고 있던 작품 제목만 보아도 공감의 갈 만하다. 「지원병」, 「대공을 우리러」, 「우리는 이제야 가리」, 「젊은모습」, 「병정님」, 「사랑과 맹세」, 「감격의 일기」, 「우리들의 전장」 등 모두 일본말로 된 작품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본의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 운동(캠페인)에 불과했다.

한편, 1942년에 윤봉춘의 「신개지」에서 한가닥 청신한 느낌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판에 영화라고 별수가 있었겠습니까만, 영화도 아닌 것이 영화 행세를 하던 것도 잠시였던 셈이죠. 징용에 끌려간지 1년 반 만에 8·15를 맞았으니 말입니다.”

누더기 차림의 영화인 이규환은 이른바 일본왕의 항복선언인 녹음방송을 들은지 닷새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태극기의 물결을 뚫고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걸어가며 헛소리처럼 뇌까렸다.

“영화를 해야지…… 다시 우리 영화를 해야지……”

그 날밤 이규환은 전창근의 집에서 안석영 등과 만나 애국가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며 실컷 울었다. 사나이들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4) 태평양전쟁과 통제시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영화 편수는 모두 25편이다. 1940년·1945년까지의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으로 한국 영화의 암흑기였다.

1940년 1월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영화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든 영화사를 폐지하고, 어용영화사인 ‘조선영화주식회사’ 하나 만을 설립한다는 취지였다. 25편 중 11편만이 ‘조선영화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 제작활동을 해 온 민간



전창근 감독의 「북지만리」 영화 장면(1941년). 이 작품을 계기로 전창근 감독은 유계선과 결혼했다.

제작사들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나머지 14 편의 영화들은 모두 전쟁수행을 위한 일제의 계몽물인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군벌의 야욕으로 다시금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 오로지 전쟁목적을 위한 계몽영화만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발성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일제는 조선영화에 더욱 신경을 곤두 세웠다. 내선일체니 국어사용이니해서 조선어문을 말살하려는 판국에 조선말을 하는 영화가 쏟아져 나오니 그럴만도 하였다.

중일전쟁이 가열되고 제1차세계대전의 전운이 차차 무르익기 시작하던 1939년, 총독부 국서과와 조선군 보도부는 ‘조선영화인협회’의 회장으로 안중화를 당선시켜 영화인들의 통합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은 1940년 1월에 공포된 <조선영화령>을 위한 정지작업이기도 했다.

영화제작이나 외화배급을 허가하고, 총독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화를 제작자에게 제작을 명령할 수 있다는 등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영화의 털미를 짝 쥐어버린 것이다.

일제는 이같은 탄압정책을 신체제(新體制)라 일컬었고, 이때부터 영화계에 신체제란 말이 돌게 되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이 강행되면서부터 한국땅의 모든 것은 <성전수행>에 총동원됐고, 영화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총독부 모과장의 아들로 영화대본을 쓰는 니시기라는 자가 활동사진 검열계에 촉탁으로 들어앉아 영화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영화인들의 동정을 염탐, 보고했다.

그러자, 영화인들 쪽에서도 자구책을 강구, <조선영화제작자협회>를 만들어 <한국영화>

〈고려영화〉 등 10개사가 뭉쳤다.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총독부는 갑자기 생필품 배급을 중단했다. 전쟁 때문에 생필품보다는 총탄을 더 생산해야겠다는 구실이었지만 생필품이 없는 영화가 영화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손을 들고 사단법인 ‘조선영화주식회사’ (약칭 朝映)로 흡수, 통합되고 마는 비운을 겪는다.

관제영화사로 통칭되던 〈조영(朝映)〉은 이 땅의 모든 영화인들을 사원 또는 촉탁으로 고용했다. 감독도 군복차림이요, 배우도 군복차림인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말없이 손을 든 것은 아니다. 제작자 최남주와 이창용은 영화를 집어치워 버렸고, 이규환, 윤봉춘, 전창근 등은 일제의 협박과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다. 이규환은 회고하기를

“하루는 이명우와 문예봉이 돈암동 셋방으로 나를 찾아왔어요 〈조영〉의 전무를 맡고 있던 나 카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나카다는 일본 감독 스즈키의 부탁으로 이규환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갖고 제후를 청한 것이다.

“나는 조선영화를 하려했던 것이지 일본활동사진을 하려한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죠. 그리고는 영화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명우와 문예봉이 형언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갑니다”

영화를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규환은 만주 장춘으로 이주하여 공사관에서 연명했다. 또한 무창군관고교 출신인 전창근은 「복지만리」를 발표한 뒤 군관학교 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한 다음 영화계에서 물러났고, 이규영도 은퇴를 하였으며 홍개명은 지방순회극단에 몸을 묻어버렸다.

윤봉춘은 「신개지」를 마지막 작품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산간벽촌에 숨어버렸다. 의정부에 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산곡리에서 그는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일반학과와 함께 조선말을 가르친 것이다. 이 학당은 1년 후 산곡학원으로 성장했고, 오늘날에는 산곡초등학교로 발전했다. 일본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그는 미군폭격기가 뿌리고 가는 전단(빠라)을 보고, 정국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은 원수의 나팔수가 되느니보다 민족의 수난과 몸을 같이했다. 비록 은막에서는 한국

영화가 자취를 감췄지만 한국영화의 정신은 오히려 강제노동장과 벽촌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1) 김유영 감독

1907년 9월 22일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으로 1928년 「유랑」으로 등장한 후 「혼가」(1929) 「화륜」(1931) 「애련송」(1939) 등 4 편을 발표한 후 1940년 「수선화」를 연출하기 위해 병든 몸을 리어카에 싣고 촬영을 지휘했으나 끝내 완성 시키지 못한 채 작고함으로써 조감독 민정식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는 임종의 병상에서 냉면이 먹고 싶다하여 시켜 온 냉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숨을 거두었다. 리어카에 이불을 깔고 ‘레디 카메라! 액션!’을 외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2) 전창근 감독

1941년 3월 22일 성보극장에서 상영한 전창근 각본·감독·주연의 「복지만리」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00 일간의 옥고를 치른 후 광복이 될 때까지 영화를 하지 못하였다. 전창근이 영화에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이경손 감독의 「개척지」로 광인역을 연기했으며, 상해로 밀항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복지만리」는 당시 4만 원의 제작비로 만주에서 현지 촬영을 하여 보통 영화제작비의 두 배가 소요되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만주로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벌목작업을 하는데 그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협동하는 마음으로 달래며 살아간다. 어느날 이 마을에 작부(酌婦)들이 들어왔다. 그 녀들도 같은 한국인이건만 벌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을 멸시하고 구박했다.

주연인 청년 전창근은 그 녀들을 설득하여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고 하면서 본보기로 어느 한 작부와 결혼을 한다. 마을에는 화평이 오고 작부들도 이민집단 속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 작부 중의 한사람이 유계선으로 이 영화가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수업료」에 이어 최인규 감독은 「집없는 천사」를 내놓았다. 고아출신의 젊은이들이 불우한



만주에서 현지촬영한 「복지만리」 영화의 한 장면

고아들을 선도하며 밝은 내일의 길로 인도한다는 계몽영화로 사실주의가 가득한 작품이다. 부인인 김신재와 문예봉, 김일해가 출연하고, 촬영에 김학성, 미술은 한형모가 담당했으며, 편집은 양주남으로 이들은 후에 한국영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보조원들이었다. 특히 일본의 동보영화사에서 인화한 21 편

을 복사하여 상영한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풍년가」는 방한준 감독이 1942년에 발표한 계몽영화였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물이었는데 가혹한 일제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개지」는 윤봉춘 감독의 작품이며, 이금룡과 문예봉, 고영란이 나온 시골영화로 강원도 두메 산골의 흙냄새가 물씬나는 작품이다.

〈 정 종 화 〉

제 4 장

광복 후의 충무로





광복 후의 충무로

1. 다시 찾은 거리, ‘충무로’

광복 전까지의 영화는 일제 식민지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압박 민족의 얼을 살려 만든 영화는 일제의 무자비한 통제와 검열에 가위질 당했으며, 이에 못이겨 만든 영화들은 일본배우가 출연하거나 그들의 관제영화, 선전 계몽물이었다.

마침내 8.15 광복은 민족의 해방이려니와 식민지 문화의 틀 속에서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세계를 이룩하게 된 예술의 해방이기도 했다.

당시 영화제작자 이재명과 김보철은 즉시 ‘조선영화주식회사’(朝映)와 의정부 촬영소를 접수하였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90만 명으로 넘쳐나고, 충무로는 일본인이 두고 간 사무실이나 영화기재를 겨우 획득하여 우리 손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일제의 관현에 쫓기는 독립투사의 최후의 사투와 사랑과 낭만이 깃든 이 영화는 36년의 압박 속에서 자유를 갈구하던 대중의 호응과 일치되어 전국적인 장기흥행을 한 우리 영화의 쾌



8.15광복을 맞아 환희에 찬 시민들

거였다.

1945년 8월 15일로부터 그 해말까지 넉 달 보름 동안의 영화계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흥분과 혼란과 불투명한 전운 속에 보냈으며, 조선영화 건설본부가 설치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미군 정청 조선관계 보도부는 조선영화 건설본부에 대하여 국내 각 도시에서 뉴스와 영화제작 촬영에 대한 특권을 허용한다는 지령서

를 교부했다.

1945년은 일본영화 말고 광복된 해에 만들어진 한국영화 한 편도 없었다. 1946년 이구영 감독과 「청춘극장」 일행을 등장시킨 최초의 우리 영화인 「안중근 의사」가 3월 25일 우미관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나라를 위해 이등박문을 하얼빈역에서 저격하고, 대련형무소 교수대에서 이슬로 살아진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이다. 이 작품은 1959년 전창근 감독이 안중근의 주역을 맡고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으로 다시 만들었으며, 1972년 김진규를 주인공으로 하여 「의사 안중근」을 주동진이 감독하였고, 2004년 유오성의 「도마 안중근」 등 4 편이 우리 영화를 장식했다.

삼다(三多)로 유명한 제주도의 풍물을 촬영한 이용민 감독의 「제주도 풍토기」가 임병호 촬영으로 1946년 4월 15일 수도극장(현 스카라)과 국도극장에서 상영되었다.

김영수 원작의 「똥똥이의 모험」은 8.15 광복 후에 제작된 극영화 제1호로 기록된다. KBS 라디오의 어린이 연속극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이 방송극의 이름을 모르는 어린이는 별로 없었다.

「똥똥이의 모험」은 이규환 감독의 작품으로, 음악 김대현, 촬영 양세웅, 조명 김성춘과 복혜숙, 한은진, 손전, 최성관이 출연한 광복 후 첫 영화에 참여한 보조원(스텝)과 출연자로 명동의 시공관(당시 국제극장)에서 개봉하였다. 이 영화는 청계천 5가에 있던 방산초등학교(당시는 방산국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영화에 출연할 2명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승낙을 받

고, 5학년 담임교사의 안내로 교실에 가서
똥똥이 역과 친구 복남이 역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 결과 뜻밖에도 반장과 부반장을 맡
은 아이들이었다.

어린이 영화인데다가 학교에서 촬영을
하니 학생 그대로가 임시 출연 배우(엑스트
라)가 되었다. 「똥똥이의 모험」의 마지막
장면은 수도청장이 똥똥이와 그의 친구 복



「똥똥이의 모험」 영화의 한 장면(1940년대)

남이를 표창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이규환 감독은 수도청장역을 배우가 할 것이 아니라 수도
청장이 직접 출연하면 어떨까 생각하여 당시 수도청장인 창랑 장택상을 찾아가 영화의 내용
을 이야기를 했더니 좋은 발상이라고 하면서 흔쾌히 승락한 일화가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였다. 그는 구 미도파백화점 앞 4층 빌딩
에 고려영화사를 창립하여 전창근 각본, 전창근이 주연한 「자유만세」 영화를 제작, 감독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자유만세」는 ‘광복영화’로 정의되는 우리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8·15광복의
민족적인 감격과 흥분의 열기 속에서 제작된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투사와 의사, 그리고 열사
들의 항일투쟁을 담은 민족영화이기도 했다. 최인규 감독은 「수업료」로 명성을 날렸지만 이
영화로 더욱 이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이 영화를 관람한 후 ‘자유만

세! 한국만세!’라는 휘호를 내렸다고 하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자유만세」 영화 장면(1946년)

「자유만세」의 줄거리는 일제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전창근이
어느날 일경에게 쫓기다가 총을 맞고 급한
나머지 아무 집이나 뛰어들어가 숨게 되었
다. 이 때 그 집의 딸 간호사인 황려희가 그
를 숨겨주어 위기에서 구출된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지만 전창근은 오직 조국 광복에만 몸을 바치기로 한 뒤 일본경찰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조국 광복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장렬하게 죽어간다는 줄거리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는 당시 국제극장에서 상영되었는데 이 극장은 일제 때에 <명치좌(明治座)>였으며, 후에 <시공관>과 <국립극장>으로 바뀐 명동의 명소이기도 하다.

제작자 최완규는 최인규 감독의 친형으로 고려영화사의 첫 작품이고, 각본에 전창근, 촬영에 한형모이며, 유계선과 전택이도 출연했다.

2. 한국영화의 새로운 출발

1947년 전창근 감독은 불멸의 스타 김승호를 등장시켜 「해방된 내 고향」을 만들었다. 강제 정용에 끌려갔던 청년이 해방이 되어 귀국하지만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걸행각을 하다가 새로운 결심으로 고향에 내려가 농촌사업에 일생을 바친다는 계몽물이었다.

신경균 감독의 「새로운 맹세」는 최은희의 첫 출연작으로 촬영을 맡았던 김학성 기사와의

사랑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대본(시나리오)은 최금동이 쓰고, 음악은 박시춘이었다. 이 영화는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끌려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세 청년의 이야기로, 이들은 고향인 어촌으로 돌아와 마을 처녀들과 힘을 합쳐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고향을 세운다는 신생 조국의 건설극 내용이다.

「폐자의 수도」는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의 기록물 영화이다. 서윤복의 감격적인 우승과 그 영광을 안은 피눈물 나는 연습의 과정을 담은 기록 영화로 많은 관객이 열광하였다.

영화인들이 정계 요로에 어떤 진정을 할 때면 으레



「새로운 맹세」 영화(1947년) 포스터

인기여우를 앞세우기 마련이다. 1948년 8월 윤봉춘, 이규환 등이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을 찾아가 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도 당대의 인기여우 복혜숙을 앞장 세웠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윤봉춘, 안종화, 전창근, 안석영, 이규환 등은 대한영화 협의회를 조직하고, 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운동을 전개했다.

“철기 장군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영화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지요. 철기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자기도 망명시절에 해외를 돌아보아서 영화를 다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힘에 있어 영화 1 편은 대웅변가 열 사람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국초라서 우선 국방에 주력하고, 차차 문화부문에도 지원할 계획이니 훗날 다시 의논하자고 합니다.”

철기 이범석 국무총리는 우선 각 도경찰에 공문을 보내 영화촬영사가 내려가거든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그 덕분에 현지 촬영갈 때마다 숙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위에게 호소함’이란 전창근의 명문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대한영화협의회는 이 호소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그 호소문이 주효했음인지 초기의 한국영화는 한동안 면세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이 때를 전후해서 한국영화계는 조국 광복의 환희를 소화하고 예술로서의 영화를 내놓기 시작했다. 우선 김소동 각본 감독의 「모란등기」가 괴기영화로 이채를 띠었다. 한림이 주연한 이 영화는 한을 남기고 죽은 처녀귀신이 성불(成佛)하기 위해 한 남자와 동침한다는 음산한 내용으로 관객을 모았다.

또한 신경균 감독이 새로운 시대의식을 배경으로 한 통속극 「새로운 맹세」를 내놓았고, 최인규가 자신의 각본 「죄없는 죄인」을 통해 일제와 맞서는 한국인 목사의 순교를 그려 갈채를 모았다. 이규환 감독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갈매기」를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다.

조미령의 첫 출연작인 「갈매기」는 대학을 나온 여교사가 어느 해변에 있는 소년원에 자원해 가서 비뚤어진 문제아들을 교화하는 내용으로 외화 「소년의 거리」에서 줄거리를 빌어왔으나 한국적인 분위기로 성공을 거뒀다. 혜성처럼 나타난 여우 조미령은 「갈매기」의 기획을 맡았던 이철혁과 뜨거운 사이로 발전, 결혼까지 해서 원앙같은 영화인 부부로 알려져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1949년은 신예감독 한형모가 조명을 받으며 등장한 해이기도 하다. 그의 첫 출연작 「성벽을 뚫고」는 여순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사상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 권영팔, 황해, 구종석과 열연한 이집길을 하루 아침에 정상급 배우로 끌어올린 성공작이다.

이 영화의 이집길은 육군 소위로 공산주의자인 매부 권영팔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는 가운데 여순반란 사건이 발발, 처남 매부가 숙명적인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었다. 이 무렵 신인으로서는 조미령 외에도 최은희, 박경주, 최지애, 주중녀, 노경희, 이향, 한림, 김웅, 민혜연, 남해연 등이 등장하여 은막을 장식하였다.

「불멸의 밀사」, 「민족의 새벽」, 「윤봉길 의사」 「3.1혁명기」 같은 광복 영화와 함께 육상경비단의 교육훈련 과정을 그린 전창근 감독의 「민족의 성벽」이 제작되었다. 광복의 해방기에 은막을 빛낸 많은 새 얼굴들로는 황해의 「성벽을 뚫고」 윤일봉의 「푸른언덕」 주선태의 「청춘행로」 황정순의 「여성일기」 조미령의 「갈매기」 주중녀의 「조국의 어머니」 이향의 「심판자」 최남현의 「돌아온 어머니」 최지애의 「국민투표」 한림의 「모란등기」 등이었다.

특히 윤봉춘 감독의 「유관순」은 16밀리 필름으로 제작하였지만 ‘유관순’ 역의 고순희가 열연하여 흥행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검사와 여선생」 역시 윤대룡 감독의 당시의 시대상을 생동감있게 파헤쳐 전국의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든 것은 변사(辯士) 신출의 해설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시도된 음악 영화인 유동일 감독의 「푸른언덕」은 가수 현인과 미남스타 윤일봉이 최초로 영화에 첫 출연하였다.

1947년 5월, 서울역 2층 그릴의 특별실에서 음악영화 「푸른언덕」의 시나리오 첫 독회(讀會)가 있었다. 음악학도인 젊은이가 학비조달을 위해 레코드사의 신인모집에 응모해서 가수로 첫 출연하여 인기를 얻는다는 즐거리이다.

처음에는 당시 무대가수로 가극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예성을 주연으로 정했다. 그러나 촬영에 들어갈 즈음 현인이란 가수가 「신라의 달밤」으로 인기가 폭발하던 때라 제작자와 감독이 흥행을 고려하여 현인으로 전격 교체하였다. 이 당시 촬영 장치를 만들지 않고 모든 장면을 실제로 집과 사무실을 빌려 촬영을 했고, 노래 심사 장면은 당시 명동에 있는 시공관 무대에서 촬영을 하였다.

하숙집 아줌마역에 황정순, 소년역에 윤일봉이 나왔으며, 수도극장(현 스카라)에서 개봉할 때 현인이 무대인사 겸 주제가를 직접 불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영화인 최인규 감독의 「죄없는 죄인」은 황재경 목사의 수기를 영화화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출연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황목사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자세를 지키지만 송목사는 일제의 어용 목사가 된다. 아울러 송목사는 황목사를 모함하여 투옥케 한다. 그러나 황목사는 끝내 일제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순교한다는 내용이다.

1949년에 29여 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왔지만 35밀리판은 불과 6편에 지나지 않았다. 최은희가 출연한 「마음의 고향」은 1949년 제 1회 ‘서울시 문화상’에서 영화부문상을 수상했다.

1949년에는 「전우», 「나라를 위하여», 「북한의 실정», 「목동과 금시계」와 한형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가 제작되었다.

일제 때부터 영화를 해오던 이재명, 윤봉춘, 이규환과 중국 상해에서 영화활동을 해오던 전창근 그리고, 국내파 김소동 등이 영화제작사를 설립, 36년간 조국을 상실하여 식민지 하에서 와신상담, 음울하던 정열을 폭발시켜 주로 광복의 감격과 민족주의의 주제를 들고 나타났다.

생각해 보면 영화자본도 영세한 당시의 상황에서 이처럼 순결한 지사적인 정열은 당시의 민족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100% 국산영화를 만들어 낸 그 집념은 영화사에 길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자유만세», 「유관순», 「독립전야», 「안중근 의사기», 「돌뜰이의 모험», 「윤봉길 의사」 등의 광복 영화 작품을 제작했다.



「독립전야」 영화 선전 신문광고(1948. 8. 4 조선일보)

당시로서는 스튜디오나 녹음, 현상소 같은 것이 미비하였고, 일제 때의 조선영화촬영소의 남은 기자재나 이용할 뿐, 영화 기제도 원시적인 것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영화회사라고는 하

지만, 지방의 상속자산을 처분하여 모은 자본이 고작이고, 지방흥행사들의 배급망도 채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다분히 감독 중심의 기획, 체제, 독립회사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의 수립으로 신생독립국가의 면모가 갖추어 지자 영화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10여 개사의 영화회사가 설립되어 전국의 공연장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보다도 영화가 대중오락으로 크게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 큰 원동력이었다고 하겠다.

당시 주목할 만한 영화회사로는 고려영화사(최완규, 최인규 형제), 이규환, 한형모, 신경균, 이철혁, 김관수, 이창근 등의 영화회사를 포함하여 방의석이 주도하는 계몽영화협회 김성민 프로, 성동호의 중앙영화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48년대만 해도 국산영화의 제작량이 적었기 때문에 영화회사는 큰소리와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거물급 감독들에 대한 신망도, 공신력 때문에 지방 흥행사들에 대한 자세는 높았다고 한다.

3. 정부수립과 충무로 영화문화

1945년 8월 15일 일본국왕이 항복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끝이 났으나 그렇게 간절하게 희망했던 해방과 자유를 얻은 기쁨은 잠깐 뿐, 당면한 현실의 상황은 참담했다. 황폐해진 땅과 전문기술의 부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인 것이 없는데다가 점점 더 침예화하는 좌우의 대립과 외부 힘의 정치적 개입으로 국내정세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배태(胚胎)하고 있었다.

당시 충무로에는 수도극장과 국도극장이 있어 자연히 영화와 연극에 굶주린 많은 관객들에게 큰 문화의 터전으로 각광을 받았다. 1946년 수도극장과 국도극장이 동시에 상영한 「제주도 풍토기」는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은 제주도의 풍물을 찍은 문화영화로 당시 말로만 듣던 제주도의 사회상을 필름으로 보는 관객은 너무나도 신기로운 뿐이었다.

국도극장에서는 1947년 「민족의 새벽」과 「그들의 행복」 1948년 「밤의 태양」 1949년 「전우」 등 방화를 상영했으며, 연극으로는 1948년 「미륵왕자」와 「사명당」, 1949년 「이차돈」과

「김삿갓」을 공연하였다.

수도극장은 1948년 「사랑의 교실」로 성공한 후 1949년 제 1회 ‘서울시 문화상’ 영화부문상을 수상한 「마음의 고향」과 우리나라 최초의 16밀리 칼라 영화인 「여성일기」와 「돌아온 어머니」를 상영하였으며, 연극으로는 1947년 「안중근 의사기」, 1948년 「은하수」, 1949년 「바보온달」을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문예물 영화의 시도는 끈기있게 시도되어 1949년 안종화 감독의 「여명」과 「수우(愁雨)」가 빛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조류는 좌우파의 살벌한 충돌로 예술계에도 이미 일부가 공산당에 속아 넘어 가버렸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우리의 갈길과 자유를 주제로 제시한 작품이 황해가 배우로 첫 출연한 한형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였던 것이다.

한형모 감독은 이 작품에서 진정한 민주적 자유에 대한 공감을 크게 샀고, 종래와 다른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어 영화다운 영화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90%의 극장은 외화를 상영하는 미국계 외화 수입회사인 ‘중앙영화배급회사’가 점유함으로써 충무로와 명동에 산재해 있던 우리 영화계는 기력을 쓰지 못하였다.

우리 연예계는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켜 국산영화 육성책과 연극 연예물의 보호책을 당국에 건의하여 외화독점의 자금을 동결시키고, 흥행상의 공연물 재정에까지 간섭한 결과 국산영화계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서울극장은 중부경찰서에서 극동빌딩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아담한 극장으로 일제 때에는 경성극장이었다.

1947년 잉그리트 버그만의 「카사블랑카」가 처음으로 상영하였으며, 시공관인 당시 국제극장은 「나의 길을 가련다」와 프랑스의 명화 「파리의 지붕밑」 그리고 수도극장은 「텍사스 걸사대」와 「방년의 봄」, 국도극장은 윌리엄 홀덴이 나오는 「아리조나」를 상영하였다.

1948년 서울극장은 케리쿠퍼의 「모로코」와 그리아 가스의 「마음의 행로」 같은 멋진 영화를 상영하는 한편 수도극장은 「젠 에어」, 국도극장은 「정열의 해협」 등 외국영화로 관객을 끌



강동원·최은희 주연 「밤의 태양」 영화 선전 신문광고 (1948. 6. 30 조선일보)



서울극장에서 상영된 「농부의 딸」 영화 선전 신문광고

어 충무로는 당시의 신탁통치 찬성과 반탁 (反託)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화는 돌아가고 있었다.

1946년 1월 공산당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충무로의 서울극장은 「반역자」를 2월에 5일간 공연하였으며, 「망향 3대」는 1948년 4월 단성사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1948년 1월 반도악극단은 중앙극장에서 「원수의 38선」을 공연하여 관중도 많았고, 신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극장 앞은 매일 시끄러웠다.

1949년 5월 국도는 「왕중왕」과 「비련」을 상영하였으며, 중앙극장은 유명한 「칼멘」, 시공관은 「백만인의 음악」, 수도는 「역마」, 중앙극장은 「새벽에 돌아온다」, 서울극장은 다그라스 헤어방스 주니어의 「콜시카의 형제」를 상영하면서 국산영화 흥행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었을 때 가수 남인수는 무리한 무대 활동으로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되어 잠시 쉬고 있었으나 조금 건강이 회복되자 그의 스승인 박시춘에게서 음반(레코드) 취입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가요계에 다시 뛰어 들었다.

1946년말 경 민족의 비극인 38선으로 찬탁과 반탁등의 여론이 분분할 때 그는 반탁을 부르짖는 우익 진영의 무대 예술원 모임에 가입하고, 옛날의 명콤비 이무풍 작사, 박시춘 작곡인 「가거라 38선」이라는 노래를 광복 후 첫 취입했다.

‘아아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중앙극장에서 상영된 「센치멘탈 찌니」 영화 선전 신문광고

아아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같은 고향땅을 가고 오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은 탄한다.'

이 영화는 충무로 입구에서 음악사를 경영하던 피아니스트 최성두가 출자한 고려레코드사의 제1호 작품이었다. 다음해 1947년 봄에는 조명암 작사 이봉룡 작곡의 「해도 하나 달도 하나」라는 조국의 분단을 거부하는 노래를 취입하였다.

남인수는 「꼬집힌 꽃사랑」으로 널리 불리기 시작하여 「애수의 소야곡」, 「감격시대」, 「울며 헤진 부산항」, 「낙하유수」, 「포구의 인사」 등 주옥같은 인기곡을 내었으며, 특히 「꼬집힌 꽃사랑」은 화류계(花柳界)의 인생을 노래한 것으로 화류계의 주제곡이 되다시피 하였다.

4. 6·25 전쟁과 한국영화와 영화인

1950년 1월 23일 신경균 감독의 「여인애사」가 중부경찰서 부근에 있었던 서울극장에서 상영되었으며, 황남과 주중녀 주연의 「흥부와 놀부」가 시공관에서 개봉되었을 뿐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국토가 전화(戰禍)로 인해 포연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인규, 이명우, 김정혁, 박기채, 최승린 등의 유능한 영화인을 비롯하여 기술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으며, 많은 영화 기재 등을 잃게 되었다.



6.25전쟁 때의 충무로 일대(1950년)

영화의 메카 충무로

한편 대부분 남쪽으로 피난간 영화인들은 진해, 부산, 대구 등에 분산되어 전시(戰時) 활동을 하였다.

❖ 진해 주둔 미 제502부대에서 리버티뉴스 제작에 참여했던 영화인은

- 촬영 : 임병호, 배성학, 임진환
- 현상 : 김봉수, 김형근, 서은석, 이태환, 이태선
- 녹음 : 이경순, 최칠복, 양후보
- 편집 : 이만홍, 김영희

❖ 국방부 정훈국에서 '국방뉴스'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은

- 촬영 : 양주남, 김창수, 김학성, 홍일명, 심재흥, 김보철, 김덕진, 이성춘, 변인집, 노희삼
- 편집 : 김희수

❖ 공군 정훈감실에서 '공군영화'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

- 촬영 : 홍성기, 신상옥
- 배우 : 전택이, 김일해, 노경희, 황 해

❖ 이외에도 이필우가 해군에 종군했고, 다음과 같은 영화인들이 활약하고 또 등장하기도 했다.

- 감독 : 손 전, 민경식, 어약선, 정창화, 이강천, 조정호
- 배우 : 이빈화, 이민, 염매리, 박 암, 최현, 송미남, 이택균, 조항, 송억, 이민자, 양일민, 이항, 허장강, 윤인자



6.25전쟁으로 폐허화한 충무로(1950년 : 구분웅 화)

1951년 카메라맨 김학성은 국방부 정훈국이 제작 중이던 6.25기록영화 「정의의 진격」을 촬영하다가 전투현장에서 중상을 입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국방부 보도요원 UPI 이전의 UP통신 한국특파원 등을 거치면서 생명을 걸고 뉴스를 사진기에 담았다.

김학성은 「새로운 맹세」로 첫 출연한 최은희와 열애 끝에 집안의 승낙을 받고 결혼행진곡을 올렸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서로가 위로를 하던 차에 6.25전쟁이 터져 누나 김연실을 잃고, 아내인 최은희와도 헤어지는 불운을 맛보게 되었다.

한편 전쟁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화인들은 다음과 같은 몇 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1) 「오랑캐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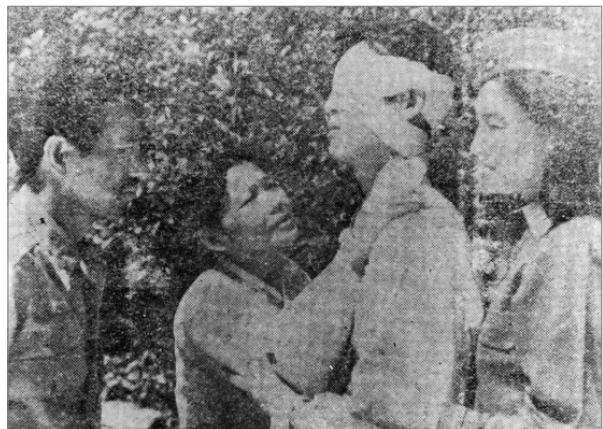
감독 윤봉춘, 촬영 이성희의 16밀리 기록영화로 육군본부가 후원을 했다. 내용은 1952년 1·4후퇴 때 서울에 침입한 중공군의 만행으로 폐허가 된 거리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1951년 7월 15일 공개했다.

(2) 「내가 넘은 38선」

감독 손전, 촬영 강영화로 1951년 8월 15일 부산 부민관에서 광복절기념으로 상영했다. 영화내용은 지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산당에게 다 빼앗기고, 38선을 넘어 월남하여 국군이 되는 것으로 6.25전쟁의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이는 드라마이다.

(3) 「3천만의 꽃다발」

부산 부민관에서 1951년 10월 15일 상영하여 큰 반응을 얻었다. 그 내용은 6.25전쟁으로 실명한 용사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눈을 다시 얻고, 애인인 간호원과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신경균 감독, 김찬수 촬영과 박시춘이 음악을 담당하고, 최현과 복혜숙, 황려희, 양일민이 출연하였다.



「삼천만의 꽃다발」 영화의 한 장면(1951년)

(4) 「육군 포병학교」

방의석이 감독한 16밀리 기록영화로 육군포병학교의 훈련교육을 극화(劇化)하였다.

(5) 「정의의 진격」

6.25전쟁 당시, 국군의 참전 실황을 필름으로 편집한 전쟁 기록영화로 김학성과 심재홍이 주축으로 촬영을 하였다.

포연이 자욱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필름을 향한 영화인의 열정은 총보다도 더 강하였다. 윤봉춘 감독이 1953년에 만든 「성불사」는 계몽물로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우수영화상을 받았다. 그 내용은 징병을 기피하는 주인공이 ‘성불사’에 숨어 있다가 이것을 안 주지가 삶과 죽음에 대한 설법을 하자 모든 것을 회개한 후, 자진 입대한다는 내용으로 윤봉춘 감독의 동생 윤상희와 육체과 배우 이빈화가 첫 출연하였다.

「성춘향」과 「빨간 마후라」의 거장 신상옥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악야」는 16밀리로 완성된 3,200피트 흑백영화이다. 그 내용은 하룻밤의 쾌락을 즐기려던 주인공이 양공주의 딱한 처지를 알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주고 밤거리를 나온다는 이야기로, 원색지대의 밑바닥을 사는 여인들의 애환을 그린 문예물이기도 하다. 황남, 이민자, 문정숙, 김웅이 출연하였는데 부산 부민관에서 상영하였다.

1952년 8월 1일에 공개된 「공포의 밤」은 각본과 감독을 손전이 맡았는데 그 줄거리는 사기 도박단의 주인공이 두목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절해고도에 유배되었다가 모범수로 특사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누명을 씻고 정처없이 떠난다는 내용이다. 손전이 주인공까지 겸하기도 했다.

전쟁 고아를 밝은 세계로 인도하는 계몽영화 「태양의 거리」는 민경식이 감독하였으며, 어약선 감독의 「베일부인」과 전창근 감독의 「낙동강」도 어수선한 전쟁의 와중 속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땀의 결실이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6.25전쟁은 끝나고 휴전이 되어 8월 15일 정부는 서울로 환도했다. 그렇지만 많은 영화인들은 부산과 대구 그리고 진해에 그대로 남아 군사관계의 영화일

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기할 것은 이만홍 감독의 「애정산맥」이었다. 이 영화는 전투경찰인 주인공은 공비(共匪)인 유춘과 같은 마을의 친구이다. 공비가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양민을 학살하고 먹을 것을 약탈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마을사람의 정보에 따라 공비 일당을 소탕한다는 반공물로, 1953년 4월 8일 부산 부민관에서 상영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1950년대의 수도극장(현 스카라극장)

이 당시 신경균 감독의 「진격만리」와 임운학 감독의 「총검은 살아 있다」 그리고 윤봉춘 감독의 「영광의 길」 등 군사 기록물이 돋보였으며, 정창화 감독의 첫 작품 「최후의 유혹」이 유현목 감독의 영화대본으로 처음 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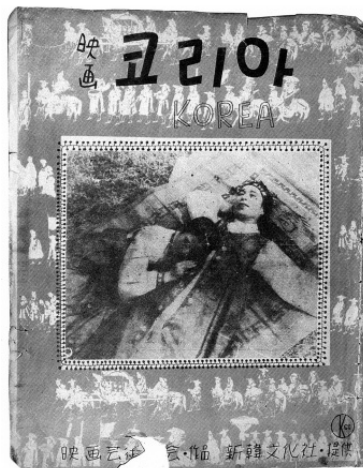
1954년 서울로 환도한 영화인들은 그동안 피난을 하면서 못다한 영화에의 열정을 가눌 길 없어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를 재건해 가는 과정을 수록한 「빛나는 건설」을 유장산이 촬영과 감독을 맡아 공보처에 납품하였다.

이어서 신상옥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 「코리아」가 서울의 시공관에서 상영되었다. 우리나라 명승지의 특수한 풍물을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고사(古事)를 극화하여 삽입한 장편 문화영화이다. 이 영화는 유두연의 영화대본을 김동원, 최은희, 윤인자, 이해랑이 출연하여 「아사달」, 「충무공」, 「춘향전」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촬영한 일종의 종합적인 형식(옵니버스 스타일)이었다. 「코리아」의 장면을 한 번 펼쳐보기로 하면,

“코리아! 그것은 아득한 옛부터 동방에 피어난 어여쁜 꽃송이다. 5천 년 긴 세월이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와 여기 산자수명(山紫水明)의 땅 ‘코리아’에는 오늘도 높고 맑은 하늘 밑 송악은 태고 같이 무궁하게 푸르다.

이 아름다운 땅 영원한 자유와 한없는 사랑이 깃들고 있는 ‘코리아’는 5천 년의 추억 속에서 그 얼마나 큰 기쁨과 그리움을, 그 얼마나 무거운 서글픔과 노여움을 회상할려느냐……?”

이 영화의 미술은 김기창이 맡았고, 음악은 김동진이 맡는 등 대사는 이진섭이 담당했다.



신상옥 감독의 「코리아」 영화 (1954년)

전쟁의 시련기가 갖다준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는 차츰 아물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화에도 차츰 통속극이 제작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국산영화의 보호 육성책의 일환으로 입장세법을 개정하여 국산영화 관람에 따르는 입장세의 전면적인 면세조치를 단행하였다.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의 맹세」를 감독한 윤백남이 1954년 9월 29일 68세의 일기로 별세하는 비보도 있었고, 반공 계몽물인 「탁류」가 이만홍 감독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고향의 등불」, 「창수만세」, 「고향의 노래」, 「혈로」, 「유혹의 거리」가 나와 전화(戰禍)에 지친 시민들을 위안해 주었다.

5. 최초의 키스 장면, 「운명의 손」

1954년 12월 14일 한형모 감독의 「운명의 손」이 수도극장(현 스카라)에서 개봉되어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키스 장면이 등장하여 많은 화제와 비상한 물의를 일으켰다. 상영시간 1시간 30분의 반공물인 「운명의 손」은 「자유만세」 「마음의 고향」의 명 촬영기사이며, 「성벽을 뚫고」의 감독과 촬영을 맡은 한형모가 제작까지 하였다.

음악은 박시춘의 작곡으로 영화음악의 신경지를 개척하였으며, 김성민의 새로운 형식의 창작 대본으로 강렬한 개성의 연기자 이향과 육체파 배우 윤인자가 기구한 운명의 남녀로 열연하고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무도회장 무희인 마가렛이 청년단원에게 끌려온 고학생 신영철을 구해 준다. 마가렛은 간첩단 두목의 정부(情婦)로 손님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두목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영철에 대한 사랑의 불길과 새로운 인생의 대한 기대로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마가

렛은 사랑의 자유를 찾을 수 없는 여성이었다. 마가렛은 자기만이 아는 ‘지령의 손’에 의하여 그에게 복종할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손’이기도 했다.

우리 영화의 역사적인 키스 장면 제1호가 되는 드라마가 여기에서 시작된다. 타고르는 정열의 불길에 마가렛은 영철을 자기 아파트로 유혹한다. 깊은 사랑의 전주곡인 키스 장면-.

마가렛은 행복했다. 영철에 대한 애욕의 만족감은 더 할 나위없는 환희였다. 다음 순간 그녀는 사랑의 독점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호기심과 의혹으로 잠들은 영철의 주머니 속의 신분증을 보고 경악한다. 그는 육군 대위의 신분이었다.

결국 마가렛과 영철은 ‘반지 낀 손’의 지령에 따라 동굴에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마지막 대결을 벌여 마가렛의 ‘운명의 손’은 ‘반지’의 사나이를 향해 총구를 겨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운명의 손」에서 이향은 ‘낭만에의 향수를 느끼는 소감’이라고 하였으며, 마가렛의 운인자는 ‘행복한 첫걸음’이된 배역이었다고 술회했다.



한형모 감독의 「운명의 손」 팸플렛 (1954년)

〈 정 종 화 〉

제 5 장

한국영화의 성장기와 충무로





한국영화의 성장기와 충무로

1. 「춘향전」과 사극영화 붐

민족의 고전 「춘향전」은 지금까지 모두 13여 차례나 영화가 만들어져 85년의 연면한 우리 영화의 파수병으로 은막을 지켜왔다. 1923년 일본인 감독 하야카와의 「춘향전」을 위시하여 1935년 최초의 발성영화인 이명우 감독의 「춘향전」, 그리고 우리 영화의 성장기를 다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과 1957년 김향 감독의 「대춘향전」, 1958년 안중화 감독의 「춘향전」, 1959년 이경춘 감독의 「탈선 춘향전」, 1961년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과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 같은 해에 제작되어 경작(競作) 시비를 낳았다.

1963년 이동훈 감독의 「한양에서 온 성춘향」, 1968년 김수용 감독의 「춘향」, 1971년 이성구 감독의 「춘향전」은 최초로 70밀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1976년 박태원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 포스터 (1955년)

감독이 장미희를 첫 출연시킨 「성춘향전」, 1987년 한상훈 감독의 「성춘향」 등 그야말로 우리 영화의 풍향계가 바로 「춘향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1999년 만화영화로 제작된 「성춘향전」과 판소리로 새롭게 은막에 옮긴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 등 한국영화와 함께 파노라마(panorama)를 이루어 냈다.

1955년 「춘향전」이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유는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가슴에 역사의 서정성과 포근한 안정을 찾으려는 영상미(映像美)로 감싸주었기 때문이다. 1954년 여름, 대구에서 촬영한 이 영화는 1955년 1월 16일 국도극장에서 상영하여 당시 서울의 인구가 150만 명일 때 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장기 상영을 하면서 가마니에 돈을 쓸어담는 대성공을 기록했다.

「춘향전」의 배역으로는 이민(이몽룡) 조미령(성춘향) 전택이(방자) 노경희(향단) 이금용(변학도) 석금성(월매)이 나왔다.

이철혁이 설립한 동명영화사는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장남 김재중이 제작비를 부담하였다. 김재중은 평손 친분이 있는 이규환 감독과 이철혁 사장이 「춘향전」의 자본주를 구한다고 하자 당시로서는 거액인 300만 원을 내 놓았다. 이규환 감독은 “각본과 감독은 물론 편집까지 1인 3역을 한 「춘향전」은 내 영혼이 깃든 작품이라고 늘 말하였다.

특히 당시 이규환 감독의 연출부로 일한 유현목 감독은 “「춘향전」을 촬영하는 동안 금주령이 내렸고, 촬영장에서는 농담을 못하게 하는 등 군대보다 엄격한 생활을 했다”고 촬영 당시를 말하고 있다.

「춘향전」은 이야기 전개에 연연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적인 정취가 풍기는 영상으로 묘사하여 관객들을 사로잡는 연출력을 보였다. 더군다나 변사또와 춘향이 바닷가에서 쫓고 쫓기며 달리는 옥중의 환상 장면은 지금도 따를 수 없는 압권(壓卷)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이 「춘향전」의 주연으로 발탁된 것은 1.4후퇴 후 대구 피난시절에 이규환 감독과의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었다. 이 감독이 어느날 다방에 들러 아픈다리를 쉬고 있을때 종업원이 시키지도 않은 커피를 한 잔 놓고 갔다. 전쟁 중에도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잘 생긴 청년인 이민이 이 감독을 알아보고 커피를 보낸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민은 일약 「춘향전」

의 이도령이 되었던 것이다.

「춘향전」은 처음부터 여주인공인 춘향역을 놓고 많은 일화를 남겨 충무로의 비화(秘話)를 장식했다. 감독에는 이미 이규환이 결정됐고, 이도령 역에는 이민이 정해졌다. 그러나 춘향역이 결정되지 않아 이 감독은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무용가 김천홍의 딸인 김삼화 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럴 즈음 셋별처럼 나타난 배우가 바로 조미령이었다. 조미령과 그 부군인 이철혁은 8년 전 「갈매기」를 같이 만든 것을 계기로 결혼까지 한 사이로 조미령은 그의 애칭을 ‘아버지’라고 지어 부르기까지 했다.

이 감독은 「춘향전」의 여주인공으로 조미령과 김삼화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묘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의 선정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마침내 화면 시험으로 판가름하는 한판 승부로 귀착되었다.

조미령의 언니로부터 선물도 받았고, 대포도 얻어마신 임진환(유장산 촬영조수)과 조명의 고해진 그리고 이규환 감독의 조감독인 최훈 등은 김삼화에게 조명을 정면으로 비추어 얼굴을 개성없이 보이게 한 반면에 조미령에게는 촬영은 물론 조명을 기술적으로 배합하여 천하일색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조미령이 ‘춘향’으로 결정될 것은 기정 사실이나 다름없었다.

춘향에서 고배를 마신 김삼화는 그후 김기영 감독에게 발탁되어 「양산도」와 윤봉춘 감독의 「논개」로 「춘향전」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심기일전하였으나 조미령의 인기에 주눅이 들어 빛을 잃고 말았다.

김삼화는 사극에서 방향을 돌려 현대물인 「첫사랑」, 「영원한 내사랑」, 「비련의 섬」에 주연으로 출연하였으나 흥행저조와 함께 영화계를 일찍 떠나는 불운의 그림자를 남겼다.

이리하여 「춘향전」은 춘향 조미령, 이도령 이민, 방자 전택이, 향단 노경희, 월매 석금성으로 결정하여 이철혁을 기획자로 영입한 뒤 대구 달성공원을 촬영장소로 하고 대장정에 나섰다.

석금성, 노경희, 조미령, 전택이, 이민, 최훈이 한방을 쓰게 되었고, 유장산, 고해진, 임진환이 함께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이철혁과 이규환 감독이 거쳐하여 경리와 진행을 겸하고 있었다. 특히 이규환 감독의 조수로는 유현목을 비롯해 하한수, 정일택, 최훈 등 훗날 한국영화를 빛낸 명장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구원의 애정」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윤일봉은 「춘향전」에서 급창(큰소리로 전달하는 사내

중)으로 분하고 있었고, 이금룡은 변학도로 위세등등하게 연기했다. 이몽룡의 부친으로 변기종과 선옥에는 최훈 감독의 부인이 된 민혜련, 농부로 양일민, 순창부사로 추석양이 나오고, 호방에 이택균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춘향전」의 단역으로 출연하여 「춘향전」을 영원히 잊지 못할 영화로 장식했다. 또 촬영보 홍동혁, 조명보 이한찬, 음악의 성경린 같은 중견 보조원들이 참여하여 「춘향전」을 명작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야간촬영을 끝내고 전택이와 노경희가 각 방을 쓰기 시작한 데에서 문제가 발단되었다. 자기 방을 빼앗긴 조미령은 이민과 최훈이 있는 방에서 담요를 깔고 자고 말았다.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네들의 입에서 이도령의 방에서 춘향이 자고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부군인 이철혁의 귀에 들어갔다.

더구나 깊은 산속으로 촬영기사와 함께 목욕까지 갔다는 조미령의 행동에 분개한 이철혁은 이혼합의서를 써가지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즈음 용돈이 떨어진 조미령이 부군에게 “여보, 나 출연료에서 가불 좀 해줘요, 스태프들에게 한턱 내야겠어요” 라고 말하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미령의 얼굴에 목침을 내던졌다. 뜻밖에 조미령의 얼굴 상처 때문에 10여일이나 촬영이 지연되는 동안 전택이 부부의 설득과 화해공작으로 두 부부는 파경을 모면하였고, 결국 현지 촬영을 무사히 끝내고 「춘향전」은 대흥행의 개가를 올렸다.

이철혁은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아리랑」을 제작하였고,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최초로 프랑스의 파리로 현지 촬영 예정이었던 춘원 이광수의 「유정」을 제작, 준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불운을 맞았다.

1958년 3월 20일, 신당동의 유락교회에는 수많은 영화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초의 ‘영화인 동지장’ 이어서 평론가인 이청기 사회로 영화감독이며 시인인 이봉래의 약력보고에 이어 안중화 위원장의 영결식사와 헌화가 있었다.

헌화는 제작자협회 대표로 전옥, 기술자협회에는 엄앵란, 평론가협회에 문정숙, 영화인 단체협회에는 고선애, 감독협회는 김윤희양 등의 인기배우들이 대표하여 헌화를 올리자 부인 조미령은 오열(嗚咽)을 금치 못하였다.

“춘향의 정절은 우리 부녀도의 정신이며,
이도령의 어사출도는 젊은이들의 이상이요,
영원한 포부다. 그리고 그릇된 권세를 오리
변학도로 하여금 증오한다.”

이 것은 「춘향전」 선전문안의 주요 내용이다. 불멸의 영화 「춘향전」을 기획한 이철혁을 위해 이봉래의 ‘3월의 신(神)’이라는 조시(弔詩)를 김동원이 읽고, 황정순 여사가 분향을 올렸다.

“하늘이 파아랗게 가슴을 해쳤다.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4월의 푸른하늘 아래
사라진 불행한 신-,
지구의 그림자 속에 소리없이 떨어지는
한 잎 낙엽처럼
사라진 불행한 신……”

‘3월의 신’ 조시에 이어 윤봉춘, 오영진, 박암, 복혜숙 등의 옛 기억을 더듬는 애절한 조사가 있었고, 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협회 이사장이었던 장기영(한국일보 사장)의 “오호! 인생은 초로던가”는 더욱 영결식장을 숙연케 했다.

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철혁을 동경해서인지 많은 영화제작자들은 조미령을 여러 영화에 출연시켰지만 「춘향전」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지는 못하였다. 결국 조미령은 무역업을 하는 최동원과 1962년 재혼한 후 196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춘향전」의 대성공으로 우리 영화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 하였다. 김기영 감독의 「양산도」를 위시하여 김성민 감독의 「막난이 비사」, 신상옥 감독의 「무영탑」, 이만홍 감독의 「구원의 정화」, 전창근 감독의 「단종애사」, 윤봉춘 감독의 「처녀별」, 안중화 감독의 「천추의 한」, 권영순 감독의 「옥단춘」, 신현호 감독의 「숙영낭자전」, 조공하 감독의 「황진이」,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 정창화 감독의 「풍운의 궁전」 등이 중요 작품들이다.

사극영화는 옛날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영화의 오락산업으로서 위치가 굳어짐에 따라 제



이명일 감독 「시집가는 날」 영화의 한 장면(1956년)

작비를 많이 투입한 중요 오락영화로 붐(boom)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극영화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널리 알려진 왕실애화나 야사 속에 사랑같은 것이 갖는 이야기의 재미와 함께 의상과 무대장치의 호화로움으로 관객들에게 푸짐한 오락 요소를 제공하였다.

2. 「열애」의 실존인물과 홍성기 감독

1955년 8월 13일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었던 「열애」는 홍성기 감독의 동창이 모델(model)이 된 실화를 드라마로 만든 것이다. <억울하고도 참혹한 하늘의 죄수들의 순애보!>라는 선전문안은 당시 6.25전쟁을 거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의 인간군상을 밝혀준 등불이 되었다.

홍 감독은 두 명의 나환자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보리피리」의 시인 한하운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열애」의 모델이 된 박혁이다.

한하운은 시인 김상훈(金尙勳)의 소개로 광복 후에 알게 되었고, 박혁은 중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오래 전의 친구였다.

박혁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미술학교에 갔었고, 홍 감독은 만주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가 우연히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으로부터 박군이 나병으로 소록도 갱생원에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도 총명하고 예기가 섬광처럼 번쩍이었던 친구 박군



홍성기 감독의 「열애」 포스터 (1955년)

이 문둥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홍 감독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록도로 향하였다. 서울을 출발한 2 일 후 해가 서산에 질 무렵 소록도에 닿아 면회를 신청하니, 안내인이 환자지대와 비환자지대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면회실로 인도해 주었다.

5 분간 기다리고 있으니 철조망 저쪽에서 감시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박군이 면회를 거절한다고 하며 소독냄새가 코를 찌르는 종이 조각을 내어 주었다. 「반갑네만 만날 수 없네. 동정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잊어주게. 나는 나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혁」

쪽지를 읽고 홍감독은 두 말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를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 선량하고 친절하 나의 친구였던 성기에게”라는 편지를 받은 3 개월 후 홍감독은 소록도 갯생원에서 온 소포를 받았다. 그는 마침내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 소포 속에 있는 고인의 필적을 보고 끝없이 오염한 홍 감독은 지금도 이 내용을 잊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이란 씨도 없이 놓쳐 버리고 나서 나는 비로소 용기를 얻었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출발한다. 나는 얼마 밖에 남지 않은 나머지 몇시간의 생명을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 빛을 발견하려고 한다. 나는 생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을 신뢰하고 불행 속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애쓰는 진실로 불행한 운명의 아들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야만 할텐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원히 더럽혀져 있었어. 그러나 이 불행속에서도 빛은 있다.

이 불행속에서도 진실은 있다.

이 불행속에서도 나는 살아야 한다.

서기 1947년 8월 9일. 내가 눈 먼날, 내가 장님이 된 날」

그 후 홍 감독은 하늘 밖 외로운 섬에서 흠이 된 고인을 길이 추억하기 위하여 박군이 보내준 여러 가지 초고(草稿)를 엮어 「열애」를 기획하여 감독하게 된 것이다. 「열애」에서 우리는 한국영화계에 찬란한 빛을 내뿜은 두 명의 배우를 만나게 된다.

— 그 이름은 이금룡과 이집길,

기구한 「열애」의 박 목사와 박혁이 극 내용보다 더 사실적인 운명의 미묘한 죽음으로 1955년을 마감하였기 때문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5년 4월 「열애」의 출연 중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금룡과 1922년 군산에서 출생하여 1955년 11월 11일 대학병원 병실에서 고혼이 된 이집길의 죽음은 6.25전쟁 후 우리 영화계가 새로운 소생을 할 무렵에 너무나도 아깝게 잃어버린 배우였다.

“영화인장 영결식장”으로 거행된 이금룡의 장례식은 한국영화계에서 최초로 마련된 영화인장이었다. 또한 그를 영원히 추모하기 위해 1955년 12월 28일 <금룡상>이 제정되어 1956년 제1회를 시상한 후 1957년 1월 24일 제2회를 준비하였으나 해당자가 없어 불행히도 그를 기념하는 상은 단 1회로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금룡—

동대문교회의 독실한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뒤 현철 경영의 조선배우학교를 수업하고 나운규 프로덕션에 들어갔다. 「아리랑」에 단역으로 첫 출연한 후 「풍운아」, 「들쥐」, 「사랑을 찾아서」 등에 출연하였다.

그는 「들쥐」에서 젊은이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는 인자한 노인역을 맡았다. 그는 전력을 투구하여 흰 수염을 정성껏 분장하는 등 비상한 분장으로 노인역을 거뜬히 해내어 배우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처음 출연한 「아리랑」에서는 시골길 언덕에서 남녀학생이 즐겁게 노래하면서 학교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죽기 전에 저 애들의 결혼식이나 볼까?” 하면서 동리노인과 대화하는 것이 그의 첫 연기였다. 「금붕어」, 「옥녀」, 「잘 있거라」, 「사나이」에 이어 「사랑을 찾아서」에서는 그 유명한 나팔수로 등장하였다. 이 영화에서 그는 젊어서 병정으로 다닐 때 나팔만 부는 나팔수였다. 고향에서 살수가 없어 집안 물건을 다 팔고 늙은 마누라와 함께 북간도로 가다가 바람부는 능선에서 부인의 시체를 장사지내고, 이사꾼들과 함께 북간도에 가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노련한 연기는 진짜 늙은이를 뺨칠 정도의 완벽한 연기로 평가되었다.

이금룡은 1930년에는 「박문수전」에서 감독과 주연을 하였고, 촬영기사 이진권의 처제와 사랑의 열기도 집안의 반대로 과정을 맞기도 했다. 그후 「역습」으로 심기일전하여 그의 연기는 새로운 경지를 이루었고, 「홍길동 후편」, 「미몽」, 「아리랑 후편」에서 더욱 진가를 떨치었다.

「회심곡」과 「도생록」에 출연한 그의 노인역은 천하일품이었다고 한다. 부자집 심부름꾼으로 딸하나 양육치 못하여 유곽(遊廓)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고민하는 밑바닥 인생의 적나라

한 모습은 가히 그가 아니면 열연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고 한다. 「바다의 빛」, 「영광」과 「한강」을 거쳐 광복 후에는 「수우」, 「여명」, 「성불사」, 「고향의 노래」가 있다. 1955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에서 그는 변학도 역을 해내어 섬광처럼 빛나는 불멸의 역을 해내었다.



최초의 영화인협회장 이금룡 장례식

그는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여도 동요됨이 없이 꾸준히 예술인의 길을 걸어온 고독한 사나이였다. 눈을 감을 때까지 고결하게 살아 온 그는 어려울 때나 갑갑할 때에 가끔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은 어렸을 적 부모에게서 배운 성가(聖歌)의 잔영이 남았기 때문이다. 30여년간의 연기자 생활을 통하여 금욕을 지키면서 고독하게 살아온 그는 오로지 술로서만 대화하는 애주가였다.

이집길 —

“말하자면 그의 죽음은 낙엽과도 같다.”라고 시인 이봉래씨가 고인의 영결식에서 읊은 추도사의 첫 구절이었다. 마치 가을의 슬픈 조락(凋落)처럼 세상을 떠나간 그의 생애가 사실 낙엽과도 같이 허무하고 속절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1922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 이만홍 감독에게 발탁되어 16밀리 무성영화 「끊어진 항로」가 첫 출연한 영화였다. 흥행적으로나 작품적으로 수준 이하로 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단지 제작되었다는 그 자체만의 의미가 있었을 뿐이다. 첫 작품에 대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그는 가족을 군산에 남겨두고 단신 서울에 와서 영화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강인한 성격을 지닌 그는 한형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를 계기로 연기자로서의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주연이 되었다. 워낙 「성벽을 뚫고」에서 확고한 연기를 보여준 그였기에 6.25전쟁의 피난지에서도 「애정산맥」, 「청춘」, 「타류」에 나오는 행운의 연기자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피난지 대구에서 출연한 홍성기 감독의 「출격명령」에서 연기의 진면목을

보인 놀라운 재능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크나큰 기원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출격명령」에서 이집길의 역량을 발견한 홍성기 감독은 다음 작품 「열애」에서 그의 성실한 동지로서 그의 연기력 완성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 두 사람의 결합과 정신적인 호흡을 「열애」에서 마음껏 내뿜기도 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천재는 항상 어두운 운명의 회전목마를 타며 삶을 부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열애」의 주인공 박혁의 생애와 같은 그런 그림자를 따랐는지도 모른다.

「열애」의 주인공 박혁이란 인간 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동화시켰으며, 박혁의 어두운 운명을 몸소 지고 간 수난의 인간이었다.

그는 호주가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술을 마신 그는 어떤 누구와도 만나면 인정을 베푸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배우가 될 수 있었던 여건의 하나였을 것이다.

간장염에 걸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시골에 있던 부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상경하여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링거주사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홍성기 감독과 다음 작품 「애인」에 출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생의 애착을 가졌지만 병석에 누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발렌티노」라고 불리운 이집길은 6.25전쟁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55년 가을에 홀연히 낙엽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배우로서 항상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하는 여배우에게 늘 열등감이 있어 촬영이 끝나면 술로써 연기의 외적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주위사람의 동정론도 있다.

인간 누구나가 맞이하여야 할 숙명이기는 하겠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빨리 찾아온 사신(死神)의 시간이기도 했다. 33세의 일기로 낙엽처럼 떨어져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영화보다 더한 삶의 주옥같은 서사시였다고 하겠다.

「열애」가 홍성기 감독의 작가적 열망에서 영화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하운 시인과 박혁과의 우정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 홍감독의 뜨거운 우정의 소산이었다.

특히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박목사의 이금룡과 박혁의 이집길은 수기에서 취재한 시나리오를 읽고 그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인간적인 몸부림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혼신의 열연을 하였지만, 이금룡은 촬영 도중 사망하였고, 이집길은 과로와 간장염이 겹쳐 이 영

화의 상영과 함께 병상에 있다가 숨지는 기구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소록도 갯생원에는 그의 미완성작품 「영원한 애인」이 남아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불타다 남은 정열의 한 조각이 버림받은 고도에 외롭게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의 불후(不朽)의 애인인 한 여인이 이 땅 어느 구석에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열애」에서 성취된(?) 그의 비원(悲願)을 살아 있으면 기뻐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열애」가 그리고 있는 박혁의 기막힌 생애가 그의 가슴 속에서 연소하고 있는 숭고한 영혼의 빛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영화사의 찬연한 은막으로 확인된 이금룡과 이집길의 기구한 죽음도 어찌면 박혁 주인공과의 일맥상통한 인간사가 아니었는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며, 육체는 무엇이며, 인간은 육체만으로서 능히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오랫동안의 고뇌에 대해서 홍성기 감독이 제시한 고귀한 영화에의 통신은 어떤 유형의 해답을 주고 있는지 이 영화를 통해 엄숙하게 해답을 던져 주었다고 평가된다.

3. 명동파 문인들의 낭만과 영화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귤전에 철령거리는데

가을 바람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우는데…

1956년 봄, 31 세로 타계한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의 시 구절이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였던 명동은 문인들의 돌체다방을 위시해 모나리자 다방, 휘가로 다방, 장만영 시인이 경영 하던 하루뽕 다방에서 소위 실존적 향수에 젖은 방랑인들이었다. 명동은 본래 ‘라 뿌름’ 다방이 광복 후 전봉래 시인의 거점이었고, 이진섭과 김병우가 단골손님이었다.

‘명동백작’으로 유명한 이봉구는 명동거리에 젊음을 묻은 명동나그네라고 하겠다. 당시 문



9. 28 서울 수복후 명동 동방살롱 주변

인들은 제각기 일을 끝내면 삼삼오오 명동으로 들어선다.

‘모나리자’나 ‘돌체’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술집으로 가서 김광주, 이진섭, 김수영, 박인환, 이봉구, 이봉래 등이 명동장이나 무궁원에서 낭만을 불태웠다.

‘동방살롱’을 비롯해 ‘갈채’와 ‘마돈나’에는 김규동, 김정

린, 송지영, 전봉건, 조병화와 당시 한국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두연, 황영빈, 유한철, 이청기 등이 영화작품을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유현목 감독의 첫 작품인 「교차로」도 제작자인 김인걸과 대본을 쓴 이청기는 명동에서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1955년 「춘향전」과 1956년 「왕자호동과 낙랑공주」의 기획자인 이철혁도 사무실을 명동에 두어 영화인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명동은 이때부터 서울에서 가장 유행과 낭만의 장소로 인기를 떨치면서 한국영화에서 단연 가장 많은 제목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명동에 밤이 오면」을 비롯하여 「명동 아줌마», 「명동 왈가닥», 「명동 44번지», 「명동3층사», 「명동나그네», 「명동 부르스», 「명동 노신사», 「명동 사나이와 남포동 사나이», 「명동출신», 「명동의 왕과 박», 「명동 가시내», 「명동에 흐른 세월», 「명동 사나이 따로 있더냐», 「명동을 떠나면서», 「명동백작», 「명동에서 첫사랑을», 「명동3국지», 「명동졸업생», 「명동의 열두 사나이», 「명동잔혹사», 「비내리는 명동거리」 등 22편이나 된다.

지금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가슴에 있네...

1956년 이른 봄, 시인 박인환은 명동의 술 집에서 시 한편을 즉석에서 낭송했다. 그 시는 곧 동석했던 극작가 이진섭에 의해 상송풍의 노래로 만들어 졌고, 역시 함께 술잔을 주고 받던 테너가수 임만섭의 목소리를 통해 불려졌다.

시인 박인환이 남긴 그 시의 이름은 ‘세월이 가면’이었고, 그 시인은 그로부터 며칠후인 1956년 3월 20일 술이 잔뜩 취한채 집으로 돌아와 아까운 나이에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1950년대 예술과 낭만의 거리였던 서울 명동의 거리는 화사한 숙녀들의 웃음을 터트리는 명동으로 변하여 낮이 지나면 호사스러운 불빛들이 명동거리를 흥분시키고 있을 뿐이다.

4. 「피아골」의 검열 수난

1955년 가을, 지리산 공비 토벌이 거의 끝날 무렵 빨치산의 내부세계를 그린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이 발표되어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김진규와 노경희를 주연으로 한 「피아골」은 빨치산들 사이에서 빛어지는 사상과 인간성의 대립을 추구, 그들의 자멸 과정을 잡아보려 한 작품이었다.

이강천은 1954년 봄, 전주에서 당시 전라북도경찰국 공부주임이던 김종환을 만났다. “기막힌 소재가 있으니 「빨치산 영화」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듯 하므로 공비토벌에서 계획한 문건(文件)들을 참고로 「빨치산」이란 영화대본을 작성했다. 이어서 제작자를 물색하던 중 외국영화 수입자 김병기가 제작비를 대겠다고 나섰다.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 영화의 한 장면(1956년) 김진규·노경희 주연

“그 분 얘기가 지리산에 ‘피아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무수히 죽었고, 여순반란 사건 때도 양민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조의(弔意)도 표할 겸 제명을 ‘피아골’로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강천)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빨치산」은 「피아골」로 바뀌어 한층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주연 배우를 검토하면서 김진규가 영화를 해보겠다고 자원하더군요” 당시 ‘무궁화악극단’을 이끌고 있던 김진규는 무대배우로서는 인정받았지만 영화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한 데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듯 하다. 이미 영화쪽에서 자리를 굳힌 부인 이민자와의 사이가 소원해져 가고 있던 때라 자신도 영화배우로 크게 펼쳐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 했던 모양이다.

“김진규씨와 이민자씨를 주연시킴으로써 두 사람을 다시 뭉쳐줄 생각을 했었지요” (이강천)

그러나 이민자가 출연료에 대한 이견을 구실로 출연을 피하는 바람에 노경희가 ‘애란’역을 맡게 되었다. ‘아가리’ 대장역의 이예춘, 허장강, 윤왕국 등 배역이 정해지자, 지리산쪽으로 현지 촬영을 떠났다.

연기자들이 걸친 빨치산 복장은 모두 전주시장에서 500 원에 사들인 헌 군복들로 따꿍총, 따발총까지 둘러메고 보니 갈 데 없는 빨치산이었다. 아직 공비들이 남아있던 때라 피아골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례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를 오르내리면서 촬영했다.

“하루는 진짜 빨치산들이 습격을 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진땀을 뻘 일도 있어요”

부랴부랴 소도구로 메고 있던 따꿍총이나 따발총을 손질하여 실탄을 나눠갖고 매복, 대기 했으나 결국 헛소문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작자가 제작비를 제때에 보내오지 않아 몇차례 위기를 넘기기도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고비는 촬영이 끝날 무렵의 필름 부족이었다.

“필름이 오기로 약속한 날이 이틀이나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 아니겠어요”

이강천은 날씨 핑계를 대며 연기자를 속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김진규와 노경희는 굶주림에 지친 얼굴을 더욱 실감나게 하려고 사흘씩이나 단식을 해오던 터였다. “하는 수 있나요. 촬영기사를 은밀히 불러 조각 필름의 타임(time)을 재어 보라고 지시했죠” 조각 필름들

의 시간에 맞는 장면만 골라 촬영을 해 나가면서 하루를 넘겨보자는 계산에서였다. 2 분짜리가 있는가 하면 30 초 짜리가 있고, 필름을 갈아 끼울 때마다 장소가 달라지는 바람에 산을 오르 내려야만 했다.

눈치 빠른 노경희는 필름이 떨어져 그 같은 ‘이상 촬영’이 진행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동료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짐짓 모르는 체 했다.

그러나 동굴 안에서의 김진규 장면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필름의 길이는 52초 짜리인데 김진규의 연기 시간은 54초였다. 되풀이 시험을 했지만, 더 이상 단축되지는 않았다. “필름 때문에 완벽한 연기를 희생시킬 수 없어서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지”(이강천)

보조원, 연기자가 비통의 눈물을 뿌리며 촬영을 중단하고, 구례읍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필름을 보급받아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영화를 완성한 후 먼저 수도극장에서 상영하려고 간판을 올렸으나 영화가 빨치산과 공산당을 미화(美化)시켰다고 하여 검열에 걸려 수도극장은 예정된 날짜에 상영할 수가 없어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노경희가 섬진강 백사장에서 김진규의 죽음에 회의를 느끼며 걸어오는 장면에 자유대한의 품으로 안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태극기를 휘날리는 ‘더블 입 포즈’로 처리하여 무사히 검열에 통과되어 국도극장에서 상영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5. 「자유부인」과 여성 통속극

1950년대 중반의 통속극은 사극영화와 함께 흥행적인 경기를 양분했는데, 통속극은 전후 사회의 새로운 풍조사회상의 갈등을 보였고, 연애와 결혼, 사회적 좌절과 성공 그리고 세대간의 대립을 취급했다.

통속극은 최초로 흥행에 성공한 것은 사회 풍조를 다룬 정비석 원작의 「자유부인」이었다.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자유부인」은 1954년 당시 춤바람을 끄집는 세태소설이었다. 지금까지 네 번이나 영화화되었던 이 작품은 1956년 김정림의 「자유부인」, 1969년 김지미의 「자유

부인», 1981년 윤정희의 「자유부인», 1990년 고두심의 「자유부인」으로 이어져 왔다. 「자유부인」은 1956년 6월 9일 충무로의 수도극장(현 스카라)에서 개봉되어 45일간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공작이었다.

여주인공 김정림은 속편 격인 김화랑 감독의 「속 자유부인」에 출연했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영화계를 떠나고 만 불운의 여배우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감독 박남옥은 「미망인」을 1955년 4월 2일 중앙극장에서 상영하였다. 이민자와 이택균과 나애심이 출연한 전쟁 미망인의 고독과 끈질긴 삶의 의욕을 묘사했다.

「피아골」로 문제과 감독으로 떠오른 이강천은 전쟁고아로 성장하여 자유분방한 전후와 여성으로 살아가는 젊은 풍속도를 다룬 「아름다운 악녀」를 내놓았다. 이 영화는 최지희란 대 배



「자유부인」의 김동원과 김정림

우를 발견한 개가를 올렸고, 대본은 후에 감독으로 변신한 박종호의 사실주의 접근방식의 남여평등 영화의 시초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시 1950년대 통속극의 대표적인 인기 감독은 적수(敵手)라고 할 홍성기와 신상옥이었다. 두 감독은 부인을 여배우로 두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홍성기는 동양 제일의 미인 배우라고 불리어졌던 김지미의 남편이기도 했다. 그는 김지미를 여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화려하고 세련된 애정물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을 주었다. 「별아 내 가슴에」(1958년), 「산넘어 바다



「자유부인」의 영화포스터

건너」(1958년), 「자나깨나」(1959년), 「청춘극장」(1959년), 「별은 창녀어로」(1959년), 「비극은 없다」(1959년), 「길은 멀어도」(1959년) 등은 모두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가 합작한 전성시대의 기라성과 같은 성공작이다.

신상옥 감독도 우아한 전통적인 고전미를 간직한 최은희의 남편이다. 그 역시 최은희를 여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처음에는 「코리아」(1954년), 「꿈」(1955년), 「젊은 그들」(1955년), 「무영탑」(1957년), 「지옥화」(1958년)로 흥행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어느 여대생의 고백」(1959년), 「춘희」(1959년), 「동심초」(1959년), 「로맨스 빠빠」(1960년) 등 불멸의 통속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숙명의 적수(敵手) 관계는 1961년 「춘향전」의 경쟁 제작으로 불꽃튀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다가 서로가 명암이 엇갈리는 인생유전(人生流轉)을 맞이하게 된다.

1961년 1월 18일 홍성기 감독은 국제극장에서 「춘향전」이 먼저 상영되고, 열흘 후인 1월 28일 신상옥 감독이 명보극장에서 「성춘향」을 개봉하게 된다.

하지만 홍감독의 「춘향전」은 김수용 감독의 「부부독본」에 밀려 1월 26일 간판을 내리는 참패였다. 그러나 신감독의 「성춘향」은 4월 27일 「번지없는 주막」이 상영될 때 까지 36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어 ‘신필름 왕국’의 신화를 낳는 교두보(橋頭堡)가 되었다.

「자유부인」의 흥행적인 성공으로 원작물이 많이 영화화되었는데, 김래성 원작의 「애인」과



홍성기 감독 「별아 내 가슴에」 영화 포스터



「청실홍실」 영화 포스터



「산넘어 바다건너」 영화 포스터 (1958년)

「마인», 「산유화», 「찔레꽃», 「황혼열차», 「순애보», 「생명», 「유혹의 강», 「동심초», 「육체의 길」 등이 제작되었다.

더구나 반공영화로 지칭을 받은 전쟁영화도 6.25전쟁의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통속극의 범주에서 많이 제작되었다. 허장강이 첫 출연한 이강천 감독의 「아리랑」과 빨치산의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하여 용공시비(容共是非)로 물의를 일으킨 「피아골」같은 수작(秀作)도 만들어 졌다.

홍성기 감독의 공군영화 「출격명령», 김홍 감독의 「자유전선», 김묵 감독의 「나는 고발한다», 홍성기 감독의 「비극은 없다», 최훈

감독의 「장마루촌의 이발사」 등이 6.25전쟁의 비극을 증언하였다.

6. 1959년도 서울의 극장 분포

NO	극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좌 석 수
1	시공관	중구 명동 1가	양부근	1,082
2	수도극장(스카라)	중구 초동41	홍 찬	1,172
3	국도극장	중구 을지로 4가	백순성	1,322
4	단성사	종로구 묘동	김인득	1,210
5	중앙극장	중구 저동1가	윤보박	1,170
6	명보극장	중구 인현동 1가	지덕영	1,498
7	국제극장	종로구 세종로	김부전	1,613

NO	극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좌 석 수
9	아카데미극장	중구 태평로 1가	방일영	962
10	을지극장	중구 을지로 2가	김동준	850
11	평화극장	종로구 인의동	임화수	550
12	성남극장	용산구 남영동	안수명	738
13	계림극장	중구 을지로 6가	독고희선	800
14	씨네마코리아	중구 태평로1가	방일영	1.002
15	명동극장	중구 명동1가	이준구	498
16	경남극장	중구 소공동	민환식	743
17	세기극장	종로구 관수동	우기동	672
18	동양극장	서대문구 총정로1가	이형기	594
19	서대문극장	서대문구 미근동 4	우기동	672
20	동도극장	성북구 돈암동	강치성	570
21	동화극장	성북구 신당동	지행홍	752
22	광무극장	성북구 상왕십리	김복산	652
23	경보극장	마포구 도화동 1가	홍영찬	820
24	문화극장	종로구 경운동	공진항	750
25	자유극장	중구 남창동	한기창	726
26	신도극장	동대문구 전농동	정상현	932
27	영보극장	영등포동 5가	호희남	623
28	남도극장	영등포구 당산동	김종천	550
29	서울극장	영등포동4가	한봉주	850
30	용사회극장	영등포동 4가	백운수	356
31	동보극장	동대문구 신설동	방천호	440
32	동화영화관	중구 충무로1가	강요원	385
33	화신영화관	종로구 종로2가	김재두	411
34	우미관	종로수 인사동	김응천	496

NO	극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좌 석 수
35	천일극장	종로구 예지동	이완석	495
36	신영극장	서대문구 노고산동	정덕용	872
37	현대극장	마포구 아현동	김치열	470
38	초동극장	종구 초동 97	이연순	361
39	봉래극장	서대문구 만리동	김태영	927
40	경미극장	동대문구 답십리	김인수	500
41	현도극장	성동구 성수동 1가	최봉환	204
42	청계극장	동대문구 창신동	김지건	842

〈 정 종 화 〉

제 6 장

영화의 대명사, 충무로





영화의 대명사, 충무로

1. 영화의 거리, 충무로

충무로가 한국의 헐리우드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스카라극장(당시 수도극장)과 1999년에 문 닫은 국도극장의 영향과 명보극장과 대한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도극장은 1955년 「춘향전」의 대흥행으로 을지로 4가 극장주변은 구경꾼으로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으며, 자연 주변의 상점도 영화 분위기와 함께 매상을 올렸으며, 1956년 엄앵란의 첫 출연작 「단종애사」 사극영화로 또 다시 흥행에 성공하자 국도극장의 인기는 단연 옥일승천(旭日昇天)이었다.

수도극장은 「운명의 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키스 장면 영화를 강조하여 간판을 올렸으나 당시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대중의 이미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러다가 1956년 정비석 원작의 「자유부인」이 파문을 일으키며 충무로의 수도극장 일대는 성인관객으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며 근처의 다방과 식당은 공전(空前)의 인파로 비명을 올리는 개가를 이루었다.

당시 명동골목에 영화사를 차렸던 영화인들은 자연 국도와 수도극장 언저리에 있던 영화



영화 선전 포스터가 붙여진 충무로 거리(1960년대)

인들과 교우가 되고, 심지어는 즉석에서 기획이 이루어져 일제 강점기에 영화사로 있던 일본식 가옥이 영화업무에 적격이어서 자연히 충무로 3가로 입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6.25전쟁이 휴전으로 1954년에 3년의 피난생활을 끝내고 시민들은 서울로 환도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명동은 폐허로 변했고, 그나마 충무로는 주택이 많아 폭격은 피할 수 있었다. 그 당시 160만 명의 서울 인구는 생존에 급급할 뿐이었다. 지금의 남산골 한옥마을은 일본강점기에는 헌병대 사령부의 자리로 지난날 수도방위사령

부가 있었는데 뒤편에 25 평 정도의 관사 3동과 지하 1층으로 된 200 평되는 건물이 있었다. 여기에 전쟁 중 국방부 영화 촬영대가 부산에 있던 시설과 기재를 옮겨와 ‘필동 촬영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관사 1동을 헐고 새로운 현상실과 녹음실을 만든 뒤 「정의의 진격」의 판권(版權)으로 얻어진 영화기재들을 도입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 평의 지하 1층 강당은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그 옆의 테니스장은 야외 촬영장이 되어 1955년 「춘향전」의 인기와 함께 많은 작품들이 이곳에서 현상과 녹음이 되었다.

2. 삭발로 연기한 김진규와 최무룡

「에밀레종」에 얹힌 비련과 신라 천년의 꿈을 제작비 1억 원으로 재현되는 일대 낭만의 서사시! 라는 선전문안과 함께 당시 거액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에밀레종」은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가 「춘향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전력투구(全力投球)의 영화였다.

「에밀레종」의 참마루역은 김진규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좋은 배역이었다. 당시 「성춘향」의 경이적인 흥행과 함께 인기가 폭발한 그는 새로운 경향의 연기를 보이기 위해 「에밀레종」의 참마루를 놓고 적수 최무룡과 경합을 벌였다.

결국 제작자와 감독 그리고 각본가가 모인 가운데서 참마루는 김진규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단서에는 머리를 깎아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김진규는 「장희빈」과 「언니는 말괄량이」 등 3, 4편의 영화가 끝나는 대로 머리를 깎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드디어 1961년 8월 25일 반도호텔 이발부에서 홍성기 감독의 입회 하에(?) 촬영기사들의 불빛을 받아가며 그가 아끼고 기르던 머리를 삭발하는 용단을 내렸다.

작중 인물인 참마루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며 그는 “마음이 시원하고 연기에 사는 바람을 얻었다”고 연기자의 집념을 펼쳐 보였다.

외국의 경우 「5인의 낙인찍힌 처녀」에서 소피아 로렌에게 삭발을 시키려 했으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성과를 못 거두고, 결국 제작자가 자기 부인인 실바나 망가노의 머리를 깎아 영화를 제작한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연기가 삭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삭발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다 귀중한 주인공을 놓친 최무룡은 김진규 다음가는 금아랑 역을 맡았을 뿐이다. 김진규가 삭발을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여기저기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촬영준비에 있던 제작자들이 나타나 계약위반이라고 성토를 벌였으나 「에밀레종」을 빨리 끝낸 후 가발을 쓰고 약속한 기일 내에 촬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서로 일단락되었다.

한편 김진규의 삭발을 제일 기뻐한 사람은 김기영 감독이었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에서 나카무라로 출연하는 그가 자연적으로 일본군인역에 맞게 머리를 깎고 나오기 때문이었다. 김 감독



홍성기 감독의 「에밀레종」 영화 포스터

은 삭발 기념으로 그에게 축하케이크를 사들고 김보애 여사를 방문, 희비쌍곡선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규와 최무룡은 당시 최고 연기자의 정상을 놓고 치열한 연기경쟁을 벌여왔다. 현대물에서는 최무룡이 우세하고, 역사물인 시대극에서는 김진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성춘향」에서 본격적인 선두대열로 부상하던 차에 「에밀레종」에서 최무룡을 누르고, 홀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비장의 각오가 삭발의 표시이기도 했다.

「에밀레종」은 김진규와 최무룡은 물론 김지미와 조미령의 불꽃튀는 연기대결이 있었고, 국내 모든 연기자가 총동원된 맘모스 대작이었다.

홍성기 감독은 「춘향전」의 흥행 실패를 「에밀레종」에서 되찾기 위해 「성춘향」의 이도령인 김진규에게 삭발의 극비지령을 내리고, 평소 절친한 최무룡에게는 우정있는 설득으로 공평무사하게 배역을 안배시키는 막후 접촉의 놀라운 수완을 보였다.

하지만 「성춘향」에서 이도령의 후광과 함께 삭발의 김진규가 나온 「에밀레종」이 제작비와는 거리가 멀게 흥행이 부진하자, 홍성기 감독은 사극물과는 자기와 인연이 없다면서 현대물로 방향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진규는 이후 가발을 쓰고 약속한 작품을 끝내면서 상승기류를 타는 행운을 얻었다. 그런데 삭발의 선풍을 일으키며 1961년 화제를 모았던 김진규에게 마지막 도전장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최무룡의 삭발선언이었다. 삭발로 한해를 결산하는 한판 승부의 처절한(?) 인기경쟁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당시 사극영화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동보영화사의 「원효대사」였다.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 그것은 일편단심 「원효대사」를 사모하는 요석공주의 마음 전부였다.

— 「원효대사」의 홍보 문안이다.

춘원 이광수 원작 「원효대사」를 「에밀레종」의 영화대본 작가 최금동이 1년에 걸쳐 각색하고, 장일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에밀레종」에서 삭발 때문에 주인공을 놓친 최무룡은 1961년 12월 3일, 3개월 전 김진규가 삭발을 한 반도호텔 이발부에서 장일호 감독의 참석하에 단호하게 삭발을 하였다. 그것도 김진규가 삭발을 한 것보다 더 깎아서 가히 「원효대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집념의 삭발이었다.



영화인의 거리, 총무로(1979년) - 『한국의 여행』에서

최무룡이 장 감독과 밀약한 후 시치미를 뚝 떼고, 동보영화사를 찾아가자 송유천 사장은 처음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해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 「원효대사」역의 최무룡임을 알았다는 일화를 남기도 했다.

「원효대사」역시 김지미를 비롯해 문정숙, 조미령, 이민자, 황정순 등 당시 정상급의 여배우가 총출연하여 「에밀레종」보다도 더 많은 화제를 일으켰다.

최무룡은 「에밀레종」에서 깎은 김진규의 사진을 단골 이발사에게 보여 주면서 머리를 완전히 깎은 후 면도질까지 서슴치 않고 해버려 그야말로 한국판 율 브리너가 되었다.

「에밀레종」에서 주인공을 빼앗긴 한을 「원효대사」에서 분출하기 위해 머리를 깎은 최무룡의 비장한 연기자세는 당시 배우를 동경하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삭발을 한 최무룡은 “원효대사를 통해 새로운 연기와 함께 인생의 좌표를 재정립하겠다.”고 하면서 연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연기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라디오 공개 모임에서 부인인 강효실씨는 까까중이 된 최무룡의 머리를 오히려 더 사랑스럽다고 농담을 하여 그들의 금슬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최무룡은 「원효대사」를 끝내고 「잔혹한 청춘」과 「서유기」에서도 삭발의 모습으로 출연하여 그전까지 보지 못하였던 색다른 연기를 해내었다. 인기경쟁을 위해 삭발을 서슴치 않고 불꽃튀는 대결을 벌인 이들은 신성일의 등장이 있기까지 스크린에서 선의의 적수로 군림하였다.

제작가 안병하는 삭발을 한 김진규와 최무룡을 특별기획으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가 머리가 자란 후 공연하겠다고 하여 기획이 무산되는 일화도 있다.

「원효대사」의 성공으로 최무룡은 그후 많은 사극영화에 나오면서 삭발의 보상을 톡톡히 받아내는 출연 요청의 쇄도(殺到)를 이루어 김진규와 쌍벽을 이루는 최정상 배우임을 입증하였다.

「에밀레종」과 「원효대사」의 성공으로 불교영화의 붐이 일어나 「이차돈」, 「석가모니」, 「대석굴암」, 「사명당」 등 무수한 작품들이 김진규와 최무룡을 주인공으로 촬영되기도 했다.

홍성기 감독은 「원효대사」가 끝나자 최무룡의 약간 기른 머리를 이용하여 구정치인의 부패상을 그린 「어딘지 가고 싶어」를 부인 김지미와 공연시키는 이색작품을 만들었으나 정치소재가 관객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여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치열한 인기경쟁을 위해 삭발까지 불사하면서 영화촬영에 혼신의 정열을 내뿜은 두 사람의 양보없는 각축전은 바로 한국영화를 성장시키는 좋은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4·19혁명과 5·16군부 쿠데타의 어수선한 소용돌이 속에서 삭발로 은막을 누빈 두 인기인의 용단과 인기술 앞에 많은 팬들은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이제는 은막 밖의 전설 속으로 사라진 삭발 대결은 한국 영화의 천일야화(千一夜話)가 되어 이들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추억의 장면으로 남고 있을 뿐이다.

3. 최초로 일본에 현지 촬영한 김기영 감독

‘한국영화 최초의 현지 촬영으로 김기영 감독이 내일(來日)’이라는 표제로, 1961년 4월 21일자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촬영을 위하여 한국 문예영화의 김기영 감독이 내일(來日) 중이다.

이 영화는 한국의 작가 한 운사의 체험에 의하여 엮어진 연속방송극을 영화화 하는 것으로 매주 50 분간씩 반 년 이상이나 라디오로 방송이 계속된 인기 드라마라고 한다.

내용은 한국판 「인간의 조건」이라고도 할 만한 스토리. 전쟁 중 학도병으로서 일본 군대에 들

어간 한국 청년 주인공이 군대 내부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고발하며, 일본 여성과의 사랑, 탈주, 공습, 애인의 폭사 등의 계속되면서 전쟁에의 비판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김감독은 4월 14일 비행기 편으로 하네타 공항에 내려 동경에 머무는 동안 6월 3일 귀국할 때까지 일본의 6대 영화사를 견학하였고, 현지 촬영의 선정관계로 각 지방을 돌아보았다.



김기영 감독 「현해탄은 알고 있다」 영화의 한 장면(1961년)

촬영무대로 지정된 곳은 나고야, 동산공원, 지다반도, 가모고오리, 세도, 일궁, 기후등 나고야 일대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고야의 전 사단사령부와 병사(兵舎)자리, 나고야만 도요가와와 폭격자리는 이미 공중촬영을 끝마쳤다고.

연속방송극으로서의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인기를 능가하고 남을 작품을 만드는 동시에 또한 한·일 양국의 문화친선교류에도 한 역할을 해 볼 의도로 김 감독은 이 작품에 온 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며, 투지가 만만하기도 했다.

김기영 감독은 연속방송극을 듣고는 이 작품을 기어코 내가 해야겠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기획자 안화영(배우 안성기씨 부친)과 함께 민주당 시절 험난한 장벽을 뚫고 일본 현지 촬영을 위한 최초의 사증(비자)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영화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생각으로 단신 촬영기 하나로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일본장면을 낱낱이 수록하였지만, 공중폭격 장면은 두 미군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송죽영화사와 협조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입수하는 꽤거를 낳았다.

일본에 도착하자 우선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여주인공인 히데코를 선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행히 「아사히(朝日) 신문」의 여배우를 모집한다는 기사 덕분에 작중인물과 거의 비슷한 공순경을 뽑는 데 성공하였다.

공순경은 나중에 공미도리(孔美都里)로 이름을 고쳐 영화에 출연하였는데 워낙 재일동포로서는 민족혼이 뚜렷하여 김감독은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성공을 미리 예상하는 기쁨에

넘쳤다.

공미도리의 어머니는 「아사히 신문」을 보고 다음날 김감독을 찾아와 자기 딸을 흔쾌히 출연시켜 보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아울러 여학교에서 무용공연을 위해 조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 딸의 여권(旅券)을 보여 주기도 했다.

공미도리의 부친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물로서 동경에서는 막강한 위세를 행세하는 실력자였고, 집안도 거부여서 김감독은 별다른 조건없이 그 녀를 여주인공으로 뽑았다. 마침 5·16군부 쿠데타의 어수선했던 정세 속에서 유일하게 여권을 소지하였으므로 일본 현지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전쟁 반대와 한·일 친선에 중점을 두고 메가폰을 쥐겠다”는 소신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김 감독은 여러 번 비자 신청을 거부당했으나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극중 현지 촬영의 불가피성을 역설, 특유의 끈기와 열성으로 관철하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참가작품 「10대의 반항」과 아시아 영화제 참가작품 「하녀」의 영화예술적 가치가 당국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 감독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영화계의 이모저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촬영설비와 기계가 미국에 비해서 아직도 미개한 점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들에 비하면 정말 부럽다. 현재 우리의 제작여건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인간을 정확히 응시하고 고찰하기 위해 짧은 로케이션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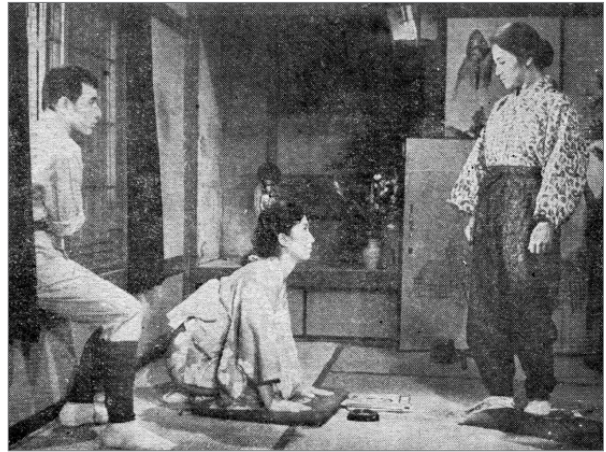
현지 촬영기간 동안 정국이 변하여 그는 호텔에서 안화영과 전전긍긍하였으나 5.16 군부 쿠데타의 뚜렷한 혁명공약을 듣고, 용기를 내어 나머지 촬영분량을 급속히 찍고 귀국하였다는 것이다.

자유당 시절 반일사상이 완고한 이승만 대통령 때였다면 일본 현지 촬영은 꿈속에서나마 있을 일이었을 거라며 지금도 김 감독은 그때 일을 되씹고 있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군대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사람 취급, 나아가선 전쟁의 절망 등을 어느 작품보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참혹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숭고한 인문주의(人文主

義)에까지 승화시킨 영화예술의 개가이기도 하다.

김감독은 원작자의 체험을 통해 이 영화의 주인공 아로운은 당시 한국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형이며, 이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모진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진실한 애정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에서 아로운과 히데꼬

김 감독은 귀국하여 6월 19일부터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신인배우를 모집하였다. 이미 아로운의 김운하와 스스기 초년병으로는 유춘수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배역으로 새 얼굴을 뽑았다.

히데꼬의 공미도리는 9월에 어머니와 함께 귀국하였다. 재일동포로서 당시 동경의 아메리칸 스쿨에 재학 중인 그녀는 약간 경상도 말투의 또렷또렷한 소리로 “무엇보다 이 영화에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민족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인간관계가 이뤄진다는 게 좋았고, 또 히데꼬의 감정에 정직한 성격 등이 마음에 들었다”고 피력하였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원래 영화대본에는 남방으로 떠난 아로운이 종전(終戰)이 되어 돌아와 히데꼬를 발견한 것은 폭격 당한 나고야 시민들의 시체 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절망적이라고 해서 행복한 마감으로 수정했다. 무조건 관객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을 파고 들어야겠다는 연출자의 욕심이 상승작용을 했다고 김 감독은 회상한다.

김운하와 공미도리는 삼성촬영소에서 처음 만났다.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친근감을 주는 공양과 작품의 주인공과 너무나도 흡사한 조그마한 체구의 김운하는 우연히도 아로운과 같이 고향이 충남이었다.

김 감독의 소개로 이들은 주인공으로서의 상견례(?)를 끝내고 바쁘게 무대장치 촬영의 준비에 들어갔다.

공양은 “연기자란 작품을 위해서는 자기 얼굴 같은 것은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각자의 지성에 달린 자기 해석이 필요하니까요...”라는 연기관을 피력해 고교 3학년 소녀의 예리한 관찰력에 주위를 놀라게 했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주인공 아로운은 참으로 희귀한 이름이었다. 이 이름에 대해 한운사는 “당시 학도병들은 먼 하늘의 흰구름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했지요. 망향, 고독, 향수 등이 복합적으로 얹매어 분노의 시대 속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 외롭고 고독한 홀몸의 ‘알로운(alone)!’ — 이 영어를 변형시킨 이름이 바로 아로운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일본 최초의 현지 촬영 영화인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김기영 감독의 정열적인 영화혼이 전편에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는, 지금도 잊지 못할 작품이다.

4. 5·16과 충무로 영화시대

5·16군부쿠데타 이후 이른바 사회개혁의 하나로 영화계까지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쳤다. 당시 깡패집단으로까지 오인 받았던 충무로에 정풍(整風)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충무로3가 우성영화사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영친회의 조기청소였다.

당시 영친회의 회장을 맡은 김태수는 영화 현장에 있는 제작부원들의 정신을 씻기 위한 일



영화인 조기청소의 신영균(1961년)

환으로 아침 5시에 집합하여 9시까지 서울시 일대를 청소하는 근면정신을 발휘하였다. 처음에는 50여 명으로 시작한 것이 조기청소에 의의를 느낀 많은 영화인들이 합세하여 나중에는 200여 명으로 수가 불어나 전폭적인 범 영화인 청소대회로 확산되었다.

당시 이른 아침 해장국집에 모인 인기 배우를 보기 위해 식당은 인산인해를 이

루기도 하였다. 김승호를 위시하여 김진규, 최무룡, 신영균, 박노식, 김지미, 노경희, 문정숙, 주중녀, 장동휘, 최남현, 이예춘, 허장강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빗자루를 들고 서울의 구석 구석을 청소하는 광경이란 영화보다도 더욱 진기한 풍경이어서 서울시민들의 눈요기이기도 하였다. 뒷골목을 누비며 청소를 하는 영화인에게 열렬한 팬들은 커피와 우유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개월을 넘는 기간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영화인들의 조기청소는 정신개혁 운동으로 먼저 많은 연예인들의 귀감(龜鑑)으로 점철되었다.

그동안 난장판의 대명사로 지탄을 받았던 영화계에 새로운 시대의 바람과 함께 영친회의 뜻있는 간부들에 의해 수신제가(修身齊家)로 정신무장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조기청소는 충무로의 일화로 간직되는 비화(秘話)의 꽃이기도 하겠다.

영화 만이 대중들로부터 선망을 받았던 그 시절 은막(銀幕) 뒤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동분서주하던 현장의 제왕, 제작부의 뜻있는 청결운동은 당시 군사정부로부터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나 할까? 순수한 정신에서 출발한 조기청소의 열풍이 너무나도 뜨거운 나머지 이를 주창한 영친회의 간부들이 오히려 깡패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정신개혁운동을 시기한 반대파에서 당시 덕수궁에 있던 계엄사령부에 투서를 하여 김태수를 비롯하여 김진문, 이현우, 강대수 및 많은 제작부장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야기되었다.

- 제2의 임화수가 나왔다.!
- 조기청소를 빙자하여 배우를 못살게 군다.
- 청소비조로 금품을 요구한다.
- 촬영에 지장을 준다.

등의 악성 소문들로 순수한 조기청소를 비난하는 얼토당토 않은 모함의 내용이었다.

깡패집단으로 연행된 이들 중에서 김태수는 논리정연한 취지로 부장검사에게 조기청소에 대한 배경과 이를 실시한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결과 풀려나는 무혐의의 개가를 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 당시 계엄사의 검사에게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제작부장이란 직업에 대하여 검사가 알지 못하는 점을 이해시켰지요. 모든 촬영업무는 하루에 끝내야 하는 지상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작부장은 배우를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 촬영을 끝내기 위해 본의 아니게 고함과 욕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시 주위 여건을 빼놓지 않고 고하였지요. 더구나 스케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우들에게 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에 강압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강패로 오인되는 사례가 되었지요”

- 환경조건의 책임의식에 공감을 얻었던가요?

“우리들 역시 부양가족이 있고 직업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기인한 소박한 심정을 처음에는 이해를 하더니 나중 폭력부분에는 납득이 안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아니고 배우를 스케줄 위약으로 반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마찰이 폭력으로 보인 모양이라고 했더니 결국, 담당검사가 영화계에서 확인한 결과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과 직업의 과잉 충성심에 야기된 책임 의식으로 단정한 후 전원 풀려났지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자기가 관계치 않은 것에는 무관심한 나머지 더러는 색안경으로 보아 온 편견이 많았다. 더구나 외화내빈의 영화계는 더 더욱 심하여 촬영현장에서 진행을 담당하는 제작부장에게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인 건달과 강패란 수식이 붙기가 일쑤였다.

영화는 본래 한량(閑良)과 주먹들이 했다는 지난날의 어설픈 행적도 있었고, 4.19혁명 이전 자유당 정권시대에는 강패들이 전업하여 곧잘 여배우를 농락함은 물론 투기사업의 속성이 그렇듯 영화제작에 주먹들이 참여하여 한국영화의 전성시대를 지원하는 몫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제작방법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이들 밑에서 현장을 뛰는 제작부원들은 절대절명의 임무를 부여 받은 특공대처럼 영화현장에서 책임완수를 위해 야생마와도 같이 뛰었다. 이런 행동이 다소 거칠게 보여 자연히 강패로 오인되었던 지난날의 어설픈 시대도 있었음은 웃지 못할 기억이 되기도 한다.

직업에 따른 과잉충성이 결국은 횡포로 둔갑되는가 하면 현장의 주도면밀한 월권(越權)으로 비화되는 모진 풍상 속에서 제작부장들은 이제 영화계의 중견이 되어 한국영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5·16군사정부가 제정한 <영화법>은 ‘한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

이었다. 그때까지, 광복 이후 17 년간, 우리 영화는 미군정 법령인 <활동사진>의 취체라는 것과 <영화의 허가>라는 것에 의해서, 문교부가 고시(告示)로서 관장해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의 ‘자주적인 법 제정’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용단이었고, ‘보호와 육성’이라는 취지 그 자체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단으로 취해진 통제에 있었다. 즉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된 법에 따라 그 시행령(동년 3월 20일)에는

1. 영화제작업자를 <등록제>로 하고,
2. 그 등록 요건으로서,
 - 가) 200 평 이상의 스튜디오, 녹음, 현상시설과 60kw 이상의 조명
 - 나) 35밀리 카메라 3 대
 - 다) 2인 이상의 전속감독과 남녀 전속배우 2인 이상
 - 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녹음 및 현상 기술자를 전속시켜야 하며,
3. 등록된 영화사는 연간 15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해야 하고,
4. 이상의 각 조항의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에 따라 1962년 2월 21일을 기해서, 그때까지 난립되었던 군소업자들이 자진통합이라는 형식으로 일부 등록요건을 갖추어, 새로 영화사 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제1차 정비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64 개의 군소업자가 16 개의 ‘대회사’로 그 간판을 통합한 것 뿐이지 결코 실질적인 ‘메이저 컴퍼니(major company)’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소위 ‘보따리장수’라고 불리던 업자들이 발판을 잃었고, 새로 등록한 영화사들은 연간 의무 편수를 채우기 위해, 산하 군소 업자들의 제작 실적을 주워 모으기에 급급했으니 여기서 ‘한국식 프로듀서’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선 1960년대 초기의 활동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통합된 16 개 회사 명단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군소 제작회사의 대표자 64 명 뒤에는 10여 명의 ‘떠돌이업자’가 덧붙여 있었다.

영화의 메카 충무로

1. 한국영화공사(대표: 이재명)=아세아(이재명)
신생사영화부(이준), 대한영화(김성춘), 청구(신경균), 금성(김현호), 호성(박병기) 등 6 개사
2. 서울영화프로듀서클럽(대표: 방의석)=계명(방의석), 세일(함운식), 한국영배(박운삼), 세연(김성엽) 등 4 개사
3. 전국영배공사(대표: 성동호)=상록(성동호), 새별(김만길), 전국영배(안병하), 협립(윤택중), 동성(이수길) 등 5 개사
4. 고려영화사(대표: 유희대)=유한(유희대), 은영(김인수), 협이(명광호), 화심(김보철) 등 5 개사
5. 한흥영화사(대표: 최관두)= 화성(이화룡), 한성(정진모), 한흥(최관두), 대원(원선) 등 4 개사
6. 동아영화흥업주식회사(대표: 이성근)=동아흥업(이성근), 오향(박시춘), 대동(이수형), 광보(함완섭) 등 4 개사
7. 광영영화사(대표: 조용진)= 광성(조용진), 은하(김동식), 코미디 코리아(김석민), 조광(신종수), 우미(구제택) 등 5 개사
8. 동보영화사(대표: 송유천)=동보(송유천), 신미(최성태), 죽림(이종건) 등 3 개사
9. 대영영화제작사(대표: 정운석)=삼협(정운석), 연희상사(김해병), 대영프로(대표 : 미상), 흥기(정병준) 등 4 개사
10. 수도영화주식회사(대표: 홍찬)= 수도(홍찬), 백조(최일), 대한흥업영화부(오석조) 등 3개사
11. 극동흥업사(대표: 차태진)=극동(차태진), 대성(엄문근), 한국문예(김기영) 등 3 개사
12. 동방영화사(대표: 임월빈)=선민(월빈), 청룡프로(은영: 김영창) 등 2 개사
13. 주식회사 신필름(대표: 신상옥)= 신필름(신상옥) 등
14. 연아영화공사(대표: 이병일)=동아영화(이병일), 성림(박구), 경북(황영빈), 후반기프로(이봉래), 신예프로(전홍직), 한국영화촬영소(이창근), 대영(노명자) 등 7 개사
15. 한국영화합동공사(대표: 지우성)=해성(지우성), 아카데미(이종인), 남흥(이경제), 대도(정운선), (주)한국영화합동공사(윤봉춘), 2 프로덕션(이봉선) 등 6 개사
16. 서울칼라라보(대표: 이만수)= 서울칼라라보(이만수), 태양(김경준), 송죽(권철휘) 등 3 개사

이들은 1962년 말의 추운 겨울에 제각기 통합 서류를 갖추어 공보부에 등록하느라고 부산을 떨었으나,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약 5 개 월간의 여유를 주고 제반 미비시설을 보완하도록 시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자는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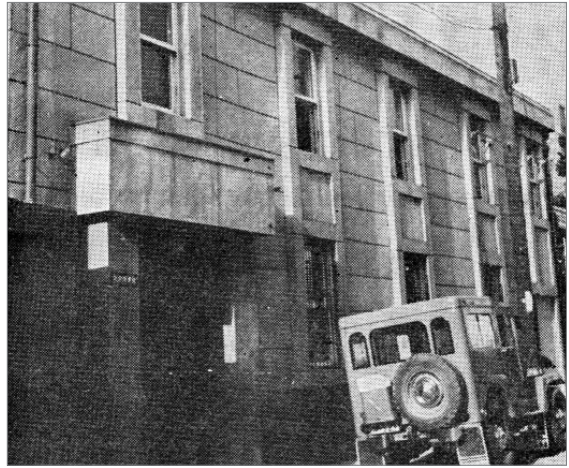
더구나 15 편이라는 의무 제작 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와 같은 고민을 안은 채 등록

회사는 1963년 6월 30일의 제2차 정비에서 17 개사가 등록 취소되고, 4 개사만 살아남는 진통을 겪은 후, 1963년 말에는 6 개사가 등록을 유지하였다.

즉 이 무렵엔 영화가 이미 서민 여가의 대중(大宗)으로서 국민 대중들 사이에 널리 애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국극장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1961년에 국민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회수는 2, 3 회였던 것이 1962년에는 3.0 회,

1963년에는 3.6 회, 1964년에는 5.7 회라는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영화가 당시의 시대오적인 시책과는 관계없이 국민대중과 더불어 성장해 나왔다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해주는 통계이다.

그 당시 활동한 제작자들로 소개한 64 명 외에도 많은 제작사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행정상으로는 대명이든 합법이든 간에 이때의 제작활동이 1960년부터는 1961년에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과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이 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제작되어 커다란 화제를 모았지만, 총천연색 영화는 1964년 3편에서 서서히 은막을 장식하는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새로운 제작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청춘 통속극과 사극영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 시기에 이미 영화 선진국에서는 사양화되어 가는 ‘영화산업의 위기’ 의식이 높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한국영화의 관객은 날로 늘어났는데 1961년의 5,800만 명에서 1962년에 8,000만 명, 1963년 9,600만 명, 1964년 1억 2,000만 명으로 계속 증가되어 나갔으며, 그러한 상승추세는 1969년도까지 치달아서 1억 7,300만 명에 달하게 된다.



충무로에 자리잡은 (주)극동흥업의 회사사옥

5. 「춘향전」과 「성춘향」의 경작(競作)

1960년 4·19혁명으로 영화계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권시대에 가중되었던 영화 검열이 민간인 손에 넘겨진 ‘영화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많은 문제작들이 사회 비판과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면서 이른바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영륜’은 회장 이청기와 부회장 이진섭, 전문위원 허백년과 최일수가 위촉되어 국내외 영화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를 하면서 문교부와 맞서 마찰을 일으키며 재검열이라는 이중적 모순을 낳았다. 그후 회장 오중식과 부회장 이순근으로 진용을 개편하여 민간 자율기관으로 영화심의를 했으나 5·16군부쿠데타로 해산을 당하였다.

1960년 여름 「춘향전」 영화가 두 곳에서 제작되고 있었다.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과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었다. 두 감독은 북한에 납북당한 최인규 감독의 수제자들로 홍 감독은 「별아 내가슴에」 이후 흥행에 성공하여 통속극의 1 인자로 제작자들에게 손꼽혀 있었고, 신

감독은 불운한 시기 속에 허덕이다가 「어느 여대생의 고백」으로 성공하여 발판을 구축하였다.

1960년의 추석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춘향전」과 「성춘향」의 경작(競作)으로 영화제작협회에서는 신고접수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각계인사들의 거중 조정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내는 쌍방의 대립으로 번지기도 했다.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 누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보이느냐? 이런 문제로 영화계는 관심을 기울였고, 흔히 있는 모략, 중상, 심지어는 홍 감독의 천연색 필름이 촬영도중 세관에 압수를 당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홍성기 감독 「춘향전」 영화포스터(1961년)

홍 감독의 「춘향전」에서는 이도령에 신인인 신귀식, 춘향에는 부인인 김지미가 출연했으며, 방자에 김동원, 향단에 양미희, 변학도에 최남현 그리고 월매에 유계선이었다.

신 감독의 「성춘향」에는 이도령에 김진규가 열연했고, 성춘향에 부인인 최은희가 나왔으며, 방자에 허장강, 향단에 도금봉, 변학도에 이예춘, 그리고 월매에 한은진이었다.

홍 감독의 「춘향전」에 지방흥행업자들의 관심이 쏠린 데에 비해, 신 감독의 「성춘향」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끝내 제작비가 고갈되어 최은희의 폐물을 처분하여 완성시키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김지미의 「춘향전」이 1961년 1월 18일 국제극장에서 먼저 개봉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일까? 김지미의 단골 아성인 「별아 내 가슴에」, 「산넘어 바다건너」, 「청춘극장」을 본 관객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통속극의 거장인 홍 감독은 너무나도 망연자실하였다.

10일 후 명보극장에서 「성춘향」이 개봉되었다. 당시 제작비 8천만환을 천신만고 끝에 조달하여 완성시킨 「성춘향」은 관객들로 인산인해의 장사진을 이루었다.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때부터 한국영화의 신화를 낳는 ‘신필름’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였고,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는 「춘향전」의 참패와 함께 비운을 맛보는 길이 되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성춘향」은 1961년 4월 13일 「해바라기 가족」이 상영될 때까지 75일간 36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였다. 당시 서울 인구는 250만 명으로 지금과의 국민소득(GNP)을 비교해 볼 때 굉장한 숫자였다.

이후 신필름의 신화가 탄생하여 「연산군」을 위시하여 「폭군연산」, 「강화도령」, 「병어리 삼룡이」, 「상록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같은 우수한 영화가 쏟아지는 개가를 올렸다. 1961년 5·16군부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강대진 감독의 「마부」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김기영 감독의 「하녀」 이강천 감독의 「나그네」 전창근 감독의 「아아 백범 김구 선생」 권녕순 감독의 「표류도」 이만희 감독의 「주마등」 같은 문제작이 상영되었다.



신상옥 감독 「성춘향」 영화 포스터(1961년)

6. 문예영화의 대표작 「오발탄」



유현목 감독 「오발탄」 영화포스터(1961년)

유현목 감독의 8회 작품인 「오발탄」이 처음으로 상영된 것은 1961년 4월 13일 국제극장에서였다.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50년대 후반 부패한 자유당 정권하의 빈곤한 사회상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낸 이 영화는 문제작으로 호응을 받았다. 「오발탄」의 무대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모여사는 해방촌이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철호(김진규)는 통증이 심한 충치를 빼지 못하고, 외동딸이 줄라대는 신발을 사주지 못하는 가난하고 무기력한 계리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그의 집에는 ‘가자!’를 외치는 정신 이상의 노모(노재신)와 만삭의 아내(문정숙), 상이군인인 동생 영호(최무룡), 양공주로 전락한 동생 명숙(서애자), 학업을 포기한 신문팔이 막내동생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불신하는 딸 혜옥(서경희)이 살고 있다.

영호는 경식(윤일봉)을 비롯한 전우들과 어울리며 가난으로부터의 출구를 찾으려 몸부림 친다. 은행강도를 감행하지만 10분만에 잡히고, 그 시각에 철호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다.

괴로운 치통, 철호는 드디어 충치를 뽑고 택시를 잡아탄다. 어디로 갈것인가 실성한 모친이 있는 해방촌으로, 아니면 동생이 잡혀있는 중부경찰서로, 죽은 아내가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어디로 갈것인가? 택시 운전사는 너까리며 불평한다.

“나 참 어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군. 자기 갈 곳도 모르는...”

「오발탄」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명기사인 김성춘이 뜻있는 영화 한 편을 만들겠다고 사재(私財)를 털었고, 이러한 제작자의 의도에 동감한 보조원들과 연기자들이 최소한의 보수로 봉사하여 13 개월 만에 완성된 작품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만 부각시켰다는 점과 영화 중의 노파의 ‘가자!’는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결국 5·16군사정부로부터 상영

중지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출품을 계기로 상영 중지 27 개월 만인 1963년 을지극장(후에 파라마운트)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유현목 감독은 이제까지의 영화처럼 단락(短絡)을 이야기 서술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고, 화면 자체의 영상의 효과에 있어서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깊고 깊은 감정 또는 명명이 안된 새로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놓았다.

유 감독이 현실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이 작품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작품의 완벽한 기술을 구사한 영화예술의 새로운 미학(美學)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의 영화평론가 히노 제이조오는 “외세에 지배, 전쟁의 피해, 경제적 빈곤과 어두운 현실을 비정할 만큼 철저하게 묘파한 성실성”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의 국무부 영화제작소 고문 리처드 D 매킨은,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면은 물론 철학적 깊이에서도 단연 차원높은 작품”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의 출품을 추천하였다. 「오발탄」은 자유당 말기에 촬영을 시작하여, 도중 4.19혁명을 맞이하여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 시나리오를 어두운 사회상에 부합되도록 개작을 하였다.

유 감독은 「오발탄」을 내놓은 후 너무나도 만신창이가 된 영상의 세계에 화상을 입은 탓인지 현실 도피의 피난처를 구하기라도 하는 양 사극영화의 감독을 맡았다.

7. 군부 통치시대와 전쟁영화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3년간 이땅을 초토화하면서 수많은 비극의 상처는 너무나도 처참하였고, 그 후유증은 필설(筆舌)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1951년 손전이 감독한 「내가 넘은 38선」과 신경균 감독의 「3천만의 꽃다발」이 피난처 부산에서 상영되었으며, 1954년 홍성기 감독이 만든 공군영화 「출격명령」과 1956년 김홍 감독의 「자유전선」 그리고 문제의 「피아골」이 제작되었다.



김기덕 감독의 「5인의 해병」 영화의 한 장면(1961년)

1956년 김만술 소위의 무용담을 그린 이강천 감독의 「격퇴」와 이용민 감독의 「포화속의 십자가」도 제작되었다. 그러나 처참한 6·25전쟁을 비록 화면으로나마 보지 않으려는 도피적인 기성세대보다 유비무환의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전쟁영화를 반공영화로’라는 등식이 되어 학생관람이라는 단체동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5·16 군부 쿠데타 후 군사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김기덕 감독의 「5인의 해병」이 만들어져 크게 성공한 후 「두고온 산하」, 「서울로 가는 길」, 「전쟁과 사랑」, 「전쟁과 노인」, 「싸우는 사자들」이 제작되었으며, 1963년에는 전쟁영화의 금자탑을 쌓은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용기와 인내와 단결로 주어진 명령을 사수하는 우리들의 역전의 해병은 적을 앞에 놓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오직 승리를 위해 전진! 전진! 또 전진 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부터 41년 전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촬영하면서 홍보선전을 위해 장식한 선전문안이 인상깊다.

당시 32세의 이만희 감독은 제작자 원선을 만나 처음 「주마등」이라는 영화의 대본을 쓴 후, 첫 작품인 「불효자」를 내놓으며, 「살아있는 그날까지」, 「다이알 112를 돌려라」, 「한석봉」 등을 감독하였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제작자 원선과 함께 이



이만희 감독 「돌아오지 않는 해병」 영화 포스터(1963년)

만희 감독이 등장한 최고의 작품으로 국도극장에서 23만 명을 동원하여 전쟁영화로서는 그 당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 1963년에 이어 1964년 신상옥 감독의 「빨간마후라」는 4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전쟁영화로 손색이 없을 완벽한 작품이다.



「빨간 마후라」 영화의 한 장면(1964년)

이 영화의 줄거리는 1952년 강릉을 무대로 하여 제10전투비행단의 훈련을 마친 암전이(최무룡)와 차돌이(이대엽) 등 신출내기 조종사들이 전입을 한다. 산돼지(신영균)가 이끄는 편대에 들어가 공격임무를 수행하던 암전이는 술집에서 일하는 지선(최은희)과 사랑에 빠진다. 지선은 산돼지의 친구 노대위(남궁원)와 결혼했으나 한달만에 그가 전사하여 술집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선배의 미망인을 사랑하는 일이 부대 내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산돼지는 “조종사의 아내를 외부인에게 보낼수 없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주선한다.

이윽고 산돼지 편대에 난공불락의 교량을 폭파하라는 임무가 내리고 이 전투에서, 암전이가 부상하여 적진에 비상 낙하한다. 산돼지는 지선을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암전이를 구해야 한다고 외친다. C-46을 동원하여 천신만고 끝에 암전이를 구출한 다음 산돼지는 교량 폭파 임무를 완수하고 장렬하게 산화한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처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빨간마후라」는 1964년 명보극장에서 25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제 11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감독과 남우주연상(신영균) 및 편집상을 수상했다.

8. 청춘영화와 「맨발의 청춘」

85 년간의 한국영화를 통하여 신성일과 엄앵란 단짝이 내뿜는 화려한 공연의 열풍은 그야말로 청춘영화의 고유 상표였다. 신성일과 엄앵란이 처음으로 공연한 것은 1960년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였다. 신성일은 3 년간의 각고 끝에 처음으로 은막에 선을 보인 첫 출연이었고, 엄앵란은 1956년 「단중애사」 후 「청실홍실」, 「승방비곡」, 「10대의 반항」, 「동심초」, 「젊은 설계도」, 「딸」 등에 출연하여 김지미와 쌍벽을 이루는 여배우로 군림하였다. 신성일과 엄앵란이 본격적으로 공연한 것은 1962년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련다」였다. 삼각관계로 빚어지는 통속극으로 신성일은 그동안 단역으로만 출연한 「사랑의 역사」, 「백사부인」, 「황성옛터」, 「이 생명 다하도록」, 「상록수」, 「돌아온 사나이」를 끝으로 일약 주인공 하지송을 맡아 김진규와 최무룡, 신영균을 잇는 인기 배우로 각광을 받는 행운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 후 두 사람은 1963년 김기덕 감독의 「가정교사」를 시작으로 하여 「청춘교실」, 「가슴에 꿈은 가득히」, 「배신」, 「학사주점」,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싶은 얼굴」, 「총각 김치」, 「학생부부」, 「푸른별 아래 잠들게 하라」, 「동백아가씨」 등 80여 편에서 신·엄 단짝의 신화를 낳았지만 그 중에도 1964년 아카데미 극장에서 3·1절 특선영화로 개봉된 「맨발의 청춘」이었다.

눈물도 한숨도 나혼자 씹어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맨발의 청춘」·「청춘교실」·「빨간 마후라」·「떠날 때는 말없이」 영화포스터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 보는,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유호 작사, 이봉조 작곡으로 영화 촬영 중 주제가로 판매된 최희준의 노래는 영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맨발의 청춘」은 신분이 다른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밀수조직의 행동담당 두수(신성일)는 깡패들에게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대생 요안나(엄앵란)를 구해준다.

이것을 인연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지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요안나의 어머니는 두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아버지가 대사로 있는 태국으로 보내려 하고, 두수 또한 요안나에게 잊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요안나는 가출, 두수를 찾아와 함께 도망친다. 두수를 밀수혐의로 추격하는 경찰, 사랑의 도피길에 나선 남녀는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눈오는 밤 시골 방앗간에서 요안나가 준비한 극약을 먹는다.

「아낌없이 주련다」로 신·엄 단짝의 문을 연 후, 정진우 감독의 「배신」에서 두 사람은 최초의 키스 장면을 감행하였고, 「맨발의 청춘」이 관객동원 24만 명의 성공작으로 사랑에 결속하면서 끝내는 김기덕 감독이 만든 「동백아가씨」에서 사랑을 확인, 1964년 11월 14일 결혼식을 올렸다.

9. 충무로의 여관과 다방

영화인의 거리 충무로에는 다방과 여관이 많았다. 낮에는 다방에서 일거리를 위해 분주히 다니다가도 밤이 되면 하루의 피곤을 풀고 또 새로운 영화 대상의 생각을 짜내기 위해 여관을 찾는다. 충무로의 동신여관은 적어도 영화인에게는 안식처인 동시에 사무실이기도 했다. 지금은 해봉빌딩으로 명명되어 임대 사무실들이 짹짹 들어차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낮과 밤이 없는 영화인의 불야성이기도 했다.



영화인들의 집합소 <스타다방>이 위치한 충무로3가 거리

이곳은 통행금지에 쫓기는 영화인의 피난처였다. 봉사도 꾸밈하여 전날의 과음으로 숙취한 손님에게는 해장할 수 있는 신선한 식단이 있고, 입맛이 떨어진 손님에게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제공되기도 하여 영화인 중에서도 특히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들의 출입이 빈번했던 곳이다.

김효천 감독과 윤석주 작가는 아예 동신여관 방을 3 년동안 전세를 내어 들어있었으며, 영화감독과 영화대본 작가 중에는 이 여관의 이불을 쓰고 잠자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동신여관에 대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매년 고교야구가 열리는 계절이면 부산의 경남고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반드시 이 여관에 머물른 것이다.

또, 한때 영화전문지로 이름을 떨쳤던 「영화예술」잡지도 이 여관을 사무실로 하여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작고한 유한철 선생도 호방한 생활로 유유자적하다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하면 이 여관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기도 하였다.

「강명화」, 「형」을 집필한 후 병세가 악화된 윤석주는 이 여관에서 세상을 하직한 불운의 작가이기도 하다. 여하간 영화계의 모든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동신여관인데 100여 개에 이르는 방 가운데 2/3는 영화인들로 방이 메워지는 관계로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마주쳐서 주고 받은 얘기 모두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정보가 되곤 했다.

당시 충무로3가의 대원호텔과 퇴계로의 아스트리아호텔 이외의 이 지역은 전부 여관들로만 밀집하여 있었다. 지방흥행사들의 단골인 경화장은 영화인의 출입이 빈번하며, 지금은 없었지만 이형표 감독이 3, 4년 동안 거처한 오스카장은 고 하길중 감독, 시나리오 작가 김하림, 한유림이 장기 숙박했던 곳이다.

스카라극장 뒷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대신여관은 낮과 밤이 없는 으스스한 여관이기 때문에 밤 촬영을 마친 배우들이 낮에 즐겨 찾아 수면을 취하는 이름난 곳이기도 하다. 영화계의 전

성시대가 지나고, 또한 1982년부터 통행금지해제되었기 때문에 충무로의 많은 여관은 사무실이나 식당으로 개축되어 그 모습을 바꾸었다.

두 번의 화재로 인하여 호텔을 폐업하고, 지금은 각종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라이온스 호텔은 1970년대 초 영화인들로부터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된 곳이다.



충무로의 영화인 단골 보금자리인 풍전여관

요즘은 영화인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거의 자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여관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있지만, 한 때는 영화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집필을 위해 여관을 즐겨 찾았다. 충무로에 있는 윤미여관, 풍전여관, 태창여관, 세종여관, 충무장, 럭키장, 남장여관 등이 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충무로가 한창 전성시대인 1960년 후반에는 이들 여관은 장기투숙자나 단골손님이 아니면 방이 없을 정도로 불티가 났으며, 대원호텔은 한국일보사가 뽑은 초기 미스코리아들의 지정 투숙처였고, 영화제작자와 지방흥행사가 밤이 새도록 마작판을 벌리는 호화판의 요지경이기도 했다.

천일야화가 무색하리만치 인간사의 단면을 조명시켜 주는 충무로의 낮과 밤은 극 내용 보다 더욱 극적인 애깃거리들이 산재해 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영화가(映畵街)를 충무로라고 한다. 그 당시 충무로 3가 <스타다방>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다면 그 속에는 2/3가 영화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하고, 또 명성을 얻으며 살아가는 영화인들의 집합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사람들로만 번잡을 이루었을 뿐 영화가(映畵街) 치고는 너무나 엉성하였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속에서도 영화는 꼬박꼬박 만들어지고 있다. 이상하리 만큼 다량생산으로 충무로 거리는 늘 영화인들로 붐빈다. 이 속에서 영화인들은 서로의 연락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충무로3가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다방>은 영화인들의 대합실이라 할 만큼 언제나 분주하다. 꼭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르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생리를 이 다방은 지니고

있었다.

부산의 돛대기시장처럼 매일같이 단골손님이 들락거리던 시절에 비하면 한심할 정도이나 그 래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배우는 김철성 정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값만 내놓고 가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동성영화제작 참모진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고, 영화대본 작가 이이녕, 평론가 노만, 국제영화 박봉희 사장과 백송, 박경주 등 주로 조연, 단역 배우들이 많이 나왔다.

추석대목을 앞두고 이 근방에 여러 개의 영화사가 군웅할거(群雄割據)하여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왁짜거리고 있었으니 다방주인으로서 좋은 현상이었다. 가끔 정민과 박성대가 자주 들리며,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태극다방>은 영화인으로 대성황을 이룬 뒤 제작자는 물론 감독, 배우들의 주거지로 이루어 놓은 집이었다.

충무목욕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탕이며, 독탕시설이 완비되어 이 앞을 지나 게 되면 으레 서너대의 자가용이 길거리에 대기 하고 있었다. 단골손님으로는 신영균, 문정숙, 도금봉, 박암, 허장강, 손미희자 등인데 “주차장 시설을 해놓으면 영업이 더욱 잘되지 않겠느냐”고 어느 배우는 말했다.

<사다 미장원>은 <충무목욕탕>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주인의 이름을 붙여 <사다>라고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새맥」에서 도금봉이 충청도 규수로 파 마를 하고 나오는데 모두 이곳에서 했다. 문정숙, 조미령, 김아미, 남미리, 황정순 등이 자주 드나드는 등 이름있는 배우들의 출입이 많았던 곳이다.

<벤허>다방이 있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벤허」를 그대로 붙여 영업을 하였는데 정진우감독이 잘 들렸고, 이외에도 극장의 배급담당자와 개봉관 선전부장의 연락처로서 유명하였다.

<달>다방은 주로 영화계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집합지로 종종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가 들렸으며, 「열두냥 짜리 인생」을 제작했던 김영철씨의 단골집이기도 하여 자기가 제작하는 영화에 다방 장면이 있으면 무조건 <달>다방을 사용하였다.

스카라극장 근방에는 임시 고용 출연자 엑스트라들의 총집합지로 그 본부를 영우회에 두고 있었다. 이 사무실은 <폭포수>다방 근방에 있는데 여기는 원선씨를 주축으로 하여 이만희 감독과 1.7클럽의 단골집으로 장혁, 구봉서, 독고성, 최성, 이해룡, 김운하, 채랑이 단골이었다. 영화대본 작가 곽일로는 이따금씩 다음 구상을 위해 이 다방에 앉았다 가기도 했다.

<대원호텔> 아랫층에 자리잡은 <대원>다방은 김화랑 감독이 자주 출입하고, 배우로는 황해, 이상사가 눈에 띄게 드나들었다. 조선폭텔 커피숍에는 이상규가 자주 나왔고, <누알>다방에는 방성자가 들락거렸다.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수향>다방은 전에 김기영 감독이 단골로 삼았다.

명보극장을 중심으로 영우회 밑에 자리잡고 있는 <항아리>다방은 영우회 회원들의 단골 집으로 이엽동, 이창식씨가 나왔고, 기타 임시 고용 출연자의 집합지인 <국제>다방 <스카라>다방 <불국사>다방 <영산>다방 등이 있는데 단역 배우들이 이 부근에 오면 예외없이 들리는 곳이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다방으로 <청맥>다방이 있다. 워낙 충무로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인이라면 <청맥>을 거치지 않으면 모든 연락이 두절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카운터의 정문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청맥 아줌마’는 움직이는 개인 비서로 당시 전화가 없는 영화인에게는 비상연락망의 중추신경이었다. 기획자와 영화대본 작가의 작품회의는 물론 제작 부장과 인기배우 매니저와의 일정 작성 책상이며, 단역배우의 영화촬영 연락소로 늘 분주하였다. 심지어는 영화 대본도 맡겨 그야말로 <청맥>다방은 충무로의 천일야화를 무색하리만치 영화인의 명물이었다.

10. 충무로의 극장

(1) 국도극장

1913년 황금연예관으로 출발한 국도극장은 1945년 3월경에 화재로 폐관하여 광복의 기쁨도 누리리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1946년에 김동렬이 신축, 1948년 국도극장으로 개명하여 변사(辯士) 출신으로 인기가 높은 성동호가 상임고문으로 극장 개관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황금연예관은 전당포로 돈을 번 일본인 미망인 미무라가 황금연예관 목조 2층건물로 신축하였다. 흥행에 재미를 붙이자 다시 콘크리트로 개축하여 운영하다 1917년 일본인 이찌



「내시」 영화를 상영한 국도극장

로에게 세를 주어 동아구락부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한 후 다시 황금연예관으로 환원하여 흥행을 하였다.

그 후 조선극장 사장이며 무성영화 「춘향전」을 제작한 하야카와가 1년간 경영하였다. 그 후 일본흥행계를 장악하고 있던 요시모도 흥행사가 인수하여 1925년부터 경성보창(京城寶暢)극장으로 변경하여 운영

하던 중 1936년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하여 황금좌(黃金座)로 개관하였는데 광복 전인 1945년 3월경 무대공연 중 분장실에서 실화로 화재가 났다.

1950년 6·25전쟁으로 사장 김동렬이 북한에 납북되었으며 9·28수복 후 개관하였으나 1·4후퇴로 다시 문을 닫았다가 환도 후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여 1956년 상숙인 김해병이 사장에 취임했다.

국도극장은 1955년 「춘향전」 흥행에 크게 성공하여 한국영화의 중심지로 군림하면서 「피아골」, 「애인」, 「황혼열차」, 「육체의 길」, 「흙」, 「돌아오지 않는 해병」, 「미워도 다시 한번」(2,3,4편), 「8도강산」,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고교알개」 등을 상영하여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였다가 1991년 10월 폐관하여 86년간의 흥행가도에 마침표를 찍었다.

(2) 스카라극장(수도극장)

1935년 와카쿠사(若草)극장으로 주로 일본계 영화와 흥행을 하다가 1946년 수도극장으로 변경하여 지배인이던 홍찬이 인수, 단성사와 국도극장과 함께 개봉관의 선두 주자로 군림하였다.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암울하였던 인생의 허무를 안고 살던 시절, 1955년 하루에 3번 상영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수도극장의 상징이었으며, 극장 주변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선풍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스카라극장은 1935년 오까모도가 아현동에 있던 대정관을 폐관하고, 약초극장을 운영하

면서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극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생명」을 개봉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최초의 키스 장면 영화 「운명의 손」과 정비석 원작의 잘 팔리는 책(베스트 셀러)인 「자유부인」 그리고 한국영화로는 최초의 해외 영화제 수상작인 「시집가는 날」을 195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상영하여 충무로에 영화인을 이동케 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1962년 수도극장은 스카라로 개명하여



일제 때 와카쿠사극장(수도극장 → 현 스카라극장)

“가지가지 추억의 영화를 상영했던 와카쿠사 수도극장은 금반 새로운 경영체로 쇄신하여 70밀리 대형영사기 설치와 아울러 현대적 최신설비로 혁신 단장하고, 〈스카라극장〉으로 신규 발족하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여러분의 문화전당으로 이바지하려 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개관 영화인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을 상영했다. 1974년 국산영화 상영 의무(스크린 쿼터 : screen quarter)제가 생겨 외국영화 상영일수가 제한되기까지 「위터 후론트」, 「7년만의 외출」, 「바렌」, 「특공대작전」, 「정무문」, 「심야의 결투」, 「파울플레이」와 한국 영화로는 「꽃순이를 아시나요」, 「파리아마」가 인기를 끌며 복합극장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70년의 전통을 지니며 고색창연하게 극장가를 지키고 있다.

□ 스카라 극장과 잊지못할 사건

「성춘향」으로 이른바 ‘신필름왕국’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신상옥 감독은 미성년자 관람가의 영화상영 전 낮 뜨거운 예고편을 넣음으로써 하루아침에 영화사를 폐업해야 하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예고편으로 문제가 된 「장미와 들개」 영화의 한 장면(1975년)

허가 취소의 전말은 이렇다.

1975년 10월부터 스카라 극장에서 시드니 포에이티어가 선생으로 나오는 「마음은 언제나 태양」 영화가 미성년자 입장가의 교육영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람하면서 다음 프로인 「장미와 들개」의 예고편이 문제가 되었다. 더욱 더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검열과정에서 삭제됐던 장면이 상영된 것이다. 문제의 장

면은 홍콩배우 등광영과 오수미의 노골적인 침대 정사 장면(베드 신)을 비롯하여 남녀관계의 음란한 장면과 바닷가 모래벌판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혈투극, 그리고 강간 장면 등이었다.

‘여자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장미같은 여자와 들개같은 녀석!’ 등등 광고 원고와 함께 「장미와 들개」의 예고편은 스카라 극장을 비롯하여 전국 11개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장미와 들개」 문제의 필름에 대해 신상옥 감독은 “이 영화가 합작영화이기 때문에 상영하는 나라에 따라 필름 편집이 약간씩 다르다. 아마도 해외수출용 필름이 바뀌어 들어간 듯하다”고 했고, 극장측에서는 예고편은 문화공보부로부터 검열 합격증을 받은 이상 미성년자 관람가인 「마음은 언제나 태양」 영화와 함께 상영해도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해명하기도 했다. 영화사 허가 취소를 통보받은 신상옥 감독은 “영화 예고편을 검열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당국의 처사에 불쾌한 빛을 띄우기도 했다.

1975년 11월 26일자 사회면을 보면 ‘얼굴 뜨거운 예고편’이란 기사 제목으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노골적인 누드와 베드신에 얼굴이 뜨거워 땀이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는 영화에도 마음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는 여론을 실어 이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영화법에는 모든 예고편은 미성년자 관람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으로 되어있지만 신필름은 1975년 2월에도 검열된 필름을 임의로 변조, 홍콩영화 「콜걸」을 상영하던 중 예고편을 보여 말쑥이 되었으므로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상영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영화계의 대명사로 군림하던 신필름은 1953년 주식회사 신상옥 프로덕션으로 출발하여 1970년 안양영화주식회사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1973년 신프로덕션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수많은 영화를 제작한 명문 제작사로 맹위를 떨쳤다.

(3) 명보극장

명보극장의 개관 영화는 1958년 8월 26일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상류사회」였고, 이 극장은 서울올림픽 개선문으로 잘 알려진 김종업이 설계하였다.

국내 최초로 냉방장치를 설치하여 6.25전쟁 이후에 생긴 영화관으로는 가장 현대적인 건물로 평가되었다. 주종태 대표가 신축하던 중 사



1958년에 개관한 명보극장

정에 의하여 대림산업과 제휴하여 대림측이 주식 70%를 장악, 대표이사 사장에 권갑중을 선정하고, 주종태 측에서 주식 30%를 갖고 이지룡을 부사장에 내세워 운영하였다.

대림측은 개관 3년 후 소유 주식을 현대건설 정주영에게 매도했다가 다시 인수한 후 남화홍업이 수입한 「부활」 개봉 당시 세금사건으로 대표가 물러나자 지덕영 사장을 선임하였다.

명보극장은 신상옥 감독의 「자매의 화원」으로 전속을 하면서 1960년 「로맨스 빠빠」로 안정세로 있으면서 1961년 「성춘향」의 흥행 대성공으로 「연산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빨간 마후라」,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 등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충무로 일대의 상권을 촉진시키는 촉매제(觸媒劑)가 되었다.

극장문화의 일보를 내딛게 된 명보는 1970년대 초 「마이 웨이」와 「빠빠용」으로 외국영화 상영의 개가를 올렸다가 1977년 8월 15일 영화배우 신영균이 인수하여 본격적인 개봉관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후 1978년 「속 별들의 고향」, 1979년 「내가 버린 남자」, 1980년 「미워도 다시한번 80」, 1984년 「깊고 푸른 밤」으로 한국영화의 위용을 떨치는 전당으로 충무로를 빛내게 했던 수훈 갑이기도 하다.

1987년에는 미국의 조지 루카스 감독이 개발한 티 에취 엑스(THX) 음향 체계를 도입하여 완전 입체음향 효과를 시도했으며, 35밀리·70밀리 필름을 겹해서 영사할 수 있는 대형 심플렉스 영사기를 도입했다.

현재는 ‘명보시네마’로 5개관을 운영하면서 충무로의 중심부에서 명보극장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 명보극장에서 잊지 못할 영화 「로맨스 빠빠」

1960년 명보극장에서 개봉된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를 1995년 ‘민속의 날’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온가족과 재미있게 감상하였다. 35년 전의 가족상황과 서울의 풍경을 지금 다시 화면에서 보는 맛이란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으나 영화의 내용면에서는 가정극(흙 드라마)으로서 오늘의 핵가족 시대에 크나큰 경종을 주는 흐뭇한 드라마라고 격찬하고 싶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가장 김승호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주부 역으로 주증녀

가 열연하고 있으며, 큰딸 최은희와 남궁원, 도금봉, 신성일, 엄앵란 등 2남 3녀의 식구들이 ‘보통사람’의 희노애락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인 주증녀가 ‘춘향전’으로 즐거리를 만들어 큰딸 최은희가 춘향으로 나오고, 사위인 김진규가 이도령으로 분하며 자신은 월매로 등장하여 서울로 떠나는 이몽룡을 다그치는 희화적인 묘사는 명절을 맞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 영화의 한 장면(1960년)
— 김승호·주증녀주연

이하여 참으로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가족영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상대에 다니는 사위 김진규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놓고 한바탕 춘극을 벌이는 장면이라든가 구두를 둘러싸고 형인 남궁원과 동생 신성일이 벌이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의 논쟁은 참으로 기발한 영화 묘미의 백미라고 일컬을 수 있다.

35년 전 영화를 보면 「로맨스 빠빠」속에서 우리 영화계를 빛냈던 많은 배우들이 타계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로맨스 빠빠’인 김승호는 1968년에 타계하였고, 주중녀를 비롯하여 주선태 그리고 시계방 주인인 남춘역과 보험회사 부장인 변기중 그리고 서월영 등이 바로 그들이다. 더군다나 김석훈, 최성호, 이빈화, 최삼, 김학, 김경란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로맨스 빠빠」의 중요한 배역을 맡아 더욱 이 영화를 기쁨지게 해주고 있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에 감원 바람이 불어 나이 많은 김승호는 실직을 당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그는 가족들에게 말조차 하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김승호의 연기는 그야말로 독일의 명배우 에밀 야닝스를 능가하는 연기이기도 하다. 월급날이 되자 시계방에 가서 애지중지하던 회중시계를 잡히고, 그 돈을 월급인 양 가장하여 내놓는 장면은 눈시울을 적신다. 아버지의 시계줄에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안 가족들은 아버지가 실직당한 것을 알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준다.

드디어 ‘로맨스 빠빠’인 김승호가 돌아오는 날 모든 가족은 따뜻이 환영해 준다. 바로 그 날이 생일날이었기 때문이다.

부부와 2남 3녀 그리고 사위인 김진규가 김승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해피버스 데이’ 노래를 합창하고, 사위가 장인에게 선물을 드린다. 온 가족의 선물을 뜯어보라는 성화에 김승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풀어보는 순간 감격에 벅차한다.

바로 그 속에는 시계방에 맡긴 회중시계가 있었던 것이다.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는 모처럼 가족이 다함께 보면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 감동의 영화였다고 할 수 있다.

(4) 대한극장



1958년에 개관한 대한극장

1956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형민의 추천으로 미국 20세기 폭스사가 설계, 감독하고 기자재까지 협조하여 만들어진 창이 없는 무창(無窓) 건물 제1호가 대한극장이었다. 대한극장은 외화수입회사인 세기상사의 국채남이 1956년 중구 북창동에 본점을 설치하고, 1958년 4월 18일 대한극장 개관과 함께 극장 4층

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수입과 흥행을 병행하는 극장업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최초로 한국영화를 상영한 것은 「눈물」이었으며, 그 후 「소낙비」, 「애련의 꽃송이」, 「백의 천사와 꾀추」, 「72호의 죄수」로 반응을 얻지 못하자 본격적인 외화전문관으로 변모하여 「캉캉」 「남태평양」 등 70밀리 대형영화를 상영하였다.

대한극장의 위세는 1962년 2월 1일 「벤허」 영화를 상영하여 장장 7개월간 장기 상영함으로써 서울의 인구가 250만 명일 때 7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어 ‘벤허극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벤허」는 35밀리 판으로 방계극장인 종로3가의 세기극장(현 서울극장)에서 3개월을 상영하면서 수입사인 세기상사는 돈방석에 앉는 흥행에 성공하였다.

「벤허」는 70밀리로 1972년과 1982년 그리고 1997년 등 4번이나 대한극장에서 10년 주기로 재상영(앵콜 로드쇼)하여 관객에게 인기를 얻었다.

대한극장은 1960년에 70밀리 시설을 도입하여 대형 화면 시대를 열면서 「왕중왕」, 「크레오파트라」, 「로마제국의 멸망」, 「사운드 오브 뮤직」,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도라, 도라, 도라」 등 우리나라에 수입된 70밀리 영화는 거의 상영하였다.

세기상사는 방화 제작부를 설치하여 「귀로」, 「별아 내 가슴에」, 「메밀꽃 필 무렵」과 1968년 구정(舊正)에는 김수용 감독의 「춘향」을 상영하여 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1985

년부터 1987년까지 3 년동안 관객동원 1 위를 표시하는 극장으로 개관 당시 2,224석을 자랑하는 좌석수를 보유하고있다가 2002년 복합극장으로 새단장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 70밀리의 영원한 감동 영화,「벤허」

한국 갤럽이 분야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962년 대한극장에서 상영된 「벤허」가 「반지의 제왕」(6.7%)과 「타이타닉」(6.2%)에 이어 3위인 5.3%를 마크하고 있어 40년을 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벤허」의 엄청난 종교적 감동도 있었지만 10년마다 재상영되어 그때마다 새로운 세대에게 「벤허」의 연면한 영화적인 감흥을 이어왔다. 오로지 70밀리로 볼 수 있는 ‘대한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벤허」는 과연 누가 어떻게 하여 쓰여졌는가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벤허」의 저자 L. 윌리스장군은 미국 남북전쟁 때 육군소장으로 활약한 전쟁영웅으로 그는 자신이 체험한 여러 가지 모험담을 쓸수 있었으며, 또 뉴 멕시코 주 지사로 있을 때 그 지방에서 판을 치고 있던 무법자 ‘빌리 데깃드’와 지내면서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고향인 인디애나주 크로휘즈빌의 평화스런 나무그늘에 앉아 보랏빛 잉크로 소설을 구상할 때 익숙한 고향 땅에서 수만리나 떨어져 있고, 수천 년이나 옛적이던 성지로 생각을 뻗치면서 소설에의 영감이 떠올랐다고 한다.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소연(騷然)한 시대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역사적인 시기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수천 년간을 택한 것이었다. 언제나 낙천적이었던 L. 윌리스장군이 1880년 이 소설을 발표할 때 「벤허」는 1 년에 고작



2002년에 재건축된 대한극장



1962년에 개봉한 「벤허」의 한 장면

100 불 정도의 인세(印稅)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의 생전에 어떤 소설도 추종할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인세를 안겨주었다.

무대화권(연극)에 백만 불을 받고, 그의 상속자들이 무성 영화화권에 대해서 또한 백만 불의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1905년 윌리스가 세상을 떠난 후 「벤허」는 흥행

사상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벤허」는 1924년 메트로사의 의해 제작되었으나 제작비가 계속 늘어나 4백만 불에 이르자 메트로사는 제작을 포기하고 골드윈사로 넘겼다. 그러나 골드윈사도 자력으로 지탱하지를 못해 마침내 1924년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3사가 합작하여 오늘날 그 유명한 엠지엠(MGM)사를 설립하여 「벤허」를 완성하였다. 1925년 12월에 상영하여 공전의 대 흥행을 기록하며 MGM사의 운세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56년, 텔레비전(TV)에 대항하기 위한 불황타개의 묘안으로 70밀리 대형 스크린의 장점을 이용한 사극붐으로 「벤허」가 선정되어 3시간 32분의 대작으로 완성하여 1959년 11월에 개봉, 지금까지 세계의 영화팬을 감동과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벤허」의 원작자 L. 윌리스의 동상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내 조각상 홀에 안치되어 있다.

「벤허」의 마지막 장면의 감동은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다. 「벤허」가 회오리바람 속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일으키는 순간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기적!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벤허의 가족들은 기쁨에 서로 부둥켜 안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힘에 다시금 무한한 외경심(畏敬心)을 표하며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고 영원한 기독교인으로 귀의를 다짐한다.

(5) 중앙극장(중앙시네마)



1966년의 중앙극장



현 중앙시네마

1934년 조선흥행주식회사가 신축, 경영하여 광복 전까지 건축청부업자인 일본인 오오이시가 재상영관으로 경영했다. 광복 후 김상진이 경영하다가 6.25전쟁을 거쳐 운영한 후 1956년 외화수입업자인 동양영화사 김인득 사장이 인수하여 명실공히 개봉관으로서의 관록을 유지해 나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전쟁과 평화」, 「들장미」, 「보리수」, 「피서지에서 생긴일」 등 우리들 가슴에 심금을 울려준 수많은 명작들이 ‘중앙’의 은막을 장식하였다.

중앙극장은 그 위치가 명동 입구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방화(邦畵)보다는 외화 관객으로 지난 날을 풍미(風靡)하였으며, 술한 명작을 상영하여 기성 관객은 물론 영화인에게 사랑을 받던 곳이었다. 그 후 김인득 사장이 외화수입과 함께 운영하다가 동생인 김인동이 극장을 인수하여 새롭게 경영일선에서 수완을 보였다.

그 동안 세 차례나 시대의 감각에 맞게 개수 또는 증축을 하였으며, 1982년 「레이더스」 상영과 함께 최신식 돌비(Dolby) 체계를 설비하여 문화인의 안식처로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영화로는 「내 똥까지 살아주」, 「마지막 찻잔」, 「그 사랑 한이 되어」, 「갯마을」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었고, 특히 1988년 「매춘」은 43만 명의 입장객을 동원하여 한국영화의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오랜 전통과 명화만을 상영한 중앙극장은 ‘중앙시네마’로 개명하여 21세기 극장문화를 구가하고 있다.

□ 박대통령과 「미드나잇 카우보이」

1969년에 제작된 존 슬레징거 감독의 「미드나잇 카우보이」가 우리나라에 개봉된 것은 1975년이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년 전 육영수 여사를 문세광의 흉탄에 잃고, 독신으로 살고 있을 때였다.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얼핏 제목으로는 총을 쏘며 인디언을 죽이는 신나는 서부영화 같은 미묘함을 풍기는 멋진 제목이었다.

‘카우보이’라는 제목으로 인하여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서부영화로 인식되어 청와대에 서 상영되는 영광의 영화가 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도 잠시, 서부영화가 아니라 문명비판의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를 관람하던 박정희대통령의 중도퇴장으로 여지없이 검열소동을 야기시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당시 중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박지만이 워낙 영화를 좋아했으므로 1975년 10월 10일부터 중앙극장에 상영하고 있는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신문광고를 보고, 문화담당 비서관에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모처럼 아들이 영화를 감상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은 영부인도 없고 하여 적적하던 차에 두 딸을 비롯하여 비서관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했다는 것이다.



미국 영화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한 장면

그러나 중앙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던 필름이 하나 뿐이어서 청와대에서는 극장에서 상영이 끝난 필름통을 하나하나 릴레이 형식으로 명동과 청와대를 오고가며 간발의 시간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카우보이 복장을 한 존 보이트의 모습만을 보고 신나는 서부영화로 알았던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1권과 2권을 보아도 총을 쏘며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텍사스의 빈민가를 떠난 존(John)은 목동 모습으로 뉴욕에 나타났다. 접시닻기를 하던 가난

한 텍사스 청년 존은 성(性)에는 절대적인 자신을 가진 사나이였다. 대도시에서 돈많은 여자와 침실을 같이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단신 뉴욕에 진출한 그는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였다. 랫소인 더스틴 호프만과 돈많은 여자를 섭렵하면서 고독과 우정이 뭔가를 보여주는 영화로서 미국의 문명을 뉴욕을 통해 예리하게 비판하여 아카데미상의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명작이기도 했다. 「카우보이」와 「11인의 카우보이」 등 ‘카우보이’가 들어가면 으레 서부영화인 줄 알고 짐작한 「미드나잇 카우보이」가 가족들과 함께 감상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도 거북하였다. 박대통령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지 30분쯤 되어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 영화상영은 중도에서 끝나고 말았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신나는 서부영화인 줄 알고 보았던 것이 쑥스럽기 짝이 없는 내용에 다가 진한 뒷골목의 풍경이 정서에 역행되어 ‘감상’은 여지없이 불쾌함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그 이튿날 문공부는 「미드나잇 카우보이」를 심의한 공연윤리위원회에 호된 질책을 가했으나 워낙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명작이란 설명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제목만 보고 ‘서부영화’로 오인한 담당 비서관의 과잉충성도 문제려니와 오죽 답답했으면 자녀들과 함께 보다가 중도에 나온 박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했음인지 영원한 충무로의 비화(秘話)로 명멸(明滅)하고 있다.

(6) 극동극장(아테네 극장)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외국에 못지않게 시청각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생극장이 1961년 11월에 개관하였다. <아테네 극장>은 충무로4가 대한극장 맞은편에 산뜻하고 아담한 3층 건물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첫발을 드러 내놓았을 때부터 그 참신한 모습이 매우 부드러운 감을 주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생을 위한 모든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불비함을 지적하고 오래 전부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던 중 대한교육회 제 15주년 기념행사와 아울러 세계교육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많은 고심과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아테네 극장>을 개관하게 된 것이다.

이 극장의 설계는 서울공과대학 교수 이광로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내부 시설에 있어서는 뉴미크니 영사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술 부문에 앞선 동양전파사가 총력을 집중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였고, 또한 이에 맞도록 정확한 입체음향 장치와 150 장의 엘피(L.P)레코 드판이 진열되어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음악공부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극장에서는 학생 지도부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교외생활 활동면에 지도적인 일을 하며,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영화를 주로 상영하되 지도위원회에서 다시금 검토할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전당인 당 극장을 사용하는데 기대가 컸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들을 위한 상설극장이 생겼다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는 오늘에 있어서 이미 오락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교육과학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필요불가결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뿐 아니라 영화는 하나의 예술로서도 다면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어떠한 분야보다도 국제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고 청소년 및 일반대중의 생활속으로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영화사업의 강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한교육연합회가 청소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테네극장을 운영하였다.

- 청소년 학생을 불건전한 오락영화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예술적인 향취가 높은 정서적인 영화와 학습의 연장으로서의 교육영화 현장으로서 구실을 한다.
- 청소년 학생으로 하여금 영화를 정당하게 감상하고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학부형에게 자녀를 동반 관람하도록 한다.
- 교육, 문화, 영화 <센터>의 기초를 닦는다.

이 극장은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지만 이에 수반하는 영화 수요가 되지 않아 1963년부터는 <극동극장>으로 개명하여 일반관객을 수용하면서 현재까지 ‘극동시네마’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정 종 화 〉

제 7 장

영화의 전성기, 충무로





영화의 전성기, 충무로

1. 충무로 영화사의 전성기

영화계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 많은 영화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530 개의 이르는 영화사를 더듬어 본다.

발성영화의 등장과 함께 영화사에도 많은 변혁과 체질개선이 대두되었고, 녹음에 따른 기술개발로 제작비는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였다. 따라서 영세한 개인 제작회사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고려영화사·조선중앙영화사·경성촬영소 같은 규모가 큰 제작사들이 군림하는 제작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1940년 12월 10일, 일본의 관제단체인 ‘조선영화제작자협회’가 결성되어 영



다방이 즐비했던 충무로 거리

회사들이 강제로 통합되었지만 약 2 년만에 ‘조선영화주식회사’라는 관제법인이 발족되면서 해산되고 말았다. 이 때 조선영화주식회사, 고려영화협회, 명보영화, 한양영화, 경성영화, 조선구귀영화사, 조선예흥사, 조선문화영화협회, 경성발성영화제작소, 동양토오키영화촬영소, 선만기록영화제작소가 산하에 있었다. 또한 이 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시녹음 영화인 최인규 감독의 「수업료」가 고려영화협회에서 제작되는 의욕을 보였다.

광복과 함께 미군정청 조선관계 보도부에서 「조선영화 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동 본부요원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영화제작을 위한 촬영특권을 부여한 후 비로소 영화행정의 규범이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남양영화사, 전창근 프로덕션, 이규환 프로덕션, 자유영화사, 태양영화사, 금성영화사, 김영순프로덕션, 김성민 프로덕션, 이철혁 프로덕션, 윤대용 프로덕션, 김보칠 프로덕션, 우주영화사 등이 제작을 하면서 1945년 5편, 1946년 4편, 1947년 13편, 1948년 22편, 1949년에 20 편을 만들었다.

이 때 김승호, 황해, 황정순, 최은희, 주중녀, 유계선, 최남현, 이향, 조미령 등의 배우가 첫 출연하여 은막을 장식함으로써 배우시대를 구가하는 분수령을 이루었다.

6.25전쟁과 함께 피난지인 부산과 대구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까지 청구영화사, 영남영화사, 계몽영화협회, 한일영화사, 신상옥 프로덕션에서 극영화를 제작하면서 전란의 포성 속에서 한국영화의 명맥을 이어왔다.

한국의 영화사들이 골격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제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가 창립된 1957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초대 회장인 정화세는 현대프로덕션의 대표로 신영균의 첫 출연작품, 「과부」를 제작한 장본인이다. 윤봉춘 프로덕션을 위시하여 신광영화사, 아세아영화사, 은성영화사, 미림영화사, 서라벌영화사, 백조영화사, 대양영화사, 반도영화사 등이 1 사 1 작으로 은막의 명암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한국영화계의 한 면을 장식한 세기상사가 「그 여자의 인생」으로 방화(邦畵) 제작을 하였고, 「순애보」를 제작한 한형모 프로덕션과 임화수의 한국연예도 이때에 창립하였다.

영화배우 최무룡이 조광영화사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청춘」을 제작하였고, 1953년 「악야」로 출발한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단짝이 서울영화사로 「무영탑」을 제작하여 후일 ‘신필름

왕국'이 태동하는 모체가 되었다.

광복 이후 연도별로 영화제작회사의 통계를 보면 1946년 6 개사, 1947년 10 개사, 1948년 15 개사, 1949년 15 개사, 1950년 1 개사 등으로 이어오다가 영화회사가 급격히 늘어난 때가 1959년 71 개사, 1960년 55 개사, 1961년 65 개사였는데 1962년도에 16개 회사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 후 1963년에는 등록기준의 대폭 강화로 21 개사에서 6 개사, 1967년에 다시 25 개사에서 12 개 영화사로 자진 통합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그 후 11 개사가 증가되어 1972년까지 영화제작 활동을 하다가 1973년 영화법 개정으로 인해 12 개사가 허가되었다.

합동영화, 동아흥행, 대영흥행, 우성사, 동아수출, 연방영화, 화천공사, 국제영화, 삼영필름, 한진흥업, 신프로덕션, 세경흥업이 있었으나 세경은 1974년 4월 촬영소 문제로 허가를 했으나 1975년 2월 문공부로부터 승소하였으며, 신프로덕션은 75년 11월 28일 스카라극장에서 「언제나 마음은 태양」을 상영하면서 학생동원을 하던 중 예고편 「장미와 들개」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허가를 취소 당하였다.

1974년 10월 1일 태창흥업, 우진필름, 남아진흥이 신규허가를 받아 영화사는 15 개사로 유지되어 오다가 1978년 9월 7일 신한, 대양, 동협, 한림, 화풍, 현진등 6 개사가 추가로 허가되어 영화법이 개정된 1985년 상반기까지 21 개사가 제작을 독점하여 왔다.

외화 수입사도 초기에는 1 사 1 작의 난립을 보였으나 워낙 관객의 팽배하는 인기로 크게 흥행이 되어 세기상사, 불이무역, 덕신공사, 동양물산, 수도, 한국예술, 공생사, 범한, 남화흥업, 극동, 칠양문화, 동아흥업 등 200여 개의 수입회사를 1962년 단위사로 통합하였다.

동아흥업은 남화, 불이무역은 아세아, 기상사는 단독회사, 아카데미영화는 [국제], [덕신], [삼정], [삼화], [신한], [장한], [중앙], [합동], 오스카영화는 [극동], [금성], [남성], 유니온영화는 [동성], [범한], [삼양], [삼한], [제일], 한국예술은 [대양], [송도] 등으로 결속시켰으나 2 년이 못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그 후 1966년부터 한국영화제작자에게 외화수입이 허용되자 많은 외화사는 한국영화 제작부를 두어 이른바 외화수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많은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난기류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외화업자들은 한국영화사와 결탁하여 전문적으로 쿼터(Quater)를 양도하여

음성으로 외화를 수입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그나마도 1973년 영화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외화전문업자들은 소멸되었다.

21 개의 영화사 중 1973년부터 흥행적으로 성공한 작품은 단연 화천공사를 선두 주자로 꼽을 수 있다. 화천공사는 「별들의 고향」을 위시하여 「겨울여자」, 「바보들의 행진」, 「병태와 영자」, 「어둠의 자식들」, 「만다라」를 제작했으며, 동아수출은 「적도의 꽃」, 「깊고 푸른 밤」과 「겨울나그네」를 제작하였다.

연방영화는 「고교알개」로 학생물의 선풍을 이룬 후 「애마부인」 연속물로 성(性 : sex)물의 산실이 되었다.

태창흥업은 「영자의 전성시대」와 「꽃순이를 아시나요」, 「야행」으로 맹위를 떨치다가 김태수 사장의 정계진출로 영화사를 흥행업자 이태원에게 넘겨 상호를 태흥영화로 개명한 후 「무릎과 무릎사이」, 「어우동」, 「뽕」, 「장군의 아들」, 「서편제」, 「태백산맥」, 「취화선」으로 흥행의 개가를 올렸다.

1964년에 설립한 합동영화는 1966년 「청춘극장」으로 흥행에 성공한 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종교영화의 경이적인 관객동원을 낳았고, 삼영필름의 이름으로 제작된 「고래사냥」은

기획자 황기성이 독립 제작하여 황기성 사단이란 묘한 영화사를 태동시키는 모태가 된 작품이다.

남아진흥의 「빙점」, 세경흥업의 「상처」와 「청춘의 덧」 한림의 「마지막 찻잔」, 「내가 버린 남자」, 「미워도 다시 한번」, 우진필름의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동아흥행의 「자유부인」 등의 영화가 한국영화 베스트 흥행 30에 올라 있기도 하다.

이렇듯 21개의 영화사에 고작 15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사가 7, 8개의 불과한 것은 얼마나 영화시장이 좁은가를 단적으로



충무로에 즐비한 술집 간판

입증하고 있으며, 그나마 금쪽같은 국산영화 상영 의무제(외화 쿼터)로 영화사를 꾸려 나간 것이 절반 정도의 회사였다.

영화가 감독의 작품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차피 감독의 손으로 ‘영화회사’가 운영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과 기업이 잘 조화되어야 성공하는 영화산업은 감독이 작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감독이 스스로 제작한 사례는 많다.

나운규 감독은 「아리랑」으로 인해서 나운규 프로덕션을 이어왔고, 신상옥 감독은 「성춘향」으로 신필림을 영화계의 총아로 군림시켜 온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초창기에서 1960년대까지는 많은 감독들이 자주 제작회사로 활약하면서 자신이 직접 제작에 관여하는 형태를 보였다.

김기영 프로덕션을 비롯해 한형모 감독, 이병일 감독, 이봉래 감독, 윤봉춘 감독, 전홍직 감독, 박구 감독, 권철휘 감독 등이 제작자로 활동하였으나 연출과 경영의 부조화로 거의 흥행에 실패하는 예를 낳았다.

연출과 기업의 쌍두마차를 물고, 나름대로의 규모를 가지고 완전한 제작자로 성공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정진우 감독의 우진필름, 정창화 감독의 황풍흥업, 정소영 감독의 한림영화, 김효천 감독의 동협상사, 한상훈 감독의 대양필름 등이었다. 배우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감독으로 활동한 예로는 「절레꽃」을 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김을백이 있다. 그는 빚을 만회키 위해 「늑대는 시체」를 재차 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자살로 끝난 비운 만을 남겼다.

「춘향전」의 이도령으로 1955년 이후 최고의 인기스타로 부상한 이민은 「꿈이어 다시한 번」을 제작하였으나 실패하여 자신의 몰락을 자초하였다. 주중녀도 「꽃도 생명이 있다면」을 제작했고, 코미디언 양석천은 「청춘1번지」, 윤왕국은 「나그네」, 영화계에서 의리있는 사나이들로 불리어졌던 장동휘·황해·허장강 등 3인이 동인영화사를 1966년에 차려 한국판 웨스턴 「송화강의 3악당」을 비롯해서 「악명높은 사나이」, 「맹호작전」을 만들었고, 독고성은 「뜨거운 안녕」, 김승호는 「돌무지」로 인해 숨진 경우가 되었다.

신영균과 김희갑의 합작 「저것이 서울의 하늘이다」, 신성일의 「연애교실」, 박노식의 「인간



충무로 지역 지도(1960년)

사표를 써라», 최성호의 「님은 가고 노래만 남아 », 강숙희의 「세조대왕», 김진규는 「종자돈」으로 가까스로 제작비를 건졌으나 「성웅 이순신」의 실패로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최무룡도 감독 주연으로 「피어린 구월산」을 제작해서 그 자신이 피를 흘리다가 반공영화 「제3지대」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하여 10여편의 영화를 제작

하였다.

한결같이 예술적으로나 흥행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없어 거의가 빚더미에 앉은 이들은 종합 예술의 본질을 모르고 “연기면 전부다!”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한 단막극을 보여 주었다.

개정된 영화법과 1986년도에 발표된 영화시책과 더불어 많은 영화사들이 외화등록은 물론 극영화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1986년에 외화등록사는 52 개사, 극영화 등록 영화사는 기존 30 개사와 함께 52 개사가 신청을 했다.

기획자 황기성의 황기성 사단이 제 1호로 등록한 뒤 「어미」, 「고래사냥2」를 상영하였고, 변장호 감독의 대중필름, 강대선 감독의 양전홍업, 문여송 감독의 키네마서울, 이두용 감독의 두성영화, 설태호 감독의 장안필름, 하명중 감독의 하명중 영화제작소가 등록하였다. 연기자로 는 김지미의 지미필름, 노진아의 지나필름, 최무룡의 초이스가 방화제작사로 등록하였다. 극 장으로는 신영균의 명보, 대한극장의 [새한진흥], 코리아극장의 [샘터영화], [단성사], [국도], [스카라], [피카디리] 등 개봉극장 대부분이 수입회사를 거느린 극장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영화사의 제 1호는 1973년 2월 영화법 개정때 3월 31일자로 등록한 광정환의 [합동영화사] 이다. 광정환은 1961년 육군소령으로 제대한 뒤 1964년 [합동]을 창립하여 정상으로 성장시켰으며, 부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흥행 체인(chain)을 지니고 있다. [연방]은 창설자 주동진에서 최춘지로 변경되면서 A급 영화사로 성장하였고, [국제홍업]은 황영실 사장이 1978년에 사망하여 부인 유옥추가 대표가 되었으며, 김기영 감독의 [신한문

예]는 정도환이 인수하여 [신한영화]로 상호를 변경하기도 했고, 한상훈 감독의 [대양]은 경영난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박종구가 대표로 교체되는 양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허가제의 사슬에서 해방된 영화의 자유화로 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2. 「미워도 다시 한번」과 「결혼교실」

정소영 감독이 만든 1968년의 「미워도 다시 한번」은 서울의 국도극장에서만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1961년 「성춘향」이 지닌 361,973명을 능가하는 정확한 관객은 362,503명으로 통속극의 선풍적인 흥행 신화를 낳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미혼모의 기구한 운명을 그렸다. 사업가인 강신호(신영균)는 본처인 윤여사(전계현)를 두고, 젊은 여성 전해영(문희) 아가씨와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다. 시골에 처자를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 하숙생활을 하며, 10여 년동안 갖은 고생을 한 신호는 사업가로 성공했으나 유치원 교사였던 혜영과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다. 혜영은 신호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결심하지만 그 같은 생각은 어느 날 신호의 부인과 아들이 상경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다. 혜영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간다. 신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혜영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

시골 어촌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혜영은 아들(김정훈)의 장래를 위해 8 년동안 키운 자식을 신호에게 보낸다. 그러나 아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낸다. 신호는 아들을 감싸주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혜영은 가난하지만 자기가 키우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신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과 함께 다시 시골로 돌아온다.

「미워도 다시 한번」의 기본적인 구성은 비극이지만 이 영화는 흔히 통속극의 슬픈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적인 구성을 갖더라도 결과는 행복하게 끝나는 신파조여서 당시의 사회상과 많은 공감대를 얻어 수많은 여성 관객을 사로잡았다.



정소영 감독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의 한 장면(1968년)

정소영 감독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내놓은 후 1969년 2편, 1970년 3편, 그리고 1971년 완결편 격인 4편을 내놓아 도합 1백만 명의 흥행기록을 세우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 영화는 문희의 청순 가련한 영상이 관객들의 동정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본의 구성이 탄탄하며 연출의 설득력이 강해 통속극의 전형적인 삼

각관계를 설정한 모범적인 실례로 영원히 남고 있다.

이 영화의 큰 흥행 성공으로 통속극의 수많은 작품이 나왔다. 「사랑아 다시 한번」, 「미움보다 정을」, 「저 눈발에 사슴이」, 「과도」, 「마지막 편지」, 「다시 만날 때까지」, 「흐느끼는 백조」, 「목메어 불러봐도」, 「사랑이 미워질 때」 등이 제작되었으나 「미워도 다시 한번」의 흥행벽을 뚫지는 못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 수많은 여성들이나 가정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요인은 당시 사회적인 윤리에서 볼 때 비슷한 현실의 심리적인 공감대가 크게 대리 충족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소영 감독은 1967년 「내 뒤통까지 살아주」라는 영화로 감독을 한 후 「미워도 다시 한번」의 인기와 함께 「눈물을 감추고」, 「아빠와 함께 춤을」, 「이 생명 다시 한번」, 「이 밤이여 영원히」, 「나는 고백한다」, 「마지막 겨울」, 「내가 버린 여자」, 「내가 버린 남자」 등 30 편의 작품을 내놓았다.

1965년 이만희 감독의 「흑맥」으로 첫 출연한 문희의 탄생과 함께 1966년 김수용 감독의 「유정」과 1967년 김대진 감독의 「청춘극장」으로 합세한 이른바 3두마차 여배우의 등장은 그야말로 한국영화의 금광 열기(골드 러쉬)를 방불케 하는 황금시대를 구가하였다.

문희는 1966년 정진우 감독의 「초우」로 일약 인기배우 대열에 오른 후, 「법창을 올린 옥이」, 「위험한 청춘」, 「막차로 온 손님들」, 「한」, 「이조잔영」, 「타인들」, 「나무들 비탈에 서다」,

「윤심덕」, 「지금 그 사람은」, 「모르는 여인의 편지」, 「미워도 다시 한번」, 「2층집 새댁」, 「소라 부인」 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다.

남정임도 「유정」의 인기와 함께 「학사와 기생」을 시발점으로 「아무도 모르게」, 「여대생 사장」, 「어느 여배우의 고백」, 「요화 장희빈」, 「원점」, 「상감마마 미워요」, 「춘원 이광수」, 「분녀」, 「봄봄」, 「내 생애 단 한번만」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였다.

3두마차 배우의 막차를 탄 윤정희는 1967년 두 번째 작품인 「강명화」의 대 흥행과 함께 「밤은 무서워」, 「짜리굴의 신화」, 「찬란한 슬픔」, 「육체의 길」, 「순애보」, 「감자」, 「황혼의 부르스」, 「갯돌이와 갯순이」, 「내시」, 「절벽」, 「독수공방」, 「아빠안녕」, 「맨발의 영광」, 「장군의 수염」, 「포옹」, 「장한몽」, 「독짓는 늙은이」, 「명동나그네」 등에서 종횡 무진 활약했다.

윤정희+문희, 문희+남정임, 남정임+윤정희 같은 영화 속의 공연은 있었지만 3명의 여배우가 공연한 작품이 없어 3두마차 배우가 함께 나오는 영화는 그야말로 ‘꿈의 황금배역’으로 영화계의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1969년 우리나라 영화가 229편이 제작되어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였다. 이 당시 정인엽 감독의 「결혼교실」이 기획되어 영화계의 비상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3두마차 여배우의 육일승천(旭日昇天)하는 인기와 함께 「갯마을」의 고은아까지 합세한 한국영화계는 기존의 김지미와 엄앵란을 축으로 문정숙, 최지희, 태현실, 전계현, 도금봉, 김혜정 등 가히 여성천하의 치맛바람이 은막을 강타하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지방흥행사들이 고압적인 주문에다가 3 명의 여배우를 집결시켜 공연케 된다면 보통 제작비의 3 배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시로 「결혼교실」의 제작진행은 급진적으로 진척되었다.



정인엽 감독의 「결혼교실」 영화 포스터(1970년)
— 남정임 · 윤정희 · 문희 주연

재기가 넘치는 정인엽 감독은 영화 대본 작가인 이중헌에게, 남정임에게 보여줄 대본은 남정임이 윤정희와 문희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대본을 쓰게 했고, 윤정희와 문희에게도 이런 식으로 3 권의 대본을 별도로 만들어 매니저(Manager)에게 책을 전달시켜 출연을 교섭했다.

3 명의 여배우들은 경쟁 의식이 강하였지만 대본을 각각 읽어보고는 모두가 상대방 두 명을 누르는 역이어서 흔쾌히 출연을 승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자배우로는 당시 천정부지(天井不知)의 인기를 끌고 있는 신성일이었고, 부인인 엄앵란까지 특별출연하여 「결혼교실」은 ‘꿈의 영화’라는 찬란한 홍보와 함께 언론계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정인엽 감독은 3 명의 여배우를 단합시키기 위해 신성일을 합세하여 공격한다는 단합대회 장면을 촬영의 첫날로 잡았다. 책상의 배치도 제일 나이가 어린 문희를 가운데에 앉히게 하고 맥주잔으로 ‘부라보’를 외치는 장면이었다.

촬영 일정도 일체 비밀로 하여 3 명의 여배우가 출연하는 장소는 거짓으로 모모 장소에서 찍는다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위낙 이들의 인기가 팽팽하여 3 명의 여배우를 보려고 온 구경꾼으로 인해 촬영 진행의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인엽 감독과 이석기 촬영기사의 결합은 일사불란하여 어렵지 않게 촬영을 끝내었지만 광고 원고 홍보 문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즉 3 명의 여배우의 이름 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였다. 가 나 다순과 첫 출연년도, 그리고 나이순 등 각종 제안이 속출하는 가운데 포스터와 신문광고 및 극장 간판은 ‘가 나 다’ 순으로 결정되어 대망의 극장 개봉이 1970년대 봄에 국도극장에서 화려한 서막(광파르)을 올리게 되었다.

그 화려했던 1960년대의 3두마차 여배우 중 남정임은 1989년 6월 유방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2년 9월 2일 서울대병원에서 4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의 별이 되고 말았다. 1971년 1월 남정임의 결혼으로 3두마차 배우의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0월에 문희가 두 번째로 결혼하였고, 1975년 윤정희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하여 파리로 갔다.

한국영화의 빛나는 전성시대를 구가한 3두마차 여배우의 신화는 다시금 제 2의 3두마차 여배우와 제 3의 3두마차 배우로 이어지는 은막의 대행진을 이어가는 성좌(星座)를 남겼다.

3. 서민의 우상, 김승호의 연기세계



서민의 우상 김승호

서민의 대명사로 불리운 우리 영화계의 보물인 김승호는 1917년 7월 13일 강원도 철원에 서 태어나 일찍이 서울의 청진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의 본명은 김해수로 부모가 대흥여관을 경영하게 되어 인근 수송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왈패 기질을 보인 그는 보성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연극에 소질을 보여 본격적인 연극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집에서의 백화점왕이 되라는 권고로, 졸업과 함께 화신상회에 취직을 하였지만 연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화신상회를 그만 두기에 이르고, 서대문에 있는 동양극장을 찾아가 박진을 만나 청춘좌에 입단하게 되었다.

연출부장으로 있던 박진은 마침 준비하고 있던 연극 「임자없는 자식」에 그를 첫 출연시켜 주기에 이르고, 극단 청춘좌에서 연극으로 크게 성공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로 1939년 처음으로 은막에 등장하였다.

7년간 동양극장의 청춘좌에서 연기생활을 한 그는 8.15광복을 맞아 박호성, 변기중 선배와 함께 자유극장이란 단체를 만들어 연기부장을 지내며 해방된 조국의 기쁨을 무대에서 불살랐다.

이듬해인 1946년에는 서월영, 유계선, 정애란 등과 함께 극단 「청탑」을 창단하여 「아들의 심판」과 「백진주와 전원교향악」을 무대에 올렸고, 계속하여 극단 대지와 전진을 창단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호 주연의 「육체의 길」 영화 한 장면(1958년)

1946년 「자유만세」와 1948년 「밤의 태양」에 단역으로 출연 하다가 6.25전쟁 시에는 종군작가단의 일을 보면서 연기에의 기회를 찾던 그는 휴전후 「배협」의 무대에 섰다.

김승호의 본격적인 영화계 등장은 1955년 김기영 감독의 「양산도」에서 시작된다. 「양산도」로 은막에 자신감을 얻

은 그는 39세의 나이로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집가는 날」은 제4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특별회곡상을 기록하였다. 그의 연기력은 불혹의 나이와 더불어 개화되어 「돈」, 「아리랑」, 「낙엽」, 「인생차압」, 「자유결혼」, 「대원군과 민비」, 「어머니의 힘」, 「아들의 심판」 등 무수한 작품으로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정상 배우가 되었다.

1960년 명보극장에서 상영한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는 마치 김승호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싶도록 기억에 남는 명연기를 보였다. 조궁하 감독의 「육체의 길」은 1959년과 1967년 두 번에 걸쳐 제작된 영화로, 두 편 모두 김승호가 시골 은행의 중년 김상도를 분하여 평생의 열연을 펼쳐 보였다. 이 「육체의 길」에서는 김상도가 여자 소매치기 메리(김지미 분)의 유혹으로 인생유전(人生流轉)이 뒤바뀌게 되며, 어느 눈 내리는 밤 단란한 생활을 꾸렸던 집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연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기도 하다.

1960년대 초를 수놓은 「박서방」과 「마부」는 모두 강대진 감독이 만들었는데 「마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박서방」은 제8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타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박서방」에서 그는 연탄 아궁이를 수리하는 날품팔이를 해가며, 박서방을 닮아 착하고 순한 큰딸과 이와는 반대로 말쑥꾼인 아들을 둔 두 남매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으로 사는 보통사람이었다.

「마부」에서는 짐수레를 끄는 역으로 할아버지의 몸으로 3남매를 먹여 살리는 잡초와도 같은 중늙은이로 나온다. 여기서 큰아들이 고등고시에 합격이 되고, 자신은 이웃집 가정부와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하게 끝나는 서민의 등불이 되었다.

김승호는 김진규, 최무룡, 신영균 등과 함께 1960년대 초의 최고의 배우로, 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곰」을 비롯하여 「고바우」, 「해 떨어지기 전에」, 「잔발잔」, 「어부들」, 「아버지」, 「노다지」, 「양귀비」, 「인력거」, 「3등과장」, 「나그네」, 「서울의 지붕밑」, 「감나무골의 공서방」등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작품에 출연, 연기 파노라마(panorama)를 펼쳐 준 그는 김수용 감독의 「굴비」에서 양주를 마시는 모습이라든가 「혈맥」에서 황정순과 시비가 붙어 3분이 넘는 삼복 더위의 난투극 연기 등 그가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연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워낙 달인(?)의 경지에 이른 그의 연기는 1963년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그레이」와 1967년 김강운 감독의 「역마」로 아시아 영화제 남우주연상 4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남기도 했다.

「월급봉투」에서는 처절한 노교사 역의 연민을 보였고, 「만선」에서는 곰치로 나와 어부의 생애를 열연하는 등 「계약결혼」, 「제3의운명」, 「부산댁」, 「망향」, 「요화 배정자」, 「니가 잘나 일색이나」 등 3백여 편의 영화를 통해 그는 갖가지 인생 만화경을 보였다.

1967년 반공영화인 「돌무지」를 시작으로 영화제작에도 열정을 보여 3편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모두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고혈압이 생긴 그는 1968년 12월 1일 52세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세상과 등지고 말았다.

「춘향」과 「장군의 수염」을 마지막 작품으로 장식한 서민의 우상 김승호는 “스크린에 자기를 창조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1967년 연기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 한양대학교 영화과에 입학한 만학도로 늘 소박하고 친절한 학생이었다.

“배우가 되기 전에 인간 공부를 먼저 하라”고 말하기도 한 그의 아들은 다름 아닌 김희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버지 못지않는



김승호 영결식장(1968년)

왕성한 연기활동을 펼쳐보여 부전자전(父傳子傳)의 가업을 잇기도 했다.

4. 고도성장의 1970년대 충무로의 물결

1970년대는 우리 영화가 1960년대의 황금기를 지나 텔레비전(TV)과 여가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불황의 먹구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했던 시기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의 3두마차 여배우로 명성을 떨치던 「흑맥」의 문희와 「유정」의 남정임이 결혼한 후 은퇴를 했으며, 윤정희마저 재불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함으로써 3두마차 체제의 여배우는 완전히 은막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영화배우를 동경하던 많은 관객들도 자연 우리 영화를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영화 포스터(1974년)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성장한 소비향락 문화의 주인공들인 술집 여종업원과 창녀를 다룬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1대 3두마차 여배우의 몰락과 함께 인기 배우 없는 1970년대 초반의 영화계를 지나 첫 포문을 연 것이 1974년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이었다. 최인호의 인기소설을 영화화한 「별들의 고향」은 그 동안 아역으로 성장한 무명의 안인숙을 일약 대 배우로 각광을 받게 했음은 물론, 46만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주인공 ‘경아’는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서 고생하던 많은 직업여성(직장여성과 구별되는 유흥가의 접대부)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후 많은 이런 류의 영화가 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경아’가 술집 여종업원이었다면 ‘영자’는 밑바닥 사회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사는 몸을 파는 기구한 창녀였다. 1975년 국도극장에서 상영된 「영자의 전성시대」는 김호선 감독의 사실상의 첫 출연작으로 36만 명이란 당시로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다. 독특한 사실주의 접근

의 서민영화로 ‘영자’ 역은 염복순이 주역을 맡았으며, 때 밀이 ‘창수’ 역은 송재호가 맡았다. 이 영화는 1982년 정희를 주연으로 「속 영자의 전성시대」와 1987년 선우일란을 주연으로 한 「87 영자의 전성시대」로 재 제작되었다.

또한 1970년대 한국 영화계는 최인호 소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1975년의 「바보들의 행진」은 암울했던 유신(維新)시절에 젊은이들의 상징인 통키타와 생맥주를 등장시켜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 풍속도를 경쾌하게 그려내 「화분」과 「수절」로 고전하던 하길종 감독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최인호 원작,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영화 포스터(1975년)

「바보들의 행진」에 이은 「병태와 영자」가 청년문화를 다룬 영화라면 1975년 김웅천 감독이 연출한 「여고 졸업반」은 10대 문화의 기수인 셈이다. 김인순의 영화 주제가와 함께 고교생(특히 여고생)에게 인기를 끈 이 영화는 본격적인 10대 영화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1976년에는 문여송 감독이 연출한 이덕화와 임예진 콤비의 「진짜 진짜 잊지마」가 고교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진짜 진짜 미안해」와 「진짜 진짜 좋아해」 등 연속적으로 아류(亞流)를 내놓아 10대 영화의 독보적인 감독으로 군림했다. 일명 그때 그사람(?)들이 당시 10대 영화의 배우 임예진은 <짝>이라는 텔레비전 극에 출연 하였으며, 「진짜 진짜 좋아해」 주제를 부른 혜은이는 지금까지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1977년에는 석래명 감독이 조흔과 원작을 1970년대식으로 변형시킨 「고교얏개」를 내놓아 10대 영화로는 경이적인 기록인 26만 명을 극도극장에서 동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고교 꺼꾸리군 장다리군」, 「얏개 행진곡」, 「여고얏개」 등 네 편을 연속해 내놓은 인기감독이 되었다. 김정훈, 이승현, 강주희가 단골 배우였고, 진유영, 김보연이 이에 가세했다.

1978년에는 ‘10대 영화감독 삼총사’로 군림한 김웅천, 문여송, 석래명이 함께 「우리들의 고교시대」라는 옴니버스(Omnibus) 영화를 공동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때는 ‘고교’란 말이 지금의 ‘신세대’ 이상으로 유행어가 되어서 「고교 깡돌이」, 「고교 명랑교실」, 「고교 우량아」, 「고교 유단자」 등 ‘고교’라는 말을 안쓰면 촌스러울 정도로 일종의 ‘고교 증후군(症候群)’이었다.



「대중상(大鍾賞)」 수상작

제1세대 3두마차 여배우 시대가 막을 내리자 1970년대 초반 영화계는 「토지」의 김지미를 빼고는 그야말로 무풍지대의 판도였다. 그러던 차에 제1세대 3두마차들이 공백을 채우기라도 하듯 제2세대 3두마차 체제를 구성하려는 전초전으로 1974년 유지인이 「그대의 찬 손」으로 첫 출연했다. 그녀는 「공

포의 이중인간», 「광화사», 「오빠가 있다」 등 통속극에 출연했다가 1978년 「26×365=0」이라는 묘한 제목의 영화에서 술집 여종업원으로 나와 남성들로 부터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장미희는 1976년 연예기자들이 뽑은 배우로 뽑혀 「성춘향전」에서 이덕화와 공연을 했다. 그녀는 관객 58만 명을 동원한 김호선 감독의 「겨울여자」의 ‘이화’ 역을 맡아 일약 은막의 신데렐라 공주가 되었고, 「속 별들의 고향」과 「불새», 「갯마을」 등에 출연했다.

정윤희는 1975년 「옥망」으로 첫 출연하여 「청춘극장」으로 언론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1978년 정인엽 감독의 「꽃순이를 아시나요」로 인기배우 가도를 질주하면서 「가을비 우산 속에»,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연기를 확인시켜 준 후 「빠꾸기는 밤에 우는가」로 토속적인 연기를 보여 주어 각광을 받았다.

<겨울여자>의 장미희, 「꽃순이를 아시나요」의 정윤희, 「26×365=0」의 유지인, 이들 인기 여배우의 편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었던 당시에 3두마차 시대 구축과 더불어 출연료가 500만 원으로 쟁쟁 뛰게 되는데 이 금액은 당시 방송 1년 수입과 맞먹는 고액의 출연료였다. 요즘의 3~5억원대를 호가하는 출연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많은 제작자와 감독들이 장미희, 정윤희, 유지인을 묶어 한 작품에 공연시켜 보려했으나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 영화대본 작가 출신의 작가인 김원두가 감독으로 등장하면서 <미스김, 미스리, 미스박>이란 묘한 제목으로 2대 3두마차 여배우를 1대 3두마차가 공연한 「결혼교실」처럼 공연시키려고 했으나 꿈이 무산되어 결국 「고래섬 소동」으로 제목을 바꾸어 장미희와 유지인을 쓰고 정윤희 대신 이영옥을 출연시켜 만들었다.

장미희와 정윤희, 정윤희와 유지인, 유지인과 장미희 등이 같이 출연한 적은 있었으나 3인의 공동출연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겨진 채 이들 3두마차도 가는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어 1980년대에는 이보희, 원미경, 이미숙이란 새로운 3대 3두마차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보여 주었다.

1970년대 대중문화는 통기타와 청바지, 생맥주, 장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은 유신체제에 억눌려 있던 반항적인 청년문화를 처음으로 영상화한 영화였다. 이전까지는 술집 여종업원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뤄왔던 우리 영화사에서 이 영화는 최초로 대학생과 그들의 문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이후 대학생 영화 붐(boom)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길중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1970년대를 익살스럽게 그려 내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런 감독의 의중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장발 경찰과 장발 대학생의 쫓고 쫓기는 장면이었다. 처음에 하 감독이 경찰관 한 명이 필요하다고 해 전형적인 경찰관으로 분장한 임시 고용 출연자(엑스트라)가 현장에 나타났다. 그를 본 감독은 고개를 흔들며 머리 긴 사람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배우들과 보조원들 모두가 아연해졌다.

이 극심한 장발 단속의 시대에 머리 긴 경찰관이라니,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다시 섭외된 경찰관역의 배우가 뚱뚱한 몸집에 장발의 희극배우인 이철이었다. 하 감독은 그의 출현에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그렇게 해서 촬영된 장면이 ‘뭘 묻은 개가 뭘 묻는 개 나무라는’ 식의 희극이었다.

한번은 하 감독의 실종으로 촬영장에 난리가 벌어진 일도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촬영하자니 감독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종종 일어났는데 바로 임시 고용 출연자 동원 때문이었다. 200명의 대학생이 필요한 장면을 위해 ‘엑스트라 조합’에서 인원이 동원되었다.

장소는 경희대학교였다. 아침에 촬영장에 나가보니 동원된 임시 고용 출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이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촬영에 들어가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현장에 나타난 하 감독은 임시 고용 출연자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다. 오후가 되어도 그는 종내 감감 무소식이었다.

결국 감독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영화사 사장까지 현장에 나와 감독을 찾느라 난리를 피

왔다. 그날 촬영은 구멍이 났다. 200명이나 동원된 임시 고용 출연자들에게 식대와 차비를 지급하고 돌려보내야 했다. 나중에 하 감독에게 들은 얘기로는 임시 고용 출연자들이 도저히 대학생 같지 않아 난감한 마음에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결국 며칠 뒤에 출연배우들의 대학생 친구들을 대거 동원해 임시 고용 출연자들과 섞은 후 촬영을 마쳤다.

1970년대 세계는 인간의 달 정복, 월남전, 중동사태, 워터게이트 사건, 미·중공밀월시대, 이란의 반미 시위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몸짓을 보였으며, 국내적으로도 텔레비전 등 여가산업의 발달, 산업화에 따른 예술의 상품과 시대 등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한국영화는 1960년대의 황금기를 지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황이라는 먹구름에 휩싸여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했다. 기이하게도 한국의 경제적 신장에 반비례하여 영화산업은 점점 파산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밀어닥친 불황의 파고(波高)를 감당하지 못한 영화 현실에서 주무 당국이 취한 조치는 1973년 초에 제정한 ‘영화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그때까지 난립했던 영화제작자들은 적은 수로 줄이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면서 영화자본 독점화를 피하여 외화수입권을 신규 영화사에 보상하는 제도로 바꾸었고, 영화전반에 걸친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제작가들은 문화적인 창달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식보다는 목전에 떨어진 호박을 덩굴째 거두겠다는 욕심만 앞서, 한국영화의 제작은 국산영화상영 의무제(외화쿼터)를 배정받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연간의 물량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양의 팽창시대’와 ‘질의 빈곤시대’라는 나쁜 결과만 초래했다.

이에 당국은 당시 [영화법에 따른 시행령]을 바꾸어 우수영화작품에 대한 외화쿼터 보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그때마다 심사 과정에 따른 잡음이 끊임없이 없었다.

1970년대 상반기의 작품 경향은 ‘저질’이라는 딱지가 앞에 붙은 신파 통속극과 희극, 활극 거기다가 위장 합작영화까지 등장하여 일대 난장판을 이루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성구 감독의 70밀리 영화 「춘향전」(1971년), 유현목감독의 「분례기」(1971년), 황혜미 감독의 「첫 경험」(1970년), 김기영 감독의 「화녀」(1971년), 신상옥 감독의 「전쟁과 인간」, 김기영 감독

의 「충녀」, 이신명 감독의 「밀녀」,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 정진우 감독의 「석화춘」, 이원세 감독의 「너와 나」, 변장호 감독의 「홍살문」, 임권택 감독의 「증언」, 변장호 감독의 「비련의 병 어리 삼룡이」, 홍파 감독의 「몸 전체로 사랑을」, 신상옥 감독의 「이별」, 하길중 감독의 「수절」, 임권택 감독의 「잡초」, 이원세 감독의 「특별수사본부 배태옥 사건」, 김수용 감독의 「토지」,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김기영 감독의 「파계」, 변장호 감독의 「망나니」, 신상옥 감독의 「13세소년」, 김기덕 감독의 「꽃상여」, 이만희 감독의 「들국화는 피었는데」, 조문진 감독의 「황홀」, 이장호 감독의 「어제 내린 비」, 이경태 감독의 「동거인」,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 이만희 감독의 「삼포가는 길」, 유현목 감독의 「불꽃」, 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김기영 감독의 「육체의 약속」 등 36 편은 그 나름의 수준과 작품 성향을 뚜렷이 갖춘 1970년대 상반기의 수확물들이었다.

이들 작품 중 분야별로 특색을 보인 작품들을 가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통속극이다. 통속극하면 이미 1960년대를 통털어 가장 획기적인 흥행기록을 세운 정소영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번」을 들 수 있다. 연속물 중 3편이 1970년에 개봉, 그해 최고의 관객동원 기록을 세웠다. 이와같은 「미워도 다시 한번」 증후군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그 당시 텔레비전의 숫자가 보급단계였고, 텔레비전 극의 정착이 덜된 시기였기 때문에 텔레비전 출신의 통속극 감독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크게 호소했던 것과 다른 한가지는 1960년말의 사회현상이 이른바 정치 부재의 경직된 방향으로 치달게 되자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 방법으로서 신파조의 통속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70년에 들어서서 밀어닥친 사상 최대의 불황기를 맞이하여 1974년 개봉된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이 46만 4,000명으로 그 당시 한국영화 사상 최대의 관객동원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즉 정소영의 1960년대식 통속극인 「미워도 다시 한번」이 이장호의 1970년대식 통속극인 「별들의 고향」과 어떤 차이점을 드러냈으며,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었나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 되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1972년에 선포된 유신체제로 인해 더욱 경직 일로를 치달았다. 관객의 연령층은 「미워도 다시 한번」 때 주축을 이루었던 30대, 40대의

중년 부인층이 모두 안방극장에 안착했고, 20대를 전후한 신세대와 일부 30, 40대의 관객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따라서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은 한국영화 자체를 젊게 만들었으며, 1970년대식 사회상의 축도인 청춘 풍속도를 감각적인 영상과 호소력 있는 음악효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별들의 고향」의 흥행 성공 이후 1970년대가 술집 여종업원물의 전성시대임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은 구실을 했다. 그것은 1970년대 상반기에 나온 변장호 감독의 「눈물의 웨딩드레스」 연속물(시리즈), 김응천 감독의 「미스양의 모험」, 정인엽 감독의 「꽃순이를 아시나요」, 노세한 감독의 「26×365=0」 연속물 등이 있다. 영화가 불황에 접어들고 소재의 제한이 더한층 가열되자 이처럼 돌파구를 찾아 술집 여종업원물이 대거 등장했다.

이런 부류의 영화가 일종의 통신 역할(메시지)을 하여 ‘인간회복’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은 김호선의 「영자의 전성시대」부터다. 김호선은 잇달아 「여자들만 사는 거리」를 만들어 창녀들이 겪는 비인간화와 이에 따른 인간선언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경향의 영화는 이후 이원세가 「철새들의 축제」를 연출, 기지촌 창녀들이 겪는 애환을 필름에 담았다.

그러나 이때 영화들은 대부분 통속극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완성도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장호의 「어둠의 자식들」이 내세운 통신 역할은 「별들의 고향」에서의 감상에서 벗어나 ‘인간회복’이라는 문제에 접근해 있었다.

임권택 감독의 「티켓」(1986년) 역시 1970년대식 야화들의 이야기에서 1980년대식 삶의 영화들의 이야기를 옮겨왔다고 할 수 있다. 통속극 부문에서 특기할 만한 작품이 바로 임권택의 「잡초」였다. 김지미 주연의 「잡초」야 말로 임권택 감독의 작품경향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온 의미있는 작품이었다.

다음으로 두드러진 분야는 문학작품을 영화화한 이른바 문예물 영화들이었다. 유현목의 「분례기」 최하원의 「무녀도」 정진우의 「석화촌」 하길중의 「화분」 김수용의 「토지」 유현목의 「불꽃」 변장호의 「비련의 병어리 삼룡이」 이만희의 「삼포가는 길」이 특유한 서정의 세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원형을 헤집는 로드 무비(road movie)로 완성도를 높였다.

김기영의 「화녀」와 「충녀」는 종교적 요소가 짙은 이색 신비로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아동물로는 정진우의 「섬개구리 만세」가, 반공·수사물로는 이원세의 「특별수사본부 배태

옥 사건」이 주목을 끌었다.

시대물로는 이성구의 「춘향전」, 변장호의 「홍살문」, 「망나니」가 있었지만 이들 영화들은 한결같이 전통사극 춘향전 및 열녀문, 망나니의 비사 등 1950, 60년대 작품의 재 제작이었다.

전쟁물로는 이만희의 「들국화는 피었는데」와 임권택의 「증언」이 등장, 동족상잔의 비극을 서정적인 사실주의와 한 여대생의 시점으로 본 전쟁을 묘사했다. 소년의 시점에서 전쟁의 비극을 고발한 신상옥의 「13세 소년」도 인상에 남는 영화였다.

1970년대 하반기의 작품경향은 상반기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사극, 활극, 군사물의 퇴조를 보인 반면, 고교생물의 영화의 붐(boom)이라는 이상기류(異常氣流)를 탄 것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속극 부문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술집 여종업원물이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김호선의 「여자들만 사는거리」, 김웅천의 「미스양의 모험」, 변장호의 「O양의 아파트」, 박호태의 「나는 77번 아가씨」, 변장호의 「영아의 고백」, 이원세의 「철새들의 축제」, 정인엽의 「꽃순이를 아시나요」, 노세한의 「 $26 \times 365 = 0$ 」 등이 병들고 비뚤어진 사회상을 담아 불황 타개의 고육책으로 안간힘을 썼다.

문예물 영화 역시 상반기에 이어 활발한 제작성을 보여주었다. 고영남의 「설국」, 유현목의 「문」, 김호선의 「겨울여자」, 김수용의 「화려한 외출」, 임권택의 「왕십리」, 하길종의 「여자를 찾습니다」, 한네의 「승천」, 조문진의 「고가」, 임권택의 「족보」, 홍파의 「불」, 고영남의 「소나기」, 김수용의 「망명의 늪」, 임권택의 「깃발없는 기수」, 정진우의 「삼뽕다」, 이경태의 「도시의 사냥꾼」, 유현목의 「장마」, 임권택의 「내일 또 내일」, 김수용의 「사랑의 조건」, 변장호의 「을화」, 김호선의 「죽음보다 깊은 잠」 등이다.

이들 작품중 임권택의 「왕십리」, 「족보」, 김호선의 「겨울여자」, 조문진의 「고가」, 고영남의 「소나기」 이경태의 「도시의 사냥꾼」, 유현목의 「장마」 등은 언어 예술을 영상예술로 옮기는 연출력에 있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유현목은 「장마」를 통해 민족의 분단 비극과 사상의 갈등을 다룬 윤홍길의 원작을 영상으로 표출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유현목은 한 집안에 기거하는 소년 동만의



김호선 감독 「겨울여자」 영화의 한 장면(1977년)

친할머니(김신재)와 외할머니(황정순)가 서로 반목하는 관계를 분단민족의 갈등으로 대립시켜 보여주었으며, 결말 부분에서 두 노인네가 피차간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으로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암시하였다.

사실 이 영화에서 어린 동만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역사적 상처(친삼촌의 쫓김과 외삼촌의 죽음)가 지리한 장마비와 함께 돌아났다가 무속주

의(샤머니즘)에 의해 슬며시 치유되는 과정이 정감있게 그려졌다.

유현목은 「장마」를 연출하면서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역사적인 병앓이를 하고 있는 두 노파의 심증을 대변하듯이 씩씩이 내리는 비를 화면의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김호선의 「겨울여자」가 58만 6천 명의 관객을 동원, 그때까지의 최고기록인 「별들의 고향」의 46만 4천 명을 뛰어넘었다.

1979년은 세계 아동의 해였다. 1970년대 하반기는 고교생물 영화의 붐과 함께 아동물 영화도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이원세의 「엄마없는 하늘아래」, 「병아리들의 잔칫날」, 최현민의 「비둘기들의 합창」, 설태호의 「슬픔은 저 별에게도」, 임권택의 「저 파도 위에 엄마 얼굴이」, 김준식의 「슬픔은 이제 그만」, 김수용의 「달려라 만석아」 등이다

1970년대 하반기의 전쟁물 영화로는 임권택의 「낙동강은 흐르는가」, 설태호의 「원산공작」, 고영남의 「독수리전선」, 김기의 「병사와 아가씨들」, 고영남의 「사랑과 죽음의 기록」, 설태호의 「도솔산 최후의 날」, 고영남의 「비목」, 설태호의 「제3공작」 이원세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등이 제작되었다.

1970년대 하반기의 시대물로는 최인현의 「집념」, 박태원의 「성춘향전」, 임권택의 「임진난과 계월향」, 장일호의 「난중일기」, 「호국 팔만대장경」, 정진우의 「울곡과 신사임당」, 최인현의 「세종대왕」, 이두용의 「물도리동」, 최하원의 「비색」 등이 제작되었다.

1970년대의 사극은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율곡과 신사임당」, 「호국 팔만대장경」, 「세종대왕」 등 교훈적이거나 교과서적인 사극으로 일관했다. 이는 시대상황에 따른 정책적인 면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영화기획을 하였던 데에서 오는 폐단이기도 했다

1970년도 하반기 영화를 고교생물의 이상기류 속에서 몇몇 청춘물 영화가 그 명맥을 겨우 유지했다. 이장호의 「그래 그래 오늘은 안녕」, 김수용의 「내마음의 풍차」, 최인호의 「걸지 말고 뛰어라」, 이원세의 「목마와 숙녀」, 최현민의 「청춘공화국」, 정인엽의 「청색시대」, 그리고 하길종의 「병태와 영자」가 이에 해당한다.

1970년도 하반기에 이른바 활극 영화의 퇴조현상을 보인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두용의 「지옥의 49일」이 반공 활극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1970년대의 영화를 논하면서 그 당시 영화운동의 무리로 대두되었던 [영상시대]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영화감독 하길종, 김호선, 이장호, 이원세, 홍파, 홍의봉, 평론가인 변인식이 동인을 이루었던 [영상시대]가 1975년 발족하였다. [영상시대]가 출범할 당시 한국영화는 ‘1960년대의 황금기’를 지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불황의 벽에 맞닥뜨렸다. 이러한 절대 불황기에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이 당시 신문연재소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최인호의 소설을 새로운 영화감각으로 묘사해 젊은 관객들이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다. 서울의 국도극장 개봉에서만 56만 4,408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했다.

이어서 김호선의 「영자의 전성시대」가 일종의 현지 보고 형식을 통해 사회적 치부를 영상으로 고발,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관객은 36만 1,213명에 달하고, 하길종의 「바보들의 행진」은 기록주의와 직업적인 것이 아닌(아마추어적인) 신선한 감각을 살렸다. 관객은 15만 3,780 명을 동원했다. 이와 같은 30대 신진 감독들의 흥행적인 성공은 이른바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 세 명과 홍파 이원세가 가담 ‘영화운동의 에콜(ecole)’을 형성했다.



황정순 · 최무룡 · 신성일 주연의
「두아들」 영화 포스터(1970년)

1954년 정비석 원작의 「자유부인」 이후 신문 연재소설로서 최대의 인기를 끌었으며, 출판이 되어 화제의 잘 팔리는 책(베스트 셀러)으로 서점가를 장식한 최인호의 동명소설을 신상옥 감독의 연출부에서 감독으로 등장한 이장호가 「별들의 고향」으로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념비적인 영화를 내놓았다.

「별들의 고향」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경아’라는 티없이 맑고 청순한 처녀가 사회 전선에 뛰어 들어 첫 남자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들을 거치는 동안 사회의 비정함과 인간의 배신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알콜 중독자로 전락하여 죽는 슬픈 이야기는 당시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고생하는 많은 직업여성에게 대리 만족을 준 영화이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아역(兒役)으로 출발하여 「분례기」로 소녀기를 보낸 안인숙이 「별들의 고향」에서 본격적인 성인역을 해내어 한창 인기 배우 길을 달리는 듯 했으나 이장호 감독의 「어제 내린 비」를 끝으로 1975년 봄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였다.

“내 입술은 작은 술잔이에요”라고 말하는 짧디 짧은 인생유전(人生流轉)의 회전목마를 타고 신성일을 위시하여 윤일봉·백일섭·하용수 등이 상대방 남성상으로 열연했다. 1970년대 초 10월유신이라는 암울한 시대속에서 「별들의 고향」의 경아를 통하여 우리는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은막으로 보아왔고, 그녀의 죽음은 곧 모든 여성의 장송곡이 되기도 했다.

이장호 감독은 이 한편으로 새시대 새영화의 기수로 떠올랐으며, 「별들의 고향」은 그 후 1978년 하길중 감독이 장미희를 주연으로 「속 별들의 고향」을 내놓았으며, 1981년 이경태 감독이 유지인을 주연으로 「별들의 고향 3」을 만들었다.

‘경아’가 술집 여종업원이었고, 1975년 ‘영자’는 밑바닥 사회를 몸으로 이겨 나가는 창녀였다. 「영자의 전성시대」 영화의 줄거리는 3년간 월남전선에서 싸우다가 제대를 한 후 목욕탕에서 때밀이 노릇을 하고 있던 창수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우연히 영자를 만난다. 3년 전 철공소 직공이었던 창수는 심부름 갔던 사장집에서 영자를 처음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장래를 약속하고 월남으로 떠난다. 그동안 영자는 사장집 아들에게 몸을 망치고 집을 쫓겨나 춘자 언니를 만나 봉제를 배우지만 여직공의 월급이 너무나 적어 어쩔 수 없이 빠걸이 되었으나 이것 역시 적응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버스 차장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던 중 불행하게도 만원버스에서 사고로 팔을 하나 잃게 된다. 절망한 영자는 자살을 기도해 보나 이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창녀가 된다. 창수는 영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소식이 없어 무척 연민을 느낀다. 세월은 흘러 영자는 불구인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이어간다. 지난날의 어둡던 전성시대를 회상하며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영자의 모습을 본 창수는 참다운 행복을 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본격적인 감독 첫작품인 「환녀」의 김호선이 독특한 사실주의로 연출한 수작이었다. TV 연기자로 활약한 무명의 엄복순이 딱 들어맞게 ‘영자’역을 소화하였고, 창수의 송재호도 화면 속을 살아 움직이는 적역을 하였다.

김호선 감독은 「영자의 전성시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치부를 낱알이 고발하였으며, 정성조의 음악을 통해 영상언어를 구축하는 고전적인 가치를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1982년 심재석 감독이 정희를 발탁하여 「속 영자의 전성시대」를 만들었고, 1987년 유진선 감독이 선우일란을 주연으로 「87 영자의 전성시대」를 만들었으나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에 걸맞는 ‘영자’의 영혼을 노래하지는 못하였다.

5. 총무로의 증인 ‘제작부장’

총무로의 영화 연륜과 함께 ‘제작부장’이란 직책은 영원히 현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숙명의 이방인(에트랑제 : ‘etranger’)이기도 하다. 수많은 분야의 부분이 톱니처럼 십자포화를 이루고 있는 종합예술인 영화에 있어서 ‘제작부장’의 임무란 마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특공대의 그것과 비교 되기도 한다. 제작자를 대신하여 <현장의 사령관>격인 제작부장의 임무는 그야말로 전천후 요격기처럼 중횡무진이다. 출연진의 알선에서 계약은 물론 촬영 현장의 진행비 등 그가 영화에 관계하는 직종은 천태만상이다. 각 분야를 민첩하고도 조화롭게 조절하면서 영화의 구석구석까지 통달을 하여야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제작부장’이란

직책이다. 제작부장의 기용에 따라 영화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제작부장의 성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련한 제작부장은 20년에서 30년을 영화에 종사하여 영화에 관해서는 만물박사이다. 보통 제작부장은 2백여 편 이상을 손댔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는 분야는 여배우의 침실 뿐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영화는 감독만의 고유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

실력없는 감독보다 노련한 제작부장이 영화를 더욱 잘 이끌어 간다는 말이있다. 노련한 제작부장은 오히려 탐색과 현장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설파하면서 사진기의 구도까지 서슴없이 잡아주는 능숙한 현장지휘의 귀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제작부장을 조감독(어시스트 프로듀서)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제작자를 돕는 제작자로 여기고 있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제작자의 중간지점에서 협조자로 지휘를 해야 하며, 때로는 현장의 지휘자가 되기도 하다가 막노동자의 그것과도 비교되는 험난한 일도 서슴치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예술과 흥행의 두 얼굴에서 맴도는 ‘G선상의 아리아’를 불러야 하는 고감도의 연기자인 것이다. 제작부장은 일정을 잡아 놓은 전날 밤, 잠을 못이룬다. 화창하게 날씨가 개어야 하는데 눈, 비가 내리면 구멍이 나기 마련이다. 구멍이 날 경우 제작완성 날짜가 지연되면 제작자가 흥행사에게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일 촬영현장에 나가 촬영을 하는데 비가 펄펄 쏟아지면 그날 하루비용은 실효도 없이 써 버리고 말게 된다. 그 책임이 제작부장 앞으로 떨어진다. 촬영을 위해 감독이 요구하는 건물교

섭, 현장촬영 통솔, 예산집행, 연중무휴로 작업을 해야한다. 제작자는 돈만 대면 되지만 제작부장은 잡다한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많은 체험을 토대로 보아온 <눈>이 있기에 실력없는 감독과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제작부장은 가슴을 치기 마련이다. 어느 제작부장은 “감독이



운영회의를 하는 제작부장의 모습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아무데나 운전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하며 답답해 한다.

2시간이면 촬영을 끝낼 작업을 5시간 걸린다던지 촬영 대본에도 없는 즉흥적 기분으로 엉뚱한 촬영을 할때 제작부장은 가슴을 치며 당황해 하기 마련이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제작부장은 촬영순서에 의해 감독과 계획을 맞춰 놓았는데 계획에도 없는 엉뚱한 촬영을 하면 제작부장은 불안하게 된다.

영화의 전성기 시절인 1955~1960년대 제작부장은 한마디로 힘이 막강했다. 1970년대 감독 체제로 변모하기 전까지 인기배우 전성시대의 제작부장 권한은 ‘감독선택 권한’이 주어졌던 시기다. 그 당시 제작자는 어떻게 영화가 완성되는 지를 철저히 알지 못했다. 당연히 제작부장에 의존해야 했고, 영화의 흥행여부는 물론 승패도 제작부장 손에 달려 있기에 권한은 막강했다. 1960년대는 개인 감독(PD시스템)들이 활약하던 시절이다. 연기자, 감독, 작품도 제작부장에 의해 선택되었고, 감독도 거부할 수 있었다. 인기를 지닌 연기자가 2~3 작품을 겹치기 할 ‘영화 전쟁’ 일명 ‘배우 뺏기 전쟁’ 무렵이어서 제작부장 사명은 막대했다. 한 제작자를 망하게 하느냐 아니냐는 제작부장 손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작부장은 50편 이상 제작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제작부장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전체 예산편성, 총 지휘격으로 제작자 다음 서열이었다. 제작부장 밑에 <제작주임>이 있어서 연기자 일정, 촬영일자를 맞췄고, 그 밑에 <진행>이 현장진행을 담당했다. 즉 현장에서 보조원, 연기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언하였다. <제작부장> 과 <진행>의 사이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분별했고, 질서가 없어 보이는 영화계였지만 그 무렵의 영화들은 관객을 동원시켰으며, 흥행기록이 날마다 상승, 좋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 감독들은 좋은 한 작품으로 성패가 매달려 있기에 제작부장은 ‘이 영화가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덤벼들었다. 제작자보다도 더 열성과 성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메고 뛰었던 것이다. 제작부장이 작품 전체의 기획과 총지휘를 했으며 흥행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작품을 아무렇게나, 감독의 설득에 의해서 제작될 수 없었다,

제작부장은 ①시장파악 ②타이밍 ③계층의 심리파악 ④성인물·중고생물 선택 ⑤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 중심작품 등을 연구분석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복합을 이룬 작품을 제작했기에 대흥행(흥런)이 나왔다는 것이, 제작부장 경력 15년을 지낸 사람들의 주장이다. 당연히 제작부장은 감독들이 아무리 좋다고 주장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그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았기에 감독이 제작부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촬영현장에 나가면 진행을 서둘러야 할 책임감이 있기에 당연히 성격이 난폭해 지고 이로 인해 폭언이 폭발할 경우도 있었다고 시인한다. 책임감은 있는데 현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 폭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일은 마치 제작부장만의 일로만 여기면 당연히 인간이기에 난폭해지며 그것이 연기자나 외부의 눈에 횡포로 보여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작자 체제가 구체적으로 짜여진 현 영화계에서는 기획분야가 있기에 제작부장의 역할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가진 제작부장들은 탁상에서만 의 기획, 기획자와 감독만이 좋아하는 영화는 관객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다고 고개를 흔든다. 관객이 방화(邦畵)에 모여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무기는 체험이다. 체험을 통한 그들의 영화를 너무 쉽게 알며 관객 의식, 확실한 실태조사에 의한 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든다. 그리고 편집에 의존하는 몇몇 감독의 실력도 지적하고 있다.

6. 이만희 감독과 ‘충무로의 영결식’

1931년 서울의 왕십리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성장한 이만희 감독은 「집없는 천사」, 「복지만리」, 「자유만세」 등을 보면서 영화감독이 되어 보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영화에 대한 꿈을 산산히 무너지게 하고, 그는 군문에 들어가 육군통신학교에서 4년간 복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였다.

25세의 나이로 군에서 제대한 이만희는 무대연출가인 이진순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무대연극을 하게 되었다. 불우하였던 환경에서 자라난 그는 연극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

의 껍질을 하나하나 외향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열망만은 저버리지 않았는데 행운의 여신도 그를 놓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필리핀으로 원정하여 현지 촬영을 감행한 박구 감독의 「낙엽」에서 연출부의 일원이 되어 꿈에도 그리워하던 ‘영화감독’에의 교두보를 밟게 되었던 것이다.



이만희 감독의 충무로 거리 장례식

그는 워낙 영화사에 대한 느낌과 연출감각이 예민하여 1958년 안종화 감독의 「춘향전」에서는 조감독으로 발탁되었고, 그야말로 안 감독의 오른팔이 되어 어려운 사극영화를 서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재능을 발휘하였다. 이듬해인 1959년 김명제 감독의 「백진주」에서 완벽한 조감독의 실력을 유감없이 나타냈으며, 이 때문에 제작자인 원선에 눈에 들어 감독 초년병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는 체대 직후 서울문화학원에서 수업한 바 있는데 이는 영화감독이 되려면 연기는 물론 무대연출도 알아야 한다는 본인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마등」으로 등장하기 전 이만희는 원선씨가 제작하는 임원직 감독의 「인력거」를 각색하였다. 이는 원선씨가 감독 초년병인 이만희의 작가적인 실력과 과연 영화대본을 투철하게 조명할수 있는가 하는 역량을 시험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했다.

평소 많은 영화와 고교시절 문학서적을 탐독한 그 인지라 오히려 자기의 진가를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여 첫 작품인 「주마등」에의 착수가 좀 늦어지더라도 멋진 영화대본을 써보겠다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원선은 말하였다.

당시 대원영화사는 충무로4가에 있었는데 그는 영화사 근방의 여관을 잡고, 2주일간 두문불출한 채 김이석 원작의 「실비명」을 각색하여 영화사에 15 일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원고지 300 매의 분량을 책상 위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원선과 임원직 감독은 사장실에서 3시간 동안 원고를 검토한 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만희의 주도면밀한 작가적인 재질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만희 감독의 「만추」 포스터와 「삼포로 가는 길」의 장면

아울러 이만
희는 당시의 시
대적인 여건과
대중적인 식견
으로 보아 ‘실
비명’이 어렵
기 때문에 제목
을 「인력거」로
변경하는 것이

흥행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요점을 달아 제명까지 바꾸었다는 후문이다. 드디어 1961년 주마등으로 등장하여 다섯 번째 작품인 「돌아오지 않는 해병」까지 전무후무한 32세의 나이로 명장이 된 그는 곧 「만추」로 명성을 떨치다가 1975년 44세의 나이로 49번째 마지막 작품 「삼포 가는길」을 남기고 운명하고 말았다.

충무로의 장현수 편집실에서 1975년 4월 13일 「삼포 가는길」의 마지막 편집을 하다가 졸도한 그는 성심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후 곧 운명하고 말았다.

영화 때문에 충무로의 여관과 다방에서 늘 영화인들과 담소하면서 저녁에는 술로 인생을 보낸 ‘충무로의 파수병’인 이만희 감독의 투철한 영화정신을 빛내기 위해 ‘영화인협회장’으로 하고, 장례식 장소는 스카라극장 뒤편에 있는 넓은 건물터에서 4월 15일 11시에 거행하였다. 이봉래 예총회장을 위시하여 최훈 영화인협회장 박정환 제협회장, 김재연 영화진흥공사 사장, 송재홍 배급협회 회장과 평소 그를 아꼈던 영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거행했다. 집행위원장인 유현목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영화인 회관 같은 건물 하나없이 거리에서 치루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 했다. 영화평론가 이영일은 조사(弔辭)를 통해 이만희 감독의 철저한 영화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만추」, 「귀로」, 「시장」과 유작 「삼포가는길」 등 그의 예술혼에 경외감을 표했다. 우인대표로 나선 김수용 감독은 동료 연출자로서 본 이만희 감독의 면모를 상세히 지적하고, 영화인으로써의 자긍은 질투를 받을만큼 선명했다고 추모했다. 그의 운구는 충무로를 지나는 동안 매달 15일에 있는 민방위훈련에 겹쳐 10분간

쉬었다가 성남시 남서울공원묘지에 영원히 안장되었다.

7. 문학과 영상의 밀회(密會)

1970년대는 1960년대의 황금기를 지나 세계적인 석유과동으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영화계는 먹구름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71년 영화진흥공사의 모체인 한국영화진흥조합이 창립되었고, 대중상 영화제가 부활되어 우리 영화계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1970년 이두용 감독이 「잃어버린 면사포」로 첫 연출을 하였으며, 1972년 미국에서 귀국한 하길중 감독이 이호석 원작인 「화분」으로 연출 신고식을 하였다. 「내딸아 울지마라」의 남기남, 「잃어버린 계절」의 이원세, 「73년 시나이」로 작가에서 연출로 전향한 「몸 전체로 사랑을」의 홍파, 「즐거운 나의 집」의 박남수, 「바람아 구름아」의 김수형, 1976년 미국에서 연출수업을 한 「캘리포니아 90006」의 홍의봉, 「울면 바보야」의 김정현, 「죽음의 승부」의 박우상이 첫 연출을 하였다. 1977년 「쌍무지개 뜨는 언덕」의 정희철, 「돌아와요 부산항」의 김성수, 1978년 「날으는 일지매」의 고웅호, 「백사전」의 최동준이 등장했으며, 1979년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의 박용준, 「타인의 방」의 김문옥, 「26×365=0」의 노세한이 나와 1970년대 감독으로 활약을 하였다. 더구나 1970년대 초반의 작품들은 저질영화의 대명사를 이루었고, 무분별한 신과 통속극과 희극, 활극물이 범람하는가 하면 국적불명의 위장 합작영화까지 등장하여 영화계는 무법천지의 난장판이기도 했다.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이 나오기 까지 이성구 감독의 70밀리 「춘향전」과 김기영 감독의 「충녀」, 변장호 감독의 「눈물의 웨딩 드레스」, 신상옥 감독의 「이별」, 임권택 감독의 「증언」 등이 관객 10만 명을 돌파하였을 뿐 대부분의 작품은 흥행 적자를 기록했다.

3세대 감독의 선두주자인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이 「미워도 다시 한번」과 「성춘향」의 36만명 관객기록을 105일간 46만 4,308명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수립하여 새로운 활기를 찾는 기폭제가 되었다. 연이어 1975년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는 제 3세대의 영화계

장악의 교두보가 되어 1970년대 생활방식에 분산되어 있던 영화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에 가장 괄목할 만한 제3 세대 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은 이른바 청바지와 통키타 그리고 생맥주를 상징하는 ‘청년문화’로 젊은 관객을 사로잡았다. 억압된 유신헌법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명동과 종로 그리고 신촌의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며 ‘고래사냥’ ‘아침이슬’ ‘모닥불’ ‘그건 너’ 민요(포크송)에 연소(燃燒)하면서 체제에 도전하기도 했다.

「고래사냥」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Y대 철학과 재학중인 병태는 그룹미팅에서 H대 불문과의 영자를 알게되어 캠퍼스와 가정 그리고 기존사회의 벽과 부딪히면서 고뇌하며 방황하다가 병태는 군에 입대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영철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래를 잡기 위해 동해 바다에 몸을 던진다. 하길중 감독은 「화분」과 「수절」에서 전위적인 실험정신의 영화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풍속도를 독특한 영상미로 그려 우리 영화의 질을 향상시켰다.

1975년 「영자의 전성시대」로 어두운 사회의 사실주의를 구가한 김호선 감독은 1976년 「여자들만 사는 거리」를 내놓은 후 1977년 「겨울여자」로 지금까지의 모든 흥행기록 3년 만에 58만 5,775명을 돌파하는 경이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경아와 영자가 어두운 시대의 상업사회가 낳은 우리들의 여인상이었다면 이화는 성녀로 살아가는 대학생을 통해 김호선 영상미학의 열정을 수채화처럼 은막에 채색한 한 면이기도 했다.

이장호 감독의 「어제 내린비」, 김수형 감독의 「갯마을」, 노세한 감독의 「 $26 \times 365 = 0$ 」 등의 영화는 작품적으로나 흥행적으로 1970년대를 대변하는 제3세대 감독들의 수확작이었다.

유명한 소설의 저작권을 입수하여 이른바 우수영화로 선정이 되면 외화수입권의 보상제도가 실시되어 1970년대는 저질영화의 범람 속에서도 군계일학(群鷄一鶴)격으로 많은 원작소설이 장편과 단편을 발굴하여 영화화하는 이변을 낳았다.

원작이 영화로서 성공을 거두려면 문학적인 범주를 벗어나 영화적인 종합예술로서 승화시켜야 함은 물론 문자언어를 영상언어로 표현시키는 알찬 시각적인 형식에 충실하여야 한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원작의 영화화에서 신문 연재소설이 단연 압도적이다. 조간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최인호 원작의 「별들의 고향」과 석간인 중앙일보의 조해일 원작의 「겨울여자」이다.

밤 늦도록 일을 하고 돌아온 많은 직업여성들에게 「별들의 고향」은 하루를 달래는 유일한 대변소설이었으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귀가한 많은 대학생들에게 「겨울여자」는 달콤한 위안소설이기도 했다. 원작이 문학작품으로 평가를 받으며 영화화되어 이른바 문예영화로 주목을 받으며, 1970년대는 그나마 우리 영화의 명맥을 이어갔다. 유현목 감독이 방영웅 원작의 「분례기」를 내놓아 대중상에서 작품상으로 강력히 선정되었으나 내용이 어둡다고 하여 1971년에 해당없음이라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1972년 김동리 원작인 「무녀도」를 둘러싸고 김지미와 윤정희의 배역 다툼도 큰 화제를 낳았다. 최하원 감독은 「독짓는 늙은이」 이후 3년 만에 원작을 문예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역량을 과시하였다. 원작을 영화화할 때 그 작품은 문학과는 다른 매체인 영화로 재창조를 하기 때문에 원작에 충실하던 그렇지 않던 종합예술의 영화적인 속성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시각적인 판별이 요구된다.

「분례기」는 주인공 똥레가 겪는 불행한 일들이 모든 우리 사회의 여인들이 당하는 유형의 한 단면으로서 참고 견디는 사회적인 테두리 속에서 희생하는 여인의 숙명을 묘사했다. 박경리 원작의 대하소설 「토지」는 1974년 김수용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어 흥행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다. 특히 대중상에서도 최우수 작품상을 위시하여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녹음상을 수상하여 가장 원작을 품위있게 영화로 승화시킨 수작(秀作)이 되었다. 선우휘 원작의 「불꽃」은 유현목 감독이 연출하여 1975년 대중상 작품상을 받았으며, 「깃발없는 기수」도 1979년 최우수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청준 원작의 「석화촌」도 정진우 감독이 홍도의 절해고도에서 문예영화로 화면을 옮겼으며, 나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를 변장호 감독의 「비련의 병어리 삼룡이」로 부활하여 1973년 대중상의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특히 「돌아오지 않는 해병」으로 명성을 떨친 이만희 감독은 황석영 원작의 「삼포 가는길」을 끝내고 편집작업 중 사망하여 48편의 유작(遺作)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 가장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영화로 제작된 것 중 도저히 문자언어의 영역에 도



임권택 감독 「신궁」 영화 포스터
— 윤정희 · 김희라 주연

전할수 없는 황순원의 소설의 백미인 「소나기」의 영화화였다. 세계 아동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고영남 감독의 「소나기」는 신선한 동심의 감수성이 아름답게 은막에 투영된 아동영화의 수작이었다.

소나기 후에 피어난 무지개처럼 우리들이 잃어버린 어린시절의 향수(鄉愁)를 불러 일으켰으며, 소년 소녀들의 과장없는 연기력이 그윽한 전원의 목가적(牧歌的)인 풍경 속에 전개된 유려한 영상미학의 시(詩)였다. 시대물로는 이성구 감독의 70밀리 「춘향전」이 획기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황순원 원작의 「과부」를 개명한 「홍살문」을 변장호 감독이 연출했으며, 천승세 원작의 「신궁」과

윤홍길 원작의 「장마」, 한수산 원작의 「바다로 간 목마」, 「부초」, 정한숙 원작의 「고가」, 조정래 원작의 「황토」 등이 영화화되어 문공부에서 시상하는 우수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안개」로 유명한 김승옥의 「야행」은 김수용 감독이 영화화시켜 명보극장에서 14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김동리 원작인 무녀도를 개작한 「을화」도 변장호 감독이 내놓았다.

8. 변화하는 한국영화의 면모

1980년대는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다. 이렇게 시작된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격변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염원을 불태웠고 성숙한 의식에 힘입어 사회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변혁들은 희망찬 1990년대를 기약한다. 이러한 사회변혁의 분위기는 문화계에 거세게 몰아쳤으나 ‘국풍 81’이나 프로 야구의 출범 등 경직된 사회로부터 탈피되어 전시효과적인 위장된 축제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질적인 문화발전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86아시아경기'와 '88서울올림픽'의 대외홍보에 매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문화적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괴리(乖離)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새벽이 조속히 오지 않는 허무주의가 조장해 낸 퇴폐적이고 부패한 풍토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시대정신을 뒷전에 물린 채 저질 문화를 양산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의식전환이 빚나가는 한쪽에서 1980년대의 영화산업은 그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변혁의 움직임 속에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게 된다. 그것은 제5공화국의 출범이 선포한 '영화예술의 향상'이라는 영화시책에서 비롯된다. 영화법 개선에 관심을 표방하는 영화계 주변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장은 검열의 완화를 촉구하였고, 그 결과 모순된 현실을 소재로 비판의식을 강조하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적어도 1970년대의 폐쇄적인 작품제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내세우는 진실한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다. 한국영화의 새로운 영상미학을 제시하는 기억될 만한 작품들은 임권택의 「안개마을」, 김호선의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정진우의 「백구야 훨훨 날지마라」, 이장호의 「바람불어 좋은 날」, 「어둠의 자식들」, 이원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배창호의 「꼬방동네 사람들」, 「깊고 푸른 밤」 등 색정적(色情的) 경향이 진한 통속극의 등장은 의외로 개방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을 반증한다. 이어서 1985년 7월 3일부터 시행 공포된 새로운 영화법은 영화계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영화사 등록이 허가제로 바뀌었고, 영화사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영화제작 신고만으로도 1년에 1편 정도는 누구나 자유로이 제작할 수 있는 독립영화 제작사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의 영화들이 독립영화제작사 위주



이장호 감독 「바람불어 좋은날」 영화 선전 포스터

로 자리 잡아가는 그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후 1988년에는 ‘영화각본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중검열로 영화소재 제한이 엄격했던 영화제작시대를 벗어난다. 이것은 영화소재 개방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영화의 부흥책은 물론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하여 국산영화 수출의 물고를 트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시작된 미국영화의 직배는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본격화되어 한국영화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식을 조장하였다. 이미 1985년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영화업계는 미국영화수출협회를 통해 외국영화 수입에 관련된 제한사항을 한·미 양국간의 합의로 철폐시킨다.

미국은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지불하는 영화진흥기금 1억 5천만 원과 외국영화 수입회사 설립을 위한 예탁금 7억 원은 불공정거래임을 항의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1987년 7월부터 한국에 미국영화사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러한 사실의 은폐는 행정당국이 영화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한국영화의 위기의식을 간파하지 못해 무지한 처사임을 뒤늦게 드러냈다. 그것은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서 행정당국 스스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할 영화법임에도 무관심하던 그들이 오히려 미국 영화사가 한국영화계에 순조로이 진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영화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에서 짐작된다.

그들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주라기공원」 한 편의 영화 흥행 수입이 한국자동차가 1년 동안 수출한 금액보다 많다는 물질적 충격으로 영화문화의 중요성을 겨우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황급히 영상진흥법을 강구한 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영화문화 현실을 반영한다.

1988년 9월 21일 ‘미국영화 직배저지 투쟁위원회’의 결성으로 이루어진 한국영화 생존을 위한 대규모 시위는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성토와 한국영화인들의 자성(自省)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때 비제도권의 비판적인 성향의 영화들이 새로운 한국영화의 대안으로 다수 관객의 호응을 얻으며 제도권 영화계의 사회성있는 영화제작을 촉구하는 자극제가 된다.

이 때 만들어진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 광주」는 영화가 동시대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

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유료 입장객 20만 명을 돌파한 관객동원 기록 이후 비제도권 영화의 활성화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편승하여 급속히 성장한 비제도권의 영화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영화연구회나 영화동아리들이 주도하여 성장해 온 8밀리 내지 16밀리 영화 공동 창작방식의 작은 영화이지만, 오히려 1980년대의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작품은 비제도권의 몫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제도권에서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영화작가적 의식을 표방하는 새로운 감독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박철수의 「어미」, 장길수의 「밤의 열기 속으로」, 「아메리카 아메리카」, 신승수의 「장사의 꿈」, 이미례의 「물망초」, 송영수의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박광수의 「칠수와 만수」, 강우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박종원의 「구로 아리랑」 등과 중진 영화작가인 임권택의 「길소뜸」, 「티켓」, 「이장호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가 생존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동 시대의 문제의식을 만족하게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전하는 작품들이다. 1980년대의 전반적인 영화적 경향들은 정치, 사회적인 혼란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의 나침반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검열의 완화에 힘입어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는 한국관객에게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기대케 했지만 한국영화작가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제한된 한계가 뚜렷했다.

「허튼소리」가 무참히 가위질 당하면서 메가폰(megaphone)을 던져버린 원로 감독 김수용 감독은 현 영화검열에 체제 아래서는 절대로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영화작가들의 돌파구는 영상미학적인 탐구와 전통적인 소재의 발굴에 얹매이거나 아니면 성인 성(性: 에로)영화에 탐닉할 수 밖에 딱 도리가 없었다.

이장호의 「바보선언」이나 「과부춤」, 장선우의 「성공시대」와 이명세의 「개그맨」은 동시대의 시대 정신을 풍자적으로 위장하여 새로운 한국영화 미학을 넘겨다 보았다.

반면에 정통적인 서술구조와 전통적인 소재의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작품으로는 하명중의 「땡별」, 임권택의 「씨받이」, 이두용의 「이조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 정진우의 「자녀목」, 배창호의 「황진이」, 변장호의 「감자」 등이 있다.



「몰레야 몰레야」 영화의 한 장면

이런 상황에서 세계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의 쾌거는 한국 영화계의 어려운 실정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그 의미가 컸다.

주요 영화제 수상작은 베니스 영화제의 이두용의 「피막」과 임권택의 「씨받이」, 동경영화제의 이장호의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베를린 영화제의 이장호의 「바보선언」과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로카르노 영화제의

배용균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등은 한국영화의 세계화를 성취한 좋은 예이다.

한국영화의 세계영화제 수상의 이면에서 한국영화의 기술적 진보를 위한 영화진흥책의 일익과 한국영화를 알리고자 노력한 대외 홍보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동안 노력한 대외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자주 놓쳤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영화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1980년대의 활발한 일군(一群)의 한국영화작가들은 임권택, 정진우, 이두용, 이장호, 배창호를 비롯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박철수, 곽지균, 신승수, 장선우, 박광수, 이명세, 강우석 등 새 얼굴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영화는 감상적인 현실도피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시대의 변화에 직면한 개인의 고뇌를 투영(投影)하고자 노력하는 흔적을 접하게 된다.

198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임권택은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등장한 후 주로 활극영화 감독으로 성장하다가 「왕십리」를 통해 변신이 예고된다. 진지한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짜코」를 시작으로 역사의 아픈 과거와 현실적 고뇌에 초점을 둔 영화류와 「만다라」, 「불의 딸」 등 일련의 작품 속에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인간성 회복을 갈구해 온 인본주의자이다.

정창화 감독 밑에서 임권택과 같은 시기에 외아들로 연출을 시작한 정진우는 1960년대 「초우」로 청춘영화의 기수가 된다. 「석화촌」같은 야심적인 문예물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속적인 삶을 그린 「심봤다」 류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정진우는 열악한 촬영조건을 개선하고자 최신 동시녹음 촬영기를 수입하여 「빠꾸기도 밤에 우는가」를 시작으로 한국영화의 동시녹음시대를 개척하였다.

무속주의와 향토색을 강조한 「자녀목」은 동경 영화제와 칸느 영화제에 초청, 출품되기도 했다. 이 밖에 중진 감독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피막」으로 아이에스 디 에이 피(ISDAP)상을 수상한 이두용은 「잃어버린 면사포」로 등장하여 「초분」부터 작가적 역량을 보였다.

임권택의 「씨받이」를 예고하는 「이조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는 전통의식적으로 미화시킨 영상을 표출한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한국가족의 의미를 밀도있게 그린 「장남」과 전통적인 성적 해학(性的諧謔)을 묘사한 「뽕」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남는다. 1980년대 한국영화에 있어서 가장 실험적이고 흥행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연출하는 영화작가를 뽑는다면 단연 이장호이다. 「별들의 고향」으로 공전의 관객동원을 기록한 그는 이후 심각한 주제나 문제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대중적 공감대를 획득하여 예술영화와 오락영화의 간격을 극복하는 작품들로 그의 입지를 굳건히 세운다. 그러나 그의 영화적 동기(動機)가 현실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의 삶의 갈등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에도 「어우동」이나 「이장호의 외인구단」을 만듦으로서 한국영화가 직면하는 그의 한계를 노출시킨다.

이장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배창호는 이장호의 연출부 출신이다. 그는 「꼬방동네 사람들」 이후 본격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공통적인 주제로 일관성있게 묘사하면서 사랑의 소재에만 얽매이지 않고 인물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개인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특색이 있다. 그의 「그 해 겨울은 따듯했네」,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안녕하세요 하나님」 등은 현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낭만주의적 현실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작품이지만 여러가지 분야를 섭렵하여 미학적 실험을 추구하였다.

또한 파스텔(pastel) 색조의 무대장치를 활용하여 연극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기쁜 우리



임권택 감독 「만다라」 영화 포스터



‘전통에 빛나는 그 열이 이 거리에 영원하리’라고 새긴 한국영화인 협회가 세운 〈대중상〉 조각

젊은날」은 그의 조감독인 이명세의 단편영화적 사고로 이어진다. 영화예술을 음유(吟遊)하는 이명세는 「개그맨(gag man)」으로 첫 출연하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후 대중적인 감독으로 알려진다. 그는 독자적인 영화적 시각과 공간의 창조를 위해서 무대 촬영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순수한 영혼에 대한 향수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의 수단일 뿐이다. 그는 영화적 현실이라는 원리적인 논리는 극복하고자 영화 저편의 세계를 넘겨보는 탐구자이기도 하다.

새로운 영화문화의식을 창조하는 박철수는 「골목대장」으로 등장한 이래 주로 여성심리를 다루는 작품을 연출하여 여성영화감독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 1980년대에 그를 영화작가로 알려준 「들개」 이후 「땀장이 아내」, 「어미」, 「안개기둥」, 「접시꽃 당신」, 「오늘 여자」 등이 그의 여성영화다.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의 행동심리를 영상화하는 박철수는 기존의 질서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영화문화 행위를 전파하는 1980년대 한국영화문화 전도사다.

박철수와 다른 차원에서 영화의 사회적 행위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신승수는 「애마부인」 류의 성인영화가 판을 치는 한국영화계의 암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의 최선책을 강구한다. 그래서 포르노(porno)배우의 일상을 그린 「장사의 꿈」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의 시점에서 사회 폭력을 다룬 「달빛 사냥군」과 개인적인 실험을 추구한 「성야」에서 진지함으로 보이던 그가 여배우의 사생활을 그린 「빨간 여배우」로 갑자기 상업적으로 전락하고 만다.

안타까운 그를 지켜보면서 한국영화작가의 직업을 먼저 고려해 본다. 반대로 대중영화의 고급화를 노려 통속극으로 승부를 거는 박지균의 등장이 이채롭다.

그를 바라 보는 잘못된 시각은 감상주의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의 첫 감독작 「겨울 나그네」와 「두 여자의 집」, 「상처」, 「그후로도 오랫동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극적 장치는 희망보다 절망이 진하게 울리는 감상주의다. 그러나 그가 영화 속에서 다루는 죽음과 여성의 문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인간의 애뜻한 시선을 느끼도록 하는 의도적인 장치이다. 적어도 삶보다 죽음이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박지균은 영상적으로 성공시킨 것이다. 1990년대 한국영화를 영화작가로 성장한 장선우, 박광수, 강우석은 1980년대 후반 등장시절부터 발군(拔群)의 연출능력을 과시하였다. 개인적으로 희극을 하고 싶다는 장선우는 우여곡절 끝에 욕망과 허세로 가득찬 서울을 동심의 세계로 비판하는 「서울 황제」를 선우완과 공동으로 연출하여 영화계에 입문(入門)한다. 평소 영화대본을 쓰고 영화 이론을 공부하며 작은 영화활동에 깊게 개입하던 그가 초계급적이고 초시대적인 영화의 힘을 실천하는 「성공시대」의 흥행성공으로 그를 알린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실주의 영화 「우묵배미의 사랑」을 완성한다.

이렇게 1980년대의 장선우는 민중극인 마당극의 신명을 풀어보는 열려진 영화에 심취한다. 우리 전통예술의 놀이정신은 영화예술에 적용하자는 그의 논리는 열려진 공간 개념을 영화에 적용하는 그의 영화적 사고다. 장선우처럼 작은 영화에 심취(心醉)하다가 첫 감독작으로 출세한 박광수는 한국현실의 문제를 남북분단에서 풀어 보려는 「칠수와 만수」로 영화를 시작하였다.

어린시절부터 빨갱이 아버지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주눅이 들어 성장한 만수라는 인물을 통해 분단의 문제를 발언한 그는 남북분단의 의미를 현실의 시점에서 대입하고자 하였다. 장선우의 두 번째 작품 「그들도 우리처럼」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의 영화속에서 차용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한 현실의 시사적인 문제는 기록 정신으로 분단의식과 더불어 그의 영화형식을 이루는 특별한 기본적인 연출법이다.

이들과는 영화적 사고가 특별나게 다른 신세대 영화작가 강우석은 한국영화의 일반성을 서슴없이 무시해 버리고 기발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승부를 거는 단연 선두에 나서는 희극작가다. 그의 기질은 첫 감독작 「달콤한 신부들」부터 시작되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영화작가적 면모를 보였다. 미국영화의 대항 영화로서 그의 「투

캡스」는 미국영화 직배 파동 이후 함몰해 가던 한국영화를 소생시키는 획기적인 영화로 1990년대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케 하였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영화작가로 「남부군」, 「하얀전쟁」의 정지영을 비롯하여 「구로 아리랑」의 박종원과 「영웅연가」의 김유진을 잊을 수 없다.

9. 컬러TV시대와 충무로의 쇄신

유신(維新)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1980년대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절대자로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로 얼룩지게 하였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의거는 우리 근대사의 가장 뼈아픈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대마초 사건으로 5년간 메가폰을 잡지 못했던 이장호 감독은 「바람 불어 좋은날」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기백으로 작품을 내놓아 영예로운 대중상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이 영화에서 아역배우로 성장한 안성기도 4, 5편의 평작(平作)에만 나오다가 중국집 배달원인 덕배로 분장하여 신인 아닌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1980년 12월 1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칼라시대로 텔레비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시대는 변혁기의 물결에 휩싸였다. 심수봉의 인기가요인 「그 때 그 사람」이 문여송 감독과 신성일, 유지인의 연기로 나왔으며 「색깔있는 여자」란 묘한 차이의 작품도 장미희와 이영하가 출연했다. 「우산 속의 세여자」 같은 신선한 작품이 이두용 감독의 손으로 선을 보였으며, 희극인 이주일이 등장하여 「평양맨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도 만들어 졌다.



임권택 감독 「씨받이」 영화의 포스터 (1986년) — 주연 강수연은 제 44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

1970년대의 폐쇄적인 작품 제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와 문제 의식을 내세우는 진지한 사실주의 계열의 영화도 많은 반면 한국영화의 새로운 영상미학을 창출한 수작(秀作)들도 1980년대와 함께 은막을 두드렸다.

유현목 감독이 1980년 대중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사람의 아들」을 위시하여 「짜코」와 「만다라」 그리고 「안개마을」 등 모두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며, 이두용 감독의 「피막」과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 정진우 감독의 「백구야 훨훨 날지마라」, 이장호 감독의 「어둠의 자식들」, 이원세 감독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이영실 감독의 「반노」, 정진우 감독의 「자녀목」 등이 천연색시대에 처한 한국영화의 수작들이었다.

이두용 감독의 「피막」은 1980년대 처음으로 우리 영화가 제 43회 베니스 국제영화에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낳았다. 비록 본상은 아니었지만 이두용 감독은 비경쟁부문에서 감독에게 주는 ISDAP 상을 수상했으며 3대륙 국제 영화제에 정식 출품을 요청받아 우리 영화사상 최초로 참가하는 영예를 누렸다.

「피막」은 윤삼육의 원작 영화대본으로 93분의 상영시간을 지닌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민속을 파헤친 소재 유연한 동양미학을 영상언어로 그린 이색 작품이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수리굴 강진사댁 장손 성민이가 앓게 되자 노마님은 목화라는 뛰어난 영력(靈力)을 가진 무녀(巫女)를 맞이한다. 그 녀는 신들린 듯이 헤매다가 대나무 밭에서 호리병을 찾아낸다. 호리병의 악령은 옛날 이 마을에서 피막지기를 하던 삼돌이의 원혼이라 했다. 강진사댁은 옛날부터 명문대가이나 남자들이 단명하여 집안에는 청상과부들의 열녀문까지 세워져 있었다.

이들 여인 중에 큰 며느리 이씨가 환부의 악화로 죽게 되자 피막으로 옮겨 죽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삼돌이의 간호로 기사회생하여 그후 그들은 자주 만난다. 이씨가 임신을 하게되자 강진사는 비밀리에 그들을 처단한다. 삼돌이의 여섯 살난 옥화만이 이 사실을 알아 복수로서 강진사까지 살해하고, 아버지의 넋을 위로할 때 옥화에게는 그들의 넋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이두용 감독은 우리나라만이 지닌 고유한 무속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무속주의로 승화시켜 영상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발한 연출자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다. 「피막」에서 유지인의 연기도 좋았지만 남궁원은 이 영화로 제 20회 대중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83년 「전원일기」로 인기를 떨치고 있던 연기자 김혜자가 처음으로 주연으로 나온 김수용 감독의 「만추」로 제 2회 마닐라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또한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 제 1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본선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피막」으로 국제적인 감독으로 명성을 떨친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는 1984년 한국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비경쟁부문 ‘서틴리가드’ 11편 중 1편으로 선정되었으며, 제 20회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영예의 최우수 촬영상이 이성춘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제 29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배창호 감독의 「적도의 꽃」이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1985년 영화배우 출신의 배우 하명중이 감독한 「땡땡」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정진우 감독의 「자녀목」은 제 1회 동경국제영화제의 세계 우수영화 베스트30에 선정되었다.

가장 큰 쾌거는 제 21회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땡땡」이 최우수촬영상을 정광석 기사가 수상하였다. 1985년 7월 1일부터 새 영화법이 실시됨에 따라 영화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영화진흥공사 부설 한국영화아카데미 제 1회 졸업생이 10명 배출되었다.

1986년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이 제 3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경쟁부문 본선에 진출하였고, 제 22회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길소뜸」이 게츠 세계평화메달상을 수상하였다.

1987년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로 강수연이 제 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씨받이」로 최우수 여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장호 감독은 제 2회 동경 국제영화제에서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로 국제 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우리영화의 명예를 빛나게 했다.

1988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 12회 몬트리올 세계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아다다」에 출연한 신혜수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이장호 감독의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가 제 12회 뉴욕영화제 초청을 받아 비경쟁부문에 참가하였다.

1989년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제 42회 칸느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부문에 선정 되었으며, 「씨받이」의 세계적 배우 강수연이 제 16회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에서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최우수 여우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배용균 감독의 「달

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제 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금표범상을 수상하여 우리 영화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과시하였다.



배용균 감독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영화의 한 장면
(1989년) — 제 44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금표범상 수상

10. 충무로에 명멸한 영화잡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영화잡지

는 1923년에 창간한 <예원>이다. 윤백남이 발행인이 되어 주로 자신이 감독한 「운영전」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특집을 냈다.

아울러 세실 B. 데밀의 「십계」도 소개되었고, 최초의 배우 이월화와 김도산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내용도 있었다. 윤백남은 1925년 영화 회사인 독립프로덕션을 창립할 때까지 <예원>을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자금난으로 안중화, 이구영에게 편집권을 넘겼지만 당시 독자의 제한성 때문에 곧 폐간하고 말았다.

1928년 문예영화사에서 발행한 『문예영화』는 나운규의 「아리랑」의 인기와 함께 주로 나운규의 특집과 배우 이금룡의 등장 등 푸짐한 기사를 실었다. 최호동과 최영태의 친구가 손을 잡고 이 잡지를 꾸며 갔으나 일제의 지나친 간섭으로 다음해 폐간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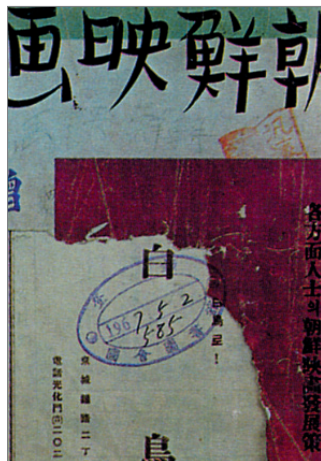
1931년 조용균이 발행한 『영화시대』는 1938년까지 유일한 영화지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기도 했다. 『영화시대』의 놀라운 업적을 보고, 1932년 신흥영화사에서 『신흥영화』를 창간하여 해외영화계의 소개 및 찰리 채플린의 일본 공연을 소개하였고, 이규환 감독의 「임자없는 나룻배」를 다루었다.

두 잡지는 1936년 『영화조선』과 『조선영화』가 나올 때까지 영화인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

당시 잡지들은 일본인들이 자행하는 개봉극장 쟁탈전을 비롯해 고의적인 선전 실례를 다루어 일본 검열관으로부터 항상 트집의 대상이 되었다. 독자가 없는데에 더하여 편집의 자유



『신영영화』 잡지 창간호(1932년)



『조선영화』 잡지(1936년)

마저 없었으므로 발행인들은 전답 처분은 물론 친척까지 동원하였다가 폐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1937년에는 『영화보』가 발행되어 나운규의 사망 소식과 함께 해외영화 수입금지령에 따른 반대기사가 실리는 등 영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발행인 김정혁은 잡지를 통해 영화예술

을 창달하려고 하였으나 식민지 치하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도저히 영화가 예술로는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몇몇 영화사에 판권을 주려고 하였으나 인수하는 곳이 없어 문을 닫고 말았다.

1939년 『영화연극』이란 제목으로 잡지를 발행한 최익연은 공교롭게도 얼마 후 영화통제를 목적으로 한 영화법이 공포되자 3개월도 못되어 언어사용이 벽에 부딪혀 폐간하고 말았다.

광복 후 3년간 우리나라 영화계는 전문 잡지없이 지내다가 1948년 「춘향전」의 제작자였던 이철혁이 『예술영화』라는 제목으로 발행하였다. 이철혁은 1947년 「갈매기」를 제작하여 조미령을 첫 출연시켰는데 영화를 전문적으로 선전하는 잡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갈매기」의 수익금으로 잡지사를 경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첫 출연시킨 조미령과 결혼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영화인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6.25전쟁과 함께 모든 것이 폐허화되고, 휴전 후인 1954년 『신영화』란 잡지가 나와 주로 외국영화를 소개하다가 1년 만에 폐간하고 말았다.

1955년 인천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박봉희가 『국제영화』를 창간하였다. 그는 혼자서 편집과 취재는 물론 경영까지 하는 1인 천하로 누비면서 해박한 영어실력으로 『국제영화』를 본격적인 영화잡지로 키워나갔다. 국내 최초의 영화 인기상을 비롯하여 외국영화 특별시사회 등 많은 업적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1인 독주의 유아독존적인 운영으로 1964년 『내

외영화』로 제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1965년 새로 『국제영화』로 등록하여 장수를(?) 누리는 잡지대열에 끼었다.

박봉희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국제영화』를 운영하다가 1980년 출판정비 때에 폐간을 당한 후 주로 영화 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지내다가 1982년 6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박 사장은 영화계에서 가장 정통한 소식통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극장과 영화사를 섭렵하는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정보는 극장과 영화사가 특급으로 사는(?) 고가품이기도 했다.

특히 『영화세계』는 강대창 3형제가 경영과 편집은 물론 취재까지 도맡아 하여 독자들로부터 인기있는 잡지로 명성을 높였다. 『영화세계』는 유한영화사를 설립하여 영화제작에도 손을 대었다가 월간지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1965년에 자진 폐간하고 말았다.

큰형인 강대창은 영화배급업자로, 둘째인 강대진은 삼영필름 회장으로, 막내인 강대선은 감독은 물론 영화인협회 회장을 맡는 등 모두가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959년 윤봉춘 감독의 발행으로 『시나리오 문예』가 나와 영화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영화 학도는 물론 많은 영화평론가가 이때에 등장한 것도 이 잡지의 출현에 힘입은 것이다.



『예술영화』 잡지(1948년)



『영화세계』 잡지(1954년)



『현대영화』 잡지(1955년)



『시나리오 문예』 잡지(1959년)

1960년 입체문화사에서 여자들로 구성된 『씨네마 팬』이란 잡지가 최초로 외래어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사장은 강인순, 주간 겸 발행인은 「미망인」으로 한국 영화의 최초의 여류감독이 된 박남옥이다.

편집위원으로 전창근(감독), 김은우(전 이대교수), 오종식(한국일보 주필), 허백년(영화평론가) 등의 화려한 진용이 잡지를 꾸며 젊은 영화 학도들로부터 진기한 잡지로 평판을 받았다.

그 뒤 『씨네팬』으로 제명을 바꾸었다가 다시금 『씨네마』로 바꾼 후 자금난으로 1965년 폐간하고 말았다.

1960년대에는 한국 영화의 전성기였던 만큼 잡지 창간도 활발했다. 1961년 『영화 다이제스트』가 1년간 반짝이다가 사라졌으며, 1963년 『영화정보』가 신필름에서 창간호를 낸 후 그 대로 중단되고 말았다.

1964년 대중지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아리랑>사에서 영화전문지 『실버스크린』을 창간하여 처음 1년간은 굉장한 판매 부수를 올렸으나 차츰 편집 진용의 빈번한 교체로 잡지의 성격을 잡지 못한 채 폐간하고 말았다.

1963년 김규동이 발행한 『영화잡지』는 영화평론가 김종원을 초대 편집장으로 하여 막강한 기자들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전문성이 아닌 상업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많은 권위 있는 편집자들이 물러나고 대중지에 가까운 잡지로 군림하다가 1980년에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다.

1966년 영화평론가인 이영일이 『영화예술』을 창간하여 국내 유일의 전문지로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영세한 자본과 경영부실로 1972년에 자진 폐간하였으나 1988년에 재창간하였다가 1994년에 자금난으로 폐간했다.

1967년 홍철기 발행의 타블로이드판 『영화·연예』가 있었으나 많은 영화인이 외면하는 바람에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였다.

1970년 한국영화문화연구사에서 최인규 감독의 동생 최완규의 발행으로 『영화문화연구』 창간호가 8월에 나왔으나 그만 중간호로 기록되는 비운을 맛보기도 했다. 1971년 홍석순이 발행한 『근대영화』도 1년간 유지되다가 폐간되었다.

1972년 영화진흥조합의 탄생과 함께 『코리아 시네마』가 창간되어 기관지로 발간되어 오

다가 1973년 영화진흥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명칭을 『영화』로 개제하여 영화인의 전문지로 군림하다가 1994년에 폐간하였다.

이와같이 40여 종의 영화지가 밤 하늘의 성좌처럼 명멸하여 왔지만 평균 수명이 고작 2, 3년 밖에 되지 못한 것은 영화지의 독자 확보와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75년 10월 홍철기 발행과 임현기 주간으로 『스크린』이 발행되었으나 편집 미숙과 운영의 제약으로 운영자가 회전목마처럼 바뀌다가 1980년 언론정비 때 폐간되기도 했다.

1984년에 창간된 『월간 스크린』은 1980년대의 개방화와 함께 독자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다. 1989년 『로드쇼』와 1995년 『키노』가 나왔지만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고, 주간지 『시네21』이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 정 종 화 〉

제 8 장

영화의 고향 충무로





영화의 고향, 충무로

1. 충무로는 영화인의 동지

대중들의 우상이었던 한 시대의 배우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그 배우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무로는 말이 없다. 팬(fan)들로부터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받는 스타가 그 거리를 밟고 지나가도, 또 명성을 두근두근 세상으로 떠나가도 이를 지켜 볼 뿐 충무로거리는 끝내 말을 할 줄 모른다.

영화인들이 흥분하고 때로 눈물을 흘려도 영화인의 거리 충무로는 저항할 줄 모른다. 영화가 쇠퇴해서 영화인들이 생활에 시달려도, 묵묵히 지켜 볼 뿐이다. 아득한 지난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맥락과 인맥을 지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 영화인 최봉과 백송

켜보았던 그 구비 속에서 다만, 산증인으로서 흘러갈 뿐이다.

하지만 이 충무로의 거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영화인의 귀에는 이 거리에서 소리없는 배우들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고 한다.

옛날에 스타다방의 자리에서, 영화전성기에 있던 청맥다방의 자리에서, 작고한 김승호씨의 음성이, 허장강씨의 웃음소리가, 이예춘씨의 호방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들려주는 소리없는 음성들... 영화를 사랑했고, 충무로를 지키고 싶었지만 시대에 의해 밀려난, 한 때 화려하게 은막생활을 했던 연기자들의 숨결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오늘도 영화인의 귀에 붙어온다는 것이다.

충무로에서 청춘을 불살라버린 영화인들, '연기자'란 꿈을 따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한 평생을 충무로의 거리에 인생을 묻은 사람들, 눈만 뜨면 미친 사람들처럼, 누가 기다려 주는 듯 찾아오는 거리, 잔뼈가 휘어지도록 드나들던 거리이기에 충무로는 영화인의 고향이라고들 한다.

그 거리에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 성장했고, 죽어야 떠나는 거리, 죽어서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리..... 이 충무로의 거리는 그래서 영화인들의 피와 땀이 흐르는 거리이고, 영혼이 진하게 스며든 곳이다. 지금의 아픔을 견디기 위해, 앞으로 올 영광의 날, 위대한 영화인의 꿈이 펼쳐질 그날이 오면 충무로는 비로소 말하리라.....

옛날, 그 흥청대던 거리가 자연히 냉랭해지고, 하루에도 몇 대씩 드나들던 촬영버스가 한가롭게 눈에 띄울 뿐이다. 자연히 영화인들은 추울 수 밖에 없다. 영화의 불황 속에서도 건뎌 온 영화인들은 이제 <무대에 살다 무대에서 사라지겠다>는 무서운 의식만 가진 사람들만 남았다.

옛날같이 충무로를 빙빙돌던 영화지망생도 발견하기조차 힘들게 되었고, 충무로 주변에 그 많던 영화사들도 충무로를 떠나고 말아 고작 2개 회사만 남아있을 정도다.

기업은 번창해서 충무로를 떠났지만 영화인들은 아직도 영화인의 고향에서 숨쉬고 있다. 진정으로 영화와 더불어 영화 속에서 살겠다는 영화인들만 남은 셈이다. 허황한 환상의 꿈을 쫓아 뛰어들던 얼굴도 찾기 힘든 이 거리에는 연기생활을 천직으로 삼고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림자들만 남게 된 것이다.

영화인의 고향을 지키겠다는 신념에 사는 연기자들은 옛날 악극단시절 무대를 누비던 사

람들이다. 단역배우라고 부르기에
는 아깝고, 그렇다고 조연배우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연기자
들은 영화를 지키고 충무로의 거리
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대단하다.

이제 충무로의 거리에는 이들이
점령해서 진을 치고 있다. 이들은 과
거를 체념한지 오래다. 한마디로 영
화속에서 살다가 죽겠다는 신들린



'충무로 영화의 거리 페스티벌' (2004년)

무당들이 충무로의 다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따금 영화감독들의 얼굴이 비추지만 옛날 번성
했던 충무로가 이젠 아니다. 일류 배우의 얼굴도 사라진 거리, 퇴직금도 없는 영화가에 평생을
대중을 위해 그늘에서 숨쉬어 온 이들, 그들이 오늘의 충무로를 지키고 있다. 이 신들린 무당
들은 오늘도 충무로 어느 다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지난날 추억담을 서로 나누며 한바탕 까
르르 웃는다. 웃고나면 모두가 지나가 버린 허무한 추억. 그러나 그 허무의 허공에 혼을 몰입
시키고 영상의 한 모서리를 위해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원래 영화인의 고향은 명동이었다. 현재 로얄호텔 자리, 구 내무부 자리(외환은행 본점),
전 국립극장 근처, 석탄공사 자리 등에 영화인들이 모여들었다. 6.25전쟁 이전에 예술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는 영화인, 연극인이 한데 어울렸다. 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들
던 곳은 그 당시 문예살롱이었다. 6.25전쟁 전 개명영화사의 홍개명(감독)이 주축이 돼서 영
화 「성벽을 뚫고」를 만들자, 자연히 연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때는 악극이 전성기였
기에 연극인, 영화인이 분류할 필요없이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 이용민 감독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포화속의 십자가」를 내놓으면서 작고한 윤봉춘 감독을 비롯해서 노장
감독인 이규환, 신경균 등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 전택이, 윤일봉, 이집길, 조미령, 이금용 등
연기자들이 명동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영화인회관이 현재 은하수다방 옆에 있었기에 자연히 촬영기사와 연기자들이 모여들기 시
작하여, 명동입구쪽이 영화인의 거리로 변했다. 김소동 감독이 간식과 한국고유의 차를 파는

「소동чат집」을 내서 많은 연기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윤봉춘이 그 무렵 「처녀별」을, 이강천 감독이 「피아골」을 연출하면서 김진규를 등장시킨 것이 명동시절이었다. 악극에 쟁쟁했던 연기자들이 차츰 영화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발성영화시절이었는데 이예춘, 노경희, 허장강 등이 서서히 영화에 출연해서 그 재질을 인정 받을 때였다. 악극이 시들자 여성악극단이 붐(Boom)을 일으켰지만 차츰 인기가 하락되고 있을 당시에 영화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영화 사상 최대의 흥행을 기록한 「춘향전」이 명동에서 만들어졌다. 이민(이도령)과 조미령(춘향역)이 최초로 출연해서 한국영화의 붐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후 계속 힘을 얻은 영화계는 「자유부인」 등 수작을 내놓게 되었고, 영화는 전성기로 접어들었다. 관객이 인산인해로 방화(邦畵)에 몰려들자 영화제작에 투자하는 제작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제작사 20여 개가 전 국립극장, 사보이호텔 뒤, 로얄호텔 근처에 생겨났다.

연기자들의 인기도 대단했고, 수입도 많아져서 명동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인들이었다. 명동에 「바」가 유행할 당시였는데 영화인들이 절반을 차지, 흥청거렸다. 영화인이다 하면 돈 잘쓰는 멋쟁이로 알려져서 외상술을 마음대로 먹을 정도로 인식이 좋았다.

원래 우리의 예술인들은 돈과 거리가 멀었다. 6.25전쟁 이후 서울로 모여든 예술인들은 막을 올린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순수예술에 정력을 쏟았지만 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관념 속에서 살아왔기에 영화가 흥행되어 출연료가 들어와도 돈에는 별로 집착을 하지 않았다. 연기자들은 업무에도 관심이 없었고 주어진 역할만 순진하게 열성을 부렸다.

최고의 겹치기로 출연한 연기자는 이민이었다. 무려 20여 편에 출연했는데 「춘향전」의 이도령 역할로 인기는 최고도에 달했다. 그 후로 김진규, 최무룡, 김승호가 남자 주연으로 등장했고, 조연으로는 허장강, 이예춘이 바쁜 배우생활로 접어들었다. 여배우로는 김지미, 최은희, 문정숙, 김혜정, 엄앵란 등이 등장했다.

지금의 팬처럼 최고의 배우를 찾아오는 경우 종이와 볼펜을 들고 와 사인(sign)이나 요구하지만, 그 당시는 선물과 기념품을 들고 찾아오는 팬이 대부분이어서 어떤 여성팬은 자기집에 초대하기 위해 사정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1952~3년부터 1960년을 전후해서 명동에서 차츰 충무로로 영화인의 거리가 옮겨지기 시

작했다. 동보영화사에서 「광주학생사건」을 촬영할 당시 충무로쪽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아세아영화사도 옮겼다. 그 당시 제일 큰 기획물을 제작했던 영화사들이 차츰 자리를 뜨자 자연히 영화인들이 명동에서 충무로쪽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화(邦畵)가 한창 전성기를 이루면서 충무로3가로 안주하게 된 것이다. 명동은 원래 복잡한 거리로 지금과는 다른 의미의 지역이었다. 성숙한 젊은이들이 어디서 만든 최신 유행을 입고 으시대기 위해서, 또는 값비싼 외제를 구입해서 빼겨 보려고 찾는 거리였다. 그래서 서울의 멋쟁이들이 다 모여들어 마치 패션(fashion)의 거리였다. 자연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명동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영화제작자들은 조용한 사무실을 필요로 하기 시작, 충무로로 넘어 왔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61~3년에 충무로 3가는 영화인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고, 명동에 있던 영화사들이 앞을 다뒀서 전부 이전해 버렸다. 어느새 스타다방이 생겨났고, 그 다방에 일류 배우들이 운집했다. 촬영을 떠나기 전에 스타다방에서 차 한잔을 하고 떠났고, 촬영이 없는 날, 촬영 일정 때문에 연기자들이 찾는 곳이 이 다방과 청맥다방이었다.

원래 충무로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의 거리였다. 지금 극동빌딩이 들어앉은 자리에 일신초등학교가 있었는데 90%가 일본인 자녀들이 다닌 학교였다. 지금도 충무로 도로의 폭이 얼마 넓지 않지만 아스팔트도 깔지 않아 비만 내리면 진흙탕으로 거리가 질척거렸다.

이곳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모여 살아서 한국인들이 살지 않던 거리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만해도 일본식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새로 개조하거나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살롱·레스토랑들이 길 좌우로 들어서 판 거리고 변하고 말았다.

1973년까지 영화의 전성기가 지나 쇠퇴하기 시작했고,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난립했던 군소 제작사들이 자취를 감추자, 흥청거렸던 충무로의 거리가 질서가 잡힌 듯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충무로 주변의 대포집에서 빈대떡을 놓고 소주를 마시대며 창작 구상에 열을 올리던 모습, 영화인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초막집, 거기서 작품 때문에 기염을 토하며 토론을 벌이던 모습들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부업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는 얘기는 전혀 없이 예술을 위한 영상미학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충무로 거리를 밤마다 열기 넘치게 만들곤 했었다. 밤 늦도록 술을 마셔대다가 다음날 영화촬영 때는 언제 술을 마셨는가 싶게 꼭두새벽에 충무로 거리로 나타나곤 했던 영화인들 —.

영화촬영을 위해 밤샘을 하면서 작업을 한 후에 날이 밝아오면 피로를 풀기 위해 청진동 해장국집으로 몰려가는 낭만도 충무로의 거리로 인해 있었다.

스타다방 위에 사무실을 두고 임화수가 영화제작에 손을 대면서 연기자들은 주먹의 공포에 짓눌리기도 했고, 병역기피자와 건달들이 충무로에 나타나 한때 세인들에게 영화인에 대한 인식을 흐려놓기도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각 영화사의 제작부장들은 대부분 건달출신들이었다. 20여 개 영화사가 진을 치고 있기에 인기여배우 납치 소동은 영화의 각본 못지않게 극적 사건을 엮어냈다. 누가 먼저 인기여배우를 모셔(?)가느냐가 문제여서 치열한 납치소동은 갖가지 촌극을 벌였고, 기발한 수법이 등장해, 하룻밤을 자고나면 충무로에는 화제거리가 풍성하게 나돌곤 했다.

어느 제작부장은 여배우를 데리고 가기 위해 한 겨울에 여배우집 앞에 있는 드럼통의 물을 쏟아내고 그 안에 벌거벗고 들어가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이른 새벽에 여배우집 담을 넘어들어 가다 도둑으로 물리는 등…… 그러나 이제 모두가 흘러간 야담이 되고 말았다.

지금 충무로의 영화거리는 점점 축소되어 충무로 3가의 반쪽도 차지 못하고 점점 밀려나가고 있다. 원인은 운집해있던 영화사들이 뿔뿔이 기업으로 변창해서 흩어졌기 때문이지만, 충무로가 인기 배우를 탄생시키지 못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2. 충무로 영화감독의 계보

한국영화 60년 동안 무려 250여 명을 헤아리는 감독이 탄생하였다.

감독은 바야흐로 100만대군을 호령하는 장군을 무색할 정도로 선망과 위엄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런 감독들도 등장하기 전까지는 피눈물 나는 수련과 고행을 거쳐 현장을 연마해야

했다. 그들의 수련시대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개 7, 8년의 조감독 경력이 평균치로 산출된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는 122 명의 감독이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고작 30 명 미만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영화제작을 겸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여 년 전에 감독을 하고도 아직도 감독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연출의 효시(嚆矢)로는 극영화인 「월하의 맹세」가 1923년에 제작될 때 이를 감독한 윤백남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장화홍련전」의 김영환, 「심청전」의 이경손 등 1926년 「아리랑」의 나운규가 등장할 때까지 4, 5명의 감독이 기록물과 만화영화를 극화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창기에는 선배나 후배들에게는 적절한 교육이 없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이른바 신극(新劇)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화 감독의 첫 실례를 장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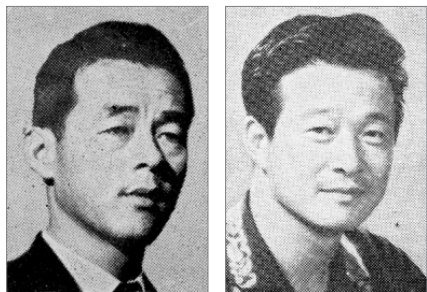
「아리랑」의 나운규가 등장함과 함께 한국 영화계는 마야흐로 연출시대를 알리는 팡파르(fanfare)가 드높았다.

당시 윤백남과 나운규 밑에서는 유봉춘을 비롯하여 이필우의 동생 이명우, 이규설, 황운, 천한수, 이귀영, 김해운, 유장안, 김유영, 이창근이 조수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때는 모두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영화를 통해 민족의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운동을 한 수난의 해이기도 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총독부의 간섭으로 계몽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구호 아래 정책적인 영화만을 제작했기 때문에 영화다운 영화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정도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함께 영화계도 활기를 되찾자 윤봉춘, 안종화, 최인규, 이규환, 전창근 등 많은 실력자들이 제각기 영화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자유만세」를 비롯하여 「똥똥이의 모험」, 「유관순」, 「여명」, 「마음의 고향」이 이때에 제작되었다.

소설가인 김광주도 메가폰을 들었으며 배우인 임운학도 16밀리로 「그들이 가는길」을 감독하였다. 최인규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많은 감독을 조수로 채용하였는데 지금도 그 이름



최인규 감독의 조수로 활약한 홍성기 감독 ·
신상옥 감독(왼쪽부터)

이 생생한 신상옥, 홍성기, 정창화, 김소동, 권영순, 한형모가 그의 밑에서 연출수업을 쌓기도 했다.

그는 「자유만세」를 만들어낸 후 수많은 감독을 배출시켰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어 한국 영화계의 큰 손실이 되고 말았다.

그 후 한국 영화 초창기부터 활약하던 이규환 감독은 최인규와 함께 연출계의 거장으로 6.25전쟁 후 「춘향전」을 감독하여 한국영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봉춘도 초기에는 나운규와 더불어 연기자로 지냈으나 감독으로 전향하였으며, 안종화도 꾸준히 연출자로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규환 감독은 유현목, 최훈, 조정호, 정창화, 하한수, 정일택 등 오늘날 한국 영화를 주름잡는 명 조수들을 거느린 막강한 사단이었다.

최인규는 한국 영화를 석권한 홍성기가 제1인자로 있었고, 신상옥이 제2인자로 그의 문하에서 영화를 수련하기도 했다.

1957년부터 한국 영화계는 외형적이나마 홍성기, 신상옥, 한형모 감독의 3두마차시대를 구축하여 1960년대 말까지 이들 문하생이 한국 영화를 석권하는 전성시대를 구가하였다.

홍성기 감독 밑에서는 박종호, 최훈, 심우섭, 박찬, 이동훈 등이 배출되었고, 신상옥 감독 밑에서는 이형표, 강범구, 강대진, 박상호, 장일호, 최경옥, 전용주 등이 1 기로 나온 이후 이경태와 이장호가 1970년대 초에 그 문하에서 탄생하기도 하였다.

한형모 감독은 서석주, 김기덕, 박성호를 길러 내었으며, 안종화 감독은 이만희 감독을 키우는 영화사적 위업을 남기도 했다.

한국 영화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조수들은 한 사람 밑에서 수련하기가 힘들어 여러 사람을 쫓아다니며 배우기도 하였는데 강대진, 전용주, 홍은원, 양인은, 김기덕, 김한일은 두 사람 이상의 감독 밑에서 현장 실습을 했다.

임권택 감독은 노세한과 박우상을 후배로 배출하였으며, 정진우 감독은 초기에 많은 조감독이 있었으나 영화 제작자로 정열을 쏟는 바람에 회사 전속 비슷한(?) 조수들을 양성하였다.

‘명감독 밑에 조수가 없다’는 통설처럼 나운규와 이만희의 문하생들이 뚜렷한 활약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영화란 당대에 반짝이는 천재의 산물임을 실감할 수 있다.

1950년대 말 가장 특기할 것은 김수용 감독의 출현이다. 그는 국방부 영화과에서 기록영화를 연출하다가 영화계로 들어왔는데 오늘날 그의 조수들은 당당히 한국 영화를 주름잡는 제3기 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김수용 감독은 109여 편의 화려한 작품의 편력에 따라 수많은 조수들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며 영화수련의 빛나는(?) 도장을 형성하였다.

조문진, 이원세, 김수형이 정통 김수용사단의 맥이었고, 정지영, 박남수, 장길수 등 유형무형의 연출자가 한 번쯤 거치는 ‘터미널(terminal)’이 바로 김수용 문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영화는 이른바 겹치기 연출이 유행하여 여러 감독을 거느린 제1 조감독이 마치 철새처럼 촬영 현장을 누비는 비정상적인 기풍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연기자로 출발하여 영화 감독의 메가폰을 든 최초의 연출자는 나운규였고, 그 다음이 윤봉춘, 「쌍무지개 뜨는 언덕」의 손전, 「인걸 홍길동」의 김일해, 「녹슬은 시체」의 김을백은 연기자 출신의 감독이었다.

그 후 영화계의 원로 전택이가 「애정무한」으로 메가폰을 들었고, 그 후 최무룡, 박노식, 신성일, 하명중이 감독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여류감독으로는 1955년 「미망인」의 박남옥이 효시를 이루었고, 그 후 「홀어머니」의 홍은원, 「민며느리」의 최은희, 「첫경험」의 황혜미가 있고, 「수령에서 건진 내딸」의 이미례를 꼽을 수 있다.

외국에서 영화공부를 한 감독은 이병일 감독이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 그는 「시집가는날」의 평판으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과시한 공로자였다.

그 후 강태웅, 전홍직, 이주령, 유진식, 문여송이 이 계열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자본으로 메가폰을 든 자주 제작이었으나, 모두 우리나라 여건의 불합리성으로 영화 감독으로서 명성을 떨치지 못하였고 다만 문여송 감독만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도이다.

조감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극무대나 영화 외적인 상황에서 감독으로 입봉한 사람은 김기영을 비롯해 유두연, 김화랑, 이강천, 엄심호, 조궁하, 이만홍 등을 들 수 있다. 촬영기사로서

메가폰을 든 감독은 이용민과 박영환, 김명제, 전조명, 강범구 등이 있고, 영화 제작자로서 감독을 한 사람은곽정환과 주동진, 이지룡, 전지수(본명 전석진)가 있는데 이들의 영화는 거의가 계몽물이어서 영화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

1960년대 후반을 장식한 한국 영화의 이른바 신진감독 들은 오랫동안 영화계의 보조원 일과 아니면 일선 실무자인 진행 일을 보아온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작가인 신봉승은 「해변의 정사」를 감독하여 혹독한(?) 비평을 받았으며, 소설가 김승옥도 「감자」를 감독하여 역량을 인정받았으나 연출가로서의 기대 이하로 낙인 받았다.

영화 학사인 이병일 감독은 「시집가는날」로 인하여 한국 영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고, 그의 동생 이성구는 예리한 연출감각으로 「탄드라의 불」의 김성수를 비롯해 수많은 조감독을 키우기도 하였다

정인엽 감독은 연극계를 거치면서 이규용 감독 밑에서 규모가 큰 사극영화 작업에 참여하다가 1965년 「성난 영웅들」로 등장하는 빠른 성장을 보였다.

1967년 한국 영화가 2백 편을 상회하는 전성기일 때 전우열 감독은 특이하게 여러 명의 감독 밑에서 이른바 겹치기 조연출하는 조감독 전성시절을 구가하기도 하였다.

감독 계보를 따져볼 때 제 1기인 윤백남을 위시해 제 2기 나운규, 제 3기인 광복 후 최인규 시대를 이끈 후 6.25전쟁 후 홍성기, 신상옥, 한형모 시대를 거치기까지 그나마 문하생시대로 군림하였지만, 그후에는 개성과 영화사의 주문시대로 변천하였기 때문에 많은 보조인들이 메가폰을 들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연극무대에서 최현민이 영화계로 뛰어 들었고, 「건지말고 뛰어라」의 최인호도 소설가의 후광을 업고 메가폰을 든 예에 속하기도 하였다.

유현목 감독은 양인은, 박승관, 김사겸, 홍파를 연출자로 배출하였는데 유독 홍파 만이 겨우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권영순 감독은 강대진, 고영남, 노필을 키웠으며, 강대진 감독은 박윤교, 장영국을 배출하였다.

1970년대의 총아로 군림한 김호선, 이장호, 하길중, 정인엽, 이두용은 모두가 쟁쟁한 감독 밑에서 연출수업을 쌓은 대표적인 감독들이기도 한데 이들에게서 가지를 쳐 나온 후배 감독들이 많은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장호는 「고래사냥」의 배창호를, 김호선은 「수령에서 건지 내 딸」의 이미례를, 정인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의 이성민을, 하길중은 「친구애인」의 김송원을 자기 대를 잇는 후배로 내놓았다. 또 정소영 감독은 「물레야 물레야」의 실력과 이두용 감독과 「수녀 아가다」의 김현명, 그리고 「내사랑 짱구」의 유진선을 배출하여 거장의 명문을 보이고 있다.

괴기물의 전매특허인 박윤교 감독은 김양득 같은 사실주의 감독을 탄생시켜 문하생의 수완을 자랑하기도 했다.

영화예술 최고의 사령탑 영화감독- 메가폰으로 말하고, 앵글 파인더(Angle finder)로 누비는 그들에게 오늘도 필름은 빈틈없이 24 프레임(Frame)씩 돌고 있다.

3. 충무로 영화인의 혼맥(婚脈)

영화계에서 가장 표본적인 결혼 경우가 신성일과 엄앵란 부부이다. 엄앵란은 19세에 「단종애사」로 첫 출연하였고, 신성일은 5년 늦게 「로맨스 빠빠」로 첫 출연하였다.

엄앵란의 모친은 영화배우인 노재신이고, 부친은 의학박사인 엄재근이다. 그의 동생은 엄토미로 유명한 엄재욱인데 반해 신성일의 집안은 연예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신영(신성일



영화계 3대 스타 패밀리의 신성일과 엄앵란 그리고 장모 노재신과 아들 강석현

의 본명)과 엄인기(엄앵란의 본명)의 결혼은 우리 영화계의 상징적 표본으로서 그들은 지금 1남 2녀의 아버지로 단란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두 사람은 청춘영화의 선풍적인 분위기를 타고 영화로 사랑을 맺고, 영화로 인해 결혼하여 가장 모범적인 결실로 성공한 극(劇) 외적인 부부로 일컬어진다.

「아! 백범 김구 선생」을 감독, 주연한 전창근과 「마의 태자」의 유계선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부 배우 중에서 가장 오랜 연조(年條)를 가졌으나 30년 전 전창근이 타계하여 유계선 만이 외로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도 10년 전 타계했다.

이들은 1남 3녀 중 「상한 갈대를 꺾지마라」에서 둘째 딸 전향이를 첫 출연시켜 배우 2대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특히 1962년에는 「운명의 골짜기」에서 전 감독의 일가 세 사람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전원 집합이 있기도 하였다.

영화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부 배우는 전택이와 노경희이다. 노경희는 1943년 고향인 강원도 화천을 떠나 최인규 감독이 운영하던 고려영화협회에서 제작하려던 「마의 산」의 여배우 모집 광고를 신문에서 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영화사를 두들겼지만, 영화제작이 그만 중단되어 여비는 떨어지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까지 팔아가며 하숙을 하던 차에 전택이를 만나 그의 소개로 약초가극단에 입단하였다. 이 때 이집길과 김진규도 한 단원이었지만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있을 때 전택이의 문병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들 부부는 6.25전쟁 후 「출격명령」에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춘향전」의 방자와 향단역을 맡아 한국영화계의 명연기자로 부상했으며, 「애원의 고백」에서는 멋들어진 키스장면을 연출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결합하기 전 전택이는 본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영치와 영삼이 있었고, 노경희와

의 사이에서 영수와 영호를 낳아 4형제의 단란한 가족이 되었다.

1952년 5월, 6.25전쟁의 포성이 한창이던 봄에 결혼한 정민과 김미선 부부도 지금은 영화계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금슬좋은 배우로 기억되고 있다. 가끔 스님역으로 텔레비전에 나왔던 정민은 혜화전문을 졸업한 불교학도로, 그의 첫 출연작은 불교극 「목연기」로 1.4후퇴시 부산에서 김미선을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연애의 꽃을 피웠다. 정민은 「첫사랑」에서 주연을 했으며, 김미선은 「풍운의 궁전」에서 처음으로 주역을 얻었다. 이들 부부는 1959년 「원효대사」를 제작하려다 실패하여 이후 3남매를 알뜰히 키우며 평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연예계 2대를 탄생시킨 영화와 가요계의 표본적인 밀회(密會: 랑데뷰)배우는 바로 황해와 백설희 부부다. 황해(본명 전홍구)는 1921년생이며, 백설희(본명 김희숙)는 1927년생이다. 백설희는 1942년 조선악극단에서 ‘아메리카 차이나 타운’으로 인기를 떨쳤고, 황해는 1948년 「성벽을 뚫고」로 은막에 첫 출연했다. 이들은 국도, KPK, 자유 등의 악극단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결혼하여 영화계와 가요계를 잇는 최초의 혼합배우 부부로 2대 가수 전영록과 탤런트 이미영까지 전대를 잇는 부부배우를 탄생시켰다. 1948년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결혼 56주년을 맞았으나 최근에 황해가 세상을 떠났다.

「김삿갓」, 「비류」를 제작·주연하였으며, 「돌아온 항구」를 감독한 박경주와 영화계의 만년 조연 송미남도 영화인 부부로 장수를 누렸던 영화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감독 박남옥도 방송작가 이보라와 결혼하였는데 이들은 6.25전쟁 후 「미망인」의 제작관계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나 서로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면서 파란과 역경을 헤치고 결합한 바 있다.

「갈매기」의 제작자 이철혁과 당시 학생으로 1인 2역을 한 조미령도 영화계의 혼맥에서 잊혀지지 않는 명 제작자와 배우의 한 쌍이다. 영화 「갈매기」 한 편으로 결합한 이들 부부는 6.25전쟁의 모진 풍랑을 거치면서 성공작 「춘향전」을 내놓은 후 이철혁은 1958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조미령은 그 후 독수공방의 신세를 지내다가 무역업을 하는 최동원과 재혼하여 남매를 데리고 196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 후 그 녀는 「두 아들」에서 현석과 이덕화의 어머니로 분하여 왕년의 애호인(팬)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해 보이기도 했다.

영화계의 혼맥 풍속도는 감독과 배우라는 함수관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



「결혼교실」 영화에 출연한 신성일·문희·윤정희·남정임

독과 배우의 혼맥으로는 뭐라고 해도 김성민과 남해연을 첫번째로 손꼽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 후 「막난이 비사」, 「인생 역마차」, 「처와 애인」으로 노련한 솜씨를 보인 김성민 감독은 아까운 나이에 숙환으로 별세하였고, 부인 남해연은 조미령과 함께 「갈매기」의 여주인공으로 나왔으며, 「애원의 향로」 이후 은막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감독과 성우의 결혼 성공으로는 이용호 감독과 옥경희가 있으며, 그 후 한국영화의 후시 녹음에 따라 많은 부부가 은밀히 탄생하였으나 불발탄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중 「결혼교실」의 파문을 일으킨 정인엽 감독과 성우 이승옥의 1969년 결혼은 대본 이상의 멋진 결합이었다. 이들은 「명동에서 첫사랑을」에서 감독과 여배우의 짝을 이루어 영화 부부의 본격적인 한 쌍이 되기도 했다. 정인엽의 꾸준한 인내와 이승옥의 알뜰한 살림으로 정감독은 「여대생 또순이」를 직접 제작하였고, 「애마부인」 연속물로 흥행에 성공해 가장 비싼 감독으로 인기를 누렸다.

감독과 배우와의 결혼은 술한 결합과 헤어짐이라는 일화를 낳은 까닭에 많은 추문(醜聞)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정창화 감독도 「장화홍련전」에서 현재의 부인 서란희를 장화로 전격 기용해 배우로 키웠지만 용모의 열등의식으로 인해 이 한편으로 은퇴하고, 감독과 제작자의 부인으로 오늘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본보기이기도 하다. 영화계에서 예술인 부부로 통하는 유현목과 화가 박근자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많은 영화인들에게 사랑의 등불을 비춰주고 있다. 유감독은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많은 여배우들과 결혼한다는 뜬소문을 만들었으나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화가와 결혼을 하여 오늘날 명장으로서의 예술영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결혼 후 오늘날까지 자녀가 없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이들은 결혼 이후 각자의 예술세계를 고수하며, 부부간의 애정면에서도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 영화계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단연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쩌면 그들 세계에서 발생한 실제의 결혼과 이혼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인지 모른다. 최은희는 무명시절 촬영기사 김학성과 결혼하여 6.25전쟁 피난시절 남편이 종군기자로 집을 비운 사이에 신상옥 감독과 밀애를 나누다가 이혼 아닌 이혼으로 갈라선 후 신필름 왕국의 안방마님을 차지하면서 「성춘향」의 흥행성공과 함께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였지만 자녀가 없었던 관계로 말년에는 오수미에게 한때 안주인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가 북한에 납북과 탈출로 다시 끈끈한 부부애로 활동하고 있다.

악극단 단장에서 영화제작자로 변신한 최일과 눈물의 여왕 전옥 사이에서 태어난 강효실도 배우의 혼맥이 어지럽게 혼합된 이혼부부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영화계의 전진희라는 이름으로 「주검의 상자」에서 처음 데뷔한 강효실은 최무룡과 결혼하여 가장 행복한 부부로 불리웠다. 최무룡이 김지미를 만나 당시에 팬(fan)들의 지탄과 함께 쇠고랑을 차면서까지 뗀어진 일화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인기 배우로, 유부남 유부녀끼리 말썽 많은 연애 끝에 결합한 이들은 본 부인인 강효실의 고소와 함께 영화인협회에서 출연을 정지하는 등 미묘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가 결국 1968년 초에 그 사랑은 파멸로 끝나고 말았다.

영화감독 조궁하와 김혜정의 결합도 영화계의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결국은 이별로 끝난 단막극이었다. 김혜정은 「비련의 섬」에서 모 감독과의 연애로 파문을 일으켰다가 「철조망」으로 조궁하 감독과 단짝이 되어 5년간의 동거시대를 거치다가 1963년 3월 별거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앞으로 2 년동안 누구와도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결합할 수 있다’는 묘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운을 남겨 놓았지만 1967년 김혜정은 위키 리와 타워호텔에서 결합 발표를 하고, 신당동에서 3년을 살다가 다시 헤어졌다. 문화방송국(MBC TV)의 「억새풀」에 등장하였던 문정숙도 영화기획자로 활동하던 장일과 극단시절에 결혼하여 「숙영낭자전」에 사이 좋게 나오는 등 잉꼬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돌아 오지 않는 해병」으로 이름난 이만희 감독과 「만추」 촬영 이후에 가정을 박차버리고 결합함으로써 한국판 잉그리트 버그만을 재현하는 사랑과 예술의 ‘노라’가 되기도 했다.

문정숙은 장일호 감독 같은 시동생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이혼 후에는 단 한편의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아 영화계와는 거리감을 두고 생활해 왔다. 그 녀는 이만희와 동거하면서 「시장」, 「귀로」 같은 예술작품이 있었으나 영화와 가정을 공존시키지 못하는 이 감독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급기야 이별의 쓴 잔으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었다.

이 감독의 딸 이해영은 아버지의 기질을 닮아서인지 「엄마 결혼식」, 「땡뻬」에 출연, 은막의 새로운 배우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본명 정옥순, 극단 예명 지일화, 영화명 도금봉으로 개명한 그녀는 단연 한국판 ‘라나 러너’이다. 그녀는 악극단 시절인 18세에 맺어진 이원철과의 결혼에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다. 그러나 6.25전쟁이라는 처절한 상처와 영화라는 새로운 직업이 이들을 갈라놓았고, 운명의 장난인 양 황진이의 풍류답게 그녀는 배우, 가수, 운동선수, 장성 등 수많은 남성과의 교제로 은막 외적인 불나비가 되어 1950년대 ~ 1960년대 말까지의 무수한 추문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1963년 10월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한다’는 모성애를 보이고 첫 남편 이원철과 원점에서 결합하였으나 그것도 그녀에겐 사치스러운 행복인 듯 비운으로 끝나고 말았다.

김진규와 이민자의 결합도 영화계의 혼맥을 어지럽게 보인 영광스럽지 못한 대열에 끼인다. 약초 가극단과 약초 영화배우연구소 출신인 김진규와 무대 출신 이민자는 6.25전쟁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생계 때문에 김진규는 「피아골」로 영화계에 등장하였고, 이민자는 부산에서 다방을 하면서 「악야」에 나온 후, 「미망인」으로 본격적인 배우생활을 하였다. 이들 사이에 김진철과 김진수가 태어났다. 김진철은 「민들레꽃도 봄이면 핀다」 「사명당」에서 아버지와 공연하였으며 김진수는 김진으로 개명하여 「신설(新雪)」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는 말을 실감케 해주었다. 「옥단춘」에서 윤인자의 몸종으로 분한 김보애는 1957년 11월 세상의 구구한 억측을 깨뜨리고 김진규와 결혼식을 올려 김진아를 「수령에서 건진 내딸로」 가업 2대로서 성장시켰지만, 「성웅 이순신」의 제작에 따른 자금난으로 이들 부부는 이별의 광상곡(랩소디)을 불러야만 하였다. 이민자 역시 1960년대초 외화수입업자 김선호를 만나 「울지 않으련다」로 슬픔을 달랬으나 영화의 참패와 함께 이씨의 자살로 또 다시 홀로 사는 신세가 되다가 일본의 오오사카에서 불귀(不歸)의 객이 되었다.

초기의 영화부부는 유랑극단에서 고생을 같이 하다가 6.25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헤어지는 쓰라림을 맛보기도 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이혼 50년사는

대개 광복 ~ 6.25전쟁까지가 제 1기라 할 수 있는 결혼 혼란시대이고, 제 2기로는 자유당 말기인 4.19혁명까지로 이혼전성시대이며, 제 3기는 1972년 유신(維新) 이전까지로 합의 이혼 시대, 제 4기는 가정 정착시대로 개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의 혼맥은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특이한 불연속선을 긋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자식에게만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것이 공통분모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윤인자는 방송작가 민구와 4년간 살다가 헤어졌고, 다시 금 ‘선창’의 인기가수 고운봉과도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나 이 역시 헤어지고 마는 남남의 자국을 남겼다.

극장주의 아들과 하려한 결혼을 한 최정민은 1975년 6월 때아닌 박동명 추문의 엽색(獵色)명단에 올라 가정 풍파를 일으키다가 결국은 의치증으로 인한 남편의 학대로 결혼의 단꿈이 과정으로 끝장난 사례도 있었다.

홍성기 감독의 「열애」에 첫 출연한 양미희와 촬영기사 정인엽도 홍콩 현지촬영 작품 「망향」을 촬영하며 만나 해외에서 밀애를 즐기며 8년을 살다가 불합리한 성격으로 헤어졌다.

「가는 봄 오는 봄」의 청순한 이미지의 각광을 받은 전계현은 육군대위인 김택현과 결혼하여 단란한 생활을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남편이 사망한 후 독신으로 있다가 천문학 교수인 조경철과 재혼하여 은막과 이별하기도 했다. 그 녀는 1977년 김수용 감독의 부활 성공작 「산불」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요즈음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로 헌신하고 있다.

가장 특기할 혼맥의 대표적인 것은 최인규 감독과 김신재를 들 수 있다. 광복 전 최 감독의 「수업료」, 「집없는 천사」에서 공연한 이들은 보조원들의 축복 속에 단란한 가정생활을 꾸려 연예계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최인규 감독은 북한으로 납치되자 부인 김신재는 부산과 서울에서 다방을 하여 생업을 이어가며, 영화에도 간혹 출연하는 등 독신으로 지내다가 미국에서 타계하였다.

4. 의리와 신의의 배우, '충무로 3인방'

“처음 제가 악역 분장을 하고 스크린에 나왔을 때 입니다. 길거리에서 저를 기억하는 영화 팬들은 만나면 ‘최고의 악인’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었죠”

활극 배우의 대부(代父)라고 할 수 있는 장동휘의 회상이다. 「비극은 없다」, 「청춘극장」, 「지평선」, 「내 청춘에 한은 없다」 등 무수한 영화에서 그는 인민군, 왜놈 앞잡이, 암흑가 보스 등 주로 악역 만을 전매특허처럼 맡았다.

김복 감독의 「현상불은 사나이」 - 이 영화는 당대 최고의 활극 배우 장동휘의 탄생을 알린 작품이다. 여기에서 장동휘는 황해와 공연을 했다. 이 영화에서 황해는 악당들에 의해 살해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진해서 암흑가의 발을 들여놓는 역할을 맡았다. 하나 하나 부모의 원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는 어느덧 ‘현상 불은 사나이’가 된다. 경찰에 쫓기면서 결국 부모의 살해 주범인 장동휘를 처단하고, 마침내 경찰에 체포된다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다. 여기서 보여준 육중한 두목 장동휘의 묵직한 연기는 오랫동안 활극영화 애호인들의 뇌리에 각인(刻印)되어 있다.



「독공대와 돌아오지 않는 해병」 영화의 한 장면
— 장동휘 주연

장동휘는 1957년 나운규의 「아리랑」을 통해 영화에 첫선을 보였다. 일본놈들이라고 하면 몸서리가 치질만큼 증오스러워 결국 미칠 수 밖에 없었던 그는 끝내 왜놈을 찢어 죽이고서야 미친 증세가 가시고 만 「아리랑」의 주인공이 그의 역할이었다.

장동휘가 악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작품은 이만희 감독의 전쟁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었다. 이 영화는 악역 전문배우라는 장동휘의 이미지를 전형적인 군인상으로 바꾸어 놓은 영화였다.

그는 1972년 「대전장」으로 대중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명동 노신사」, 「수선화」, 「별난 장군」, 「한강」 등의 작품에서는 선량한 역할을 잘 소화해 내기도 했다. 1920년생, 그는 올해 85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1994년에는 윤정희와 함께 「만무방」에 출연했고, 1995년에는 유현목 감독의 「말미잘」에서 열연하는 등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했다. 노병(老兵)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은막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봉래 감독 「사랑해선 안될 사랑을」 영화의 한 장면
— 주연 : 문정숙 · 김진규 · 황 해 · 이민자

가수 전영록의 아버지이기도 한 황해는 장동휘보다 한 살 적은 1921년생이다. 그는 한국의 캐그니로 불렸을 만큼 청년시절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 황해를 활극 배우의 대열에 올려놓은 작품은 하한수 감독의 「자장가」로 한국영화계에 활극 영화의 신경지를 개척한 작품으로 기록되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황해는 불량한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스스로 악당의 소굴로 들어가는 형의 역할을 맡았다. 결국 악당 일파인 술개미 일당의 두목 허장강을 처치하고 죽어가면서 황해가 동생에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영화는 후련한 활극이 질펀하게 깔려있는데다가 형제애가 양념으로 섞여있어 그 동안 통속극 전문으로 인식되어 온 황해와 허장강을 활극배우의 인상으로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다.

활극 배우이면서도 통속극 배우로서 황해의 진가가 여지없이 발휘된 작품은 이예춘, 박노식, 이경희가 함께 출연한 「두 남매」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 속에서 황해에게는 이경희라는 누이동생이 있었다. 황해와 이예춘, 박노식은 죽마고우였다. 그리고 이경희와 이예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황해는 계모의 농간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암흑가의 두목이 되어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다. 몸을 숨기고 다니던 중에 그는 행복한 줄만 알았던 누이동생이 친구 이예춘에



허장강(본명 허장현 : 허준호 · 허기호의 부친)

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울분을 터뜨린다. 마침내 두 남매가 부두에서 상봉하던 날, 황해는 동생을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 마를 사이도 없이 경찰관이 된 박노식에 의해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황해는 1949년 「성벽을 뚫고」로 은막에 등장했다. 이후 「아름다운 악

녀», 「나는 고발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평선», 「햇빛 쏟아지는 벌판」 등 수많은 영화에서 활극 배우로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한편 인기 영화배우 허준호와 허기호의 아버지인 허장강의 본명은 허장현이다. 그는 긴 강줄기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배우가 되라는 뜻에서 본명을 미련없이 버리고 허장강이란 예명으로 영화계를 살다갔다. 그는 구수한 목소리로 결코 밟지 않은 활극 배우의 대명사였다. 허장강은 1961년 신상옥 감독의 「상록수」에서 농촌운동을 하는 마을 청년으로, 「성춘향」에서는 방자로 열연하였다. 이 배역 만을 본다면 누가 그를 악역배우라고 부르겠는가. 그러나 그는 「피아골」에서 독사처럼 알미운 빨치산으로 등장한 것을 비롯해 「노들강변», 「아름다운 악녀», 「슬픔은 강물처럼», 「종말없는 비극», 「사랑과 죽음의 해협」 등에서 음흉한 악당이나 사기꾼으로 나오는 등 다양한 연기 변신을 보여주었다. 1967년에는 이만희 감독이 이런 허장강의 성격을 최대한 살려 그를 주인공으로 「사기왕 미스터 허」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다. 이 영화에서 허장강은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사는 건달로 나온다. 사기 한탕을 잘 쳐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게 그의 꿈이다. 그런 그에게 한 유부녀의 외도가 포착된다. 이 장면을 목격한 그는 유부녀에게 공갈을 쳐 거액을 뜯어낸다. 하지만 그 유부녀가 과거를 회개하고 건실한 가정주부로 되돌아간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래서 사기 친 돈을 어느 시골 희망학교 설립 기금으로 희사하고, 그 자신도 갱생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 영화는 배우 허장강의 진면목이 모두 담긴 작품으로 영화 애호가들에게 기억된다.

활극 배우 3인방으로 꼽히는 장동휘 황해 허장강은 한때 ‘동인영화사’라는 영화제작사를 충무로에 설립, 활극 배우 동료로서 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의리의 동료애를 발휘했다.

1920년생인 장동휘가 큰형이었고, 그 뒤가 1921년생인 황해, 그리고 1923년생인 허장강이 막내의 순서로 영화관계 업무를 체결했다. 이들은 1965년 활극 배우 전성시대에 「송화강의 3악당」을 함께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영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적 불명의 내용이었던 이 영화는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다.

이후 세 사람은 재기작으로 1966년 「악명 높은 사나이」를 다시 제작했으나 이 작품 역시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더 이상 영화사를 지탱하지 못하고 두 작품으로 영화사 문을 닫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만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음을 충무로는 증언해 주고 있다.

5. 충무로는 살아있다

지하철 충무로역은 3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다. 3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긴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을 타고 올라서면 금박을 입힌 종(鐘)이 부조로 되어 벽면에 나타난다. 대중상의 상징이다. 이 금박 종 아래에는 직사각형 붉은 보료가 깔려있고, 그 양 옆으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하철을 바꿔 타기 위해 종종 걸음을 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사진들을 본 듯 만 듯 지나가곤 한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중 일부는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중상 역대 수상자들의 감격해 하는 장면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미국에 헐리우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충무로가 있다. 한국 영화의 메카(mecca), 영화인의 거리 충무로는 남북 방향으로서는 세종호텔과 중앙시네마 옆을 지나는 삼일로에서부터 돈화문로(매일경제 구관 앞길)에 이르는 구간이다. 동서 방향으로서는 퇴계로와 마른내길이 만나는 직사각형 구간을 영화인들은 충무로라 부른다. 건물을 중심으로 표시하면 극동빌딩·쌍용빌딩·명보극장·매일경제신문사 네 개의 꼭지점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성인걸음으로 20분이면 한 바퀴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영화의 메카, 충무로 얘기를 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장동휘 주연 「돌아오지 않는 해병」 영화의 한 장면

길은 돈화문로와 수표다리4길이
다. 낙원동에서 시작된 수표다리
길은 남쪽으로 극동빌딩까지 이
어지면서 양옆으로 수표다리1~6
길이 나있다. 수표다리4길에는
1960~1970년대 수많은 영화사,
다방, 배우/가수학원, 영화전문잡
지사, 여관, 식당 등이 밀집해 있
었다.

충무로의 상징 건물인 극동빌딩 옆길은 ‘은막길’이다 1960년~1970년대 충무로를 주름
잡았던 김지미, 문희, 윤정희, 남정임을 가리켜 사람들은 ‘은막의 여왕’이라고 하였지만 「은
막길」이라는 표현은 전설이 되고만 감이 있다. 현재는 필름대리점, 출력소, 현상소, 인쇄소, 슬
라이드 대여점, 기획이벤트 등이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몰려 있는 것은 충무로에서만 볼 수 있
는 광경이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충무로에는 영화와 얽힌 유명한 다방이 몇 곳 있었
다. 스타다방, 초원다방, 벤허다방, 폭포수다방, 청맥다방 등이 그것이다.

1960년대 스타다방은 조연, 단역, 임시 고용 출연자(엑스트라)들의 집합소이자 연락사무
소였다.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1960년대로 돌아가 보자. 조감독이 스타다방의 문
을 열고 들어가자 실내는 담배연기로 자욱하다. 20 개 테이블의 나무의자 여기저기에 최봉,
김철성, 장혁, 독고성, 양택조, 남포동 등의 얼굴이 할 일없이 다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감독이 들어오자 일제히 배우들의 시선이 조감독에게 모아진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거나 일어나 조감독에게 아는 체를 한다. 조감독은 다방 안을 쪽 훑어보면서 담배를 한 모
금 길게 내뿜은 뒤 입을 열었다. “어이, 거기 다섯 사람 내일 새벽 4시에 제일옥으로 나와!”하
는 순간 배우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1962년에 문을 연 폭포수 다방에 들어가면 이만희 감
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 출연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 장동휘, 박노식, 장혁, 최성 등 이
른바 ‘이만희 사단’의 연락사무소가 폭포수다방이었다. 이만희 사단이 이 다방을 자주 이용
한 까닭은 이 감독이 소속돼 있던 대원영화사가 대한극장 건너편에 위치해 폭포수 다방과 가

까웠기 때문이다.

청맥다방은 시나리오 작가와 조감독이 주로 모이는 장소였다. 작가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던 시절에 영화대본 작가들은 근처 여관이나 청맥다방에서 원고를 썼다. 다방 마담은 영화사 사장이나 조감독의 전화 메모를 받아주고 약속 장소를 전해주는 등 사실상



지하철 충무로역

비서 역할을 했다. 청맥다방은 원래 수포다리4길 스타다방 옆에 있다가 1986년 돈화문로로 옮긴후 1997년에 문을 닫았다. 그 밖에 벤허다방은 영화감독, 초원다방은 제작자와 감독이 자주 이용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극동빌딩 지하 극동커피숍은 영화기획자들과 지방 극장주들의 약속장소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1970년대 충무로에는 대원호텔(현 대원빌딩), 아스토리아호텔, 라이온스호텔(현 라이온스 빌딩) 3 개의 호텔이 있었다. 조감독을 비롯한 보조원과 배우들이 주로 다방을 이용했다면 유명 영화감독들은 주로 호텔 커피숍에서 제작자나 배우를 만났다

라이온스호텔은 유현목 감독을 위시한 1 세대 감독들이 주로 이용했다. 아스토리아호텔 커피숍은 2세대 영화감독들의 명소였다. 「겨울여자」의 김호선 감독은 영화 「애니깽」을 만들 때 아스토리아 호텔 객실을 장기간 빌려 사용하기도 했다. 대원호텔은 대원오피스텔로 바뀌었는데 영화배우 신성일이 만든 영화사가 이곳에 있었다.

충무로에서 수많은 일화를 남긴 곳은 동신여관이었다. ‘동신여관에 투숙하지 않은 사람은 영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신여관은 영화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영화대본 작가들은 이 여관에 방을 잡고 글을 썼으며, 다음날 청맥다방으로 원고를 들고 나갔다. 특히 동신여관은 아침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서 군상상고와 경남고 야구팀이 전국고교야구대회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오면 반드시 묵었던 여관이다. 군상상고는 동신여관에서 아침밥을 먹고, 1972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고를 극적으로 이겨 ‘역전의 명수’

리는 신화를 창조했다. 동신여관은 중부소방서 충무로 파출소 옆 골목에 있었는데, 지금은 해봉빌딩으로 바뀌어 영화배급사들이 들어있다.

1986년은 충무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우리나라가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영화사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자 영화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20 개이던 영화사가 1986년 한 해에 130개로 늘었고, 이 중 100 개 이상이 충무로에 몰려 있었다.

현재 등록된 영화사는 1,000여 개에 이른다. 충무로에는 영화사가 소리없이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사라지곤 했다. 작은 영화사들은 사장, 경리직원, 제작부장, 운전기사 등 3~5 명이 전부였다.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영화시장의 80% 이상을 외국영화가 장악했다. 영화사들은 외국영화 수입으로 돈을 벌고 여기서 번 돈으로 한국영화를 제작하곤 했다. 영화사 사장은 영화제작이 결정되면 충무로에 넘쳐나는 영화배우와 영화인들 사이에서 감독, 주연배우 등을 물색하여 각각 계약을 한 뒤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 거액을 투자해 만든 영화가 며칠 만에 간판이 내려져 망하게 되면 야반도주하는 일도 흔했다. 그래서 충무로의 빌딩주들은 한 때 영화사가 입주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곤 했다. 1990년대에 비교하면 많은 영화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충무로를 떠났지만 2004년 현재 충무로는 여전히 충무로다. 충무로의 대형빌딩인 동화빌딩, 국제빌딩, 혜성빌딩, 영한빌딩, 흥국빌딩 등에는 크고 작은 영화사들이 들어있다. 씨네마 서비스는 영화인들 사이에 속칭 ‘코끼리 빌딩’으로 불리는 흥국빌딩의 4~5층을 쓰고 있다. 흥국빌딩 내에는 씨네마 서비스 외에도 요즘 한창 뜨는 영화사들이 있는데 감독의 집(대표 김상진) · 필름 매니아(대표 지미향) · 씨네 2000(대표 이춘연) · 한맥영화(대표 김형준) · 좋은영화(대표 김미희)가 그것이다. 감독의 집에서는 2002년 하반기 최대 흥행 성공작 「광복절 특사」, 씨네 2000에서 「중독」, 좋은영화에서 「신라의 달밤」을 각각 제작했다. 흥국빌딩 앞에는 ‘영화촬영’이라는 수지(아크릴) 안내판을 운전석 앞에 끼운 버스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극동빌딩 뒤편의 영한빌딩에는 「달마야 놀자」와 「황산벌」을 제작한 영화사 씨네월드(대표 이준익)가 있다.

영화홍보회사 올댓 씨네마(All that cinema) 대표 채윤희는 여성 영화인의 대모(代母)로 불린다. 채윤희 대표는 1986년 라이온스 빌딩에 있던 양전홍업 기획실 직원으로 충무로에서

영화밥을 먹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충무로에는 채윤희와 같은 영상세대의 젊은 인재들이 대거 영화의 꿈을 쫓아 뛰어 들었다.

1990년대 초반 충무로에는 ‘영화사 기획실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채윤희, 심재명, 이춘연, 노종윤, 지미향, 윤명오, 소병무, 안동규 등 젊은 기획실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모임에서 매년 ‘올해의 기획자’를 선정하곤 했다.



대림정 식당

채윤희 대표는 1991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올해의 기획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삼겹살 집 삼우정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베어가든으로 2차를 가곤 했다. 베어가든은 젊은 기획자들에게 1990년대의 ‘스타다방’이었다. 당시 기획실 직원으로 다리가 붓도록 다리 폼을 팔며 갖은 고생을 했던 이들은 영화사, 영화홍보사 등을 차리면서 한국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돈화문로 대원빌딩 맞은편 골목 안에는 한식당 황소집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보은집이 나온다. 1980년대 여름철 새벽마다 이 골목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했다. 배우들과 보조원들은 보은집 맞은편에 있던 장호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벽밥을 먹고 ‘부르릉’ 거리는 영화 촬영 전세버스에 몸을 실었다.

새벽 6시에 충무로를 출발한 영화 촬영 버스는 그 다음날 새벽 비슷한 시각에 파김치가 된 배우와 보조원들을 부려놓곤 했다. 영화 촬영으로 인해 충무로의 식당, 다방, 여관은 24시간 영업을 했다. 몇몇 영화사들이 충무로를 떠난 요즘 이런 새벽 풍경을 흔히 볼 수 없게 되었다.

충무로의 유명한 맛집은 전부 한식집이고 싸고 맛있는데 특징이다. 충무로역 9번 출구에 자리하고 있는 대림정은 4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다. 돈화문로의 한식당 진고개도 충무로 역사와 호흡을 같이 해왔다. 앞서 소개한 보은집과 황소집은 촬영 떠나는



진고개 식당

영화인들에게 따뜻한 새벽밥을 지어 주던 곳이다. 보은집 여사장은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영화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온다”고 말한다.

충무로3가 길에 있는 충무로 돼지갈비는 일본인이 특히 많이 찾는다. 은막길은 충무로3가길과 교차하면서 5거리를 만드는데, 이곳에는 찌그러진 냄비에 칼국수를 끓여

내놓는 칠갑산 칼국수가 있고, 강우석 감독 등이 즐겨 찾는다.

영화의 거리, 충무로의 또 다른 즐거움은 ‘한국의 집’과 ‘남산 한옥 마을’이 이웃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무로역에서 남산한옥마을(옛 수도방위사령부)로 가는 길에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있고, 그 옆길로 조금 올라가면 ‘한국의 집’이 있다. 현재 ‘한국의 집’에서는 전통한식당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전통민속공연, 전통혼례 재연, 전통문화상품의 전시 판매를 하고 있다. ‘한국의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로비(lobby)격인 해린관과 그 안쪽에 있는 전통 한옥 환벽루와 마당이 조화가 되어 뿜어내는 분위기는 신비롭기 그지없다.

한국의 집은 조선시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사저였다. 이 집 북쪽 모퉁이에는 일제 때까지 오래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옛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육신송(六臣松)이라고 불렀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저항하다 처참하게 죽기 전에 박팽년이 이 집에 살면서 손수 심었던 나무이기 때문이다. 박팽년의 집은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한때 영빈관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1970년대에 배우 윤정희와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이곳에서 결혼했다. 한국의 집은 한옥마을과 쪽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퇴계로는 시원하게 변신 중이다. 대한극장은 초현대식 복합상영관으로 바뀌었고, 매일경제신문사는 새 사옥을 지었으며, 샘표식품은 42년 만에 충무로에 돌아와 본사를 매일경제신문사 사옥에 두고 있다.

그 옛날 유명감독과 영화배우들이 휘저었던 충무로의 작은 골목들은 너무나 퇴락해 보인다.

그래서 골목을 걷다보면 마음 한편이 쓸쓸해진다. 스카라극장은 2005년이면 70 주년의 고희(古稀)가 된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카라극장 만이 충무로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35년의 전통을 지닌 사랑방 칼국수는 정말 충무로를 외롭게 지키는 파수병격이다. 낡은 의자와 식탁이 인상적이며 칼국수, 냉콩칼국수, 비빔칼국수가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대한극장과 스카라극장을 축으로 미로(迷路)처럼 얽히고 설킨 허름한 골목길에는 식당이 오밀조밀하게 숨어있어 식당 찾는 재미가 있다.

충무로 식당들은 한결같이 서민 취향들로 한끼 5천원 내외면 고개가 꺾여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집들로, 부산복집을 위시하여 서울뚝배기, 문래대구탕, 뚝보 돼지갈비집은 명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6. 되살아나는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충무로 하면 영화의 메카로 떠올리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영화에 관련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또 명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어두워 2004년 1월부터 옛 명성을 찾기 위해 중부 거북상조회는 충무로 일대 음식점 간판을 영화 포스터로 교체하였다.

특히 충무로 일대를 대표적인 「영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충무로 ~ 수표다리길 ~ 마른내길 ~ 돈화문로에 회화나무를 심고, 영화라는 주제에 걸맞은 영화 포스터나 스틸사진 등으로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매년 충무로 영화거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추진협회’가 설립되어 한국 영화의 영욕을 45년간 누렸던 영화인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려는 획기적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흥행계를 주도하였던 대한극장과 명보극장, 스카라극장 및 중앙극장 등이 위치하는 충무로 2,3,4가 일대를 대상으로 영화역사문화관과 영화촬영 현장을 설치하고, 도시속의 색다른 영화세계를 구현하여 ‘영화의 거리’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충무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여 영화관련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메카 충무로

영화하면 충무로를 연상시킬 만큼 화려했던 지난날을 다시금 부활시켜 한국영화에 빛나는 영화 흔적이 21세기에도 살아 움직이는 충무로 거리로 영원히 발전하며 영화가 살아 숨쉬는 신화의 고향이 되었으면 한다.

2004년 5월 3일에는 충무로3가에 위치한 동승각 4층에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하고, 5월 28일 정식으로 사업 추진의 고고성(呱呱聲)을 울렸다.

〈 정 종 화 〉



충무로 '영화의 거리'

<부록>

1) 역대 해외영화제 수상 작품

NO	영 화 제	연 도	수 상 작 품
1	시집가는날	1957	아시아 영화제 희극상
2	자유결혼	1958	아시아 영화제 소년특별연기상 / 박광수
3	흙	1960	아시아 영화제 음악상
4	연산군	1962	아시아 영화제 미술상
5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1962	아시아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6	마부	1962	베를린 영화제 특별은곰상
7	이 생명 다하도록	1962	아시아 영화제 아동특별연기상 / 전영선
8	10대의 반항	1960	샌프란시스코영화제 / 안성기
9	또순이	1963	아시아영화제 주연여우상
10	빨간마후라	1964	남우주연상 / 감독상
11	김약국의 딸들	1964	아시아 영화제 비극상
12	병어리 삼룡이	1965	아시아 영화제 남우주연상
13	남과북	1965	아시아 영화제 비극상
14	쌀	1965	아시아 영화제 감독상
15	군번없는 용사	1966	아시아 영화제 자유상
16	청일전쟁과 여결민비	1966	아시아 영화제 남우 및 여우주연상
17	갯마을	1966	아시아 영화제 흑백 촬영상
18	귀로	1967	아시아 영화제 음악상
19	소복	1967	아시아 영화제 흑백 촬영상
20	육군 김일병	1970	아시아 영화제 편집상
21	무녀도	1972	아시아 영화제 인기여우상 / 기획상
22	독짓는 늙은이	1969	인도국제영화제 작품대상
23	수학여행	1969	특별명예상 (테헤란)
24	토지	1974	파나마영화제 주연여우상

NO	영 화 제	연 도	수 상 작 품
25	너의 이름은 여자	1969	아시아영화제 주연여우상
26	박서방	1961	아시아영화제 주연남우상
27	만다라	1982	베를린영화제 예선통과
28	피막	1981	베니스영화제 예선통과
29	만추	1983	제2회 마닐라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30	바보선언	1983	제19회 시카고국제영화제 본선지출
31	물레야 물레야	1984	제20회 시카고국제영화제 촬영상
32	적도의 꽃	1984	아태영화제 (29회) 감독상
33	땡뻐	1985	베를린영화제 본선진출
34	자녀목	1985	제1회 동경영화제 세계우수영화베스트30 선정
35	깊고 푸른밤	1985	아태영화제 (30회) 최우수작품상
36	길소뜸	1986	제36회 베를린영화제 본선진출
37	씨받이	1987	제44회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
38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1987	제2회 동경영화제 국제비평가연맹상
39	기쁜 우리 젊은날	1987	아태영화제 (30회) 남우주연상
40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989	제42회 로카르노영화제 금표범상
41	아제 아제 바라 아제	1989	제16회 모스크바영화제 최우수여우상
42	아다다	1988	제12회 몬트리얼영화제 최우수여우상
43	철수와 만수	1989	로카르노영화제 청년비평가상
44	그들도 우리처럼	1990	낭트영화제심사위원대상 제5회 싱가포르영화제 최우수상
45	은마는 오지 않는다	1991	제15회 몬트리얼영화제 최우수여우상
46	나의사랑 나의신부	1991	아태영화제 남우주연상
4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몬트리얼영화제 베스트 프러듀서상(특별상)
48	하얀 전쟁	1992	제5회 동경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49	사의 찬미	1992	제37회 아태영화제 주연여우상
50	살어리랏다	1993	모스크바영화제 남우주연상
51	한줌의 시간 속에서	1993	이탈리아 살레르노영화제 대상
52	화엄경	1994	제44회 베를린영화제 특별상

역대 해외영화제 수상 작품

NO	영 화 제	연 도	수 상 작 품
53	서편제	1994	제7회 싱가포르영화제 최우수작품상
54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1994	제42회 산세바스찬영화제 특별상
55	만무방	1994	94 포르로더데일영화제 최우수작품상
56	장미빛 인생	1994	제16회 낭트3대륙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57	꽃잎	1996	제41회 아태영화제 작품상
58	미친사랑의 노래	1990	제35회 아태영화제 작품상
59	돼지가 우물에 빠진날	1997	제15회 밴쿠퍼영화제 영시네마부문 최우수작품상
60	은행나무침대	1997	제1회 페낭영화제 편집상
61	나쁜영화	1997	동경영화제 아시아영화상 수상
62	아름다운 시절	1998	제11회 동경영화제 금상
63	오! 수정	2000	제13회 동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64	춘향뎐	2000	제20회 하와이영화제 최우수작품상
65	취화선	2001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66	마리아야기	2001	제26회 앙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랑프리
67	오아시스	2002	제59회 베니스영화제 감독상
68	살인의 추억	2003	제51회 산세바스찬영화제 감독상
69	바람난 가족	2003	스톡홀름영화제 여우주연상
70	올드보이	2004	제57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71	빈집	2004	제61회 베니스영화제 감독상

2) 대한민국 50년 한국영화 베스트 50

NO	제 목	제 작 연 도	감 독	촬 영
1	오발탄	1961	유현목	심재홍
2	만다라	1981	임권택	정일성
3	하녀	1960	김기영	김덕진
4	만추	1966	이만희	서정민
5	서편제	1993	임권택	정일성
6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989	배용균	배용균
7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1	신상옥	최수영
8	피아골	1955	이강천	강영화
9	마부	1961	강대진	이문백
10	길소뜸	1985	임권택	정일성
11	우묵배미의 사랑	1990	장성우	유영길
12	그들도 우리처럼	1990	박광수	유영길
13	바보들의 행진	1975	하길종	정일성
14	삼포가는길	1975	이만희	김덕진
15	바보선언	1983	이장호	서정민
16	바람불어 좋은 날	1980	이장호	서정민
1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박종원	정광석
18	안개	1967	김수용	장석준
19	티켓	1986	임권택	구중모
20	마음의 고향	1949	윤용규	한형모
21	하얀전쟁	1992	정지영	유영길
22	개그맨	1988	이명세	유영길
23	철수와 만수	1988	박광수	유영길
24	남부군	1990	정지영	유영길
25	초록물고기	1997	이창동	유영길

NO	제 목	제 작 연 도	감 독	촬 영
26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996	홍상수	조동관
27	파업전야	1990	장산곶매	
28	박서방	1960	강대진	이문백
29	영자의 전성시대	1975	김호선	장석준
30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3	이만희	서정민
31	깊고 푸른 밤	1984	배창호	정광석
32	씨받이	1986	임권택	구중모
33	갯마을	1965	김수용	전조명
34	낮은 목소리	1995	변영주	김용택
35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1987	이장호	박승배
36	꽃잎	1996	장선우	유영길
37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허진호	유영길
38	짜코	1980	임권택	구중모
39	피막	1980	이두용	손현채
40	비무장지대	1965	박상호	안윤혁
4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박광수	유영길
42	별들의 고향	1974	이장호	장석준
43	시집가는 날	1956	이병일	임병호
44	물레야 물레야	1983	이두용	이성춘
45	강원도의 힘	1998	홍상수	김영철
46	한줌의 시간속으로	1994	백일성	
47	꼬방동네 사람들	1982	배창호	정광석
48	로맨스 빠빠	1960	신상옥	배성학
49	장마	1979	유현목	유영길
50	성춘향	1961	신상옥	정해준

3) 연도별 관객동원 1위 작품

NO	제 명	연 도	감 독	관 객
1	춘향전	1955	이규환	118,200
2	자유부인	1956	한형모	76,924
3	실낙원 의 별	1957	홍성기	66,377
4	별아 내가슴에	1958	홍성기	92,115
5	육체의 길	1959	조공하	94,146
6	흙	1960	권녕순	78,484
7	성춘향	1961	신상옥	361,973
8	연산군	1962	신상옥	182,357
9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3	이만희	227,800
10	빨간 마후라	1964	신상옥	236,576
11	저 하늘에도 슬픔이	1965	김수용	284,302
12	유정	1966	김수용	327,415
13	청춘극장	1967	강대진	227,023
14	미워도 다시 한번	1968	정소영	368,831
15	내시	1969	신상옥	321,420
16	미워도 다시 한번 3편	1970	정소영	196,839
17	화녀	1971	김기영	213,567
18	충녀	1972	김기영	155,352
19	증언	1973	임권택	232,760
20	별들의 고향	1974	이장호	464,308
21	영자의 전성시대	1975	김호선	361,213
22	고고알개	1976	석래명	258,978
23	겨울여자	1977	김호선	585,775
24	속 별들의 고향	1978	하길종	298,125
25	내가 버린 남자	1979	정소영	239,718

연도별 관객동원 1위 작품

NO	제 명	연 도	감 독	관 객
26	미워도 다시 한번 '80	1980	변장호	364,538
27	자유부인 '81	1981	박호태	287,929
28	애마부인	1982	정인엽	315,738
29	적도의 꽃	1983	배창호	155,042
30	고래사냥	1984	배창호	426,551
31	깊고푸른밤	1985	배창호	495,573
32	어우동	1986	이장호	479,225
33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1987	이규형	260,916
34	매춘	1988	유진선	432,609
35	서울무지개	1989	김호선	261,220
36	장군의 아들	1990	임권택	678,946
37	장군의 아들 2	1991	임권택	357,697
38	결혼이야기	1992	김의석	526,052
39	서편제	1993	임권택	1,035,741
40	투캅스	1994	강우석	860,443
41	닥터봉	1995	이광훈	376,443
42	투캅스2	1996	강우석	636,047
43	접속	1997	장윤현	674,933
44	편지	1998	이정국	821,500
45	쉬리	1999	강제규	6,000,000
46	JSA 공동경비구역	2000	박찬욱	5,830,000
47	친구	2001	곽경택	8,200,000
48	가문의 영광	2002	정홍순	5,050,000
49	살인의 추억	2003	봉준호	5,100,000
50	실미도	2004	강우석	11,070,000
51	태극기 휘날리며	2004	강제규	11,150,000

< 참고문헌 >

- 영화진흥조합, 『한국영화총서』, 1972.
- 안종화, 『한국영화측면비사』, 1962.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1969.
- 유현목, 『한국영화발달사』, 1997.
- 성영문화사, 『한국연예대감』, 1962.
- 『영화백과』제1집, 1975.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1976.
- 조희문, 『초창기 한국영화사연구』, 1992.
- 박봉희, 『국제영화잡지』, 1956 ~ 1963.
- 강대진, 『영화세계잡지』, 1956 ~ 1973.
- 이영일, 『영화예술연감』, 1965 ~ 1973.
- 국제영화뉴스사, 『영화연예연감』, 1970.
- 이구영, 『사건으로 본 영화이면사』, 1971.
- 박누월, 『조선영화발달사』, 1939.
- 이경손, 『무성영화시대의 자전』, 1964.
- 복혜숙, 『나의 영화 반세기』, 1974.
- 영화순보, 『조선영화 30년사』, 1940.
- 노만, 『한국영화사』, 1964.
-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2000.
- 김종원 · 정중헌, 『우리영화 100년』, 2001.

< 충무로 관련 연표 >

조선시대

- 1416(태종16년) 충무로1가 지역에 천등과 번개가 치면서 내관 박흥복(朴興福)집 앞의 버드나무와 인근의 침지사역원사 선존의(宣存義)집 기둥에 벼락
- 1491(성종22년)7월 충무로1가 지역 회현방 사제(私第)에서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탄생
- 1522(중종17년)10월 7일 충무로2·3가 지역의 훈도방에 사는 숙피장(熟皮匠) 지용(池龍)이 녹반(綠礬)을 중종에게 진상
- 1524(중종19년)10월 23일 충무로4·5가 지역의 목사동(墨寺洞)에 호랑이가 들어와 야간 통행금지 실시
- 1593(선조26년)2월 17일 충무로3·4가 지역의 목사동과 장흥고동(長興庫洞) 등지에 서울을 점령한 왜군의 진(陣) 4개 설치
- 1593(선조26년)2월 17일 충무로3·4가 지역 목사동에 주둔한 왜군이 행주대첩에서 패전하여 전멸
- 1601(선조34년) 동주 이민구(李敏求)가 13세에 진고개에 샘물[窟井]을 만듦
- 1598(선조34년)1월 3일 충무로1가 지역 회현방에 도주해 온 명나라군 20여 명이 은거하여 이들을 체포하려 다가 오히려 구타 당함
- 1606(선조39년)7월 26일 충무로2가 지역에서 행 상호군(行上護軍) 신응주(申應澍)의 아내 김씨와 그의 딸, 진산 도정 이유령(珍山都正 李有齡)의 아내 신씨(申氏) 및 여종 은가히(銀可屎) 등이 벼락을 맞아 사망
- 1612(광해군 4년)7월 1일 역적으로 죽은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의 충무로4가(성명방) 집을 헐고 연못을 파도록 윤허
- 1661(현종2년) 9월 3일 충무로1가 지역 회현방 사제(私第)에서 숙종비 인경왕후 탄생
- 1750(영조26년) 충무로3가 60-1번지에 균역청 건물 건립
- 1751(영조27년) 「수성책자(守成冊子)」를 간행 반포할 때, 금위영(禁衛營) 좌정(左停)에 지금의 충무로 지역 일부 포함
- 1867(고종4년)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충무로 지역을 한성부 남부 명례방 명례동계·회현방 회현동계, 장흥동계·훈도방 주자동계, 저전동계, 박정계·낙선방 와유두리게·성명방 연성위계·명철방 쌍림동계로 제정
- 1882(고종19년)8월 16일 임오군란 후 일본군 1,200명이 서울로 입성하여 순조 때 금위대장을 지낸 충무로2가 이종승(李鍾承)집을 일본공사의 숙소로 사용
- 1884(고종21년) 낙동(駱洞 : 현 중앙우체국 뒷편) 한옥에 독일공관이 임시로 들어섬. 1886년 11월에 박동으로 이전
- 1987(고종24년) 2월 명동에 진출한 일본상인들이 경상의회(經商議會)를 조직
- 1887(고종24년) 일본공사관 아래 주자동에 일본식 고급요정 정문루(井門樓) 개업

영화의 메카 충무로

1888(고종25년) 10월	진고개 부근에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출장소 설치(1903년에 제일은행 경성지점 승격)
1893(고종30년)	충무로2가 52번지에 일본공사관 건립
1894(고종31년)	갑오개혁 때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무로지역이 한성부 남서 명례방 명동계 명동, 대릉동계 대릉동, 종현계 종현동, 저동계 저동·회현방 회동계 회동, 대릉동계 대릉동, 장동계 낙동, 장흥동계 장흥동·훈도방 주동계 주동, 박정계 초동, 궁기동계 궁기동, 주동계 주동, 필동계 필동·성명방 초동계 초동·낙선방 묵동계 묵동, 필동계 필동, 연성위계 회동, 일관동계 생민동 예동, 와유두리게 오궁동, 침교동 오장동, 일관동계 침교동, 야현동계 야현동으로 됨
1895(고종31년) 8월	일본인 거류민과 영사관이 진고개 ~ 남대문간의 도로개수 공사 착수
1896(건양1년) 5월 14일	「조선 문제에 관한 웨베르·고무라 각서(小村覺書)」에 따라 충무로1가 19번지(중앙우체국 자리)·광화문에 일본군 400여 명 주둔
1896(건양1년) 12월 30일	일제가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터를 매입하여 일본영사관 청사 신축
1897(광무1년)	일본 상인들이 충무로입구에 일본인 상업회의소 설치
1903(광무7년) 2월	제일은행 인천지점의 서울출장소가 경성지점으로 승격
1904(광무8년) 2월 18일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진고개의 일본가옥들과 장악원(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 등 각처의 한국건물에 분산 주둔
1904(광무8년)	일본 거류민단이 충무로 2가 ~ 충무로 5가까지의 도로 확장·개수
1904년	충무로 소재 한미연초회사 창고에서 최초로 활동사진 공개
1905(광무9년) 2월 1일	을사조약 체결로 일본영사관이 폐지되고, 이 청사에서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업무 개시
1906(광무10년) 5월	제일은행 경성지점이 한국 총지점으로 승격
1906(광무10년)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 미쓰코시(三越) 오복점(吳服店)이 사보이호텔 자리에 3층 목조건물로 개점. 1929년 9월 미쓰코시 경성백화점으로 승격
	일본 거류민단이 진고개를 낮추고 길을 닦아 현대식 도로를 만든 뒤, 높이 5척의 방추 형태의 하수도 설치
1907년 6월 4일	영화상설관 단성사 개관
1907(융희1년)	일본 거류민단이 코리안 워터 워크사(Korean Water Works Co.)와 일본 거류민단 역소(日本居留民團役所), 일본인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매일 9만 가론씩의 무상 급수와 비상시에 임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체결
1908(융희2년) 12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종현(鐘峴)에서 이재명(李在明)의사에게 피습되어 중상
1909(융희3년) 12월 20일	경성이사청의 업무 폭증으로 청사가 협소하자 본관 동쪽에 1개 동의 청사를 완공하고 입주

일제침략기

1910년 10월 1일	한성부 명칭을 경성부로 개칭
1910년	일제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성이사청 건물을 경성부청사로 사용. 1926년까지 사용하다가 현재의 시청 자리로 이전
1910년	경성부 황금정에 경성고등연예관 설립
1911년 4월 1일	경성부를 5부 8면제로 바꾸면서 경성부 남부 명례방·회현방이 됨
1913년 4월 1일	남부 명례방 장악원동·명동·소룡동·대룡동·종현동·저동, 회현방 구남부동을 경성부 명례방·회현방으로 정함
1913년	홍행상설관 황금연예관(황금관에서 후에 국도극장) 설립
1913년	인현동에 소재한 대정관(大正館) 개관
1914년 4월 1일	충무로1가 ~ 5가 지역을 경성부 본정(本町)1정목·5정목으로 제정
1915년	충무로 입구에 있던 경성 우편국과 세종로에 있던 체신국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전화 송수신 시험 실시
1915년	충무로 1가 21번지에 경성우체국 준공
1916년	경성부 본정에 경성극장 개관
1917년	경성부 명치좌에 낭화관(狼花館) 설립
1917년	충무로3가, 초동에 수좌(壽座) 개관(후에 경성촬영소)
1918년	단성사를 개축하여 영화상설관으로 하고 관현악단 구비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연쇄극(連鎖劇) 「의리적 구투」를 단성사에서 상영(촬영장면: 장충단과 남대문)
1919년	벨기에 영사관건물을 일본의 횡빈생명보험회사(橫濱生命保險會社)에 매각하고, 충무로 1가 18번지로 이전
1920년 6월 16일	경기도청에서 본정통1정목 ~ 2정목의 교통혼잡을 정리하기 위해 교통순경을 배치하고, 오후 4시~10시까지 차량통행을 금한다는 시책 발표
1921년 2월 21일	경성부 본정 2정목 92번지에 한성은행 본정파출소(조흥은행 명동지점의 전신) 개점
1921년 7월 18일	한성은행 본정파출소를 본정 2정목 89번지로 이전
1921년 8월 1일	등전장태랑(藤田長太郎)이 저동 2가 79번지에 일용품 소매의 영락정시장 허가
1921년 9월 1일	본정 2정목의 한성은행 본정파출소가 본정출장소로 승격
1921년	남대문로 2가에서 소림(小林)양복점 개업. 1929년에 미도파백화점 자리에 조지아(丁字屋)백화점 건립
1922년	충무로 1가 45번지(전 원호청 건물)에 의류전문백화점 미나카이(三井)백화점 설립
1922년	중구 저동에 중앙관(현 중앙극장)이 개관
1923년 10월 27일	최초의 극영화 「월화의 맹세」가 경성호텔에서 상영
1923년	황금관(국도극장) 경영주 하야카와(早川孤舟)가 동아문화협회를 설립하고 「춘향전」 제작

영화의 메카 충무로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다방의 효시가 되는 후다미(二見)다방이 본정과 명치정에 세워지고, 본정2정목 진고개의 식료품점 가메야(龜玉) 안에 금강산 다방 개업
1924년	경성부 황금정(현 을지로 1가)에 <이필우 시계포> 개설
1924년 8월 1일	한성은행 본정출장소가 본정지점으로 승격
1925년 6월	충무로 2가에 혼마치(本町)빌딩 신축. 철근콘크리트조와 목조·조적조가 혼합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내에서 최초로 빌딩이라는 명칭 사용
1925년 10월 15일	남산 신궁(神宮)에 신을 모시기 위해 18일까지 4일간 본정통의 교통 제한
1926년 7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 59호 활동사진 필름검열규칙을 공포
1926년 9월 1일	민족의 영화「아리랑」에 나온 아리랑곡이 총독부에 의하여 금지곡으로 공포
1926년	신세계백화점 자리의 경성부청이 태평로 서울시청 자리로 이전하자 구 경성부청을 헐고 그 빈터를 낙천지(樂天地)로 호칭
1926년	충무로1가 51번지(현재 대연각 빌딩 자리)에 채고품을 판매하는 히라다(平田)백화점 설립
1927년 8월 1일	충무로 3가에 본정 신(新) 시장 설립
1928년 4월 1일	본정경찰서에서 본정1정목~3정목 구간은 새벽부터 오후 12시까지 자동차·자전거의 통행을 금하고, 짐수레·우차·마차는 오후 4시~10시까지 통행을 금한다고 발표
1930년 10월 17일	낙천지를 미쓰코시 오복점(三越五服店)이 불하받아 대지면적 730평, 건평 435평, 연건 평 2,300평의 4층 현대식 대형 점포 준공
1930년	최승희 제 1 회 무용발표회(경성공화당)
1930년	충무로 2가 63-1번지에 메이지제과(明治製菓) 매점 준공
1931년	영화잡지 <신흥영화> 가 충무로 2가에서 창간
1932년 5월 4일	무용가 최승희(崔承喜)가 본정연예관(本町演藝館)에서 신작 발표회 개최
1932년	의류 전문 취급점인 미나카이백화점이 충무로 1가에 현대식 3층 건물 신축
1932년	이규환 감독의 「임자없는 나룻배」 상영
1934년	본정1·2·3·4·5정회(町會) 설치
1935년 12월 2일	미쓰코시(三越)백화점 완공
1935년	충무로 1가 53번지에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 아사히빌딩 준공
1935년	연극상설관 동양극장 개관
1935년	영화상설관 와카쿠사(후에 수도극장에서 스카라극장) 개관
1935년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 상영(경성 촬영소 제작)
1936년	미국 허리우드의 명감독 <조셉 본 스타인백> 방문
1937년 8월 9일	한국영화의 선구자 「아리랑」의 춘사 나운규 별세
1937년 9월 9일	충무로의 기생 단체인 본정권번(本町券番)이 미쓰코시(三越)백화점 뒤편의 토지 2,000여 평을 매입하여 대규모 상설 영화관을 건립을 위한 설립허가서를 관계기관에 제출

1937년	충무로 2가 6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3층 규모의 공동상업빌딩 준공
1937년	<해외 영화수입금지령> 공포로 일체의 외국영화 수입 금지
1938년 9월 10일	동아일보 제 1회 시나리오 현상공모 당선작 「애련송」이 명치좌에서 개봉
1938년	한국 최초의 국내영화제가 조선일보 주최로 부민관에서 개최
1939년	영화통제를 목적으로 한 영화법이 시행. 조선영화에 일본어 사용 강요
1939년 9월 10일	동아일보 제 1회 시나리오 현상공모 당선작 「애련송」이 명치좌에서 개봉
1940년	중앙우체국 옆에 모리나가 제품판매점 모리나가 캔디스토아 건물 준공
1941년 9월 25일	와카쿠사(若草) 극장에서 「아내의 윤리」를 상영, 단제로 여성 동원
1942년	전국의 영화상설관은 153개관으로 연간 관객수는 약 2,000만 명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區) 제도 실시로 충무로 지역이 중구에 소속
1943년 6월 16일	와카쿠사 극장에서 조선영화사 제작의 「조선해협」 상영
1943년 10월 1일	한성은행과 동일은행이 합병하여 조흥은행으로 출범하게 되어 한성은행 본정지점이 조흥은행 본정지점으로 개칭

광복이후

1945년 8월 19일	윤백남을 위원장으로 '조선영화건설 본부'를 결성
1945년	창극단체 <국극사>의 창립공연을 국도극장에서 개최
1945년	「해방뉴스」를 제작. 극장에서 상영
1946년 10월 1일	서울특별자유시 헌장 제1조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으로 본정1정목은 충무로1가로, 본정2정목은 충무로2가로, 본정3정목은 충무로3가로, 본정4정목은 충무로4가로, 본정5정목은 충무로5가로 변경
1946년 10월 1일	충무로3가 30번지에 충무로3가동회, 충무로4가 136번지에 충무로4가동회, 충무로5가 59번지에 충무로5가동회 설치
1946년 10월 1일	조흥은행 본정지점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구 충무로 2가 89번지로 변경 등기
1946년 10월 21일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가 시공관에서 개봉
1946년	조선무용협회를 최초로 창립하고, 국도극장에서 창립 공연
1947년 4월 1일	조흥은행 본정지점을 충무로지점으로 명칭 변경
1947년 6월 28일	최은희의 첫 출연작 「새로운 맹세」가 국도극장에서 개봉
1947년	중구 명동의 OK 레코드회사 스튜디오에 영화녹음시설을 설치하여 이규환 감독의 「갈매기」를 녹음
1948년 5월 11일	전국 극장에 정원제 실시
1948년	16밀리 영화 「유관순」이 중앙극장에서 개봉하여 흥행에 대성공
1948년	「검사와 여선생」 상영
1948년	광복 후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미나카이 백화점 자리에 해군본부가 들어섬. 이후

영화의 메카 충무로

	원호처가 사용
1948년	조지야 백화점을 중앙백화점으로 개칭. 미군정청에서 PX로 지정하고 인원, 상품 전량을 동화백화점으로 흡수·합병
1949년 2월 9일	수도극장에서 상영한 「마음의 고향」이 제 1회 서울시 문화상 영화부문 수상
1949년 4월 9일	최초의 16밀리 천연색영화인 「여성일기」가 수도극장에서 개봉

1950년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6·25전쟁 발발. 공산군 점령으로 충무로 일대 파괴
1950년	국도극장에서 상영한 「전우」가 제 2회 서울시 문화상 영화부문상 수상
1951년 7월 19일	동화백화점 본관건물에 미군 P.X 입주
1951년 12월 1일	국방부에서 제작한 「정의의 진격」이 6.25전쟁 중 수도극장에서 상영
1952년 2월 11일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이 임시로 부산시 중앙동 소개점포에서 영업 재개
1952년 5월 23일	극장에서 낮에 영화 상영 금지
1952년	대한뉴스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 상영
1953년 3월	충무로1·2가동회가 충무로2가 9번지로 이전
1953년 4월 1일	조흥은행 충무로지점이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43번지로 복귀
1953년 12월 1일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이 중구 충무로 1가 39번지에서 본점(영업부) 충무로 예금취급소로 개업
1953년	문교부 주관으로 제1회 연극경연대회 개최
1954년 3월 20일	국산영화의 장려책으로 국산영화에 전면적인 면세조치(법률제329호)
1954년 3월	충무로 1·2가동회가 충무로2가 9번지로 이전
1954년 5월 10일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이 중구 충무로 2가 89번지로 신축 이전
1954년 9월 16일	최초의 공군영화 「출격명령」이 시공관에서 상영
1954년 10월 1일	조지야 백화점이 한국인에 의하여 백화점의 전신인 미도파 매장으로 개점
1954년 11월 29일	미군으로부터 동화백화점을 정식 명도 받음
1954년 12월 14일	최초의 키스영화 「운명의 손」이 수도극장에서 개봉
1955년 1월 16일	국도극장에서 「춘향전」이 한국 영화의 중흥을 일깨우는 대흥행
1955년 2월 20일	충무로 1가에 동화백화점 개점
1955년 4월 18일	충무로1가, 충무로2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명동동회가 명동동사무소로 개칭
1955년 4월 18일	충무로3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남곡동사무소, 충무로4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충인동사무소, 충무로5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야현동사무소 설치,
1955년 5월 27일	최초의 여류감독 박남옥의 「미망인」이 중앙극장에서 상영
1955년 6월 20일	「열애」에 출연한 이금룡이 촬영 완료 전 사망. 중앙극장에서 영화인장으로 영결식 거행
1955년 9월 23일	빨치산 묘사에 용공성 시비로 「피아골」 검열 후 국도극장에서 상영

1956년 1월 15일	유현목 감독의 첫 감독작 「교차로」가 국도극장에서 개봉
1956년 5월 5일	한국영화인연합회 주최로 국내 최초로 영화스틸전이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개최
1956년 6월 9일	정비석 원작 「자유부인」이 45일간 수도극장에서 장기 흥행
1956년 6월 9일	동화백화점 4층에 영화상설관 [동화영화관] 개관
1956년 5월 12일	HLKZ TV 방송국이 최초로 상업방송국으로 개관
1957년 2월 7일	1956년 수도극장에서 상영한 「시집가는 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4회 아세아영화제에서 특별회극상을 수상
1957년 4월 7일	중구 저동에 한국배우전문학원 설립
1957년 5월 6일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이 충무로 2가 49-11번지 조양빌딩에서 개점
1957년 8월 26일	명보극장이 첫 개관하여 미국 영화 「상류사회」를 상영
1957년 9월 6일	충무로 1가 23-1번지에 사보이 호텔 개관
1957년 10월 15일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청실홍실」이 영화화 되어 국도극장에서 개봉
1957년 10월 31일	김지미와 아역배우 안성기가 처음 첫 출연한 「황혼열차」가 국도극장에서 개봉
1958년 1월 1일	광복 이후 최초로 외국과 합작한 「천지유정」이 국도극장에서 개봉 영화관 초동극장(중구 초동 97번지)이 재개봉관으로 개관
1958년 2월 6일	김수용 감독의 첫 감독작 「공처가」가 국도극장에서 상영
1958년 7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생명」이 수도극장에서 상영 영화배우협회 주최로 시공관에서 제1회 ‘스타의 밤’ 개최
1958년 4월 20일	동양최대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한극장이 외화 「잊지 못할 사랑」으로 첫 개관
1958년	시공관에서 서울 오페라단이 「춘향전」 공연
1958년	시공관에서 고복수 은퇴 공연
1959년 3월 19일	시공관에서 반공예술인단 결성
1959년 4월 30일	존 포드 감독 기록영화 촬영차 한국 방문
1959년	중구 을지로2가의 개봉관 을지극장(후에 파라마운트)이 외화 「잊을수 없는 모정」을 첫 상영
1959년 4월 10일	전창근 감독의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이 학생관람 동원으로 국도극장에서 대 흥행
1959년 7월 18일	명보극장에서 상영한 「10대의 반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성기 아역상 수상
1959년	최초의 광고방송 노래 <진로 소주>가 극장에서 본격적으로 홍보
1959년	극장에서 뉴스영화 상영을 의무화
1959년	메트로호텔 개관

1960년대

1960년 1월 28일	춘원 이광수의 「흙」영화가 국도극장에서 장기 상영
1960년 1월 28일	김영수 극본 「박서방」이 KBS 라디오 드라마로 크게 인기 상승
1960년 4월 9일	명보극장에서 상영한 「로맨스 빠빠」가 일본에서 개최된 제7회 아세아영화제에서 김승호가 남우주연상을 수상
1961년	제11회 베를린영화제에서 「마부」가 특별한곰상 수상.
1961년 1월 28일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 명보극장에서 최고의 관객을 동원
1961년 4월 13일	국제 극장에서 상영된 「오발탄」이 당국의 재검열 지시로 상영 중단
1961년 5월 16일	5.16군부쿠데타로 서울시내 각 극장에 대하여 5일간 상영 정지령
1961년 11월	충무로4가에 아테네 극장(현 극동)개관
1961년	최초의 70밀리 대형영화 「남태평양」이 대한극장에서 상영
1962년 2월 1일	대한극장에서 70밀리 「벤허」 개봉
1962년 2월 20일	임권택 감독 첫 작품 「두만강아 잘 있거라」가 국도극장에서 개봉
1962년 3월 30일	공보부가 제정한 제1회 대중상을 시공관에서 거행
1962년 4월 10일	연극 전문극장인 드라마센터 개관
1962년 9월 13일	수도극장을 스카라 극장으로 개명
1962년 9월	동화백화점의 소유권이 동방생명으로 이전
1962년 10월 25일	제일은행 충무로지점 중구 충무로 2가 64-5번지 한일빌딩으로 이전
1963년 4월 13일	전쟁영화의 명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국도극장에서 장기 상영
1963년 11월 12일	삼성이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동화백화점을 흡수하고,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 변경
1963년	‘영화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1919년 「의리적 구투」가 상영된 날인 10월 27일로 기념일 결정
1963년	영화 「오발탄」 상영금지 해제
1964년 3월 27일	신상옥 감독의 「빨간 마후라」가 명보극장에서 상영
1964년 5월 12일	충무로 2가에 합동영화주식회사(곽정환 사장) 설립
1964년 5월	민간 텔레비전의 선구자인 동양TV방송사가 신세계백화점 4, 5층으로 사옥을 이전
1964년 8월 30일	「동백아가씨」가 을지극장에서 상영하여 이미자의 주제가가 크게 유행
1964년 12월 7일	동양TV방송사가 신세계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TV)전파 발사
1964년	현동춘 편집실을 설립
1965년 7월 30일	명보극장에서 상영한 「7인의 여포로」가 반공법 위반으로 이만희 감독을 구속 기소.
1965년 9월 10일	대한극장에서 전쟁영화 「사상최대의 작전」이 개봉
1965년	중구 예장동에 영화 녹음하는 한양스튜디오 개관
1966년 1월 23일	남정임 첫 출연작 「유정」이 국도극장에 상영함
1966년 4월 1일	중구 을지로4가에 영화 자막을 전담하는 효성자막상사(사장 명형여)를 설립
1966년 5월 27일	충무로4가에 김태수 사장이 태창영화주식회사를 설립

1966년 12월 12일	이만희 감독 영상미 영화 「만추」가 명보에서 상영
1966년 12월 20일	충무로 2가 61-3번지에 세종호텔 개관
1966년	공보부에서 스크린 쿼터제(국산영화상영 의무제)를 실시
1967년 1월 23일	최초의 본격 만화영화 「홍길동」이 대한극장에서 개봉
1967년 2월 11일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8도 강산」이 국도극장에서 상영
1967년 3월 5일	최초의 홍콩 무협영화 「방랑의 결투」가 을지극장에서 상영
1967년 3월 5일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는 '리버트 뉴스' 제작 중단
1967년 6월 24일	중구 주자동에 동아수출공사(이우석 사장) 설립
1968년 7월 21일	국도극장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 상영되어 흥행 크게 성공
1968년 9월 5일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이 대연각 빌딩(중구 충무로 1가 25-5번지)에서 개점
1968년 9월 18일	한일은행 퇴계로 지점 충무로 4가 125-1번지에서 개점
1968년 11월 1일	충무로3가의 영화배우협회에서 영화배우 김승호를 영화인장으로 치름
1968년 12월 13일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닥터 지바고」가 대한극장에서 상영
1968년	최초로 코카콜라 광고가 극장에서 상영
1969년 6월 27일	제일은행 명동지점 중구 충무로 2가 66-6에서 개업
1969년 8월 8일	문화방송(MBC)-TV 개국
1969년 10월 28일	충무로3가에 영화제작사 삼영필름 설립
1969년	한국영화 연간 229편 제작

1970년대

1970년 1월 1일	대한극장에서 세기의 대작 「아라비안 로렌스」 개봉
1970년 5월 18일	충무로3가동사무소 · 충무로4가동사무소 설치
1971년 1월 27일	한국 최초의 70밀리 대형영화 「춘향전」이 스카라 극장에서 상영
1971년 4월 9일	조흥은행 충무로지점이 환지(換地)로 인해 중구 충무로2가 62-1로 변경 등기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호텔 화재로 156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함
1972년 2월 28일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이 충무로 1가 24-23번지 은정빌딩으로 이전
1972년 8월 6일	중구 저동에 있는 태창영화사에서 「무녀도」 배역으로 김지미 고소
1972년 5월 16일	조선호텔에서 제18회 아시아 영화제 개최
1973년 1월 1일	국책영화 「중언」이 국도극장에서 52일간 상영
1973년 5월 2일	충무로 4가 삼풍상가 4층에 영화배급협회를 개설
1974년 3월 25일	「별들의 고향」이 105일간 국도극장에서 장기 상영
1974년 7월 18일	대연각빌딩이 복구되어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이 은정빌딩에서 재이전
1975년 1월 2일	조양은을 중심으로 한 무교동의 호남과 어깨가 명동과 어깨 신상사과를 급습한 「사 보이 호텔 기습사건」 발생

영화의 메카 충무로

1975년 2월 8일	최초의 인도영화 「신상」이 중앙극장에서 상영
1975년 3월 1일	스카라극장에서 상영중인 「소녀」가 검열에 없었던 장면 상영으로 무기한 상영금지 처분
1975년 4월 13일	이만희 감독 간경화증으로 별세
1975년 6월 5일	한국상업은행 퇴계로지점이 충무로 1가 24-1번지에서 개점
1975년 10월 1일	을지로3가동사무소에서 충무로3가지역, 충무로4·5가동사무소에서 충무로4·5가 지역의 행정 관할
1975년 11월 28일	영화예고편 중 「장미와 들개」의 검열 삭제부분을 스카라 극장에서 학생 단체입장시 상영하여 신상옥 감독의 신 프로덕션 영업허가 취소
1975년	충무로1·2가와 충무로3·4가를 분할하는 3·1고가도로 설치
1976년 1월 20일	소설가 최인호가 감독한 「건지말고 뛰어라」가 국도극장에서 개봉
1976년 5월	충무로의 영화인이 총 999명이라고 발표(연기: 148 감독: 143 시나리오: 121 촬영: 56 기획: 45 기술: 102 음악: 50)
1977년 3월 17일	「고교알개」 영화가 국도극장에서 학생들에게 크게 인기 상영
1977년 9월 1일	필동사무소에서 충무로3가지역의 행정을 관할하게 됨
1977년 11월 23일	충무로의 성격배우 이예춘이 고혈압으로 사망
1978년 7월 5일	영화진흥공사 내에 한국필름보관소(현 영상자료원)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1978년 7월 18일	조흥은행 중앙지점이 충무로 3가 60-1번지(극동빌딩)으로 이전
1978년 9월 26일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충무로1가동·충무로2가동·저동 일대 95,850㎡이 도심재 개발구역으로 지정
1979년 2월 28일	스카라 극장에서 상영 중인 「병태와 영자」의 감독 하길종이 38세로 요절
1979년 8월 17일	충무로3가의 한국배우전문학원이 23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문

1980년대

1980년 3월 5일	충무로 소재 각 영화사 동시녹음 제작시설 확충
1980년 3월 5일	1971년 전국 717개관이던 극장을 425관으로 축소
1980년 4월 25일	대한극장 버스정거장에서 시나리오 작가 유한철씨 사망
1980년 6월 2일	스카라 극장이 영사기와 사운드 시스템을 현대 기재로 교체
1980년 11월 27일	이장호 감독이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바람 불어 좋은날」을 명보극장에서 상영
1980년	중앙우체국 청사 건립
1981년 2월 7일	1977년 검열을 마친 종교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연예인교회 건립기금으로 명보극장에서 상영
1981년 4월 9일	불황타개의 일환으로 대한극장이 도시바 70밀리 음향기 설치 등 시설 보수

1981년 12월 11일	버스 안내양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중앙극장에서 상영중인 「도시로 간 처녀」 상영 중지
1982년 3월 17일	불황 타개를 위해 스카라 극장에서 심야에 안성기와 김보연의 사회로 나이트쇼와 「엄마 결혼식」을 상영
1982년 10월 28일	서울 시내 영화관 74개 영업
1983년 8월 30일	영화인협회가 드라마센터에서 ‘우리 영화재건을 위한 영화인 토론회’ 개최
1984년 6월 11일	충무로3가 소재 태흥영화사가 불교계의 반발로 「비구니」 제작 포기
1985년 3월 1일	「깊고 푸른 밤」이 명보극장에서 153일간 상영, 49만 5천 명의 관객 동원
1985년 5월 1일	견지동에 있던 체신기념관을 중앙우체국 4층으로 이전하면서 우정박물관으로 개칭
1985년 5월 13일	무성영화시절 명 번사이며 국도극장의 산증인인 성동호 별세
1985년 12월 7일	충무로3가 지하철역에서 ‘한국영화사진전시회’ 개최
1986년 1월 10일	청계천4가의 개봉관인 아세아극장 폐관
1986년 2월 18일	신한은행 충무로지점 중구 충무로 2가 62-10번지에서 개점
1987년 2월 23일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롯데호텔에서 「안개기둥」 스크린 디너쇼 개최
1987년 9월 21일	제 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씨받이」의 강수연이 최우수 여우상을 수상
1987년 12월 21일	제26회 대중상 시상식이 대한극장에서 개최
1988년 9월 24일	충무로3가 감독협회에서 UIP 직배 저지 농성 후 명동 코리아극장 앞에서 항의 시위
1989년 3월 25일	「서울 무지개」가 국도극장에서 84일간 상영, 26만 명의 관객으로 서울 개봉관 흥행 1위 차지
1989년 4월 8일	최고의 대작 「간디」가 명보극장에서 상영
1989년 5월 25일	구 제일은행 본점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
1989년 8월 19일	대원빌딩 8층에 영화배우 신성일이 성일시네마트 영화사 설립
1989년 9월 3일	코리아 극장에 뱀 투입 혐의로 정지영 영화감독이 「남부군」 촬영중 구속

1990년대

1990년 6월 3일	춘사 나운규의 「아리랑」의 여배우 신일선 별세
1990년 8월 5일	충무로 2가 61번지에 세종서적 개장
1990년 9월 15일	남산에 있던 한국필름보관소(현 영상자료원)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
1990년 12월 28일	제1회 춘사영화상을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
1991년 1월 1일	문화부는 1월의 인물로 무성영화 「아리랑」을 만든 춘사 나운규를 선정
1991년 4월 21일	‘연극·영화의 해’ 행사로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한국영화포스터 전시회 개최
1991년 7월 16일	중구 인현동2가에 풍전극장 개관
1992년 1월 25일	제1회 황금촬영상 시상식을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개최
1992년 6월 14일	시나리오 작가위원회에서 작가 양성을 위한 ‘영상작가교육원’을 개설
1992년 2월 1일	김지미가 제작 주연한 「명자 아끼꼬 소냐」가 명보극장에서 상영

영화의 메카 충무로

1992년 9월 2일	유방암으로 4 년간 투병한 1960년대 3두마차 여배우 남정임 별세
1992년 9월 25일	제5회 동경국제영화제에서 「하얀전쟁」이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
1992년 11월 23일	신한은행 충무로지점이 중구 충무로 2가 65-4번지로 이전
1992년 11월 23일	목정공원(충무로5가 21번지)에 지상 2층, 지하 5층의 주차장 건설
1993년 2월 12일	영화배우 신영균이 한국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예총) 회장으로 당선
1993년 4월 10일	「서편제」가 단성사에서 196일간 84만 6.427만명의 관객을 동원
1993년 9월 2일	「피아골」을 감독한 이강천 영화 원로 별세
1993년 10월 13일	1932년부터 1969년까지를 수록한 ‘한국의 영화포스터’가 최초로 출간
1994년 3월 5일	영화산업의 불황여파로 전국의 극장 (상설 242관, 소극장 427관)이 지난해에 43 관 이 폐관하여 모두 669관으로 집계
1994년 3월 12일	광복과 함께 제작된 대한뉴스가 ‘조선일시보’ 와 ‘대한전진보’로 명명타가 TV의 보급으로 종영
1994년 8월 2일	1963년 국도극장에서 상영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녹화로 복원하여 출시
1994년 8월 13일	명보극장이 복합극장인 명보 프라자로 총 5개 상영관으로 새단장
1995년 4월 21일	활극 배우로 명성을 날린 박노식이 당뇨병으로 별세
1995년 5월 30일	영화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인기배우 김지미를 선출
1995년 7월 16일	「피아골」로 첫 출연한 영화배우 노경희가 을지병원에서 숙환으로 타계
1995년 7월 24일	남산에서 19년간 위치한 영화 진흥공사가 홍릉으로 이전
1996년 7월 12일	총 715석의 좌석으로 스카라극장이 새단장으로 면모를 일신
1996년 9월 11일	자유와 평화의 갈망을 그린 「알바르로스」의 특별시사회를 국도극장에서 개최
1996년 12월 21일	23 년 만에 「파리에서 마지막 탕고」가 국도극장에서 상영
1997년 3월 3일	세종호텔에서 이경순 『영화녹음 50년』 회고록 출판기념회 개최
1997년 8월 29일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개막
1997년 11월 5일	서울종합촬영소가 착공 6 년 7 개월 만에 총 65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
1998년 2월 5일	「하녀」의 명감독 김기영이 불의의 사고로 타계
1998년 3월 1일	배우협회 상임고문이며 원로배우인 전택이 숙환으로 별세
1998년 6월 18일	「오발탄」의 주인공 김진규가 지병인 골수암으로 타계
1998년 11월 24일	영화배우 문성근이 대표로 있는 ‘충무로 포럼’이 「정부의 영화정책」이란 주제로 서울 영상벤처센터에서 개최
1998년 12월 5일	광복후 최초로 수입된 일본영화 「하나비」 상영
1999년 1월 20일	삼성 · 현대 · 대우 등 대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충무로의 영화사들 제작비 확보에 고심
1999년 11월 19일	『월간조선』이 뽑은 20세기 한국 최고영화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과 최고의 감독 으로 임권택 선정
1999년 12월 1일	강제규 감독의 「쉬리」가 서울 관객 240만 명을 동원, 전국은 600만 명으로 집계
1999년 12월 1일	조흥은행 충무로 지점 폐쇄. 명동지점으로 업무 통합

< 주(註) >

- 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1966, 276쪽.
-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 중구편, 1992, 382쪽.
- 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 중구편, 1992, 384~382쪽.
- 4)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25년의 발자취』, 1987, 49쪽.
- 5)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25년의 발자취』, 1987, 49쪽.
- 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0, 450쪽.
- 7)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25년의 발자취』, 1987, 80쪽.
-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 중구편, 1992, 388 ~ 389쪽.
- 9)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서울편), 1987, 155쪽.
- 10)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第宅條.
- 11) 李裕元 『林下筆記』 권32, 旬一編.
- 12) 金永上, 『서울六百年』, 대학당, 1994, 40 ~ 41쪽.
-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 중구편, 1992, 391 ~ 392쪽.
- 14)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第宅條.
- 1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Ⅱ) 중구편, 1992, 392쪽.
- 1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1966, 276쪽.
- 17) 정조실록 권 24, 정조 11년 8월 辛酉條.
- 18)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서울편), 1987, 241쪽.
- 19) 순종실록 권 3, 순종 2년 12월 22일.
- 20) 「조선일보」1996년 5월 13일자. <풍운의 세계인 서재필>.
- 2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1966, 277쪽.
- 22) 홍한선, 「“충무로” 테마가 있는 거리」, 『中區文化』 제7호, 2003, 21 ~ 22쪽.
- 23) 「조선일보」 2002년 3월 12일자. / ‘영화계 脫충무로’ 영화사 70% 압구정역 주변 몰려, 新시네마 천국’ 강남…제작지원-투자사도 몰려
- 24) 「조선일보」 2001년 11월 5일자 / 충무로 맛집들… 싸고 푸짐한 집 수두룩
- 2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1966, 277쪽.
- 2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1966, 277쪽.
- 2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279쪽.
- 28) 洪良浩, 『耳溪集』
- 29) 중구문화원, 『서울의 남산의 역사와 문화』, 1998, 201쪽.
- 30) 「조선일보」 1996년 1월 26일자. 연재소설 <광화문>
- 3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974쪽.
- 32) 태종실록 권 16, 태종 16년 5월 己酉條.
- 33) 선조실록 권 201, 선조 39년 7월 癸巳條.
- 34) 예종실록 권 6, 예종 1년 7월 癸卯條.

- 35) 성종실록 권2, 성종 7년 7월 戊寅條.
- 36) 연산군일기 권57, 연산군 11년 1월 辛卯條.
- 37) 중종실록 권 21, 중종 10년 3월 庚辰條
- 38) 중종실록 권 46, 중종 17년 10월 己卯條
- 39) 중종실록 권 52, 중종 19년 10월 甲寅條.
- 40) 중종실록 권72 중종 26년(1531) 12월 己丑條.
- 41) 중종실록 권85, 중종 32년 10월 癸酉條.
- 42) 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 2월 壬寅條.
- 43)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壬辰條.
- 44) 柳成龍, 『懲毖錄』 권2, 壬辰 4월 20일.
- 45)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정월 丙申條.
- 4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2권, 1978, 63쪽.
- 47) 선조실록 권33, 선조 34년 1월 壬寅條.
- 48) 광해군일기 권 55, 광해군 4년 7월 癸巳條. 광해군 4년 7월 庚子條.
- 49) 숙종실록 권 11, 숙종 7년 2월 丙午條.
- 50) 영조실록 권 95, 영조 36년 2월 己丑條.
- 51) 정조실록 권 16, 정조 7년 7월 丁未條.
- 52)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第宅條.
-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 54) 중구문화원, 『서울 남산의 역사와 문화』, 1998, 202~205쪽.
-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 5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344쪽.
- 57) 『한국현대사』Ⅱ, 신구문화사, 62쪽.
- 5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308쪽.
- 59) 『朝鮮と建築』, 昭和 12년(1937), 11월호, 54쪽. 黃玟, 『梅泉野錄』 卷1, 上, 癸未條.
- 60) 『京城府史』 第2卷에 보면 경성영사관 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영사관) 청사는 명치 18년(1885) 이래로 조선인 가옥을 사용해 온 것이므로 그 규모가 극히 협소하여 집무상 불편함이 적지 않았으므로 다른 곳에 신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 명치 28년(1895) 7월에 그 위치를 선정하고 그 자리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옥에 대한 退去料 지불도 마쳤다. 당시에는 부지의 구입이라는 관례가 없었으며 가옥을 매수하면 그에 딸린 토지는 당연히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領事는 청사 내의 장식 기타 전부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7월 7일부터 이전, 집무를 개시하였으며 경찰관서·순경합숙소 및 남대문과 용산의 양 경찰관파출소는 翌 30년(1897) 1월 1일에 모두 이전하였다. 영사관의 위치는 진고개와 남대문의 중앙 즉 오늘날의 本町(충무로) 1가 입구로서 현 三越 京城支店과 貯蓄銀行이 자리잡고 있는 부지의 전부와 그 후방 일대의 지점이다.」
- 61)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171쪽.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744쪽.
- 62)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825쪽.
- 63) 新世界百貨店 『新世界 25년의 발자취』, 1987, 49쪽.
- 6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501쪽.
- 65) 『朝鮮史』 6편, 4호, 712쪽.
- 6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306쪽.

- 67) 『朝鮮の建築』, 1937년 11월호, 54쪽.
- 6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洞名沿革攷』Ⅱ(중구편), 1992, 511쪽.
- 69) 세종실록 권 103, 세종 26년 정월조.
- 7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1권, 1977, 327쪽.
- 71) 『漢京識略』 권2, 關外各司.
- 7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279쪽.
- 7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974쪽.
- 7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洞名沿革攷』Ⅱ 중구편, 1992, 397쪽.
- 75) 『東州集』詩集 권18.
- 76) 黃玿, 『梅泉野錄』 卷1 上, 癸未條.
- 77)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548쪽.
- 78) 『日本外交文書』 第18卷, 문서번호 205호, 明治 18년 3월 12일, 『京城開市區域件』.
- 79) 「이번 朝鮮政府에서는 同國 漢城을 開市場으로 定하였는 바 금년 3월 13일 이후 이곳에 渡船 通商할 수 있게 되었음을 右 告示하는 바임. 明治 18년 5월 4일 外務卿 伯爵 井上馨」(京城府, 『京城府史』 第2卷, 1936, 576쪽.)
- 80) 진단학회, 『韓國史』 현대편, 752~755쪽.
- 81) 京城府, 『京城府史』 제1권, 1925, 730~731쪽.
- 82) 外記 권2, 乙未年 8월 25日條.
- 83) 서울의 일본인거류지역은 이른바 거류지가 아니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조선인과 그 밖의 외국인이 잡거(雜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일본영사관에 특허신청을 했으며, 또 일본영사관은 무슨 권한으로 이를 특허했는지 알 수 없다. 아마 사실상에 있어 진고개 좌우 일대의 지역이 일본인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처럼 되어 있었고, 일본영사관은 한국정부를 어느 정도 무시한데서 이루어진 월권행위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286쪽).
- 84)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713~714쪽.
- 85)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789~790쪽.
- 86) 손정목,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행태와 일본정부의 거류민 정책」, 『鄉土서울』 제37호 1979, 11쪽.
- 87) 비숍(이인화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1995, 58쪽.
- 88)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633~634, 649~650쪽.
- 8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1,142쪽.
- 90) 중구문화원, 『남산의 역사와 문화』 (24)진고개, 1998, 201쪽.
- 91) 孫禎睦, 「日帝下 서울南村・北村의 形成과 實態」, 서울鄉土史學術大會, 1985, 58쪽.
- 92) 孫禎睦, 「日帝下 서울南村・北村의 形成과 實態」, 서울鄉土史學術大會, 1985, 68쪽.
- 93)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6, 573~574쪽.
- 94) 손정목,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행태와 일본정부의 거류민 정책」, 『鄉土서울』 제37호, 1979, 30쪽.
- 95) 건국대학교출판부,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사쿠라이(柵瀬軍之佐) 저, 『조선시사(朝鮮時事)』편, 1993, 293~298쪽.
- 96) 이경재, 『서울정도 육백년』3, 진고개, 1994, 53 ~ 63쪽.
- 97) 이규태, 『세상에 불쌍한 조선 너편네』 <개화백경 4>, 신태양사, 44 ~ 45면.
- 98) 이규태, 『개화백경 한국인의 맥』(8), 한국출판공사, 1986, 373 ~ 374면.
- 99) 이규태, 『개화백경 한국인의 맥』(9), 한국출판공사, 1986, 302 ~ 303면.

영화의 메카 충무로

- 100) 이규태, 『개화백경 한국인의 맥』(9), 한국출판공사, 1986, 303 ~ 304면.
- 101) 가와무라 미나토, 『漢陽·京城 서울을 걷다』, 2004, 64면.
- 102) 이해은,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 1935년을 중심으로, 지리학, 제29호, 1984, 20 ~ 36쪽.
- 103)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76 ~ 79쪽.
- 104) 김태웅, 「1910년대 경성부 유통체계의 변동과 한상의 쇠퇴」, 『서울의 상업사』, 태학사, 2000, 453 ~ 483쪽.
- 105)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24, 76~79쪽.
- 106) 정재정 외 2인,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1998, 220~221쪽.
- 10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501~503쪽.
- 108) 신명직, 『모던보이 京城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22~29쪽.
- 109) 「동아일보」 1920년 6월 16일자 3면.
- 110) 「동아일보」 1920년 6월 25일자 2면.
- 111) 「동아일보」 1925년 10월 15일자 2면.
- 112) 「동아일보」 1928년 3월 29일자 2면.
- 113) 「동아일보」 1921년 7월 9일자 3면.
- 114) 「조선일보」 1937년 9월 9일자 석간.
- 115) 가와무라 미나토, 『漢陽·京城 서울을 걷다』, 2004, 110~114면.
- 116) 가와무라 미나토, 『漢陽·京城 서울을 걷다』, 2004, 106면.
- 117) 정재정 외 2인,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1998, 220~221쪽.
- 11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501~503쪽.
- 119) 香月源太郎, 『韓國案内』, 1902, 87쪽.
- 120) 柵瀬軍之佐, 『朝鮮時事』, 23쪽.
- 121) 동아일보사, 『韓國百年』, 1978, 102쪽.
- 122) 조선신문사, 『大京城都市大觀』, 1937, 177쪽.
- 123) 경성조사회, 『大陸之京城』, 1918, 678쪽.

중구문화원 임원



고문 성 낙 합
중구청장



고문 김 동 학
중구의회의장



명예원장 김 영 남
(전) 문화원장



원장 남 상 만
서울 프린스호텔 • 대림정 회장



부원장 강 응 호
서울남대문시장(주) 사장



이사 조 상 기
상원사 대표



이사 최 중 문
(전) 타워호텔 대표이사



이사 최 병 환
중구의회 행정 보건위원장



이사 강 중 필
중구 행정관리국장



이사 홍 한 선
중부 거북상조회 회장



이사 서 정 호
엠버서더호텔 회장



이사 문 성 훈
오장동 함흥냉면 대표



이사 김 정 희
동심 대표



이사 안 명 속
계산산업(주) 대표이사 회장



이사 김 종 진
공인회계사



이사 최 우 정
남양유업 서울총판 대표



이사 김 용 빈
대종상가 사장



이사 박 경 재
일진페이퍼(주) 대표이사



이사 최 오 규
영강 대표



이사 정 관 희
진고개 대표



이사 장 원 진
대도은남상가 회장



감사 장 순 화
킴패션 회장



감사 길 재 성
길재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무국장 김 기 태
(전) 중구 행정관리국장

향토사 연구 위원회



위원장 남 상 만
중구문화원장



이사 조 상 기
상원사 대표



자문위원 김 선 풍
중앙대학교 민속학과교수



자문위원 박 경 룡
서울역사문화포럼 회장



자문위원 정 종 화
영화정보센터 대표



사무국장 김 기 태
(전) 중구 행정관리국장



중구문화체육 과장 윤 석 철



간사 김 동 주
중구문화원 총무과장

〈집필관계〉

- ◇ 박경룡(朴慶龍) : 제1장 · 제2장 · 제3장 일부
- ◇ 정종화(鄭宗和) : 제3장 일부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중구향토사 자료총서(中區郷土史資料叢書)

제1집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

제2집 중구 사화(中區史話)-중구문화유적에 얽힌 이야기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제4집 서울중구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제5집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제6집 중구의 구전설화

제7집 명동변천사

제8집 중구의 축제

제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영화의 메카 충무로

중구향토사 자료 제 9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중구문화원장 남 상 만

기 획 :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 기 태

집 필 : 박 경 룡 · 정 중 화

발행일 : 2005년 2월 25일

제 작 : 상 원 사

© 중구문화원. 2005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 B/D 1층

전 화 : (02) 775-3001 FAX : (02) 775-3068

E-mail : cc100@junggu.seoul.kr

이 책은 중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